

# 제47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18년 2월 2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109호(제1학회장), 108호(제2학회장)  
 주제 : 국어 연구에서의 통사론-연구 대상 및 방법의 탐색  
 주최 : 한말연구학회  
 주관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후원 : 건국대학교

개회식(제1 발표장)		사회: 윤혜영(한라대)	
9:50 ~ 10:50	등록 및 접수		
10:10	개회 학회장 인사말 : 허원욱(건국대)		
제1부	<제1 분과> 국어사	<제2 분과> 음성과 형태	
	제1 발표장	제2 발표장	사회: 오재혁(건국대)
	사회: 최홍열(강원대)	사회: 오재혁(건국대)	
10:20 ~ 10:50	여성이 훈민정음 발달에 끼친 영향에 대한 관점 재론 김슬옹(세종대학교육원)      김정호(건국대)	한국어 / ㅍ/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 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 신우봉(제주대)      하여영(카이스트)	
10:50 ~ 11:20	17세기 국어의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최대희(제주대)      정수현(건국대)	혼성어 생성 기제에 대한 연구 김병건(건국대)      김한샘(연세대)	
휴식 : 11:20~11:30			
제2부	특 강	제1 발표장	사회: 김홍범(한남대)
11:30 ~ 12:20	기능 중심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새로운 한국어 문법 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 유현경(연세대)		
점심 : 12:20~13:40			
제3부	주제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김용경(경동대)
13:40 ~ 14:20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과 한국어 통사론-표찰 알고리즘과 한국어- 김용하(안동대)	박소영(부산대)	
14:20 ~ 15:00	기능적·유형론적 관점에서의 통사론 연구 방법론 박진호(서울대)	이선웅(경희대)	
15:00 ~ 15:40	언어 직관과 실험 통사론 조용준(건국대)	이용훈(충남대)	
휴식 : 15:40~16:00			
제4부	<제3 분과> 글쓰기교육	<제4 분과> 한국어교육	
	제1 발표장	제2 발표장	사회: 정대현(협성대)
	사회: 한성일(성균관대)	사회: 정대현(협성대)	
16:00 ~ 16:40	문법 장치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김남미(홍익대)      한명숙(안양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산출 연구 최영미(경동대)      김주연(건국대)	
16:40 ~ 17:20	대학 글쓰기 교재의 유형과 개선 안신혜(송담대)      원흥연(경동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계절 교수 방안 박철웅(한국외대)      이철재(국방어학원)	
< 폐회 >			

한 말 연 구 학 회







# 제47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18년 2월 2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109호(제1학회장), 108호(제2학회장)

주제 : 국어 연구에서의 통사론-연구 대상 및 방법의 탐색

주최 : 한말연구학회

주관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후원 : 건국대학교

개회식(제1 발표장)		사회: 윤혜영(한라대)	
9:50 ~ 10:50	등록 및 접수		
10:10	개회 학회장 인사말 : 허원욱(건국대)		
제1부	<제1 분과> 국어사		<제2 분과> 음성과 형태
	제1 발표장	사회: 최홍열(강원대)	제2 발표장      사회: 오재혁(건국대)
10:20 ~ 10:50	여성이 훈민정음 발달에 끼친 영향에 대한 관점 재론 김슬옹(세종대학교육원)      김정호(건국대)	한국어 / ㅍ/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 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 신우봉(제주대)      하여우(카이스트)	
10:50 ~ 11:20	17세기 국어의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최대희(제주대)      정수현(건국대)	혼성어 생성 기제에 대한 연구 김병건(건국대)      김한샘(연세대)	
휴식 : 11:20~11:30			
제2부	특 강		제1 발표장      사회: 김홍범(한남대)
11:30 ~ 12:20	기능 중심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새로운 한국어 문법 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 유현경(연세대)		
점심 : 12:20~13:40			
제3부	주제 발표		제1 발표장      사회: 김용경(경동대)
13:40 ~ 14:20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과 한국어 통사론-표찰 알고리즘과 한국어- 김용하(안동대)		박소영(부산대)
14:20 ~ 15:00	기능적·유형론적 관점에서의 통사론 연구 방법론 박진호(서울대)		이선웅(경희대)
15:00 ~ 15:40	언어 직관과 실험 통사론 조용준(건국대)		이용훈(충남대)
휴식 : 15:40~16:00			
제4부	<제3 분과> 글쓰기교육		<제4 분과> 한국어교육
	제1 발표장	사회: 한성일(성균관대)	제2 발표장      사회: 정대현(협성대)
16:00 ~ 16:40	문법 장치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김남미(홍익대)      한명숙(안양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산출 연구 최영미(경동대)      김주연(건국대)
16:40 ~ 17:20	대학 글쓰기 교재의 유형과 개선 안신혜(송담대)      원흥연(경동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계절 교수 방안 박철웅(한국외대)      이철재(국방어학원)
< 폐회 >			

한 말 연 구 학 회



# 차 례

## 【제1부 제1 분과 국어사】

김슬옹(세종학교육원)	여성이 훈민정음 발달에 끼친 영향에 대한 관점 재론	1
김정호(건국대)	토론	53
최대희(제주대)	17세기 국어의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55
정수현(건국대)	토론	68

## 【제1부 제2 분과 국어교육】

신우봉(제주대)	한국어 / ㅈ/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 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	71
하영우(카이스트)	토론	82
김병건(건국대)	혼성어 생성 기제에 대한 연구	84
김한샘(연세대)	토론	94

## 【제2부 특강】

유현경(연세대)	기능 중심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새로운 한국어 문법 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	97
----------	---	----

## 【제3부 주제 발표】

김용하(안동대)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과 한국어 통사론-표찰 알고리즘과 한국어	121
박소영(부산대)	토론	134
박진호(서울대)	기능적·유형론적 관점에서의 통사론 연구 방법론	137
이선웅(경희대)	토론	175
조용준(건국대)	언어직관과 실험통사론	176
이용훈(충남대)	토론	201

## 【제4부 제3 분과 글쓰기교육】

김남미(홍익대)	문법 장치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203
한명숙(안양대)	토론	219
안신혜(송담대)	대학 글쓰기 교재의 유형과 개선	221
원흥연(경동대)	토론	229

## 【제4부 제4 분과 한국어교육】

최영미(경동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산출 연구	231
김주연(건국대)	토론	257
박철웅(한국외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계절 교수 방안	258
이철재(국방어학원)	토론	269



**제1부 <제1 분과 국어사>**



# 여성이 훈민정음 발달에 끼친 영향에 대한 관점 재론

김슬옹(세종학교육원)

## <차 례>

1. 머리말
2. 조선시대 여성 한글사용의 역사적 배경
3. 역설로 본 여성의 한글 사용 양상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 한글<sup>1)</sup> 발전 역사에서 여성의 구실은 매우 컸다. ‘훈민정음’을 ‘암글’이라고 일컫는 것은 훈민정음과 여성을 함께 낮춰 보는 말이지만, 이 용어는 역설적으로 훈민정음 발전에서 여성이 매우 큰 구실을 했다는 상징적, 실질적 증거를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역설은 공적 분야와 주류 지식 담론에서 배제되었던 문자(훈민정음)와 소수자 여성의 결합이라는 아픈 역사가 낳은 역설이기도 하다.

최지녀(2002 : 87)는 여성의 한글편지에 대해 “사대부 여성이 주역이 되어 국문문체를 확충시킬 수 있었던 데는 한글이 아녀자들의 글로만 치부된 상황이 역설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했고 필자는 김슬옹(2012)에서 훈민정음 발달사를 정리하며 내린 결론은 “훈민정음의 비주류성과 여성의 비주류성이 결합이 되어 한글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설’의 관점을 여성의 한글 사용 분야에 세밀하게 적용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구성하였다.

역설의 자연스런 권력 : 왕실 여성의 교지

역설을 통한 권력에의 도전: 여성 상소문

역설의 생활화: 생활 속의 언문 실천

역설 즐기기: 문학의 능동적 향유

역설을 이용한 지식의 승리: 여성의 실용서 발간

조선 시대 지배층인 양반 남성 사대부들은 조선말까지 훈민정음을 이류 문자 취급을 해 왔다.

1) ‘한글’의 좁은 의미는 1910년 이후에 한국어를 적는 고유 문자를 가리키지만 넓은 뜻으로는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된 이후에 우리 고유 문자에 대한 총칭이다. 맥락에 따라 ‘한글, 훈민정음, 언문’ 등의 명칭을 혼용하기로 한다.

학문과 공적 분야에서 철저히 배제했고 심지어 18, 19세기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등의 남성 실학자들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훈민정음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았다.<sup>2)</sup> 이런 흐름 속에서 왕실 여성을 비롯하여 양반가 여성들은 훈민정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훈민정음이 발전하는 결정적인 축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속에서 조선 시대 여성이 이룩한 한글 문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여성 한글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조선 시대 여성들이 남긴 한글 문학을 비롯한 한글 문화는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여성 한글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역설의 관점이자 논리이다.<sup>3)</sup>

이러한 역설의 논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미 그 바탕이 깔려 있다.

(1) 가. 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정음17:3-4\_어제서문]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나. 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정음17:5-6\_어제서문]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다. 遂命詳加解釋，以喻諸人. [정음해례287:8-28L:1\_정인지서]

드디어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시었다.

(2) 가. 故智者不終朝而會，愚者可浹旬而學. [정음해례287:2-3\_정인지서]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 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나. 庶使觀者不師而自悟. [정음해례28L:7\_정인지서]

대체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게 하였다.

다. 以是解書，可以知其義. 以是聽訟，可以得其情. [정음해례287:3-5\_정인지서]

이 글자로서 한문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자로서 소송 사건을 다루면,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라. 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 [정음해례287:6-7\_정인지서]

글을 쓰는 데 글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으며,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1가)에서처럼 한자 모르는 우민의 표현 욕구를 핵심 창제 동기로 삼았으되 (1나, 다)에서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2가,나)에서는 스승이 없이도 집에서 깨우칠 수 있는 쉬움을 강조하면서 (2다,라)에서는 의사소통의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최만리 외 6인의 갑자상소는 역설에 대한 오해였다. 한글을 이류 문자가 아닌 주류 공식 문자로 삼는 것으로 오해한 상소였다. 한글이 조선말까지 비주류 문자로 남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대 상소를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해례본은 남성들의 한글에 대한 이중의식을 바탕으로 하

2) 실학자들의 문자의 보수성에 대해서는 김슬옹(2017: 205-214)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3) 이 연구는 여성이 한글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를 따지고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역설'의 관점은 연구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이 분야 연구는 크게 보면 국어사, 문학사, 여성사 차원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국어학계의 국어사 연구는 대체로 국어문법사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국어생활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국어생활사 영역인 여성의 한글 사용 문제가 주목받게 되었으므로 국어생활사 차원의 집중 연구는 10년이 되지 않는다. 여성의 한글 사용이 더 일찍 주목받은 것은 오히려 문학사 분야로 이른바 내간체 중심의 여성 산문 문학과 가사 중심의 규방 문학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이다. 여성사 차원의 연구는 여성학자들이 국어사나 문학사 쪽의 융합 연구에 약하다 보니 그 역사 또한 짧다. 이런 가운데 조선시대 여성 관련 인간이 대량 발견되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연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국어생활사 중심으로 보되 문학사의 연구 성과를 함께 아우른다.

고 있고, 하루아침에 배우는 쉬운 문자는 오히려 역설을 부추기는 힘이 되었다.

## 2. 조선시대 여성 한글사용의 역사적 배경

한자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절대적이었던 한자 문화권에서 한글의 탄생(창제)과 반포는 기적이었고 혁명이었다. 이두와 향찰 등으로 언어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한자 개량으로는 그 모순을 온전히 바로잡는 건 불가능했다. 그건 오히려 한자 중심주의에 더 빠져들게 만드는 역설을 가져왔다.

조선왕조는 그 기적과 혁명을 일군 위대한 나라였으나 공식적으로는 1894년까지 비공식적으로는 조선 말까지 철저히 한글을 비주류 문자로 묶어 놓은 안타까운 역사였다.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한글을 주류 공식문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쓰지 않았다. 결국 반포 449년 만에 고종 임금에 의해 주류 문자로 선언되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로 말과 글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그조차도 실제로는 그리 되지 않았다. 1945년 해방은 되었고 북한은 주시경의 수제자인 김두봉과 언어정책에 매우 강한 소신을 가졌던 김일성에 의해 한글을 주류 문자로 정착시킨 한글전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1948년 한글을 주류 문자로 못박은 한글전용법을 통과하기까지 하였으나 그렇다고 실생활에서 그리 되지 않았다. 결국 민간에서는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제도적으로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에 와서야 온전한 한글전용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러한 한글 사용 역사가 보여주는 역사의 부정성과 긍정성 모두 그 답은 조선시대 한글 사용 역사에 담겨 있고 여성의 한글 사용 문제는 그러한 역사를 되비쳐 보는 잣대가 된다. 또한 여성의 한글 사용 역사에는 여성과 문자에 대한 인류 보편성과 조선 사회의 특수성이 함께 담겨 있다.

인류의 고대 역사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 곧 여성 중심의 역사였으나 농업이 발달하고 수확량이 늘면서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생겼고 물리적 힘이 강한 남성 중심의 역사로 바뀌었다. 더불어 가부장제도가 제도화되면서 남성 중심의 역사가 고착화되고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는 차별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흐름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다. 서양말에서 ‘history/herstory(X), man/woman’ 등은 대표적인 성차별 언어의 상징이자 표징이다. 한자 문명권에서는 한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차별은 문자 사용 배제로 곧바로 이어져 대부분의 가정에서나 제도권에서나 여성은 문자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조선의 여성은 남녀유별의 유교적 성별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히 가족 내적 존재로 규정되었으며 가족이나 친족공동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은 궁녀, 기녀, 의녀, 무녀 등 특수 계층 여성층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여성에게 글읽기와 글쓰기는 권장되지 않았다.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 여성의 글읽기와 글쓰기는 그다지 장려되지 않은 것이 보편적 상황이었다. 조선시대의 ‘말/글’관계에서 글은 기본적으로 남성 성별화된 매체였다. \_이정옥(2009). 경북 여성의 글하기. 국립민속박물관 편(2009). 《경북의 민속문화》 CD1.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로 오면 여성 차별은 심화되며 임진왜란 이후로는 더욱 심화된다. 다음과 같은 평가는 일부 영역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 불평등 요소가 지배적이었다.

조선의 여성들은 통념적으로 알고 있듯 남성이나 사회의 부속물이. 아닌 오히려 역사의 주체였다. 상 속에서는 아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 바깥으로만 도는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을 책임지고 때로는 남편을 꾸짖기도 하면서 남성과 평등한 삶을 누렸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2015). 《조선 양반의 일 생》. 글항아리. 12쪽.

평민들조차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서당을 양반 여성들조차 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공식 교육 제도에서의 배제는 곧 주류 공식 문자 한자와 그 문어인 한문 실용과 권력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했다.

필자는 김슬옹(2012:618-621)에서 훈민정음 발전 단계를 아홉 단계로 밝힌 바 있다. 1단계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2단계 악장과 같은 시가 문학을 통한 보급, 3단계 불교 중심의 보급, 4단계 국가 이념(성리학)과 유교 교육을 통한 보급, 5단계 생활서(의료 언해서 등)를 통한 보급, 6단계 문학의 힘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넘나든 자생적 한글 발전, 7단계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소통을 통한 보급(언문 교서와 윤음언해), 8단계 생활 분야의 자생적 실용서(음식디미방, 규합총서 등)를 통한 한글의 실용화, 9단계 기독교 한글 성경의 발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한글의 보급과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여성 주체가 공적, 사적 삶의 영역 속에서 문자 생활을 어떻게 영위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 3. 역설로 본 여성의 한글 사용 양상

#### 3.1. 역설의 자연스런 권력화 : 왕실 여성의 교지<sup>4)</sup>

백두현(2004), 김슬옹(2005) 등에서 집약되었듯이 왕실 여성들의 교지는 거의 예외 없이 한글로만 발행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승희(2013: 322)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조선 후기 한글 사용의 확대와 보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한자, 한문과의 경쟁과 공존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왕실 여성'의 경우는 분명 그들이 일정 수준의 한문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목왕후의 글과 같은 몇몇 드문 예를 제외하면) 한자나

4) 왕실 여성들의 한글 사용 문제에 대한 논저로는 김일근(1991), 이경하(2003), 백두현(2004), 김슬옹(2005가, 나), 이승희(2013), 이종덕(2005), 정하영(2006), 이승희(2000), 이승희(2008), 이기대(2009), 이기대(2011), 김봉좌(2011) 등이 있다. 김일근(1991)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언문 쓰기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고전과도 같은 논저다. '언간' 중심의 연구와 자료지만 실록 자료와 연계하여 왕실 여성들의 한글 쓰기 역사도 드러냈다. 이경하(2003)는 대비전의 언서들은 "정치적인 공적 글쓰기(412쪽)"에 주목한 본격적인 논저다. 이들 자료들은 한글 1차 자료는 아니지만 사관들 기록 태도로 볼 때 언문 사용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았다. 15세기는 궁녀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여성들의 한글 쓰기를 다룬 것이고 왕실 여성들의 한글 사용이 드러난 것은 16세기로 보았다. 특히 인종비 인성왕후(1514-1577)의 한글 쓰기 양상은 16세기 중엽에 궁중 여성들의 한글이 생활화 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보았다. 백두현(2004가)의 연구는 생활사 차원에서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 역사를 치밀하게 규명한 대표적 논저다. 이 무렵 조선왕조실록 검색이 가능한 CD가 동방미디어에서 출시되어 실록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가능했고 이를 바탕으로 왕실 여성들의 한글 사용 양상을 규명했다. 김슬옹(2005)은 실록 한글 자료를 모두 뽑아내 범위를 확대하고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이 제도 차원, 공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집중 조명했다. 실록을 바탕으로 한 이런 연구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한글 사용 맥락과 의미를 밝히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지만 2차 한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한글 자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 왕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연구로는 이종덕(2007), 이기대(2011), 이승희(2013), 김봉좌(2011) 등이 있다.

한문을 사용한 사례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 한문 저작을 남긴 사대부 여성의 사례와 같은 것이 왕실 여성의 경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인지, 우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왕실'이라는 더 엄격한 환경이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인지는 앞으로 더 궁구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궁금증은 왕실 여성의 경우 권력자로서의 위치보다 여성으로서의 위치가 앞선다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자의 위치가 앞섰다면 본인이 한문을 알든 모르든 측근을 시켜서라도 당연히 한문을 썼을 것이다. 한문을 배운 양반가의 여성의 특수한 사례에 해당된다. 1623년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임금이 된지 얼마 안 된 때 인목대비는 왕실의 최고 권력자로서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핵심 권력 기관인 승정원에 한글 공문서를 내려 보낸 사건의 맥락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헌부의 간원이 아뢰기를, “영창 대군은 어린 나이로 불행하게도 골육지변을 당하였으니, 자전의 그지없는 심정과 성상의 추도하는 심정은 참으로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호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예문에 근거가 없고 법례에 어긋나는 데가 있습니다. 영창 대군이 영특하고 아름다운 자질이 있기는 하였으나 어린 나이로 요절하였기 때문에 선악을 징험할 수 없으니 어떻게 허례의 좋은 시호를 어린 나이의 죽음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언문 교서<sup>5)</sup>를 승정원에서 내린 것은 상전(常典)에 방해로움이 있습니다. 이 길이 한번 열리면 뒤폐단이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자전께 곡진히 품달하시어 내리신 명을 거두고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영창 대군이 나이는 어렸으나 이미 군에 봉해졌는데, 시호는 내리는 것이 어찌 나쁘겠는가. 번거로이 논하지 말라.”하였다(憲府 諫院俱啓曰: 永昌大君 髫髻之齡 不幸遭骨肉之變 其在慈殿罔極之情 聖上追悼之心 固宜靡所不至 而至於賜諡之事 無據於禮文 有乘於法例. 永昌 雖有英資美質 而稚年殞折 善惡無徵 何可以美諡虛號 追加於三尺之殤乎? 況諡書之下政院 有妨典常. 此路一開 後弊難言. 伏願聖明 委曲稟達於慈殿 還收成命 令該曹勿爲舉行. 答曰: 永昌大君 年雖幼稚, 既已封君 賜諡何傷? 勿爲煩論). -인조 1년(1623) 윤 10월 7일(계사)

상황 맥락을 보면 언문 교서 발행한 것이 내용과 형식 측면 모두 문제가 돼 사건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 관리는 영창대군 시호를 내리라는 인목대비 지시의 부당함과 그런 공적 지시를 언문 교서로 핵심 관청에 내린 것을 모두 문제 삼고 있다. 여기서 언문 교서를 내린, 문자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때는 왕실 여성들의 언문 교지가 제도적으로 용납되는 때였으므로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명령을 인조 재가 없이 직접 승정원에 내린 절차상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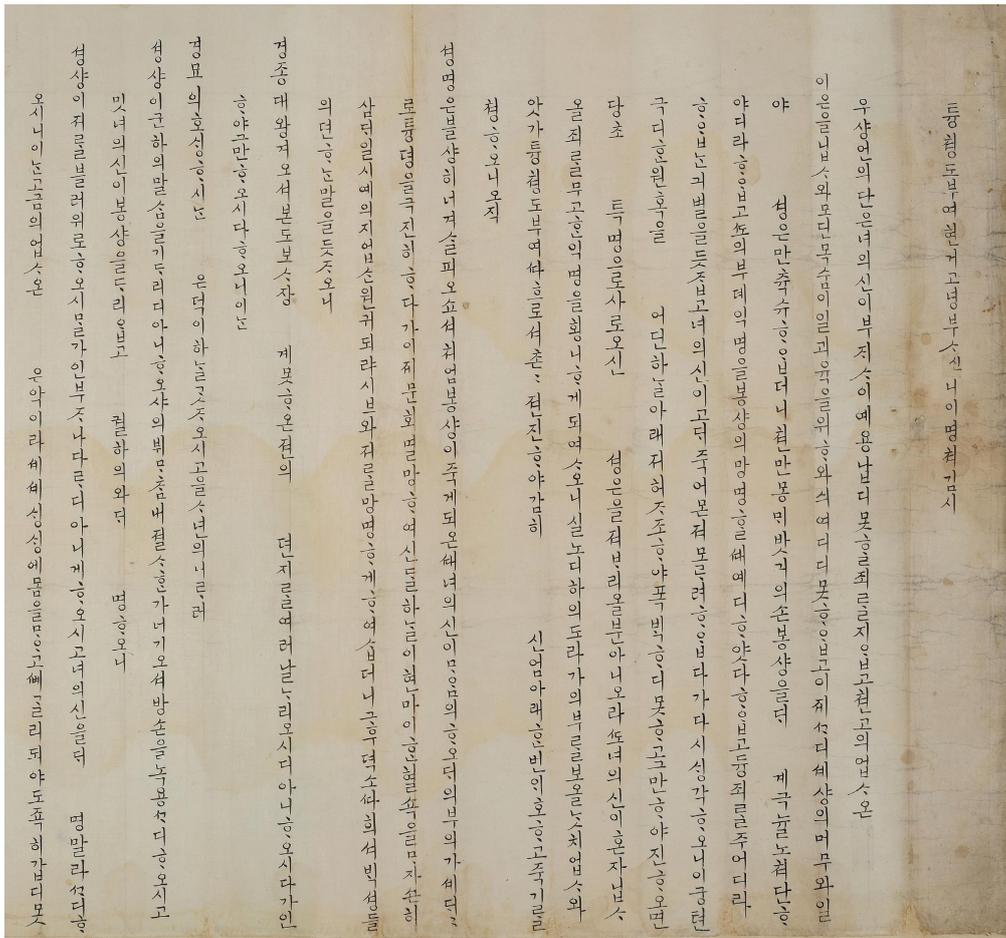
다만 언문 교서가 이미 승정원에 접수되었고 인조는 이를 문제삼지 말라고 하였으니 언문교서는 공적 문서로 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인조반정 직후에 인목대비의 권력 비중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남성 사대부들이 주된 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은 한글의 사회적 효용성이 여성 권력자로 인해 한문 공문서만의 균열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온라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언문 편지로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공식 문서로 발행한 것이므로 언문 교서로 보아야 한다.

### 3.2. 역설을 통한 권력에의 도전: 여성 상소문

왕실 여성이 교지 같은 공문서에 한글을 쓰는 문제와 일반 백성이 한글 공문서를 발행하는 것은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왕실 여성은 남성 사대부보다 우월한 권력이 있기에 아무 거리낌없이 언문 교지를 발행할 수 있고 그 문서 또한 권력을 갖지만 일반 백성이 한글 공문서를 한문 공문서 대신 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글 상소문을 올리는 것은 바로 한문 제도권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당연히 흔치 않은 일이며 실록에도 몇 건의 관련 기사만 나온다.

여기서는 실제 상언문이 남아 있는 것을 인용해 본다.



<그림 1> 김씨부인 한글상언 앞부분(문영호 엮음(2014:10))

이 상언문은 한글문학의 대가인 김만중의 딸이기도 한 김씨 부인이 남편 이이명을 위해 올린 상언문이다. 상언 내용에 관계없이 남성 중심의 문자 권력 사이에 균열을 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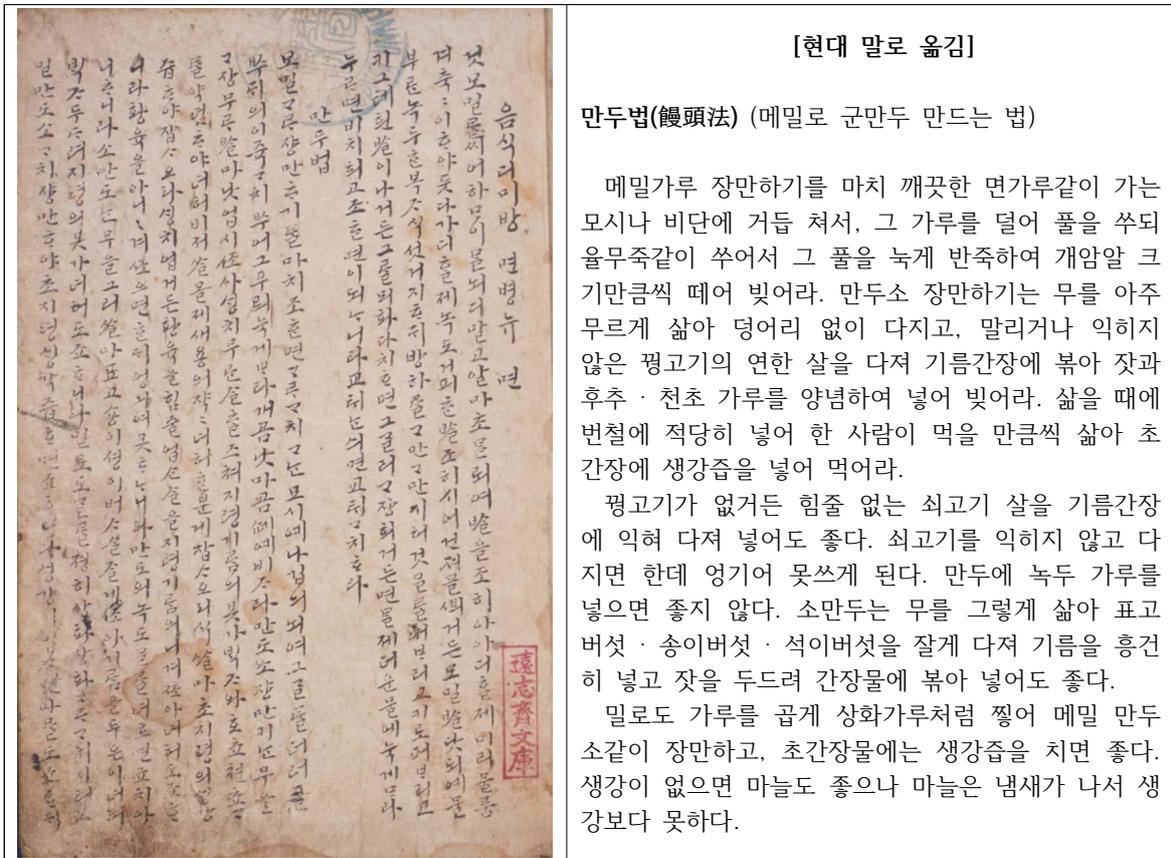
### 3.3. 역설의 생활화: 생활 속의 언문 실천

### 3.4. 역설 즐기기: 문학의 능동적 향유

### 3.5 역설을 이용한 지식의 승리: 실용서 발간

18, 19세기 실학이 꽃피면서 실학자들의 실용 지식에 관한 저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럴수록 실용적인 문자에 대한 배타와 외면은 더 깊어간다. 가장 방대하고 다양한 실용서를 쓴 정약용의 저술은 모두 한문이다. 이덕무를 비롯하여 매우 뛰어난 남성 실학자들이 오늘날 백과사전격인 책을 펴내지만 모두 한문이다. 문체의 실용화를 꾀한 박지원은 한문 구어체를 구사할 뿐 한글 모르는 것이 당연한 듯 내놓고 고백한다.

이러한 퇴행적인 지식 생산과 유통 시대에 한글로 당당히 실용서를 펴내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이가 빙허각 이씨와 안동 장씨이다. 역설을 이용한 위대한 지식 공유의 시대를 연 것이다.



<그림 2> 안동 장씨가 조리법을 한글로 적은 책

이 책은 안동 장씨가 17세기 후반에 조리법을 한글로 적은 책이다. 우리나라 영남 지방의 토속 음식을 만드는 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전해 내려오거나 스스로 개발한 조리법을 한글로 기록하여 전통 음식의 맥을 잇게 하였다.

위 자료는 만두 요리법을 소개한 대목이다. 마치 만두를 직접 빚으면서 설명을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어체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두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방법, 주의점, 각종 식품의 특성 등을 소상하고도 생동감 넘치게 기술하였다. 한글 사용의 실용적 가치를 한껏 높인 저술이라 하겠다.

안동 장씨는 경상남도 안동 서후면 금계리에서 1598년(선조 31년)에 태어나 1680년(숙종 6년)

에 별세하였다. 장 씨의 아버지는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쳤던 성리학자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이고, 어머니는 첨지 권사온(權士溫)의 딸이다.

#### 4. 맺음말

한자는 양반 남성의 문자, 한문은 주류 양반의 글쓰기이다. 훈민정음 전체 발전에서 역설은 발전의 축이기도 하지만 끝내 주류 문자가 되지 못한 부정의 축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무척 열악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단지 남존여비라는 일반적 틀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남존여비의 관계가 실제로는 계층간의 관계에서는 재배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 계층에서는 남존여비이지만 상위 계층의 여성과 하위 계층의 남성 사이는 오히려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권력적 위치가 남성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법 때문에 여성 교서가 실제 권력을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언문 교서가 여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지키는 자리매김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가 내외법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어머니’라는 위치로 가족안에서의 위치가 재배치되는 이치와 같다.

이들테면 여성 관련 교지의 대부분이 왕비나 대비 등의 왕족 여성들이 쓴 것이었지만 이는 그 사용 주체가 누구이나 이전에 공적 문서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에게는 언문이 주된 문체였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언문을 암클이라 불렀던 것이고 그런 언문의식에는 여성에 대한 낮춤의식과 더불어 언문에 대한 낮춤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언문 때문에 여성이 역사의 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여성과 관련된 언문 사용은 언문 자체에 대한 낮춤의식이 아니라 여성 자체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주류 양반 남성들도 언문을 비록 이류 문자 차원이었지만 삶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한문만의 문체만을 썼다면 왕족여성들의 교지를 통한 수많은 권력 개입이 그렇게 활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성들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교지의 대상은 대개 남성 관리들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권력 기관에서 공적 문서로 쓰였다는 것은 그 실용적 가치를 지배 계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왕실 여성들이 주로 공적 공간에서 한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 한글의 제도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 한글과 여성 관련 논저 목록

##### ● 누리집

국가 기록 영상관 <http://film.ktv.go.kr>.

국가 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가 문화 유산 종합 정보 서비스 <http://www.heritage.go.kr>.

국가 지식 포털 <https://www.knowledge.go.kr>.

국사 편찬 위원회 <http://www.history.go.kr>.

네이트 한국학 <http://koreandb.nate.com>.  
 독립 기념관 <http://www.i815.or.kr>.  
 동북아 역사 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kr>.  
 디지털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역사 문제 연구소 <http://www.kistory.or.kr>.  
 역사 문화 학교 <http://www.koreaschool.co.kr/>.  
 유네스코 세계 유산 <http://www.unesco.or.kr/whc>.  
 일성록(<http://e-kyujanggak.snu.ac.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 고전 번역원 <http://www.itkc.or.kr>.  
 한국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 중앙 연구원 <http://www.aks.ac.kr>.

### ● 문헌 목록 관련 단행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1971). 《한국도서해제》.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광정식(1997). 《고전자료강독》. 신지서원.  
 국립중앙도서관 편(1970/1992). 《선본해제》 上·下. 경인문화사.  
 국어연구회 편(1992).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규장각(1978~1987).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서울대학교도서관.  
 규장각(1994~2003).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속집》. 서울대학교도서관.  
 규장각(2001). 《규장각소장 어문학자료》(어학편 2책. 문학편 3책). 서울대학교도서관.  
 김목한 외(2000). 《장서각 한글자료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석득·박종국·최기호 편(2001). 《한글 옛 문헌 정보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김윤경(1938). 《조선문자급어학사》. 조선도서출판관.  
 김일근(1991). 《언간의 연구》. 건국대출판부.  
 김지용(1971). 국어·국자의 보급 발전에 기여한 문헌 고.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남풍현(1998). 고대 국어 자료·국어학의 삼대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농촌진흥청(2004). 《農家說·渭濱明農記·農家月令·農家集成》. 농촌진흥청.  
 류탁일(1989).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박종국(2003). 《한글문헌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백두현(2015). 《한글문헌학》. 태학사.  
 서병패(1993). 《文獻篇·重要民俗資料 指定報告書(晉州 河氏墓 出土 遺物)》. 문화재관리국.  
 서울대학교 도서관(1993). 《규장각 한국본 도서해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송일기·노기춘(2003).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태학사.  
 안병희(1979). 중세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 3집. 서울대 도서관 ; 재수록 : 안병희(1992). 중세국어의 한글 자료.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양태진(1990). 《알기 쉬운 옛책풀이》. 법경출판사.

- 유탉일(1981).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 유탉일(1989).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 윤병태 편(1972). 《한국서지연표》. 한국도서관협회.
- 윤형두(2003). 《옛 책의 한글판본》. 범우사.
- 윤형두(2007). 《옛 책의 한글판본 II》. 범우사.
- 이상은(1987). 《고서목록》. 보경문화사.
- 이현희(1996). 중세국어자료(한글문헌).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 중세 국어》 1. 국립국어연구원.
- 이현희(1999). 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정재영 외(2000). 《정조대의 한글문헌》. 문헌과해석사.
- 조선총독부 편(1932). 《조선도서해제》. 조선통신사.
- 조오현 편저(2010). 《(자료로 찾아가는) 국어사》. 박이정.
- 조희웅 편(1999).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 조희웅 편(2000). 《고전소설 문헌정보》. 집문당.
- 조희웅 편(2000). 《고전소설 작품연구총람》. 집문당.
- 천혜봉(1990).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 천혜봉(2003). 《일본 봉좌문고 한국전적》. 지식산업사.
- 최현배(1942/1983). 《고친 한글갈》. 정음사.
- 충북대학교 박물관 편(2002).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충북대학교.
- 한국도서관학연구회 편(1976). 《한국고인쇄사》. 한국도서관학연구회.
- 한국어세계화재단 편(2004).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 사업 결과 보고서》. 문화관광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9). 《장서각고소설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0). 《장서각한글자료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 응 외(1974/2000 : 2판). 《한국의 명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근대편 I)》. 태학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 홍윤표(1997). 근대국어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 근대 국어》 2. 국립국어연구원.
- 江田俊雄(1934). 朝鮮語譯佛典に就いて. 《靑丘學叢》 15.
- 三木 榮(1973). 《朝鮮醫書誌(增補版)》. 大阪 : 學術圖書刊行會.
- 小倉進平(1940). 《增訂朝鮮語學史》. 東京 : 刀江書院.
- 前間恭作(1944.56.57). 《古鮮冊譜 I II III》. 東京 : 東洋文庫.
- 黒田 亮(1986). 《朝鮮舊書考》. 東京 : 峯沽書院.
- Courant. Maurice(1894~1896. 1899). Bibliographie coréenne I. II. III. Paris : Ernest Leroux. and Supplément. Paris : Imprimerie Nationale. [李嬉載 譯(1994). 韓國書誌(수정번역판). 일조각].

## ● 사전

-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판)》. <http://stdweb2.korean.go.kr>.(2017.1.20.)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1996). 《韓國漢字語辭典》 1~4. 檀國大學校出版部.
-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편(1996).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30. 두산동아.
- 박재연 편(2001). 《고어사전: 낙선재 번역소설 필사본을 중심으로》. 이희.
- 박재연 편(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1~7. 학교방.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1999).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편(1983).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1~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대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임종욱 편(2010).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임종욱·배규범 편(2008). 《동양학 관련 대사전 어휘색인 총람》 1~10. 이회문화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글학회 편(1995). 《우리말 큰사전: 옛말과 이두 편》. 어문각.

漢語大詞典編委會(2001). 《漢語大詞典》 1~12.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 ● 영인본

가곡원류. 대제각 영인본(1988). 《송강가사》 등과 합본. 대제각.  
 가례언해(권1). 대제각 영인본(1985). 대제각.  
 가례언해. 홍문각 영인본(1984). 홍윤표 해제. 홍문각.  
 간이벽온방. 여강출판사 영인본(1988).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의약학편 38. 여강출판사.  
 경민편. 세계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05). 《정속언해》와 합본. 김문웅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경민편언해. 홍문각 영인본(1992). 홍문각.  
 구급간이방언해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07). 김동소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규합총서. 홍문각 영인본(1990). 《여훈언해》와 합본. 홍문각.  
 내훈. 대제각 영인본(1988). 《여범》. 《여사서》와 합본. 대제각.  
 내훈.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3). 아세아문화사.  
 내훈. 홍문각 영인본(1990). 홍문각.  
 동국신속삼강행실. 대제각 영인본(1988). 대제각.  
 동국신속삼강행실. 홍문각 영인본(1992). 홍문각.  
 동몽선습언해. 대제각 영인본(1986). 대제각.  
 동문유해. 연희대학교 동방학연구소 영인본(1956). 《소아론》. 《팔세아》. 《삼역총해》와 합본. 연희대학교 동방학연구소.  
 동문유해. 홍문각 영인본(1995). 홍문각.  
 두시언해(전질). 대제각 영인본(1988). 대제각.  
 두창경험방.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3). 《두창경험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언해납약 증치방》. 《언해구급방》과 합본. 아세아문화사.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09). 김무봉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반야심경언해. 홍문각 영인본(1984). 《경신록언석》과 합본. 홍문각.  
 번역소학(권 6-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11). 정호완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벽온신방. 여강출판사 영인본(1988).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의약학편 38. 여강출판사.  
 벽온신방. 홍문각 영인본(1984). 《분문온역이해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간이벽온방》과 합본. 홍문각.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11). 김영배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불우헌집(일부). 대제각 영인본(1988). 《송강가사》등과 합본. 대제각.  
 사서언해. 대제각 영인본(1976). 대제각.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197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삼강행실도. 홍문각 영인본(1990). 《상백문고본》과 합본. 홍문각.

삼역총해. 연희대학교 동방학연구소 영인본(1956). 《소아론》. 《팔세아》. 《동문유해》와 합본. 연희대학교 동방학연구소.

상례언해. 홍문각 영인본(1997). 홍문각.

상원사중창권선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10). 《영험약초》. 《오대진언》과 합본. 김무봉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공록, 인현왕후전, 한중록, 의당집, 산성일기》(원문고대여류문학대표선집). 영인본(1988)(해제: 한국학연구원).

소학언해(권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11). 정호완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송강가사. 대제각 영인본(1988). 《고산유고》 등과 합본. 대제각.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순천김씨묘출토한글편지). 충북대학교박물관 영인본(1981). 조건상 해제. 충북대학교박물관.

어제훈서언해. 홍문각 영인본(1982). 《어제백행원》. 《어제경민음》과 합본. 홍문각.

언해납약증치방. 대제각 영인본(1985). 대제각.

언해태산집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10). 정호완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여사서. 대제각 영인본(1988). 《여범》. 《내훈》과 합본. 대제각.

여사서.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3). 아세아문화사.

여사서언해. 홍문각 영인본(1996). 홍문각.

여씨향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12). 김문웅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여씨향약언해. 태학사 영인본(1978). 《정속언해》와 합본. 태학사.

여훈언해(고려대 만송문고본). 홍문각 영인본(1990). 《규합총서》와 합본. 홍문각.

오대진언. 홍문각 영인본(1979). 《사법어언해》와 합본. 홍문각.

오대진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2010). 《상원사중창권선문》. 《영험약초》와 합본. 김무봉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오륜전비언해. 대제각 영인본(1986). 대제각.

오륜전비언해.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82). 아세아문화사.

오륜전비언해. 홍문각 영인본(1997). 대제각.

오륜행실도. 홍문각 영인본(1990). 홍문각.

용비어천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2). 아세아문화사.

월인석보(권1. 2. 7. 8. 9. 10. 17. 18). 대제각 영인본(1985). 대제각.

월인석보(권1. 권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1992). 박종국.허웅.장세경 역주 /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유경기민인윤음. 대제각 영인본(1985). 대제각.

유경상도관찰사급진읍수령윤음. 대제각 영인본(1985). 대제각.

유합. 태학사 영인본(1993). 《전자문》. 《훈몽자회》와 합본. 태학사.

자훈전칙. 대제각 영인본(1985). 대제각.

정속언해. 《여씨향약언해》와 합본. 태학사.

천의소감언해. 홍문각 영인본(1984). 홍문각.

효경언해. 홍문각 영인본(1984). 《병학지남》. 《신간증보삼약직해》와 합본. 홍문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편(1993). 《한국여성사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 도록류

강릉시립박물관 편(1989). 《명안공주관련유물도록》. 강릉시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편(2000).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편(2003). 《빛나는 옛책들 : 혜전 송성문 기증 국보》. 통천문화사.

문화재청(2009). 《한국의 옛글씨-조선왕조의 어필》. 예맥.

문화체육관광부 편(2011).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 글로벌콘텐츠 출판그룹.

삼성문화재단 편(1996). 《호암미술관 명품도록Ⅱ》. 삼성문화재단.

삼성출판문화박물관 편(1991). 《교과서특별기획전》. 삼성출판박물관.

삼성출판문화박물관 편(1993). 《한국여성문화자료 특별전》. 삼성출판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편(1998). 《조선왕조실록과 기록문화》.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 규장각 편(2000). 《규장각 명품도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 규장각 편(2000). 《정조. 그 시대와 문화》.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 도서관 편(1990). 《규장각과 18세기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편(2002). 《서울역사박물관 도록》.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편(2002).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서울역사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

성보문화재단 편(1999). 《호림박물관 명품선집Ⅱ》. 성보문화재단.

송일기 편(2004). 《송광사 성보박물관 불서전시 도록》. 태학사.

안춘근(1991). 《옛책》. 대원사.

영남대 도서관 편(1997). 《고서.고문서전시회》.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편(2004). 《추사 한글편지》. 우일출판사.

이재정 외 편(2008). 《금속활자에 담은 빛나는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조효종.구일회.유호선 외 엮음(2010). 《사농공상의 나라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천혜봉(1989). 《고인쇄》. 대원사.

천혜봉(1993). 《한국금속활자본》. 범우사.

천혜봉(1993). 《한국목활자본》. 범우사.

문영호 엮음(2014).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국립한글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 국립한글박물관.

문영호 엮음(2014). 《곤전어필,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김씨부인한글상언》(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 국립한글박물관.

문영호 엮음(2014). 《한글이 걸어온 길》(국립한글박물관 전시 도록). 국립한글박물관.<sup>6)</sup>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sup>7)</sup>

천혜봉 편(1986). 《한국문화재대계 : 국보》 23. 24(서예 - 전적 I II). 예경산업사.

청주고인쇄박물관(2001). 《청주고인쇄박물관 도록》.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2004). 《아름다운 글자. 한글》. 이회문화사.

한글학회 편(1995). 《한글사랑.나라사랑》. 문화체육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4). 《장서각도서 한국판 총목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6). 《고문서집성 삼 -해남윤씨편 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 《장서각이왕실고문서목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 글쓴이: 박부자, 송성재, 이건식, 이기갑, 이상혁, 이태영, 이현희, 정승혜, 정재영, 조석환

7) 박철상(2015). 조선본 《열녀전》의 서지적 의미.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198-214쪽.

강명관(2015). 유향의 《고열녀전》과 《삼강행실도》 《열녀편》.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215-232쪽.

정병모(2015). 이상좌가 그린 《고열녀전》 언해본 삽화.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233-254쪽.

고은숙.김민지 해제(2015). 《고열녀전》 언해본 해제.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10-17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0). 《고문서집성 팔 -광주안씨.경주김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4). 《고문서집성 십이 -장서각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4). 《고문서집성 십삼 -장서각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4). 《정재무도홀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편(1998). 《안동의 한글제문》. 안동민속박물관.  
 민족문화문고. 편(1999). 《박건중선생예학총람》. 민족문화문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0). 《장서각한글자료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2). 《고문서집성 오십삼 -진안 정천 전주이씨 서곡이정영후손가편(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2). 《장서각소장의귀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편(2002) 《조선왕실의 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3).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3). 《열성지장통기》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4).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편(2004). 《우리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5).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5).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1~4.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5).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2005). 《조선왕실의 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화성시 편. 《화성시의 고문헌 1 : 들목조씨 소장 고문헌》. 화성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2006). 《선비가의 여경 : 경주김씨 학주후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7). 《고문서집성 86 -서산 대교 경주김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8). 《고문서집성 89 -아산 선교 장흥임씨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8). 《장서각소장왕실도서해제:대한제국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정서류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10).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정서류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2016).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한글 반포 570돌 기념 2016 장서각 특별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 학위 논문

가인현(2004). 조선조 서원 교육이 민족정신 계도에 미친 영향 : 조선조 후기를 중심으로.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옥수(2007). 朝鮮時代 儀禮書에 나타난 冠.筓禮 研究-《家禮輯覽》과 《四禮便覽》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현경(姜賢敬, 1986). 劉向《列女傳》探微. 국립대만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고영진(1989). 15.16世紀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고영진(1992). 朝鮮 中期 禮設과 禮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은임(2010).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광도환(2005). 조선시대 서원의 성립과 교육활동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경희(1983). 내간 사돈지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정아(2006).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열녀 분석.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경(2005). 구급방류 언해서의 국어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대용(1992). 朝鮮初期 教育體制의 性格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규(1991). 제문가사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2004). 조선시대 문자의 이중구조와 국어교육.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문(2000). 말과 글에 대한 담론의 근대적 전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병철(1987). 19세기말 국어의 문체·구문·어휘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봉좌(2003). 朝鮮時代 坊刻本 諺簡牘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좌(2011).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세은(2003). 高宗初期(1863~1876) 국왕권의 회복과 왕실행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슬옹(2005). 《조선왕조실록》의 한글 관련 기사를 통해 본 문자생활 연구.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승우(2010).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변전 양상.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애리(2007). 《동국신속삼강행실》에 나타난 효 실천 연구 : 초등학교 효 교육 자료를 위해. 성산효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순(2005).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 김연순(2005).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경(2000). 朝鮮後期 婦人科學 發達史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중도(2002). 세종조 《삼강행실도》 보급을 통한 교화정책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05). 朝鮮後期 국왕 行次에 대한 연구-儀軌班次圖와 舉動記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향수(1981).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 서적의 간행·편찬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해용(2010). 학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해정(1996). 四書諺解의 比較 研究.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향금(1994). 언간의 문체론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2006). 高宗 辛丑進饌·進宴儀軌에 나타난 服飾 比較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기탁(1979). 東國新續 三綱行實의 國語學的 研究 : 東國三綱行實과 三綱行實圖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정효(2002). 조선초기 《삼강행실도》를 통해본 열녀정책.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경미(2006).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글 간찰 연구. 경기대 전통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경자(2010).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민재(1998). 朝鮮前期 禮學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경숙(1996). 朝鮮朝 女性 祭文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춘규(2009). 儒敎式 祭祀의 傳承과 祭文 研究-慶北地域 宗家를 中心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경연(1999). 時代 初學教材로서의 《明心寶鑑》 研究.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근필(2002). 《병자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기후와 농업.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승원(2007). 《순천 김씨 언간》의 텍스트성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향(2004). 조선 후기 한글 음식조리서 《주방문》의 음운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박정숙(1996). 世祖代 刊經都監의 설치와 佛典 刊行.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준석(1996). 16세기 청주 북일면 김씨묘 간찰의 선어말 어미.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근숙(2005). 조선시대 한글 여류수필에 나타난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미정(2003). 朝鮮 後期 尺牘文學의 流行과 그 背景 : 申靖夏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상현(1991). 朝鮮朝 畿湖學派의 禮學思想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두현(1990). 嶺南 文獻語의 通時的 音韻 研究.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두현(1992). 《嶺南 文獻語의 通時的 音韻 研究》. 태학사.

- 성병희(1986). 內簡文學研究. 효성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인출(2004). 18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 운음언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규복(1981). 朝鮮朝의 女性道德教育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 손혜선(1996). 穀物名의 借字表記 考察 : 《衿陽雜錄》과 《山林經濟》를 중심으로. 수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유명(1983).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調理法에 對한 研究 : 閨閣叢書 中 酒食議扁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종숙(1989). 《三綱行實圖》 板本考.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지혜(1999). 현풍 광씨 인간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연구.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선연(2008). 《속삼강행실도언해》 연구 : 국어 표기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수경(2004). 동아시아 열녀도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은경(1989). 辭說時調의 詩學 研究.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귀남(1996). 諺簡의 敬語法 研究 - 16~20세기 諺簡 資料를 中心으로.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귀순(2002). 《규합총서》의 표기 및 단어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지선(2004). 조선후기 영웅소설의 대중화 양상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선희(2008). 조선시대 여자비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윤정(2008). 17세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연구 : 《동국신속삼강행실찬집청의궤》를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순옥(1996). 《구급방언해》의 어휘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 석사학위 논문.
- 유경숙(1995). 조선조 여성제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부현(1990). 《童蒙先習》의 書誌的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선무(1980). 한글 古文書의 研究 序說-한글古文書學 成立의 可能性 提起-.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육수화(2007). 朝鮮後期 王室教育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 육신영(2008). 《諺解 胎産集要》에 대한 번역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육진경(1990). 19세기 후기 국어의 형태론적 연구 : 예수성교전서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 윤복남(1991). 한국 문해교육의 사회사적 고찰.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소희(1997). 《속삼강행실도》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영숙(1996). 조선시대 초학교재 연구 : 《동몽선습》과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옥석(2008). 간경도감본 불경언해서의 협주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희진(2009). 《현풍광씨 인간》의 서사성과 서술 담론.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하(2004).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렬(2004). 광해군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편찬의 의의.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근수(1978). 《朝鮮朝의 語文政策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이나라(2014). 《명주기봉》에 나타난 가족갈등과 그 의미.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이동채(1990). 朝鮮後期農業의 生産樣式에 관한 考察.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은(2003). 《궁중불교》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민희(2001). 조선후기 경판 방각소설 판본의 형태물리적 특성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범직(1988). 朝鮮初期의 五禮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봉춘(1978). 조선전기 불전언해의 그 사상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 이상호(2003).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 이성규(2006). 조선시대의 선비교육과 선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연(1988).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성희(2005). 조선시대 중인층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천안대 문헌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경(2001). 조선시대 효자도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구(1985). 朝鮮初期 朱子學의 普及及 女性의 社會的地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 이양순(2001). 順天金氏墓簡札의 語彙 分布 研究. 충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숙(1982). 朝鮮初期 內命婦에 대하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선(2007). 朝鮮後期 女性 性理學者의 생애와 학문에 나타난 儒教 宗教性 探究-任允摯堂과 姜靜一堂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영(2001). 朝鮮 初期 祭文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주(1995).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숙(2010). 조선후기 의례서에 나타난 혼례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종권(1988). 朝鮮朝 國譯佛書의 刊行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 이종덕(2005). 17세기 왕실 인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문.
- 이지하(1992).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이진호(2009). 17~18세기 병서 연해 연구. 계명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창욱(2001). 朝鮮前期의 産婦人科學 發達史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충구(1990). 經書 諺解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한희(2007). 조선시대와 현행 기록물관리제도의 비교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숙(2009). 조선시대 한글 의례의 국어학적 연구-《조경년진작정례의궤》와 《명년의궤》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화숙(2011). 조선시대 간인본 국역불서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인수(2002). 《동몽선습》과 《계몽편》 비교 분석.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하(2008). 《규합총서》의 국어학적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세경(1984). 개화기 국어과 교육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을연(2008).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研究-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인경(1983). 奎章閣 韓國本 禮書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경희(2000). 朝鮮前期 禮制.禮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명자(2009). 인간의 양식과 서체 고찰. 경기대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순덕(2009). 《구급방》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영선(2006). 茶禮祭祀의 淵源과 展開 및 그 特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용수(1990). 私淑齋 姜希孟 文學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은아(2003). 허준의 《언해태산집요》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일영(2008). 광해군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재결(1983). 조선시대 서민교육으로서의 교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재결(1989). 조선시대 교화연구 : 성종 - 중종(1469~1544)년간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경아(2009). 조선후기 儀軌를 통해 본 墨才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 조미옥(2007). 《삼강행실도》와 《심상소학수신서》를 통해 본 교화정책.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수미(2013). 조선후기 한글 유배실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지형(2006). 《삼강행실도》(열녀편)이 조선 후기 ‘열녀전’에 끼친 영향.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흥욱(1994). 월인천강지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채송화(2013). 《을병연행록》 연구 : 여성 독자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인숙(1986). 17세기 醫書諺解의 국어학적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경훈(2009). 朝鮮時代 刊行의 朱子 著述과 註釋書의 編纂.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수현(2010). 《임씨삼대록》 여성 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최애호(1976). 한글과 基督教의 相補的 關係.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교(1971). 기독교의 한글보급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순(1995). 馬經抄集諺解 연구. 효성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지녀(2002). 조선시대 여성 서간과 서간체문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정(1997). 미시사의 방법론과 그 가능성.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추교신(1982). 家禮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탁원정(2006). 17세기 가정 소설의 공간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하금선(1990). 朝鮮時代 胎敎思想에 대한 연구: 《胎敎新記》, 《東醫寶鑑》, 《閨閣叢書》, 《增補山林經濟》를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동일(1981). 조선시대 향교 교육 제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허순우(2009). 《헌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수정(2006). 조선 중기 한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영환(1995). 朝鮮朝 禮書의 發展에 관한 研究-특히 ‘家禮書의 發展系統’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윤실(2000).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욕망발현 양상.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황진영(2009). 조선시대 궁녀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호덕(2002). 한국 근대 형성기의 문장 배치와 국문 담론-타자·교통·번역·에크리튀르.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刘賽(2010). 刘向《列女传》及其文本考论. 복단대학 박사학위 논문.

## ● 일반 논문

- 강경훈(1998). 貞敬夫人 韓山李氏 《苦行錄》. 《문헌과 해석》. 5호. 문헌과해석사.
- 강내희(2000). 종결어미 ‘-다’와 한국 언어의 근대성의 형성. 《근대성의 충격》.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78-108쪽.<sup>8)</sup>
- 강명관(1985). 한문폐지론과 애국계몽기의 국·한문논쟁. 《한국한문학연구》 8집. 한국한문학회.
- 강명관(2002). 《삼강행실도》: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 월인.
- 강명관(2015). 유향의 《고열녀전》과 《삼강행실도》 《열녀편》.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215-232쪽.
- 강명혜(2012). 허난설헌, 윤희순의 현실 대응 방식 및 스토리텔링. 《온지논총》30권. 온지학회. 137-172쪽.
- 강문식(2010). 규장각 소장 의궤(儀軌)의 현황과 특징. 《조선왕조 의궤(儀軌) 학술심포지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강미희(2003). 아동 그림책으로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특성과 가치 연구. 《幼兒教育研究》 23권 4호. 한국유아교육학회.
- 강미희(2005).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권 3호. 열린유아교육학회.
- 강병륜(1989). 순천김씨간찰의 어휘 비교. 《어문논집》 6.7집. 청주대학교.
- 강봉수(2002). 三綱五倫 《行實圖》類書에 함의된 전통 도덕교육의 방법과 원리. 《국민윤리연구》 46호. 한국국민윤리학회.

8) 강내희(2000). 종결어미 ‘-다’와 한국 언어의 근대성의 형성. 《근대성의 충격 The Impact of Modernities》 (국제학술지 ‘흔적/迹/Traces’ 서울 학술대회 The Multilingual Journal Traces Conference in Seoul). ‘흔적’ 편집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 강순애(2000).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서지학연구》 19. 서지학회.
- 강신항(1957). 李朝初 佛經諺解 經緯에 對하여. 《국어연구》 1. 국어연구회.
- 강신항(1958). 龍飛御天歌의 編纂經緯에 對하여. 《문리대학보》 6-1. 국어연구회.
- 강신항(1963). 燕山君 諺文禁壓에 대한 插疑 : 國語學史上에 미친 影響의 有無를 中心으로. 《진단학보》 24. 진단학회.
- 강신항(1993). ‘한글갈’의 훈민정음. 《새국어생활》 3권 3호. 국립국어연구원.
- 강신항(1994). 龍飛御天歌內 反切의 性格. 《진단학보》 78.
- 강현경(1983). 薛氏內範의 연구. 《薛氏內範》 영인본의 해제 논문. 오성사.
- 강현경(1991). 《여범》 편찬자 고찰. 《한국언어문학》 29. 한국언어문학회. 203-216쪽.
- 강희숙(2010). 나주임씨 인간의 구개음화 교정 현상 연구. 《한글》 289호. 한글학회.
- 경일남(1996). 고전소설의 삽입서간 연구. 《어문연구》 28집. 어문연구회.
- 고니시도시오(1995). 《三綱行實孝子圖》의 漢文과 諺解文 對照. 《국어학논집》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편. 태학사.
- 고성익(2007). 병학지남의 서지. 《2007년 겨울 구결학회·국어사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고순희(2015). 「안동의 지역성과 만주망명 관련 가사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 고영근(1990). 문장과 이야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중세어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영근(1991). 三綱行實圖의 翻譯年代. 《김영배선생 회갑기념논총》. 경운출판사.
- 고영근(1993).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문학과지성사.
- 고영근(2000).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 : 국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5.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고영근(2004). 兪吉濬의 國文觀과 社會思想. 《어문연구》 12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고영진(1989). 15.16世紀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한국사론》 21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고영진(1991). 16세기 후반 喪祭禮書의 發展과 그 意義. 《규장각》 14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고영진(1991). 16세기말 四禮書의 성립과 禮學의 발달. 《한국문화》 12집. 서울대 규장학한국학연구소.
- 고은숙·김민지 해제(2015). 《고열녀전》 언해본 해제.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10-17쪽.
- 고종석(2007). ‘한글소설’이라는 허깨비. 《말들의 풍경 - 고종석의 한국어 산책》. 개마고원.
- 곽차섭(1999). 미시사 - 줌렌즈로 당겨본 역사.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 구인모(1998). 국문운동과 언문일치. 《국어국문학논문집》 18. 동국대국어국문학과. 67-80쪽.
- 권기종(1975). 이조후기의 불전간행 경향. 《불교학보》 1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 권영민(1996). 개화 계몽 시대 서사 양식과 국문체. 《문학과 언어학의 만남》. 신구문화사.
- 권영철(1971). 閨房歌辭 研究. 《연구논문집》 8.9합집. 효성여자대학교.
- 권영철(1972). 閨房歌辭 研究. 《연구논문집》 10.11합집. 효성여자대학교.
- 권영철(1975). 閨房歌辭 研究-誠女教訓類를 中心으로-. 《연구논문집》 16.17합집. 효성가톨릭대학교. 9-129쪽.
- 권재일(1995). 최현배 선생의 문헌 연구에 대하여. 《한말연구》 1호. 한말학회. 7-20쪽.
- 권정안(2004). 傳統 基礎漢文 教材의 特性和 限界에 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20집. 한국유교학회. 149-180쪽.
- 권혁래(2004). 조선조 한문소설 국역본의 존재 양상과 번역문학적 성격에 대한 시론. 《동양학》 36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25쪽.
- 김경미(2003). 《童蒙先習》의 역사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25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7-28쪽.
- 김경현(1994). 역사연구와 시대구분. 《한국학연구》 1. 단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5-61쪽.

- 김광해(1992). 한글 창제와 불교신앙. 《불교문화연구》 3. 한국불교문화학회.
- 김광해(1993). 국어사의 시대구분과 국어 어휘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 선생 회갑기념 논총). 문학과 지성사.
- 김균태(2005). 고소설 강독사 정규현의 사례 연구. 《공연문화연구》 10집. 한국공연문화학회. 379-401쪽.
- 김기란(2011).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 -《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여성문학연구》2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7-39쪽.
- 김남경(2001). 언간독과 증보언간독비교연구. 《민족문화논총》 2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9-56쪽.
- 김대용(1994). 조선 초기 지배층의 교육지배에 대한 민의 대응과 그 교육학적 해석. 《교육개발연구논총》 14.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교육개발연구소. 139-162쪽.
- 김대용(2001). 조선후기 교육의 변화와 향촌사회. 《대구사학》 64집. 대구사학회. 95-126쪽.
- 김동규(1979). 祭文歌辭研究-閨房歌辭 장르에 있어서. 《여성문제연구》 8집.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김동길(1984). 한글 독립선언문. 《기독교사상》 309호. 대한기독교서회.
- 김동욱(1960). 한글小說 坊刻本의 成立에 對하여. 《향토서울》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김동욱(2015).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47. 279-309쪽.
- 김두루한(2009). 《석보상절》로 본 우리말 ‘줄글’ 표현. 국립국어원.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엮음(2009).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고마움》. 채륜.
- 김명숙(2015). 한국사상 사학(韓國思想 史學) : 일제 강점기 조선인 여학교와 재조선 일본인 여학교의 특성 비교 연구 -동덕,수원고녀 학적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76권. 한국사상문화학회. 103-134쪽.
- 김명호(2007).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한글의 순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한글 자모 순서》. 주관 : 국어문화운동본부. 주최 : 강길부 의원실. 국립국어원(2007. 10. 5).
- 김명희.류수양(2004). 《朝鮮詩選》의 편집 과정과 의의. 《동방학》 10호.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5-28쪽.
- 김무봉(1993).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국어사적 고찰. 《동악어문논집》 28. 동악어문학회. 105-138쪽.
- 김무봉(1999). 15세기 국어사 자료 연구. 《동악어문논집》 34. 동악어문학회. 91-119쪽.
- 김무봉(2002). 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 《전자불전》 4집. 동국대학교전자불전연구소. 7-53쪽.
- 김무봉(2004가). 불전언해의 몇 가지 문제. 《불교학연구》 9호. 불교학연구회. 177-211쪽.
- 김무봉(2004나). 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2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373-416쪽.
- 김무봉(2007). 《금강경언해》의 번역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국사상과 문화》 40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67-299쪽.
- 김무식(2006). 한글편짓글에 반영된 조선조 여성의식과 문화. 《여성과 사회》 16집. 아모레퍼시픽재단.
- 김무식(2009). 조선조 여성의 문자생활과 한글편지 - 한글편짓글에 반영된 조선조 여성의식과 문화(1). 《인문학논총》 14권 2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5쪽.
- 김무조(1959). 諺解文學考 - 翻譯文學史의 成立을 위하여. 《논문집》 21. 경성대학교. 91-133쪽.
- 김문식(2003). 조선시대 왕실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국학연구》 2집. 한국국학진흥원. 23-47쪽.
- 김문식(2007).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의 자료적 특징. 《한국문화연구》 1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65-106쪽.
- 김문식(2009).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21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79-104쪽.
- 김문희(2008). 《조씨삼대록》의 서술 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집. 149~178쪽.
- 김문희(2010). 장편 가문소설의 전고와 독서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집. 201~232쪽.
- 김미형(1998).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 연구 - 신문 문장을 중심으로. 《어문학연구》 7. 상명대학교.

23-147쪽.

- 김미형(2004). 한국어 언문일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글》 265. 한글학회. 171-199쪽.
- 김민지(2014). 한글본 《三官記》에 대하여. 《어문연구》 16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1-139쪽.
- 김병제(1935). 조선어학 도서전람회. 《한글》 19호. 20호. 조선어학회.
- 김보근(2002). 韓國과 日本의 言文一致運動 :근대의 언문 일치 운동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0. 한국일본학회. 1-12쪽.
- 김봉좌(2006). 해남 녹우당 소장 《恩賜帖》 고찰. 《서지학연구》 33집. 서지학회. 217-249쪽.
- 김봉좌(2010). 조선후기 궁묘 제사 관련 한글문헌의 문헌적 특징. 《국어사연구》 10호. 국어사학회. 133-172쪽.
- 김상돈(1984). 국어사의 시대구분론. 《논문집》 2. 부산외국어대학교. 457-472쪽.
- 김상배.김진영.유진연(2002).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와 정보화전략. 《기본연구》 2002권 16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1-104쪽.
- 김상홍(1994) 朴南壽의 한글 '을미제문'에 대하여. 《어문연구》 8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15-434쪽.
- 김서령(2013). 안동장씨. 음식으로 도에 이르다 : 최초의 한글조리서 쓴 안동장씨 이야기. 《도서관》 387호. 국립중앙도서관. 130-151쪽.
- 김석득(2000). 훈민정음과 우리 글자살이의 역사. 《한인교육 연구》 17. 재미한인학교협의회.
- 김선근(1963). 李朝初期 妃嬪考. 《역사학보》 21집. 역사학회. 3-65쪽.
- 김선기(1965). 문자 정책론. 《한글》 134. 한글학회.
- 김성은(2009). 기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31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27쪽.
- 김성은(2014). 한말 일제시기 엘라수 와그너(Ellasue C. Wagner)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1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5-152쪽.
- 김성은(2015). 신여성 방신영의 업적과 사회활동. 《여성과 역사》 23권. 한국여성사학회. 203-243쪽.
- 김성은(2017). 1920~30년대 김활란의 민족문화 인식. 《여성과 역사》26권. 한국여성사학회. 81-109쪽.
- 김세은(2007). 1866년 고종의 嘉禮와 대원군의 위상 강화. 《한국사연구》136. 한국사연구회. 217-257쪽.
- 김세종(2009). 세종대 《용비어천가》의 창제배경과 음악화 과정 연구. 《고시가연구》 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17쪽.
- 김세종(2007). 한글 자모 순서에 대하여.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한글 자모 순서》. 주관 : 국어문화운동본부. 주최 : 강길부 의원실. 국립국어원(2007. 10. 5).
- 김소은(2007). 18세기 嶺南 士族의 일상과 생활의례( I)-《청대일기》에 나타난 혼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호. 한국사학회. 185-228쪽.
- 김수경(2013). 여성교훈서《閨閫儀則》과 《홍씨부인계녀(사)》와의 관계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권0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13-249쪽.
- 김수경(2015). 《閨閫儀則》을 통해 본 조선 후기 한글 여성교훈서의 한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집. 185~216쪽.
- 김슬옹(2005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여성의 언문사용 양상과 의미. 한일 수교 40주년 기념 국제한국어문화학회 일본 학술대회. 《한일 신시대와 일본에서의 한국언어문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일본 : 교토 호텔. 217-252쪽.
- 김슬옹(2005나).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담론학 구성 시론. 《사회언어학》 13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43-68쪽.
- 김슬옹(2006가). '훈민정음'의 명칭 맥락과 의미. 《한글》 272. 한글학회. 재수록 : 김슬옹. 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3장. 훈민정음의 명칭)》. 지식산업사. 165-196쪽.

- 김슬옹(2006나). 고종의 국문에 관한 공문식 칙령 반포의 국어사적 의미. 《해방 60년. 한국어문과 일본》 (목원대학교 편). 보고서.
- 김슬옹(2009가). 한글 음절표 의미와 교육용 유형 설정.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111-146쪽.
- 김슬옹(2011). 국어교육을 위한 근대국어 시대구분론. 《사회언어학》 19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슬옹(2012).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공식문자론. 《한글》 297. 한글학회.
- 김슬옹(2016). 안성 칠장사에 인목대비 한글공적비를 세워야 : 한글을 즐겨 쓴 왕실 여성들의 상징. 인목대비의 공로. 《한글새소식》 529호. 한글학회.
- 김승우(2007). 《龍飛御天歌》 향유·수용양상의 특징과 그 의미 : 《鳳來儀》 정재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3집. 한국시가학회.
- 김시덕(2001). 훈례 전통. 다 바뀐 것은 아니다.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 김연순(2008). 조선 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여훈서(女訓書)와 규방가사(閨房歌辭)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8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 김연순(2009). 18세기 종법사회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교화-가훈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3. 한국사회학회. 117-156쪽.
- 김영(2017). 한글필사본 《광산김씨언행록》의 자료적 고찰. 《인문사회21》 8권1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473-488쪽.
- 김영민(2004). 근대계몽기 기독교 신문과 한국 근대 서사문학 :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7집.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 김영배(1975). 금강경삼가해 제1에 대하여. 《수련어문논집》 3. 부산여자대학교 ; 재수록 : 김영배(2000). 《國語史資料研究 - 佛典諺解 중심》. 월인.
- 김영배·김무봉(1998). 세종시대의 언해. 《세종문화사대계 1(어학·문학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영신(1980). 《東國新續三綱行實》의 국어학적 연구. 《논문집》 9. 부산여자대학.
- 김영신(1985). 칠대만법(七大萬法) 연구. 어휘·그 밖. 《수련어문논집》 12. 수련어문학회.
- 김영심(2005). 왕실에 대한 尊崇과 追尊 - 尊號 의식을 중심으로 -.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 서울대학교 규장각.
- 김영욱(2008). 한글의 역사와 기능 : 한글 창제에 관한 쟁점·한글의 근대적 부활·한글의 미래를 중심으로.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어학회.
- 김영희(2017). 조선시대 한글 글쓰기 체계의 발전과 여성. 《페미니즘연구》 1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127-155쪽.
- 김완진(1972). 世宗代의 語文政策에 對한 研究 - 訓民正音을 圍繞한 數三의 問題. 《성곡논총》 3. 성곡학술문화재단 ; 재수록1 : 김완진(1984). 訓民正音 製作의 目的. 《國語와 民族文化(김민수·고영근·이익섭·심재기 공편)》. 집문당 ; 재수록2 : 김완진(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 김완진(1979). 先世諺蹟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55.56.57 합집. 국어국문학회.
- 김완진(1983). 한국어 文體의 발달. 《韓國 語文의 諸問題》(이기문 외 6인 공저). 일지사.
- 김완진(2004). 경자기년 대왕대비 언문 전교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27호. 문헌과해석사. 68-78쪽.
- 김용경(1974). 李朝時代의 語學機關研究. 《논문집》 13. 충남대학교.
- 김용경(2001). 평해황씨가 완산이씨의 유언 및 소지. 《문헌과해석》 14. 문헌과해석사.
- 김용경·도수희(1973). 이조시대의 어학기관 연구(문교부 연구 보고서). 《어문학계》 5. 문교부.
- 김용숙(1964). 李朝 後期 內人生活 研究-實地 蒐集을 主로 하여-. 《아세아여성연구》 3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 김원룡(1965). 三綱行實圖刊本攷. 《동아문화》 4.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동아문화연구소.
- 김원룡(1982). 三綱行實圖에 對하여. 《三綱行實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유란(2017). 조선후기 한글소설에 나타난 과부와 열행(烈行) 너머의 문제. 《한국어와 문화》 21권.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5-29쪽.
- 김유범(2007).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 분석 1 : 《효자도》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37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김윤경(1932). 한글 研究 材料의 文獻. 《한글》 6. 조선어학회.
- 김윤경(1960). 성서가 국어에 미친 영향. 《한국성서번역 50주년 기념 논문집》. 대한 성서공회.
- 김윤경(1964). 국어학의 기초 문헌 해제. 《논문집》. 한양대학교 전집 4 ; 재수록 : 김윤경(1985). 《한결 김윤경전집 2 : 조선문자급어학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윤선(2012). 젠더와 번역: 여성 지(知)의 형성과 변전(變轉) :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와 여성의 모더니티 -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143-179쪽.
- 김은성(2007).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연구》 19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인용(2005). 동몽선습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내용의 비교. 《교육사상연구》 17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김인희(1995). 근·현대의 한국 교육사상과 민족주의. 《인문과학연구》 1. 동덕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김일근(1961). 仁穆大妃 述懷文의 紹介와 몇 가지 問題. 《국어국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23-126쪽.
- 김일근(1976). 貞敬夫人 李氏 祭文-忠肅公 尹塾의 한글 祭妻文-. 《인문과학논총》 9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일근(1988). 政法文書의 한글 實用攷 - 한글 古文書學 序說. 《증정 언간의 연구 - 한글서간의 연구와 자료집성》.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일근·이종덕(2000). 17세기의 궁중 언간-淑徽宸翰帖. 《문헌과 해석》 11호. 문헌과해석사.
- 김일근·이종덕(2001). 숙명공주의 한글 편지첩 ③. 《문헌과 해석》 17호. 문헌과해석사.
- 김일근·황문환(1999). 金相喜(秋史 季弟)가 아내와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1831년). 《문헌과 해석》 7호. 문헌과해석사.
- 김일근·황문환(1999). 어머니 海平 尹氏(秋史 祖母)가 아들 金魯敬(秋史 父親)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 6호. 문헌과해석사.
- 김일근·황문환(2000). 아내 杞溪 俞氏(秋史 母)가 남편 김노경(秋史 父)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 해석》 10호. 문헌과해석사.
- 김재문(1993). 韓國古典小說속의 法律文書 - 춘향전·이춘풍전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4집. 79-114쪽. 한국고문서학회.
- 김재웅(2017). 고소설 필사의 전통과 영남 선비집안 여성의 문학생활-합천군 조두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4권. 한국고소설학회. 229-264쪽.
- 김정경(2008). 《동명일기》 연구 -자연 인식과 자아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4권. 국제어문학회. 143-167쪽.
- 김정경(2011).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특징 고찰. 《정신문화 연구》 12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정경(2012). 《여범》의 독해 방식 연구. 《여성문학연구》 2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99-330쪽.
- 김정경(2017). 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 : 한글본《성년광익》에 나타난 기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 연구》 146호(2017년 봄).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정수(2009). 세종 때 두 노래가 우리 말글 살이에 끼친 은덕. 국립국어원.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엮음 (2009).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고마움》. 채륜.
- 김종규(1993). 삼강행실도를 통한 현대 윤리의 재음미. 《도산학술논총》 3. 도산아카데미연구원.
- 김종덕(2016). 한일 궁정 여류문학에 나타난 교육의 연구. 《일본연구》 68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

소. 7-26쪽.

- 김종명(2006).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동양정치사상사》 6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김종수(1999). 藏書閣 所藏 朝鮮時代 宮中宴享樂 文獻 -純祖代(1800-1834) 儀軌-. 《장서각》 창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종철(1994). 장편 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433~471쪽.
- 김종택(1979). 諺簡을 통해 본 近代前期語의 斷面. 《語文研究》 4. 경북대학교.
- 김종택(1985). 한글은 문자 구실을 어떻게 해왔나. 《건국어문학 9.10합집(매남 김일근 박사 화갑기념 어문학논총)》. 형설출판사.
- 김주필(1993). 晉州河氏 墓 出土 한글 筆寫 資料의 表記와 音韻現象. 《진단학보》 75. 진단학회.
- 김주필(2006).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정신문화연구》 29-1. 한국학중앙연구원. 127~157쪽.
- 김주필(2007). 19世紀 末 國漢文의 性格과 意味. 《진단학보》 103호. 진단학회.
- 김주필(2008). 《오륜행실도》에 사용된 국어사 자료의 중층성: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확산 상태를 중심으로. 《語文學論叢》 27권. 국민대어문학연구소.
- 김주필(2009).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구어성과 문어성.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언어와 서체》(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09년 제1차 학술대회 발표집).
- 김주필(2011). 송준길 가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 : 발신자의 '세대'. '성'.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 61호. 국어학회. 61-92쪽.
- 김준석(1981). 조선전기의 사회사상: 《소학》의 사회적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9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중권(1993). 《연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9. 서지학회.
- 김중권(1994). 연해두창집요의 서지학적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5.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지오(2008). 《法華經》 音讀口訣 研究. 《佛敎語文論集》 12집. 한국불교어문학회.
- 김지용(1971). 국어·국자의 보급 발전에 기여한 문헌 고.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 김진경(1985). 일본교과서 문제와 한국의 교과서(1). 《민족의 문학과 민중의 문학》. 이삭.
- 김진규(1991). 訓蒙字會의 引·凡例 小考: 訓民正音 解例와 訓蒙字會凡例의 音素排列을 中心으로. 《논문집》 29. 공주대학교.
- 김진명(1994). 가부장 담론과 여성억압 -내훈서 및 의례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33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 김진영(1998). 行實圖의 傳記와 板畫의 相關性: 《三綱行實圖》를 中心으로. 《한국문학논총》 22. 한국문학회.
- 김창원(2017). 규방가사의 문학사적 위상과 의의. 《국제어문》 75집. 국제어문학회. 85-100쪽.
- 김천명(1960). 훈민정음 考 - 훈민정음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이유. 《어문논집》 1. 중앙대 국어국문학회.
- 김철웅(2003). 《詳定古今禮》의 편찬 시기와 내용. 《동양학》 3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김태준(1969). 저자명 기독교의 선교와 한글의 민중화: 국어 교육사의 입장에서. 《새국어교육》 12.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하라(2012). 통원(通園) 유만주(兪晩柱)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一考). 《국문학연구》 26권. 국문학회. 199-243쪽.
- 김향수(1998).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호. 진단학회.
- 김향수(2001). 조선 전기의 《소학》 보급과 동몽 교육. 《한국의 청소년문화》 창간호. 한국청소년문화학회.
- 김향수(2003). 조선 전기 三綱行實圖와 小學의 편찬. 《韓國思想과文化》 19집. 수덕문화사.
- 김해영(1994). 詳定古今禮와 高麗朝의 祀典. 《國史館論叢》 55집. 국사편찬위원회.
- 김해정(1998). 《계몽편연해》의 비교연구: 전주본과 서울본의 비교. 《국어문학》 33집. 국어문학회.
- 김혁(2000). 藏書閣 소장 謄錄의 문헌학적 특징. 《장서각》 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혁(2001).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구성과 편찬 과정. 《서지학보》 25호. 한국서지학회.

- 김혁(2002).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録物에서 謄錄의 위상. 《서지학보》 26호. 한국서지학회.
- 김혁(2008). 조선시대 婚書의 書式 변화를 통해서 본 婚禮의 양상. 《영남학》 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김혁배(1987). 18. 9세기 한글소설의 유통. 《문학과 언어》 8권 1호. 문학과 언어연구회. 113-136쪽.
- 김현룡(1964). 제문(祭文)에 關한 研究-內房歌辭의 한 갈래로서-. 《문호》 3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김혜숙(2005). 사회언어학 연구와 국어교육의 연계성 - 국어교육에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영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 김호동(2000). 麗末鮮初 鄕校教育의 강화와 그 경제적 기반의 확보과정. 《대구사학》 61집. 대구사학회.
- 김훈식(1998). 《三綱行實圖》 보급의 社會史的 考察.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 나균용(1980). 한글번역 新約聖書의 內容 比較 研究. 《신학과선교》 6. 서울신학대학.
- 나정순(2000). 전의 이씨 제문과 《절명사》의 상관성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나정순(2008). 규방가사의 본질과 경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나채운(2010). 개신교과 만난 한글. 《나라사랑》 119. 외솔회.
- 남경란(1999). 《五大眞言(오대 진언)》 《靈驗略抄(영험 약초)》의 국어학적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13.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한국전통문화연구소.
- 남경란(2005). 《칠대만법》의 저본과 국어학적 특성. 《국학연구》 7집. 한국국학진흥원.
- 남경란(2006). 《사서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 《논어언해》의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남풍현(1996). 언어와 문자. 《조선시대 생활사》(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역사비평사.
- 노연숙(2007).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전개와 양상-언문일치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0. 서서울대 규장학한국학연구소. 59-99쪽.
- 노용필(2009). 조선후기 천주교 한글 필자본 교리서의 유통.《인문논총》 23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노태조(1990). 《三綱行實圖》流通關係. 《論文集》 11. 대전보건전문대학.
- 노태조(1999). 三國遺事와 三綱行實圖의 孝行傳記 對比 研究. 《어문연구》 31. 어문연구학회.
- 도수희(1995). 哀悼文에 나타난 16세기 국어. 《어문논집》 4.5. 충남대 국문과.
- 려증동(1977). 19세기 한자 - 한글 섞어 쓰기 줄글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15집. 한국언어문학회
- 류부현(2009). 《동몽선습》의 저자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권 3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류준경(2016). (亡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기록. 그 차이와 층위 : 의유당의 《숙부인이씨행록》과 《숙부인이씨유사》 및 박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애사》를 검토함. 《국문학연구》 33호. 이회문화사. 122-158쪽.
- 류준필(2003). 구어의 재현과 언문일치. 《문화과학》 33. 문화과학사. 161-177쪽.
- 류철선.이연규(2003). 《계몽편》에 나타난 유아탐구생활 지도의 교육적 의의. 《논문집》 29집.
- 리성무(1991). 呂氏鄉約과 朱子增損呂氏鄉約. 《진단학보》. 진단학회. 71-72쪽.
- 맹택영(1978). 諺解書의 史的 考察. 《논문집》 15집. 청주교육대학교.
- 문미희(2012).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의 여성교육관. 《한국교육학연구》 18권1호. 안암교육학회. 5-23쪽.
- 문영진(1982). 改譯 이외의 한글 譯本들. 《기독교사상》 283. 대한기독교서회.
- 문태순(2003). 童蒙先箴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5권 1호. 국교육사학회.
- 문희순(2012). 동춘당 송준길가 소장 한글편지에 반영된 생활문화. 《인문학연구》 89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3-62쪽.
- 문희순(2015). 근대격동기 몰락 양반가 여성 양주조씨 노년의 삶과 《화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5~34쪽.
- 문희순(2017). 동춘당 송준길가 300년. 소장 한글편지의 현황과 삶의 모습. 《어문연구》 91권. 어문연구학회.
- 민신기.이건실(2010).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나타난 시각 기호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 롤랑바르트의 신화론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26호.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 민영진(1980). 개역 한글판 성서 의 편집 특징 및 사용된 부호들. 《기독교사상》 259. 대한기독교서.
- 민현식(2004). 국어문화에 나타난 종교문화의 요소. 《한국언어문화학》 1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민현식(2011). 한국어의 발달과 성서의 영향.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재)대한성서공회.
- 박 주(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女圖의 分析. 《여성문제연구》 20. 효성여자대학 한국여성문제연구소.
- 박광현(2000). 언어적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再考-‘국문’과 ‘조선어’의 사이. 《한국문학연구》 2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47-261쪽.
- 박문성(1991). 《五倫行實圖》를 중심으로 한 《三綱行實圖》 《東國新續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 비교. 《대전어문학》 8.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박미엽(1998). 한글 필사본 《여항소설》의 표기 연구. 《국어문학》 33집. 국어문화회.
- 박병채(1967). 韓國文字發達史. 《한국문화사 대계》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박병채(1985). 문자 발달사상에서 본 한글. 《국어생활》 3. 국어연구소.
- 박병천(2003). 조선시대 언간 서체의 조형성과 작품화 경향 고찰. 《조선시대 한글 서간의 서예적 재조명》.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
- 박병호(2006).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嶺南學》 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박부자(2007). 은진 송씨 송준길 후손가 언간의 서지 : 정리자 및 정리 시기에 대한 검증. 《돈암어문학》 20. 돈암어문학회.
- 박부자(2008). 宋浚吉 후손가의 언간첩 《先世諺讀》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박부자(2008). 은진 송씨 송준길 후손가 언간의 서지 -정리자 및 정리 시기에 대한 검증. 《돈암어문학》 20집. 돈암어문학회.
- 박선영(2013). 근대계몽기 여성교육용 독본과 가치 혼재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42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447-472쪽.
- 박순임(2004). 은진 송씨 언간에 대하여. 《한국간찰자료선집 IV :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송준길후손가편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애경(2015). 근대 초기 공론장의 형성과 여성주체의 글쓰기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1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9~355쪽.
- 박여성(2017). 한국 요리텍스트 `음식디미방`의 문화교육적 가치 탐색. 《교육문화연구》 23권.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95-421쪽.
- 박영민(2016). 빙허각(憑虛閣) 리씨(李氏)의 《청규박물지(淸閨博物志)》 저술과 새로운 여성지식인의 탄생. 《민족문화연구》 72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61-295쪽.
- 박영태.하수연.임경순(2009). 조선시대 《동몽선습》과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비교 연구. 《石堂論叢》 44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박요순(1974). 尹孤山의 諺簡札에 대하여. 《송전어문학》 3. 송전대학교.
- 박요순(1992). 明成皇后 諺簡札. 《한국고전문학 신자료연구》. 한남대출판부.
- 박용식(2001). 삼강행실도 [언해] 효자도 이야기의 구조 분석 시론. 《경상어문》 7.
- 박윤미(2007). 장서각 도서의 표장직물에 관한 고찰. 《아시아민족조형학보》 7집. 아시아민족조형학회.
- 박일용(1994).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집. 한샘출판주식회사.
- 박일용(2003). 현몽쌍룡기의 창작 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 26권3호. 31-53쪽.
- 박재연(2008). 진주 유씨가 묘 출토 언간의 어휘론적 고찰. 《동방학지》 42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정숙(2012). 조선시대 한글 여류 명필 열전-추사의 모친 기계 유씨의 생애와 글씨세계. 《월간서예》 2월호. 미술문화원. 127-131쪽.

- 박정숙(2012). 조선시대 한글 여류 명필 열전-조선시대 서사상공의 생애와 글씨. 《월간서예》 8월호. 미술문화원. 108-113쪽.
- 박정숙(2013). 조선시대 한글 여류 명필 열전-短歌文學의 최고봉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글씨 세계. 《월간서예》 1월호. 미술문화원. 122-130쪽.
- 박정숙(2013). 조선시대 한글명필 열전-청계 임영의 생애와 글씨 세계. 《월간서예》 3월호. 미술문화원. 118-121쪽.
- 박정숙(2013). 조선시대 한글명필 열전-인현왕후의 외조부 동춘당 송준길의 생애와 글씨 세계. 《월간서예》 5월호. 미술문화원. 128-132쪽.
- 박정숙(2013). 조선시대 한글명필 열전-선조의 생애와 글씨 세계. 《월간서예》 6월호. 미술문화원. 116-120쪽.
- 박정숙(2013). 조선시대 한글명필 열전-'조선의 명필가'로 손꼽히는 효종대왕의 생애와 글씨 세계. 《월간서예》 7월호. 미술문화원. 101-105쪽.
- 박정숙(2013). 조선시대 한글명필 열전-정이 듬뿍 넘치는 글씨를 쓴 현종의 생애와 글씨 세계. 《월간서예》 8월호. 미술문화원. 127-131쪽.
- 박정숙(2014). 조선시대 한글명필 열전-은거(隱居)로 생을 마친 문신·서화가 석촌(石邨) 윤용구(尹用求)의 생애와 글씨 세계. 《월간서예》 1월호. 미술문화원. 104-108쪽.
- 박정숙(2014). 조선시대 (18세기) 왕실 '한글 필사류 자료'의 서예적 고찰(도록 해제). 문영호 엮음(2014). 《곤전어필.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김씨부인한글상언》(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 국립한글박물관. 120-139쪽.
- 박정신(2011). 한글성서. 이 땅에서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다. 《새가정》 637호. 새가정사.
- 박진수(2007). 한국·일본의 소설과 '언문일치체'-근대적 시점과 서술양식의 형성과정. 《일본학연구》 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135-152쪽.
- 박창원(1998). 한국인의 문자생활사. 《동양학》 28.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 박창해(1985). 로스 《예수성교전서》에 쓰인 한국어의 문법구조.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 박채린(2015). 신창 맹씨 종가 《자손보전》에 수록된 한글조리서 '최씨 음식법'의 내용과 가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권2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37-149쪽.
- 박철상(2015). 조선본 《열녀전》의 서지적 의미.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198-214쪽.
- 박형우(2006). 국어교육에서의 한글 교육.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 박희병(1998).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한문학연구》 22집. 한국한문학회.
- 방종현(1946). 訓民正音史略. 《한글》 97. 한글학회.
- 방종현(1963). 朱子增損呂氏鄉約. 《일사국어학논집》. 민중서관.
- 배상현(1991). 《朱子家禮》와 그 朝鮮에서의 行用過程. 《동방학지》 7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배영동(2012). 《음식디미방》 저자 실명 '장계향(張桂香)'의 고증과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19호. 실천민속학회. 163-186쪽.
- 배현숙(1984).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 서적. 《교회사 논문집》 I :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 한국교회사연구소.
- 백낙천(2006가). 인간의 종결어미 형태 : 《순흥 안씨 언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2집. 수덕문화사.
- 백낙천(2006나).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의 형식과 내용. 《한말연구》 18호. 박이정.
- 백낙천(2007). 국어 생활사 자료로서의 인간의 특징. 《한국언어문화》 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백두현(1993). 窮儒寒士本 孟子諺解에 대하여. 《용언어문논집》 6집. 용언어문학회. 경성대학교.
- 백두현(1997가). 晉州 河氏墓 出土 《玄風 郭氏 諺簡》 判讀文. 《어문론총》 31. 경북어문학회.
- 백두현(1997나). 17세기초의 한글편지에 나타난 생활상. 《문헌과해석》 1. 태학사.

- 백두현(1998). 현풍 곽씨 언간에 나타난 17세기의 習俗과 儀禮. 《문헌과해석》 3. 태학사.
- 백두현(1999). 17세기의 현풍 곽씨 언간에 나타난 민간 신앙. 《문헌과해석》 6. 문헌과해석사.
- 백두현(2000). 현풍 곽씨 언간의 音韻史的 연구. 《국어사자료연구》 창간호. 국어사자료학회.
- 백두현(2001).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연구. 《嶺南學》 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백두현(2001). 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호. 진단학회.
- 백두현(2003가). 취암문고 소장 국어사 자료의 연구. 《영남학》 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백두현(2003나). 현풍 곽씨 언간을 통해서 본 언간의 세계. 《조선시대 한글 서간의 서예적 재조명》. 세종 한글서예큰뜻모임.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학회.
- 백두현(2004가).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호. 진단학회.
- 백두현(2004나).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 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 백두현(2004다). 우리말[韓國語] 명칭의 역사적 변천과 민족어 의식의 발달. 《언어과학연구》 28집. 언어과학회.
- 백두현(2004라). 한국어 문자 명칭의 역사적 변천. 《문학과 언어》 26집. 문학과언어학회.
- 백두현(2005).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 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 《어문논총》 42 권.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39-85쪽.
- 백두현(2005가).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호. 진단학회.
- 백두현(2006나).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45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61-321쪽.
- 백두현(2006다). 국어사 문헌의 내용 구성과 이판본의 변이 연구. 《國語史와 漢字音(최남희 외 편저)》. 박이정.
- 백두현(2006라).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74집. 국어학회.
- 백두현(2006마). 안동 권씨가 남긴 한글 분재기(分財記) : 안동 권씨가 짓고 9대손 최완구가 번역한 한글 분재기. 《문헌과 해석》 36호. 문헌과해석사.
- 백두현(2007).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 22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백두현(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어사 자료의 가치. 《한국학논집》 3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 백두현(2009).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 《진단학보》 108호. 진단학회.
- 백두현(2010).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0호. 국어사학회.
- 백종구(2015).훈민정음의 사용·보급·정책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훈민정음의 사용·보급·정책에 관한 연구의 성과와 방향). 《훈민정음 연구의 쟁점과 전망》(학술대회 자료집). 국립한글박물관.
- 부길만(2011). 문서 선교와 한글 보급. 《시와문화》 17호(봄호). 시와문화사.
- 부유섭·강문종(2007). 《기각한필(綺閣閒筆)》 연구. 《고전문학연구》 32권. 한국고전문학회. 435-464쪽.
- 사재동(2006). 西浦 金萬重의 文化史的 位相. 《한국사상과 문화》 34집. 수덕문화사.
- 사재동(2010). 訓民正音 創製.實用的 佛敎文化學的 考察. 《국학연구론총》 5집. 태민국학연구원.
- 서경희(2006).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9~75쪽.
- 서경희(2013). 개인 필사본 한글소설의 독자 취향과 향유 방식 -《소약란직금회봉》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4권. 온지학회. 187-216쪽.
- 서승완(2009). 언해본 삼강행실도(권1 효자)의 결속구조 : 규장각본(영조 중간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0집 2호.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 서원섭(1971). 회재선생한글제문고. 《어문논총》 6호.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서은아(2008). 《열녀함양박씨전》의 박씨와 《삼강행실도 : 열녀편》의 관계를 통해 본 열녀제작의 심리적 요인. 《고전문학과 교육》 1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서정민(2005). 《삼강명행록》의 창작 방식과 그 의미. 《국제어문》 35권. 국제어문학회. 71-95쪽.
- 서정민(2005). 조선조 한글대하소설의 위상 提高 방식 연구 : 《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국문학연구》 13호. 태학사.
- 서정민(2007). 《삼강명행록》을 통해 본 여성의 성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361-383쪽.
- 서정민(2010).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21-145쪽.
- 서정민(2011).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5-29쪽
- 서정민(2012). 한글 대하소설 속 여성 그림 활동의 특징과 문화적 배경 -《소현성록》과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311-334쪽.
- 서정민(2013). 조선후기 한글 대하소설에 나타난 미인도. 《동방학》 27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97-122쪽.
- 서종학(1986). 《救荒撮要》와 《新刊救荒撮要》에 관한 考察. 《국어학》 15집. 국어학회.
- 서태룡(1996). 16세기 淸州 簡札의 종결어미 형태.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석주연(2001). 대영도서관 소장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 석주연(2010). 조선시대 한글 문헌의 간행 경위와 배포 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43-70쪽.
- 설성경(1972). 九雲夢의 構造的 研究. I : 時間論. 《人文科學》 27.28집. 연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성기옥(1989). 《龍飛御天歌》의 文學的 성격 : 訓民正音 창제와 관련된 國文詩歌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8. 진단학회.
- 성호주(1984). 현토체 악가의 시가사적 의의. 《수련어문논집》 11. 수련어문학회.
- 손계영(2009). 藏書印을 통해 본 同春堂 後孫家의 장서 형성 배경. 《고문서연구》 34호. 한국고문서학회.
- 손병태(1990). 《村家救急方》의 鄉藥明 研究. 《영남어문학》 17. 한민족어문학회.
- 송성욱(1992).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학회. 378-404쪽.
- 송일기(2000가). 《父母恩重經》 韓.中 板本考. 《중한인문과학연구》 5집. 중한인문과학연구소.
- 송일기(2000나). 한국본 《부모은중경 : 언해.한글》의 판본 및 한글서체에 관한 연구. 《도서관》 355. 국립중앙도서관.
- 송일기(2001).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언해》의 초역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 서지학회.
- 송일기(2006). 한국본 《부모은중경》 형성에 관한 연구 : 서하본 및 고려본의 판본학적 접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권 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송일기.박민희(2010). 새로 발견된 湖南板 《父母恩重經》 4종의 서지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권 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송일기.이태호(2001). 朝鮮時代 ‘行實圖’ 板本 및 板畫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21. 서지학회.
- 송재용(1996). 韓國 日記文學論 試考. 《漢文學論集》 14집. 근역한문학회.
- 송재용(2010). 일기를 통해본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기록정신. 《東아시아古代學》 2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 송정숙(1990). 四書諺解書 刊行의 政治.社會的 背景 ; 李滉의 《四書釋義》와 李珣의 《四書栗谷諺解》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6호. 부산대학교사회과학대학. 89-101쪽.
- 송정아(1995). 규합叢書에 나온 袍類에 관한 分析的 研究. 《논문집》 5. 상주산업대학교.
- 송지원(2009). 국왕 영조의 국장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조선시대사학보》 51. 조선시대사학회.
- 송철의(2004).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韓國文化》 3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송철의(2008가). 반절표의 변천과 전통시대 한글교육.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 The 2nd IKL 'Hangeul'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한국어학회. 프린트물 ; 재수록 : 송철의(2008나). 홍종선 외. 《세계 속의 한글》. 박이정.
- 시정곤(2007). 훈민정음의 보급과 교육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 신경숙(2002).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집. 국제어문학회.
- 신경숙(2003). 조선후기 宴享儀式에서의 歌者. 《국제어문》 29집. 국제어문학회.
- 신경숙(2008). 조선조 악장. 그 역동성-후기 연향악장을 읽는 네 가지 방법-. 《한성어문학》 27집. 한성어문학회.
- 신경철(1994). 《능엄경언해》 註釋文의 語彙 考察. 《국문학논집》 14. 단국대학교국어국문학과.
- 신기철(1979). 한글 반포 와 그 걸어온 길. 《統一世界》 10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신명호(2010). 조선건국 후 왕실의례 정립과 의궤. 《조선왕조 의궤(儀軌) 학술심포지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신병주(2006). 왕실에서의 기록물 생산과 보존. 《고문서연구》 28호. 한국고문서학회.
- 신병주(2008).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17호. 한국기록학회.
- 신병주(2010). 조선시대 儀軌 편찬의 역사. 《조선시대사학보》54. 조선시대사학회.
- 신봉승(2010). 역사(歷史) 에세이 : 조선조(朝鮮朝) 최고(最高)의 지식인(知識人) 여성(女性), 인수대비(仁粹大妃). 《한글한자문화》 130권.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14-19쪽.
- 신선경(1995). 《삼강행실도》의 이본 비교. 《국어학논집》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편. 태학사.
- 신선경(2003). 사유 방식과 텍스트의 구조 : 《격몽요결》의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4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신선희(1995). 《곽분양전》 연구. 《장안논총》 15-1. 장안대학. 28~42.
- 신성철(2010).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국어사적 고찰. 《어문학》 107집. 한국어문학회.
- 신수경(2007). 조선시대 열녀도의 양태와 《烈女徐氏抱竹圖》. 《미술사학연구》 253호. 한국미술사학회.
- 신순식(1996). 《언해태산집요》에 관한 연구. 《구암학보》 4. 구암학회.
- 신은경(2009). 散韻 혼합담론으로서의 《三綱行實圖》 연구. 《국제어문》 46집.
- 신은경(2010). 고소설에 있어 '流通'과 '詩運用'의 상관성에 관한 검토 : 《구운몽》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신정숙(1967). 韓國 傳統社會의 內簡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37.38 합집. 국어국문학회.
- 신창순(1994). 訓民正音의 機能的 考察. 《어문연구》 22권 1-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신현애(2017).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언해본의 서예미(書藝美) 고찰. 《동양예술》34권. 한국동양예술학회. 210-238쪽.
- 심경호(1985). 조선조의 杜詩集 간행에 관하여. 《한국학보》 38. 일지사.
- 심경호(1990).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8. 애산학회.
- 심경호(1999).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一志社.
- 심경호(2009).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41-279쪽.
- 심승구(2007). 조선시대 왕실혼례의 추이와 특성-숙종.인현왕후 嘉禮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1호. 조선시대사학회.
- 심재기(1975). 내간체문장에 대한 고찰. 《東洋學》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심재기(1992). 개화기 교과서 문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호. 국어국문학회.
- 안귀남(1999). 고성 이씨 이응태 묘 출토 편지. 《문헌과 해석》. 6호. 문헌과해석사.
- 안귀남(1999). 固城李氏 李應台墓 出土 편지. 《문헌과해석》 6. 문헌과해석사.
- 안대회(2001). 한문학에서의 민족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 조선 후기 학자의 민족언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8호 별집. 월인.
- 안대회(2006). 조선 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24집. 대동한문학회.

- 안병희(1963). ㅈ가語攷. 《국어국문학》 26호. 국어국문학회.
- 안병희(1978). 《村家救急方》의 鄉名에 대하여. 《언어학》 3호. 한국언어학회.
- 안병희(1979). 中世語의 한글 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규장각》 3집. 서울대도서관.
- 안병희(1983). 國語史資料의 整理를 위하여 : 基本資料의 選定 및 複製와 관련하여. 《한국학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 아세아문화사.
- 안병희(1985). 訓民正音 使用에 관한 歷史的 研究 :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46·47·48. 연세대학교.
- 안병희(1987). 한글판 《오대진언》에 대하여. 《한글》 195. 한글학회.
- 안병희(1990). 奎章閣所藏 近代國語資料의 書誌學的 檢討. 《계간서지학보》 2. 한국서지학회.
- 안병희(1992다). 《孝經諺解》와 《孝經口訣》.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21장.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1992라). 初期佛經諺解와 한글. 《불교문화연구》 3. 영축불교문화연구원.
- 안병희(1992마). 《呂氏鄉約諺解》의 원간본 : 안병희(1992). 《國語史 資料 研究》 20장. 문학과 지성사.
- 안병희(1993). 여씨향약언해 해제. 《연민학지》 1집.
- 안병희(1999.). 王室資料의 한글筆寫本에 대한 國語學的 檢討. 《장서각》 창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안병희(1999가). 崔世珍의 生涯와 年譜 : 그의 誌石 발견을 계기로 하여. 《규장각》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 안병희(1999나).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 《어문연구》 1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안병희(2000). 한글의 창제와 보급. 《겨레의 글 한글》(새천년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 안병희(2006). 국어사연구와 한글자료. 《국어사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임용기·홍윤표 편). 태학사.
- 안성호(2009). 19세기 중반 중국어 대표자역본 번역에서 발생한 ‘용어논쟁’이 초기 한글성서번역에 미친 영향. 《한국기독교와역사》 30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안세현(2015). 일본 동경대 오구라문고 소장 《경람(敬覽)》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60권. 한국한문학회. 303-338쪽.
- 안소진(2005). 《동몽선습언해》의 서지와 언어 : 7행 15자본과 9행 16자본의 언해 양식 비교. 《관악어문연구》 30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안숙원(1999). 역사의 총체성과 여성 담론: 남평曹氏의 《丙子日記》를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권. 한국여성문학학회. 191~227쪽.
- 안승준(1996). 朝鮮時代 私奴婢 推刷와 그 實際” - 榮州 仁同張氏所藏 古文書를 中心으로 -. 《古文書研究》 8집. 한국고문서학회. 1-39쪽..
- 안승준(1998). 估畢齋 金宗直이 어머니와 아내로부터 받은 편지. 《문헌과 해석》 5호. 문헌과해석사.
- 안승준(2000). 吳身男의 妻 林氏가 繼後에 관하여 관찰사에게 올린 議送. 《문헌과 해석》. 10호. 문헌과해석사.
- 안승준(2000). 祭祀輪行과 여성의 재산 상속에 관한 분재기. 《문헌과 해석》. 11호. 문헌과해석사.
- 안유경(201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및 내용. 《유교문화연구》 16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안장리(2003). 姜希孟의 生涯와 文學. 《열상고전연구》 18집. 열상고전연구회.
- 안주호(2002가).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호.
- 안주호(2002나).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 연구. 《배달말》 31호. 배달말학회.
- 양민정(2009). 국문여류수필을 활용한 한국 여성문화교육 방안 연구 : <규중칠우쟁론기><조침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49호(여름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여강석(2007). 장서각 소장 ‘순명효황후 관련 한글 간찰’의 내용과 가치. 《장서각》 1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여찬영(2005가).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열녀》편 비교 연구 : 체제 및 한문 원문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33집. 언어과학회.
- 여찬영(2005나).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한문 원문 연구. 《어문학》 88호.

- 여찬영(2009). 조선조 언해류와 번역학. 《한국말글학》 26집. 한국말글학회.
- 역사학회 편(2013). 《정조와 18세기》, 푸른역사.
- 연갑수(2000).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研究. 《외대사학》 1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염정섭(1997).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호. 한국역사연구회.
-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1996). 조선후기의 세책 재론.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연구원.
- 옥영정(2004). 17세기 개인출판의 四書諺解에 관한 고찰 : 1637년 간행의 四書諺解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27집. 서지학회.
- 옥영정(2005). 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 : 간본의 계통과 經書字復刻本の 형태서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2집. 서지학회.
- 옥영정(2008). 장서각 소장 보물 《능엄경》과 《원각경》의 인쇄문화적 가치. 《장서각》 20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옥영정(2008). 한글본 《명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39집. 서지학회.
- 옥영정(2009). 《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 -한글본 《명니의궤》에 수록된 ‘화성성역’의 분석과 비교-. 《서지학연구》 42집. 서지학회.
- 옥영정(2009). 한글본 《명니의궤》에 나타난 기록물의 轉寫와 註釋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33호. 한국서지학회.
- 외솔회(1989). 한국 기독교와 한글 ; 민족 문화 발전의 선구. 《나라사랑》 69. 외솔회.
- 우래제(1988). 《韓國 家庭小說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유동준(1968).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8집. 역사학회.
- 유명우(2004).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諺解) 번역. 《번역학연구》 5권2호. 한국번역학회.
- 유성덕(1985). 한글성경이 우리 어문학에 끼친 영향 : 1887년부터 1945년까지를 중심으로. 《논문집》 5. 충신대학교.
- 유수민(2015). 조선후기 한글소설 《황부인전》의 재창작 양상 소고 -《삼국연의(三國演義)》 및 중국서사 전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67권. 한국비교문학회. 181-209쪽.
- 유수민(2016). 조선후기 한글소설 《강태공전》의 《封神演義》 변안 양상 小考. 《한국중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3-287쪽.
- 유영옥(2008). 眉巖 柳希春의 尊朱子 학풍과 經書諺解. 《동양한문학회연구》 26집. 동양한문학회.
- 유창균(1974). 《한글갈》 국어학사 : 외솔선생의 학문. 《나라사랑》 14. 외솔회.
- 유탉일(1974). 초간 삼강행실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1. 부산대학교국어국문학회.
- 육수화(2008). 여훈서를 통해 본 조선왕실의 여성교육. 《교육철학》 34집. 한국교육철학회.
- 윤병태(1991). 藏書閣의 沿革과 所藏圖書. 《정신문화연구》 4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윤분희(2004). 규훈서 《여범》 연구. 《여성문학연구》 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 윤사순(2002). 栗谷 鄉約의 思想的 性向. 《울곡사상연구》 5집. 울곡학회.
- 윤세순(2004).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유입과 향유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5호. 민족문학사학회.
- 윤세순(2006). 17세기. 소설류의 유행양상. 《동방한문학》 31집. 동방한문학회.
- 윤세순(2008가). 17세기 필사본 소설류에 대하여. 《한문학보》 19집. 우리한문학회.
- 윤세순(2008나). 17세기. 간행본 서사류의 존재양상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38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 윤춘병(1987). 초기 한국 기독교 문헌에 기록된 한글판 구약. 《기독교사상》 340. 대한기독교서회.
- 윤태림(1989). 韓國의 文字生活과 教育에 대하여. 《어문연구》 17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 옥(2008). 조선후기 後宮 嘉禮의 절차와 변천-慶嬪 金氏 嘉禮를 중심으로-. 《장서각》 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이강옥(2007).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본 18,19세기 야담의 구연,기록,번역. 《고전문학연구》 32권. 한국고전문학회. 333-372쪽.
- 이강옥(2009). 이중언어 현상과 고전문학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6집. 한국어문학회.
- 이경하(2003).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이경하(2005). 17세기 상층 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여성 대상 傳狀文, 碑誌文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집. 한국문학연구회. 217-241쪽.
- 이경하(2005가).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호. 국어국문학회.
- 이경하(2005나).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 여성 대상 : 여성 대상 傳狀文, 碑誌文을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39집. 한국문학회.
- 이경하(2009).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제고 - 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 이경하(2010).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literacy)과 읽기교재 《내훈》. 《정신문화연구》 11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경하(2010).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31-55쪽.
- 이관규(1991). 고등학교 ‘옛말의 문법’에 대한 검토. 《한국어문교육》 5. 고려대 국어교육과. 78-118쪽.
- 이광규(1994). 조선후기의 혼인속속과 혼례절차. 《역사비평》27. 역사비평사.
- 이광렬(2007). 광해군대(光海君代)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편찬의 의의. 《한국사론》 53호. 정옥자선생정년기념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이광호(1996). 諺文簡札의 形式과 表記法.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근명(2002). 주희의 《증손려씨향약》과 조선사회 - 조선향약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45집. 한국중국학회.
- 이근수(1983). 訓民正音 創製와 그 政策. 추강 황희영 박사 송수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국어 계통론 훈민정음 연구》. 집문당.
- 이근영(2004). 여사서 언해(女四書 諺解)의 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15호. 한말연구학회.
- 이기대(2009). 한글편지에 나타난 순원왕후의 일상과 가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15-349쪽.
- 이기대(2011). 19세기 왕실 여성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공적(公的)인 성격과 그 문화적 기반. 《어문논집》 48집. 중앙어문학회.
- 이기동(2003). 유교의 인간관. 《본질과 현상》 2호(겨울호). 본질과현상사.
- 이기문(1981). 천자문연구(1). 《한국문화》 2호. 서울대 규장학한국학연구소.
- 이기문(1984). 개화기의 국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호. 서울대 규장학한국학연구소.
- 이기백(1989). 訓民正音의 運用. 《어문연구》 17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길표,최배영(1996). 규합총서의 내용구성 분석. 《생활문화연구》 10.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 이덕주(1985).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 특히 성서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 이덕주(1990). ‘갈등과 극복’의 구조 속에서 보는 한국 기독교 역사 1 : 조선의 근대화의 성서의 한글 번역. 《한몸》 9. 세계신학연구원.
- 이덕흥(1985). 《家禮諺解》에 나타난 語彙形成考. 《어문연구》 4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동림(1966). 國文字策定の 歷史的 條件. 《명지어문학》 3. 명지대학교.
- 이동석(2011). 한글에 대한 오해. 《말과 글》 128호(가을호). 한국어문기자협회.
- 이래호(2012). 한글본 《동의보감》의 언해 양상과 국어학적 특징. 《인문학연구》 22권.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97-327쪽.

- 이래호·황문환(2003). 先札 所載 諺簡에 대하여. 恩津宋氏 霽月堂篇. 《한글간찰자료선집》 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만기(1993). 고등학교 문법 ‘옛말의 문법’ 유감. 《새국어교육》. 48.49 합집. 135-138.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만열(2011). 한글 성경 완역 출판과 한국 사회.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재)대한성서공회.
- 이문주(2010). 《주자가례》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유교문화연구》 16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이민희(2004가). 구활자본舊活字本 고소설 《서산대사전西山大師傳》 연구. 《국학연구》 5집(가을.겨울). 한국국학진흥원.
- 이민희(2004나). 서적 중개인의 역할과 소설 발달에 관한 연구 시론. 《관악어문연구》 29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이민희(2007). 《조선의 베스트셀러 : 조선 후기 세책업의 발달과 소설의 유행》. 프로네시스.
- 이민희(2008가). 고소설 삽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 《고소설연구》 25집. 한국고소설학회.
- 이민희(2008나). 구활자본의 고소설 《丙寅洋擾》 연구. 《어문연구》 56권. 어문연구학회.
- 이민희(2009가).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정신문화연구》 114호(봄).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민희(2009나).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적 성격과 놀이 문화. 《열상고전연구》 30집. 열상고전연구회.
- 이범직(1976가). 조선전기의 교생신분. 《한국사론》 3. 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사학과.
- 이범직(1976나). 朝鮮前期 儒學教育과 鄉校의 機能. 《역사교육》 20. 역사교육연구회.
- 이범직(1979). 朝鮮前期 儒學教育制度의 性格 : 四部學堂을 中心으로. 《학술논총》 3. 단국대학교대학원.
- 이범직(1988). 中國史書의 五禮와 世宗朝의 五禮.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손보기박사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이범직(1990). 朝鮮前期의 五禮와 家禮. 《한국사연구》 71집. 한국사연구회.
- 이범직(2007).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한국사상과 문화》 3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 이병근(1996). 16.17세기 연간의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이해.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복규(1997가). 《묵재일기(默齋日記)》 소재 국문소설 《왕시봉전》의 해제와 원문. 《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복규(1997나). 最古 한글표기소설 《薛公瓚傳》 국문본의 해제와 원문. 《사학연구》 53. 한국사학회.
- 이복규(2000). 초기 국문소설의 존재 양상. 《국제어문》 21. 국제어문학회.
- 이복규(2001). 허균(許筠)과 《홍길동전》과의 상관성. 《인문과학연구》 9집. 서경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이복규(2002). 《五倫全傳序》의 再解釋. 《어문학》 75호. 한국어문학회.
- 이봉춘(1980). 조선전기 불전언해와 그 사상. 《한국불교학》 5권 1호. 한국불교학회.
- 이상규(2009).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미래. 《우리말연구》 25. 우리말학회.
- 이상녀(2002). 《家禮諺解》의 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11호. 한말연구학회.
- 이상택(2003). 「낙선재본 소설의 혼사장애주지」, 《한국고전소설의 이론》Ⅱ, 새문사.
- 이상하(2006). 한문학습 및 번역에 있어서 현토의 문제. 《민족문화》. 29집. 민족문화추진회.
- 이상혁(1998). 언문과 국어의식. 《국어국문학》 121호.
- 이상혁(2003).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문자생활사. 《디지털 한글 박물관 역사관: 문자생활사》 (<http://www.hangeulmuseum.org>).
- 이상혁(2006). 훈민정음. 언문. 반절. 그리고 한글의 역사적 의미 - 우리글 명칭 의미의 어휘적 함의를 중심으로. 정광 외.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태학사.
- 이상혁(2007). 훈민정음에 대한 문화콘텐츠적 접근과 그 방향.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 이상혁(2008가). 훈민정음과 한글의 언어문화사적 접근 - 문자. 문자 기능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 이상혁(2008나). 훈민정음과 한글의 정치사적 시론 : 문자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어학회.
- 이상훈(2015). 《古列女傳》의 한글 필사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7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이석규(1998). 조선초기 '教化'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11집. 한국사상사학회.
- 이석주(1994). 문자의 발달과 한글. 《한성어문학》 13.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 이선옥(2015). 근대 공론장에서 여성 담론: 연설체 신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61-86쪽.
- 이성구(1977). 東國新續三綱行實 에 나타난 救病孝行研究. 《논문집》 2. 명지실업전문학교.
- 이성만(2010). 텍스트언어학의 계보. 대상 그리고 경향. 《언어과학연구》 52. 언어과학회.
- 이성애(1980). 李王朝의 宮中史料考-竹冊. 玉冊을 中心으로-. 《국학자료》 35호.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
- 이수봉(1971). 閨房文學에서 본 李朝女人像. 《여성문제연구》 1.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 이수연(2004). 조선시대 유교 윤리서 연구 : 세종조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대학원논문집》 4집.
- 이순구(1996). 朝鮮中期 冢婦權과 立後의 강화. 《고문서연구》 9.10합집호. 한국고문서학회.
- 이순구(1998). 《癸丑日記》에 나타난 궁중생활상. 《사학연구》 55.56합집호. 한국사학회.
- 이순구(1999).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한국여성연구소여성사연구실. 《우리여성의 역사》. 청년사. 191~224쪽.
- 이순구(2015). 알고 보면 권력자. 조선의 양반 여성들-양반가의 여성생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2015).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10-231쪽.
- 이승녕(1955). 國語學史의 時代性論考 : 訓民正音問題를 主題하여. 《학총》 1. 학총사.
- 이승녕(1962). 壬辰倭亂과 民間人 被害에 對하여 : 《東國新續 三綱行實》의 被害報告書의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역사학보》 17.18. 역사학회.
- 이승녕(1966). 한글 制定의 時代 環境. 《교육평론》 96. 교육평론사.
- 이승녕(1967). 한국어 발달사(어휘사). 《한국문화사 대계 V》.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이승녕(1970). 이조 초기 역대 왕실의 출판 정책의 고찰 - 특히 불경인행(佛經印行)의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한글》 146. 한글학회.
- 이승녕(1977). 世宗의 言語政策事業과 그 隱密主義的 態度에 對하여 - 特히 實錄記錄의 不透明성과 冊房의 露出을 中心으로 하여. 《한국학 논총》(하성 이선근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 이승녕(1978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音韻史的 考察. 《학술원논문집》 17. 대한민국학술원.
- 이승녕(1978나). 諺解 事業의 時代的 傾向에 對하여. 《민족문화》 4. 민족문화추진회.
- 이승녕(1986). 신미의 역경사업에 관한 연구. 《학술원논문집》 25. 학술원.
- 이승희(2000). 규장각 소장본 '純元王后 한글편지'의 고찰. 《규장각》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이승희(2008). '순원왕후 한글편지'의 자료적 특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 4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이승희(2013).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 양상. 《한국문화》 61.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 양상. 301-325쪽
- 이연숙(2005). 일본에서의 언문일치. 《역사비평》 70. 역사비평사. 323-345쪽.
- 이영경(1995). 《續三綱行實圖》 研究. 《국어학 논집 2》. 태학사.
- 이영경(2001). 三綱行實圖(諺解). 續三綱行實圖.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서울대 규장각.
- 이영숙(1982). 朝鮮初期 內命婦에 對하여. 《역사학보》 96집. 역사학회.
- 이영춘(1999). 朝鮮時代의 王室 典禮와 儀軌. 《장서각》 창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영춘(2002). 朝鮮後期의 祀典의 再編과 國家祭祀. 《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구회.
- 이옥련(1989). 諺簡의 親戚 및 夫婦 呼稱考. 《아세아여성연구》 28. 숙명여대.

- 이용길(2003). 조선시대 서당의 교재에 대한 고찰. 《교육연구》 22집. 원광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이우성(1976). 조선왕조의 훈민정책과 정음의 기능. 《진단학보》 42호. 진단학회.
- 이원수(2001). 한글소설의 개념과 최초의 한글소설. 《교육리론과실천》 1권 1호. 경남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이원승(2003). 사대부가(士大夫家) 여인 행장에 나타난 자의식 소고 : 서포가(西浦家) 3대 여인 행장을 중심으로. 《자하어문논집》 18집. 상명어문학회.
- 이원승(2010). 새로 찾은 《팔도유람가》 주해(註解). 《동서울대학논문집》 32집 1권. 동서울대학.
- 이원재(2006). 조선시대 《소학》 교육의 현실. 《교육학연구》 44권3호. 한국교육학회.
- 이유미(2007).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 : 일본인 발행신문 한성신보 연재 서사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
- 이윤재(1932). 한글運動의 回顧. 《동아일보》 1932.10.30.
- 이은선(2014). 남양군에서의 기독교 전파를 통한 여성 교육과 여성 의식 변화와 애국계몽운동. 《성경과 신학》 70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123-153쪽.
- 이응백(1981). 국어의 '기본음절표'에 대하여 《선정어문》 11.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응백(1983). 초등학교 한글 교육에 대한 연구. 《사대논집》 26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이응백(1989). 訓民正音 訓讀의 基本資料. 《어문연구》 17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응호(1974). 요약한 한글전용 운동사 : 기독교와 한글. 《성별》 38호(10월호). 성별사.
- 이응호(1983).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4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응호(1995). 한글 성경 번역사. 《교회와 한국문제》 26권.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 이재기 외(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룡(2000). 조선시대의 법 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 《동양사회사상》 3집. 동양사회사상학회.
- 이재만(1972). 우리 문자의 지도방법에 대한 고찰. 《논문집》 7. 광주교육대학.
- 이전경(2000). 간경도감의 언해서와 불경의 구결자 비교 - 구결자의 음가 추정과 차자 운용체계. 《23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이정배(2001). 한글과 기독교 : 문화신학의 과제로서 한글로 신학하기 : 유명모와 김흥호의 한글풀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2집. 한국기독교학회.
- 이정옥(1982). 完山李氏遺言考. 《문학과언어》3. 문학과언어연구회.
- 이종덕(2016). 명온공주와 익종이 주고받은 편지. 《말과 글》 146호. 한국어문기자협회. 57-66쪽.
- 이종덕(2017). 인목대비의 한글 편지. 《말과 글》 152호. 한국어문기자협회. 64-72쪽.
- 이종덕(2017). 정순왕후의 한글 편지. 《말과 글》 153호. 한국어문기자협회. 43-55쪽.
- 이종묵(2002).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서지학보》 26호. 한국서지학회.
- 이종묵(2002).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7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종묵(2003). 장서각 및 수집 고문서 자료의 정리실태와 전망. 《국학연구》 2집. 한국국학진흥원.
- 이종묵(2007).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a). 《진단학보》 104호 진단학회.
- 이종묵(2008).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한시 번역의 모델. 《민족문화》 32집. 한국고전번역원.
- 이종철(1978). 校正廳本 소학언해와 사서언해의表記에 대하여. 《국어교육》 3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지영(2008).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筆寫)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73-308쪽.
- 이지영(2012). 조선시대 규훈서(閨訓書)와 여성의 문자문화. 《여성문학연구》 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81-113쪽.
- 이지영(2013). 《심생전》, 《옥소선》, 《상사동기》의 '열정적 사랑'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227쪽
- 이지하(2004).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이지하(2004). 인물형상화 방식을 통해 본 《창랑호연록》의 통속성. 《한국문화》 3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43-69쪽.
- 이지하(2008).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26권. 한국고소설학회. 303-331쪽.
- 이지하(2015). 《현몽쌍룡기》의 음모구조와 소설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47. 한국고전문학회, 311-341쪽.
- 이지하(2015). 18세기 대하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국제어문》 66집. 국제어문학회. 195-212쪽.
- 이진경(2002). 문학 - 기계와 횡단적 문학 : 기하학적 형식으로 증명된 문학 - 기계의 이론. 고미숙 외(2002). 《들뢰즈와 문학기계》. 소명출판.
- 이진호(1982). 한글성서 번역과 전래 《특집》. 《신앙계》 187호. 신앙계.
- 이진호(2011). 《진법언해(陣法諺解)》의 표기와 음운. 《언어과학연구》 56권. 언어과학회.
- 이태승·안주호(2003). 망월사본 《眞言集凡例》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 이태영(2009).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완흥사서포(完興社書舖). 《수필과 비평》 101호. 수필과비평사.
- 이태영(2010). 한글고전소설과 그 필사본. 《수필과 비평》 106호(3/4월). 수필과비평사.
- 이태욱(2003). 《諺解 胎産集要》에 나타난 17세기 국어 부정법 고찰.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회.
- 이태호·송일기(2003). 初編本 《三綱行實孝子圖》의 編纂過程 및 版畫樣式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25집. 서지학회.
- 이필기(2008).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판화(版畫)의 연구 : 《열녀도(烈女圖)》를 중심으로. 《경주문화논총》 11집.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이현수(2011). 내간과 내간체 문학 2, 산성일기. 《(월간)창조문예》 173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 이현수(2011). 내간과 내간체 문학 3, 한중록. 《(월간)창조문예》 174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 이현수(2011). 내간과 내간체 문학 4, 한중록 2. 《(월간)창조문예》 175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 이현수(2011). 내간과 내간체 문학 6, 화성일기. 《(월간)창조문예》 177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 이현수(2011). 내간과 내간체 문학 8, 구운몽. 《(월간)창조문예》 179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 이현수(2011). 내간과 내간체 문학 9, 구운몽. 《(월간)창조문예》 180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 이현수(2011). 내간과 내간체 문학. 7,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 《(월간)창조문예》178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 이현수(2011). 내간과 내간체 문학 10, 조침문. 《(월간)창조문예》 181호. 크리스찬서적·창조문예사.
- 이현숙(2008). 《언해 벽온신방》과 《언해 납약증치방》의 역사적 의미 : 이화여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4호.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 이현주(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啓蒙篇諺解》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 《장서각》 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현희(1978). 奎章閣 소장의 英祖代 한글문헌. 《규장각》 2집. 서울대학교 도서관.
- 이현희(1993). 《小學》의 언해본.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문학과지성사.
- 이현희(1996). 중세 국어 자료(한글문헌).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 이현희(1999). 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 이현희(1999). 藏書閣 소장의 英祖代 한글문헌. 《장서각》 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현희(2000). 《武藝圖譜通志》. 정재영(2000). 《정조대의 한글문헌》. 문헌과해석사 ; 재수록 : 이현희(2001). 《武藝圖譜通志》와 그 諺解本.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 이혜순(1998).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 《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 이호권(1993). '한글갈'의 문헌 연구. 《새국어생활》 3권 3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호권(2003). 두시언해 중간본의 판본과 언어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 이호권(2006). 諺解와 諺解書의 史的 考察. 《논문집》 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호권(2008). 조선시대 한글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 이호성(1932가). 한글 교수법에 대하여(1). 《한글》 2호. 조선어학회.
- 이호성(1932나). 한글 교수법에 대하여(2). 《한글》 4호. 조선어학회.
- 이호형(2010). 국어생활사 교육의 틀짜기 - '언간'을 중심으로. 《동국어문학》 22집. 동국어문학회.
- 이홍식(2003). 한국어 어미 '-더라'와 소설의 발달. 《텍스트 언어학》 14. 텍스트언어학회. 167-190쪽.
- 이홍우 외(2000). 《교육의 동양적 전통 I - 교육과 실재》. 성경재.
- 이환진(1994). 한글성서 1887~1993년. 《세계의신학》 24호. 한국기독교연구소.
- 임명미(1996). 조선초기제작 《삼강행실도》 판화를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 《동대논총》 26. 동덕여자대학.
- 임명옥(1997).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나타난 효사례 고찰. 《한남어문학》 22. 한남대학교국어국문학회.
- 임치균(1999). 유씨 부인 遺書. 《문헌과 해석》. 6호. 문헌과해석사.
- 임치균(1999). 烈婦柳氏 事蹟. 《문헌과 해석》. 8호. 문헌과해석사.
- 임치균(2000). '선부인가전'. '선부인언행별록'. 《문헌과 해석》. 11호. 문헌과해석사.
- 임형모(2006). 김사량의 초기 한글 소설 연구 : 해방 이전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호. 국제한인문학회.
- 임형택(1997).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국어국문학회 편(1997). 《고소설 연구1》. 태학사.
- 임형택(1999). 근대계몽기 국한문체(國漢文體)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 임형택(2000). 한민족의 문자생활과 20세기 국한문체. 《창작과비평》 107. 창작과비평사.
- 임형택(2004). 김씨 부인의 국문 상언-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 임형택(2006).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9-42쪽.
- 임홍빈(1996). 필사본 한글 간찰의 해독과 문장 분절 : 순천 김씨와 창원 황씨 간찰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홍빈(2006).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 한글 창제자와 훈민정음 대표자. 《국어학논총 : 이병근 선생 퇴임기념》. 태학사.
- 장금현(2010). 민족주의적 교회형성과 확산 배경으로서의 한글성경 - 1885년부터 1905년을 중심으로. 《성결교회와 신학》 24호.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 장덕삼(1998). 《三綱行實圖》의 視聽覺 教育的 意味에 關한 研究. 《인간교육연구》 5권 1호. 인간교육연구원.
- 장덕삼(2000). 《三綱行實圖》와 《世界圖繪》의 比較 研究. 《한국교육사학》 22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 장도규(1997). 晦齋의 '祭先妣孫夫人文'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15집. 근역한문학회.
- 장동우(2008). 조선후기 가례 담론의 등장 배경과 지역적 특색 -《주자가례》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3집. 한국국학진흥원.
- 장동우(2010).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동전(東傳) 판본(版本) 문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6집. 한국국학진흥원.
- 장시광(2009).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152 국어국문학회, 365-410쪽.
- 장영길(2006). 《연해태산집요》의 어휘에 대한 고찰. 《국제언어문학》 14호. 국제언어문학회.
- 장영숙(2014). 《데국신문(帝國新聞)》의 성격과 자료적 가치. 《동아시아문화연구》 58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39-266쪽.
- 장을연(2009). 藏書閣 소장 冊文拓印本の 현황과 특징. 《장서각》 2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을연(2009). 冊文의 筆寫本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보》 33호. 한국서지학회.
- 장정호(2006). 조선시대 독자적 동몽 교재의 등장과 그 의의 : 《훈몽자회》와 《동몽선습》을 중심으로. 《幼兒教育學論集》 10권 1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장철수(2001). 《閩閩叢書》의 민속학적 의미. 정신문화연구원 엮음(2001). 《閩閩叢書》(李氏 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향실(2008). 북경대(北京大) 소장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국어사 자료와 음운 연구》. 보고서.
- 장효현(2001). 《홍길동전》의 生成과 流傳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호. 국어국문학회.
- 전경목(1996). 日記에 나타나는 朝鮮時代 士大夫의 일상생활-吳希文의 《瑣尾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65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전국역사교사모임(200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권·2권.. humanist.
- 전병용(2008가). 현풍 곽씨 인간의 '선어말어미 생략'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31집. 동양고전학회.
- 전병용(2008나). 현풍 곽씨 인간의 격조사 생략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33집. 동양고전학회.
- 전병용(2009). 한글 간찰의 상투적 표현 고찰.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 전상욱(2009).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0집. 열상고전연구회.
- 전상욱(2010). 한글방각소설 신자료 고찰. 《열상고전연구》 31집. 열상고전연구회.
- 전영표(2016). 최초 순한글 《가명잡지》와 편집. 《PT : Printing trend》 157호. 엠제이미디어.
- 전재강(2007). 생활 표현의 고시조 연구. 《시조학논총》 26집. 한국시조학회.
- 전재천(1975). 東國新續三綱行實索引. 《동양문화연구》 2. 경북대학교동양문화연구소.
- 전택부(1978). 韓國教會의 改革精神과 그 影響. 한글 보급을 中心으로. 《초교파》 13. 초교파기독교협회.
- 전택부(1980).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 외솔회.
- 전택부(1989). 한글 문화를 가꾸라. 《기독교사상》 367호. 대한기독교서회.
- 정경희(1998). 朱子禮學의 형성과 《家禮》. 《한국사론》 39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정경희(2004).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정관일(1995). 《三綱行實圖》의 社會教育的 意義. 《교육과학연구》 9. 청주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정 광(2003). 坡平尹氏 母子 미라 副葬 諺簡.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1. 고려대학교 박물관.
- 정구복(1996).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 《정신문화연구》 65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규복(1992). 九雲夢 텍스트의 문제. 《어문논집》 31.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 정길수(2002가). 《구운몽》의 독자는 누구인가. 《고소설연구》 13집. 한국고소설학회.
- 정길수(2002나). 傳奇小說의 전통과 《九雲夢》. 《한국한문학연구》 30집. 한국한문학회.
- 정길수(2003). 《창선감의록》의 작가 문제. 《고전문학연구》 23집. 월인.
- 정길수(2005).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 정길수(2007). 《구운몽》 原典의 탐색. 《고소설연구》 23집. 한국고소설학회.
- 정다함(2009). 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朝鮮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호. 고려사학회.
- 정대림(1991). 고전문학과 언문일치 노력. 《논문집》 18. 13-38. 세종대학교.
- 정만조(2005). 18세기 조선의 사회 체제 동요와 그 대응론. 《한국학논총》 2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25-156쪽.
- 정명기(2001).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 總量.刊所(刊記).流通樣相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2집. 한국고소설학회.
- 정명기(2003가).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소설에 나타난 세책장부를 중심으로. 《古小說研究》 16집. 한국 고소설학회.
- 정명기(2003나). 소설과 야담에 나타난 서구 인식. 《열상고전연구》 17집. 열상고전연구회.
- 정명기(2005). 세책본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 : 《諺文厚生錄》 소재 목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9집. 한국고소설학회.
- 정민조(2004). 조선시대의 관학과 사학. 국립제주박물관 엮음(2004).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 국립제주박물관.

- 정병모(1998). 《삼강행실도》 판화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 정병모(2015). 이상좌가 그린 《고열녀전》 언해본 삽화. 문영호 엮음(2015). 《열녀전: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소장자료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233-254쪽.
- 정병설(2003). 세책소설 연구의 쟁점과 방향. 《국문학연구》 10호. 국문학회.
- 정병설(2005가).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호. 진단학회.
- 정병설(2005나). 조선후기의 한글소설 바람. 《한국사시민강좌》 37집. 일조각.
- 정병설(2008).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34권. 한국고전문학회. 171-198쪽.
- 정병설(2008).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호. 진단학회. 145-164쪽.
- 정병설(2009).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一考. 《한국문화》 4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20쪽.
- 정병설(2014). 18세기 한글문학의 저변과 궁궐(도록 해제). 문영호 엮음(2014). 《곤전어필,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김씨부인한글상언》(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 국립한글박물관. 140-148쪽.
- 정보라미(2016).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록 및 한글 번역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91~325쪽.
- 정복동(2011). 16-17세기 한글편지의 서체적 특징 -여성 한글편지의 중심축 변천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16권. 한국동양예술학회. 39-77쪽.
- 정복동(2014). 조선시대 한글 편지 서체에 나타난 "운(韻)"의 미학적 토대 연구 -계층별, 시기별로 나타난 흘림체 이어쓰기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26권0호. 한국동양예술학회. 432-477쪽.
- 정상훈(1994). 甲寅字本 《舍利靈應記》에 대하여 : 고유인명 표기를 중심으로. 《동원논집》 7.
- 정선영(1996). 역사교육에서 시대구분의 의미와 과제. 《역사교육》 59. 197-226. 역사교육연구회.
- 정소연(2009).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 비교연구 : 양층언어현상(Diglossia)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3집. 우리어문학회.
- 정승혜(1999). 朝鮮時代 土地賣買에 사용된 한글 牌旨. 《문헌과 해석》 9호. 문헌과해석사.
- 정승혜(2003). 가난한 선비들의 《사서언해(四書諺解)》. 《문헌과 해석》 25. 문헌과해석사.
- 정신문화연구원 엮음(2001). 《閨閣叢書》(李氏 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영선(2007). 조선 왕실 祭祀茶禮의 禮制 성립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유교사상연구》 25집. 한국유교학회.
- 정옥자(1989). 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 《한국문화》 10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정옥자(1990). 17세기 전반 禮書의 성립과정 -金長生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1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정우봉(2012). 남평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9-239쪽.
- 정우봉(2013). 19세기 여성일기《병인양란록》의 작가와 작품세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61-193쪽.
- 정우봉(2017). 분성군부인 허씨의 한글일기 《건거지(巾車志)》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집. 월인.
- 정우영(1992). 악학궤범 소재 한글가사의 표기사적 고찰. 《국어학》 22. 국어학회.
- 정우영(1998). 《설공찬전(薛公璨傳)》 한글본의 原文 判讀 및 그 註釋. 《동악어문논집》 33. 동악어문학회.
- 정우영(1999). 《三綱行實圖》 諺解本에 나타난 漢字音 表記의 양상 : 잘못 注音된 漢字音의 分析과 翻譯年代. 《동악어문논집》 34. 동악어문학회.
- 정우영(1999). 三綱行實圖 諺解本에 나타난 漢字音 表記의 樣相. 《동악어문논집》 34. 동악어문학회.
- 정일영(2010). 임진왜란 이후 '教化'의 양상 : 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4집. 한국사상사학회.
- 정재영(1996). 19世紀末부터 20世紀初의 한국어문. 《한국문화》 18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정재훈(2014). 조선 후기의 한글과 여성-일상에서 정치까지(도록 해제). 문영호 엮음(2014). 《곤전어필, 정 조어필한글편지첩, 김씨부인한글상언》(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 국립한글박물관. 150-161쪽.
- 정정호(2007). 개화기 개신교의 번역사역과 한국 어문의 근대화. 《번역학연구》 제8권 제2호(가을). 한국번역학회.
- 정창권(2002).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어문학》 78집. 543-562.
- 정창권(2014). 조선시대 부부들의 사랑관. 《문명연지》 15권2호. 한국문명학회. 53-79쪽.
- 정출현(2002).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전소설사의 한 국면 -작품의 형성과정과 표기문자의 전환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4권. 한국고소설학회. 31-64쪽.
- 정출현(2003). 표기문자의 전환에 따른 고전소설 미학의 변이양상 연구 : 16~17세기 고전소설의 문학사회학적 지평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3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 정하영(1996).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65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하영(2006). 신발굴 자료 해제 및 소개 : 숙종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한글 기록: 《선군유사(先君遺事)》와 《선비유사(先비遺事)》. 《한국문화연구》 11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77-317쪽.
- 정한국(2004). 설공찬전의 파동과 16세기 소설인식의 추이. 《민족문학사연구》 2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 정후수(1998). 천자문의 구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11집. 동양고전학회.
- 조건상(1981). 解題 및 概說.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 충북대박물관.
- 조계영(2005). 문중의 고문헌 관리와 보존-晉州 晉陽河氏 丹池宗宅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7호. 한국고문서학회.
- 조계영(2006).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幀. 《서지학연구》 35집. 서지학회.
- 조광국(2005). 한국 고전소설의 작가. 이상택 외(2005).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 조규태(1992). 일제시대의 국한문혼용문 연구. 《배달말》 17집. 배달말학회.
- 조남욱(2007). 조선시대 청소년 교육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30집. 한국유교학회.
- 조동일(2003). 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관악어문연구》 28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조선일보사(1934). 문자보급교재. 정진석 편(1999). 문자보급운동교재 : 조선일보. 동아일보 1929~1935. LG 상남언론재단.
- 조성산(2009).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 지식인의 어문 인식 경향.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 177-202쪽.
- 조영준(2008). 《조선후기 궁방(宮房)의 실제. 《정신문화연구》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영준(2008). 19世紀後半 內需司와 市廛의 去來實態. 《서울학연구》 31.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조용림(2009). 인간의 자료학에 대하여 : 《징보연간독》을 중심으로. 《충남한글》 2호. 한글학회 충남지회.
- 조은상(2001). 《삼강행실도》와 효자전에 나타난 자기 파피적 효행의 심리. 《겨레어문학》 26. 겨레어문학회.
- 조태린(2010).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호. 한말연구학회.
- 조현우(2009). 《삼강행실도》 판화의 성격과 기능 연구 : 예치(禮治)를 위한 상하 분별의 형상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조현우(2009). 《오륜행실도》 도상의 삽화적 성격과 그 함의 : 《삼강행실도》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조혜란(1999). 조선시대 여성의 글에 나타난 여성 인식. 《문헌과 해석》. 8호. 문헌과해석사.
- 조혜란(2003). 17세기 규방과 치산의 문제.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 분석》, 제3회 한국문화연구원 콜로키움 연구발표문. .
- 조혜란(2006). 조선 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집. 30~56쪽.
- 조흥매(2010). 《운명전》을 통해 본 여성 독자층의 욕망. 《태릉어문연구》 16집.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조흥욱(2001). 용비어천가의 창작 경위에 대한 연구 : 국문가사와 한문가사 창작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0.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조희웅(1998). 세종 시대의 산문 문학. 《세종문화사대계 1 : 어학·문학》.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주영하 외(2008).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 삼강행실도를 통한 지식의 전파와 관습의 형성》. 휴머니스트.
- 주형예(2010). 19세기 한글통속소설의 서사문법과 독서경험 -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권. 한국고소설학회. 379-403쪽..
- 주형예(2011). 여성 이야기를 통해 본 20세기 초 소설 시장의 변모 -이해조 《월암도》,《모란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71-299쪽.
- 지연숙(2003). 《구운몽》의 텍스트 - 서울대본. 노존B본. 노존A본의 위상에 대해.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서.
- 지정민(1996). 조선전기 서민 문자교육에 관한 연구 : 慕齋 金安國의 교화서 연해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6.7호. 서울대학교 교육사학회.
- 진경환(1993). 영웅소설의 통속성 재론-《유충렬전》을 중심으로 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3. 민족문학사학회. 91-112쪽.
- 차장섭(2008). 朝鮮後期 女性の 譜學教育. 《한국사학보》 32호. 고려사학회.
- 채송화(2014).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민족문학사연구》 55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427-461쪽.
- 채정민(1930). 基督教發展과 朝鮮文字界의 將來. 《정음》 30. 조선어학연구회.
- 천병식(1990). 諺解文學研究抄. 《인문논총》 1-1.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천혜봉(1975). 奉謨堂 舊藏의 稿本 ‘春官通考’에 대하여. 《국학자료》 20호.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
- 천혜봉(1990). 朝鮮前期佛書板本. 《계간서지학보》 5. 한국서지학회.
- 최 철(1998). 세종 시대의 시가 문학. 《세종문화사대계 1 : 어학·문학》.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최경환(2008). 광분양 연구-고전 문화 속의 인물 읽기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53~277.
- 최기숙(2010).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 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최길용(2010).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41-84쪽.
- 최명옥(1997). 16世紀 韓國語의 尊卑法 研究 : 淸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학보》 164. 조선학회.
- 최미현(2007). 《연해태산집요》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9. 새얼어문학회.
- 최미현(2009가). 《동의보감》 탕액편에 반영된 한자음 연구. 《한말연구》 24. 한말연구학회.
- 최미현(2009나). 《諺解胎産集要》와 《東醫寶鑑》의 원문 대조 연구(1). 《우리말연구》 25집. 우리말연구학회.
- 최봉영(2010). 유학과 만난 한국말. 《세상과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564돌 한글날 기념 제2회 집현전 학술대회 자료집). 외솔회.
- 최상진 해제(2007). 최남선(1946) 《조선의 상식(원제 : 조선상식문답)》. 두리미디어.
- 최상천(1991). 龍飛御天歌 撰述의 역사사회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7. 한국전통문화연구원.
- 최성옥(1998). 일제 시대의 조선어 연구사 概觀 : 小倉進平(오그라 신베)를 중심으로. 《논문집》 15. 용인대학교.
- 최성옥(2006). 小倉進平의 朝鮮語研究に關する 考察. 《일본어문학》 2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 최성일(1992). 존 로스(John Ross. 1842~1915)와 한국 개신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8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최연식(2005). 조선시대 사림의 정치참여와 향촌자치의 이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집 1호.
- 최웅환(1999). 16세기 ‘안민학 애도문’의 판독과 구문 분석. 《국어교육연구》 31. 국어교육학회.
- 최윤곤(2003). 간경도감(刊經都監)의 실제와 불전 간행 사업.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최윤희(2002). 특집: 16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식 - 신천 강씨의 한글편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86-106쪽.

- 최윤희(2008). 《견문록》소재 한글 제문의 글쓰기 방식과 갈래적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권0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413-438쪽.
- 최은주(2009).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집. 대동한문학회.
- 최전승(2002).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질 몇 가지에 대한 대조적 고찰 : 중간본 《여사서 언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1집. 한민족어문학회.
- 최중호(2008). 《언해태산집요》의 약재명 한자음 연구. 《한말연구》 22. 한말연구학회.
- 최현배(1962).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최호석(1998). 《설제전》 연구. 《고소설연구》 6집 한국고소설학회.
- 平木實(1982). 續三綱行實圖と教化教育. 《조선학보》 105.
- 표성수(1984). 한글聖書發達史에 對한 一研究 : 言語的인 側面을 中心으로. 《논문집》 16. 삼육대학.
- 하우봉(1983). 세종대의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 《효행록》과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奎北史學》 7. 전북대학교사학회.
- 한규원(1994). 開化期 基督教의 國語.國文의 研究와 民族教育. 《논문집》 16. 전주우석대학.
- 한상권(1984). 16. 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호. 진단학회.
- 한상규(2003). 전통가정교육교재에 나타난 유아교육원리. 《유아교육논총》 11집. 부산유아교육학회.
- 한소윤(2013).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조선시대 왕후들의 인간 서체 특징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69 권0호. 한국사상문화학회. 401-428쪽.
- 한영균(1993). 능엄경언해.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 한영우(2002). 조선시대 《儀軌》 편찬과 現存 儀軌 조사 연구. 《한국사론》 48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한영우(2002). 조선시대 儀軌 편찬 始末. 《한국학보》 107집. 일지사.
- 한재영(1999). 國語表記史 속의 崔世珍. 《어문연구》 1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한재영(2004). 한글 옛 문헌 정보 조사 연구 - 16세기 국어자료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2권 4호. 어문연구회.
- 한태문(2010). 《우념재수서(雨念齋手書)》 소재(所載) 통신사행(通信使行) 관련 편지 연구. 《한민족어문학》 57권. 한민족어문학회.
- 한형주(2004).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시대적 특징. 《민족문화연구》 4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희숙(2006). 구한말 순헌황귀비 엄비의 생애와 활동. 《아시아여성연구》 45집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허경진(2002). 《조선시선(朝鮮詩選)》이 편집되고 조선에 소개된 과정. 《아세아문화연구》 6집. 경원대학교 교아시아문화연구소.
- 허경진(2004). 한국에서 李白 詩가 언해된 배경에 대하여. 《동방학지》 128집.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 허원기(1999). 《렬성후비지문(列聖后妃誌文)》과 조선시대 왕비의 형상. 《장서각》 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원기(2001). 왕과 왕비 입전. 한글 실기류의 성격. 《장서각》 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원기(2002). 《壺範》의 자료적 성격과 의미. 《장서각》 8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원기(2004). 한글간찰 연구사. 《국제어문》 32권. 국제어문학회.
- 허재영(2003). 근대 계몽기의 어문 문제와 어문 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 11집.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 허재영(2005가). 한글 간찰[언간(諺簡)]에 대한 기초 연구 - 연구의 흐름과 간찰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3권 2호. 사회언어학회.
- 허재영(2005나). 한글편지에 쓰인 어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글》 268. 한글학회.
- 허재영(2006). 조선 시대 여자 교육서와 문자 생활. 《한글》 272. 한글학회. 197-219쪽.
- 허재영(2008가). 조선시대 문자. 어휘 학습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문화연구》 26집. 한민족문화학회.
- 허재영(2008나). 어문생활사 연구 대상과 방법. 《우리말글》 42. 우리말글학회.
- 허재영(2009).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 자모(낱자) 교육의 변화. 《교양교육연구》 3권 1호. 한국 교양교육학회.

- 허철구(2007). 한글 자모 순에 대한 일고.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한글 자모 순서》. 주관 : 국어문화운동본부. 주최 : 강길부 의원실. 국립국어원(2007. 10. 5).
- 현길언(2011). 성경 번역이 한국 문화와 문학에 끼친 영향.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재)대한성서공회.
- 홍기문(1949). 訓民正音의 成立 過程. 전몽수·홍기문 공저. 《訓民正音 譯解》(조선어문고 1책). 평양 : 조선어문연구회.
- 홍순민(2004).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호. 역사문제연구소.
- 홍순민(2005). 조선시대 여성 의례와 궁녀. 《역사비평》 70호. 역사문제연구소.
- 홍윤표(1984). 정속언해 해제. 《正俗諺解》(영인본). 홍문각.
- 홍윤표(1989). 《규합총서》 해제, 《여훈언해·규합총서》(영인본). 홍문각.
- 홍윤표(1990). 《여소학》 해제, 《여소학》(영인본). 홍문각.
- 홍윤표(1990). 《여훈언해》 해제, 《여훈언해 규합총서》(합본). 홍문각.
- 홍윤표(1994가). 국어사의 시대구분. 《한국학연구》 1. 단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31-142쪽.
- 홍윤표(1994나). 奎章閣 所藏 近世國語 文獻資料의 綜合的 研究. 《한국문화》 1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홍윤표(1995). 國語史 時代區分의 問題點과 文法史의 측면에서 본 時代區分. 《국어학》 25. 국어학회. 319-333쪽.
- 홍윤표(1998). 《三綱行實圖》의 書誌 및 國語史的 意義.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 홍윤표(2000). 조선 후기 한글 고문서 釋讀. 《고문서연구》 16·17호. 고문서학회.
- 홍윤표(2001). 딸이 쓴 아버지 제문. 《문헌과 해석》 17호. 문헌과해석사.
- 홍윤표(2001). 물묵에 담은 부모 마음. 《문헌과 해석》. 16호. 문헌과해석사.
- 홍윤표(2003). 조선시대 연간과 한글 서예로의 효용성. 《조선시대 한글 서간의 서예적 재조명》.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
- 홍윤표(2006). 한글 고문서의 연구 현황과 과제. 《嶺南學》 1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홍윤표(2006가). 국어사 연구를 위한 전자자료 구축의 현황과 과제.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임용기·홍윤표 편). 태학사.
- 홍윤표(2007). 한글의 역사와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문헌적 가치. 《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 홍윤표(2008). 한국 어문생활사.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The 2nd IKL 'Hangeul'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한국어학회.
- 홍윤표(2009). 근대국어의 국어사적 성격. 《국어사연구》 9호. 국어사학회.
- 홍윤표(2010나). 한글을 어떻게 배워왔을까요?. 《쉽표. 마침표》 60호(11월호) 《웹진》. 국립국어원.
- 홍은진(1997). 방각본 연간독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1. 태학사.
- 홍은진(1998). 구례 문화 유씨가의 한글 所志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13집. 한국고문서학회.
- 홍은진(1998). 며느리와 시댁 식구 간의 연간 규식. 《문헌과 해석》 5호. 문헌과해석사.
- 홍은진(2000). 조선 후기 한글 고문서의 양식. 《고문서연구》 16·17호. 고문서학회.
- 홍은진(2000). 한글 牌字와 明文. 《문헌과 해석》. 11호. 문헌과해석사.
- 홍인숙(2010). 근대계몽기 지식, 여성, 글쓰기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57-86쪽.
- 홍인숙(2014). 조선시대 한글 간찰(연간)의 여성주의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시론. 《이화어문논집》 33집. 이화어문학회.
- 홍재휴(1971). 祭先妣孫夫人文考-祭文國譯의 歌辭化 資料-. 《교대춘추》 5집. 대구교육대학.
- 홍학희(2010). 17~18세기 한글편지에 나타난 송준길(宋浚吉) 가문 여성의 삶.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67-103쪽.
- 황문환(1997가). 월성 이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 1(1716년). 《문헌과해석》 창간호. 문헌과해석사.
- 황문환(1997나). 金魯敬(추사 부친)이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1791년). 《문헌과해석》 5호. 문헌과

해석사.

- 황문환(1998가). 월성 이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 2(1716년). 《문헌과해석》 2호. 문헌과해석사.
- 황문환(1998나). 남편 郭澍가 아내 晉州河氏에게 보내는 편지. 《문헌과해석》 4. 태학사.
- 황문환(1999). 근대국어 문헌 자료의 ‘흐읍’류 종결형에 대하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 황문환(2000가). 《新傳煮取焰소方諺解》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장서각》 4.
- 황문환(2000나). 유교 윤리의 모범 사례. 《五倫行實圖》. 정재영(2000). 《정조대의 한글문헌》. 《문헌과해석사》.
- 황문환(2002가). 16. 17世紀 諺簡의 相對敬語法. 《국어학총서》 35. 국어학회. 태학사.
- 황문환(2002나). 조선시대 언간과 국어생활. 《새국어생활》 12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 황문환(2004). 추사(秋史) 한글편지의 국어학적 특징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의 역사》(편찬위원회 편). 보고서.
- 황문환(200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부부간 호칭과 화계. 《장서각》 1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 연구》 10호. 국어사학회.
- 황문환·안승준(2008). 《녕미가례시일기(丁未嘉禮時日記)》의 書誌的 考察. 《장서각》 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황선엽(1998). 《童蒙先習》과 왕세자의 학습. 《문헌과 해석》 5호. 문헌과해석사.
- 황수연(2003).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6. 한국여성문학학회. 161~192쪽.
- 황원구(1963). 李朝 禮學의 形成過程. 《동방학지》 6집.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 황원구(1981). 朱子家禮의 形成過程-王法과 嘉禮의 連繫性を 중심으로-. 《인문과학》 45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황위주(2009). 朝鮮時代 日記資料와 《秋淵先生日記》. 《대동한문학》 30집. 대동한문학회.
- 황재군(1982). 규방가사의 사상적 배경 연구. 《국어교육》4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황재문(2000). 瑞興 金氏 遺書. 《문헌과 해석》. 10호. 문헌과해석사.

- 志部昭平(1989). 諺解三綱行實圖の傳本とその系譜. 《동양학》 19. 동양학연구소.
- 志部昭平(1991). 宣祖改譯三綱行實とその異本. 《金英培先生 回甲紀念論叢》. 慶雲出版社.
- 井上角五郎(1938). 協力融合. 福祉の 増進お圖れ(朝野諸名士執筆.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京城 ; 조선신문사.
- 徳田 進(1961). 三綱行實孝子圖の複製とその影響. 《高崎經濟大學論集》 5.
- 奥平武彦(1942). ‘三綱行實圖’ 板本攷. 積翠軒先生華甲壽記念論纂. 東京 : 小倉進平(1940). 三綱行實圖について. 書物展望. 昭和 15년 4월호. 東京.

- Jared Diamond.(1994). Writing Right. Discover. June. 이현복 옮김(1994). 바른 글자살이. 《한글 새소식》 264. 한글학회. 부분 번역. 이광호 옮김(1994). 디스커버지의 한글 극찬 - 올바른 표기법. 《말글생활》 2. 말글사.

## ● 일반 단행본

- 강길운(1993). 《국어사정설》. 형설출판사.
- 강동엽(2008).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 허균·박지원·김시습》. 박이정.
- 강명관(2007).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푸른역사.
- 강명관(2009). 《열녀의 탄생》. 돌베개.
- 강상호(1989). 《조선어입말체연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강신항(2003). 《수정 증보 訓民正音 研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준만(2007).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인물과사상사.
- 고미숙 외(2002). 《들뢰즈와 문학 - 기계》. 소명출판.
- 고영진(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 고은숙·김민지 해제(2015).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 해제》(소장자료총서 2).<sup>9)</sup> 국립한글박물관.
- 구자옥·김미희·김영진 편(2008). 《(고농서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온고이지신 1》 농본·농정·서책·교육  
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 근대국어》 2. 국립국어연구원.
- 국사편찬위원회(1996). 《한국사》 25.26.27. 국사편찬위원회.
- 국어학회편(1993). 《세계의 언어정책》. 태학사.
- 국학진흥연구소·추진위원회 편집(2001). 《규합총서》 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권덕규(1923). 《조선어문경위》. 광문사.
- 권보드래(2000).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사.
- 권영철(1980).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 권영철(1985). 《內簡文學에 관한 연구》. 신라문화재장학재단.
- 권오영 외(2008). 《조선 왕실의 嘉禮》. 한국학중앙연구원.
- 권재선(2004). 《국어해방론》. 우골담.
- 권혁래(2000).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2015).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 금장태(2000). 《유교의 사상과 의례》. 예문서원.
- 김근수(1961). 《국어학 신강》. 청록출판사.
- 김남일(2011).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들녘.
- 김동소(2007). 《한국어의 역사》. 정림사..
- 김동욱·황패강(1985). 《한국고소설입문》. 개문사.
- 김동진(2010). 《(파란눈의 한국혼) 험버트》. 참좋은친구.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문식(2009).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 김문식·신병주(2005).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례》. 돌베개.
- 김미형(2005).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 제이앤씨.
- 김민수(1982). 《新國語學史(全訂版)》. 일조각.
-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병국(2001).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봉좌(2017). 《고행록, 사대부가 여인의 한글 자서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봉희(1987).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이화여대출판부.
- 김석득(2009). 《우리말 연구사 : 언어관과 사조로 본 발전사》. 태학사.
- 김석봉(2005).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 김성칠(1948). 《龍飛御天歌》 上.下. 朝鮮金融組合聯合會. 복간 : 김성칠(1959). 《용비어천가》. 정양사.
- 김성칠·김기협(1997). 《(역사로 읽는) 용비어천가》. 들녘.
- 김수업(1978). 《배달문학의 길잡이》. 선일문화사.
- 김수업(2002). 《배달말꽃 : 갈래와 속살》. 지식산업사.

9) 고은숙·김민지 ; 탈초: 김민지 ; 주석·현대어역: 고은숙·김민지 ; 사진: 한상우

- 김슬옹(2005).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한국문화사.
- 김슬옹(2007). 《28자로 이룬 문자혁명 훈민정음》. 아이세움.
-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 - 맥락, 담론, 의미》. 한국학술정보(주).
- 김슬옹(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개정판)》. 지식산업사.
- 김슬옹(2012).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교육의 길찾기》.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슬옹(2017). 《한글혁명》. 살림터.
- 김양선(1971). 《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 김영배(1991). 《불경언해와 중세국어》. 동화출판사.
- 김영배(2000). 《國語史資料研究 - 佛典諺解 중심》. 월인.
- 김영운 외(2003~2005).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권1~3.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영환(1978).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환(1997). 《조선어사》.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용섭(2009). 《朝鮮後期農學史研究 : 農書와 農業 관련 文書를 통해 본 農學思潮》. 지식산업사.
- 김용숙(2000).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一志社.
- 김윤경(1938). 《朝鮮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 김윤경(1963). 《새로 지은 국어학사》. 을유문화사(한결 金允經全集 2. 延世大學校 出版部).
- 김이종(2009). 《한글역사연구》. 한국문화사.
- 김인호(2005). 《조선인민의 글자생활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일근(1959). 《解說·校註 李朝御筆諺簡集》. 신흥출판사.
- 김일근(1986). 《諺簡의 研究 : 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일근(1991). 《三訂版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정경(2016). 《조선 후기 여성 한글 산문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 김정수(1990).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 김종수(2001).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 연구》. 민속원.
- 김종택(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 김종훈 외(1998). 《韓國語의 歷史》. 대한교과서.
- 김종훈·박영섭·박동규·김태근·김종학(1998). 《韓國語의 歷史》. 대한교과서.
- 김치우(2007).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연구》. 아세아문화사.
- 김태준(1939). 《朝鮮小說史》. 학예사.
- 김태준(1990).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 김풍기(2009). 《조선 지식인의 서가를 탐하다》. 푸르메.
- 김하수·이전경(2015). 《한국의 문자들》.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해영(2003).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 집문당.
- 김해정(2006). 《사서언해의 비교연구》. 보고서.
- 김형규(1962). 《국어사연구》. 일조각.
- 김형규(1975). 《國語史概論》. 일조각.
- 김형주(1996). 《우리말 발달사》. 세종출판사.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 출판부.
- 김혜숙 편(1997). 《언어의 이해》. 태학사.
- 김호 율김(2003). 《신주무원록 : 역을함을 없게 하라》. 사계절.
- 김호일 글·유남해 그림(2000). 《한국의 향교》. 대원사.
- 김홍식(1989). 《(朝鮮時代)封建社會의 基本構造》. 박영사.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농촌생활연구소(2003). 《(규합총서의)전통생활기술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동방한문화회 편(2007). 《한국한문학의 이론 산문》. 보고서.  
 려증동(2003). 《배달글자》. 한국학술정보.  
 럽종률(1980). 《조선어문법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영인: 1989). 탑출판사.  
 류 렬(1992). 《조선말력사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한국문화사. 1994. 영인).  
 류탁일(1989). 《韓國文獻學研究-國文學研究의 基礎-》. 아세아문화사.  
 리득춘·리승자·김광수(2006). 《조선어발달사》. 역락.  
 무악고소설 자료연구회 편(2001).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 태학사.  
 문옥표·정양완·최제숙·이충구(1999~2000). 《朝鮮時代 冠婚喪祭》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화재관리국(1993). 《重要民俗資料 指定報告書(晉州 河氏墓 出土 遺物)》. 문화재관리국.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소설사연구반(2013). 《서사문학의 시대와 그 여정-17세기 소설사》, 소명출판.  
 민족문학사연구소 편(2017). 《한국고전문학작품론 2: 한글소설-여성과 대중이 사랑한 폭넓고 다채로운 서사》, Humanist.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박병천(1983). 《한글궁체연구》. 일지사.  
 박병천·정복동·황문환(2013). 《조선 시대 한글편지 서체사전》 1·2. 도서출판 다운샘.  
 박병호(1974). 《韓國法制史攷-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박병호(1985).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박영섭(2006). 《태산집요언해 한자 대역어 연구》. 박이정.  
 박영준·시정근·정주리·최경봉(2002). 《우리말의 수수께끼》. 김영사.  
 박용옥 외(1988). 《한국여성연구1 : 종교와 가부장제》. 청하.  
 박은봉(2007).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 책과함께.  
 박일용(1993). 《조선시대의 애정소설-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박제가/안대회 옮김(2003). 《북학의 - 조선의 근대를 꿈꾼 사상가 박제가의 개혁 개방론》. 돌베개.  
 박종국(1996). 《한국어 발달사》. 문지사.  
 박종국(2009). 《한국어 발달사 증보》. 세종학연구원.  
 박지원 지음/박희병 옮김(2005).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며》. 돌베개.  
 박지원/최홍규 역주(1987). 《(國譯)課農小抄》. 아세아문화사.  
 방종현(1948). 《訓民正音通史》. 일성당서점.  
 백두현(2003나). 《현풍곽씨연간 주해 :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태학사.  
 백두현(2006가).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백두현(2011).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비숍/신복룡 역(2000).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한말외국인기록 21)》. 집문당.  
 사재동(1977). 《佛敎系國文小說의 形成過程研究》. 아세아문화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88). 《조선문화사》. 평양: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미래사 영인: 1988).  
 상종열(2002). 《도해 조선왕조실록》. 이다미디어.  
 서울서예박물관(2002). 《朝鮮王朝御筆》. 한국서예사특별전 22.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2004). 《秋史한글편지》. 예술의전당.  
 서정훈(1994). 《제국주의. '서양의 지적 운동'》. 지식산업사.

- 석길암(2010).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불광출판사.
- 손인수(1978). 《韓國人の 價値觀》. 文音社.
- 손인수(1998). 《한국교육사 연구 상》. 문음사.
- 손인수(1999). 《세종시대의 교육문화 연구》. 문음사.
- 송재용(2008). 《미암일기연구》. 제이앤씨.
- 송철의.이현희.장윤희.황문환(2006). 《(역주)오륜행실도》.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호근(2011). 《인민의 탄생》. 민음사.
- 신동원(2004).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 신명호(2004). 《궁궐의 꽃 궁녀》. 시공사.
- 신정숙(1984). 《한국전통사회의 여성생활문화》. 대광문화사.
- 심경호(2002). 《국문학 연구와 문헌학》. 태학사.
- 안대회(2010).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
- 안병희(1992가). 《國語史 資料 研究》.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1992나). 《國語史 研究》. 문학과지성사.
- 안병희(2007). 《訓民正音 研究》. 서울대 출판부.
- 안병희(2009). 《國語史 文獻 研究》. 신구문화사.
- 안상우(2009). 《(해외에서 찾아낸)우리 옛 의학책》. 한국한의학연구원. .
-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1985). 《조선후기소설독자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2010). 《韓國 古小說 研究》. 경인문화사.
- 위르겐 슐룸봄 편/백승종.장현숙.장석훈 공역(2001). 《미시사와 거시사 : 역사를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 궁리출판.
- 위르겐 슐룸봄/백승종 외 옮김(2003). 《미시사의 즐거움(17~19세기 유럽의 일상세계)》. 돌베개.
- 유동준(1987). 《유길준전》. 일조각.
- 유송옥(1991). 《朝鮮王朝 宮中 儀軌 服飾》. 수학사.
- 유재영(1981). 《女範》. 영빈 이씨 편저 柳在泳 譯註. 형설출판사
- 윤석민 외(2006). 《(쉽게 읽는)용비어천가(정인지 외 지음)》 1.2. 박이정.
- 윤숙경(1998). 《需雲雜方 · 酒饌》. 신광출판사.
- 이가원(1994). 《朝鮮文學史》. 태학사.
- 이광호 외(2007).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 이근수(1987). 《朝鮮朝의 語文政策 研究(개정판)》. 흥익대학교출판부.
- 이기문 외 3인(1990). 《한국어의 발전 방향》. 민음사.
- 이기문(1961/1972). 《國語史概說》. 탑출판사.
-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 연구원.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 연구》. 일조각.
- 이기문(1985). 《훈몽자회 연구》. 서울대출판부.
- 이기문·장소원(1994). 《국어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이기영(1985). 《한국의 불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대로(2008). 《우리 말글 독립운동 발자취》. 지식산업사.
- 이만규(1946/2010). 《다시 읽는 조선 교육사》. 살림터.
- 이명구(2007). 《이야기 한국고전문학사》. 박이정.
- 이범직(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 이병기 편주(1948). 《近朝內簡選》. 국제문화관.

- 이병기(1961). 《국문학개론》. 동아출판사.
- 이병기(1965). 《朝鮮女流文學序論》. 조선역대여류문집.
- 이병주(1979). 《한국문학상의 두시》. 이우출판사.
- 이보경(2003). 《근대어의 탄생》.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복규(1998). 《설공찬전 연구》. 박이정.
- 이봉선(2002). 《조선후기 예학의 대가 선곡 박건중 선생 연구》. 영지문화사.
- 이상규(2011). 《한글 고문서 연구》. 경진.
- 이상택 외(2005).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 이상혁(2004가). 《조선 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 이상혁(2004나).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
- 이서 저/남도영 역(1682/2004). 《마경언해》.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이성우(1982). 《조선 시대 조리서의 분석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성우(1992). 《韓國古食文獻集成》. 修學社.
- 이수봉 외 공저(1999).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 이숙인 역주(2003). 《여사서》. 여이연.
- 이숙인 옮김(2013). 《열녀전》. 글항아리.
- 이순구(2003). 정부인 안동 장씨의 성리학적 삶.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 이승녕(1967). 한국어 발달사(어휘사). 《한국문화사 대계 V》.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이연숙/고영진·임경화 옮김(2006).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 이윤석 옮김(1997가). 《용비어천가(정인지 외)》 1.2. 솔.
-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편저(2003). 《세책고소설연구》. 해안.
- 이응백(1976/1991).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 이응호(1975). 《개화기 한글운동사》. 성청사.
- 이익/안외순 옮김(2005). 《동호문답》. 책세상.
- 이재수(1976).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 이재정(2008). 《조선출판주식회사》. 안티쿠스.
- 이종화(2002). 《우리 민중의 생활사》. 주류성.
- 이춘희(1984).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관한 研究》. 경인문화사.
- 이태진·김재호 외(2005).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푸른역사.
- 이한우(2006).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해냄.
- 이해창(1977). 《한국신문사연구》. 성문각.
- 이현희·이호권·이종묵·강석중(1997). 《두시와 두시언해》 6·7. 신구문화사.
- 이혜구 역주(2000).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 이혜순 외(1999).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 이혜순(2007).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혜순·임유경 외(2003).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 집문당.
- 이호성(1948). 《民主主義 國語教授法》. 문교사.
- 인남순·김종수 공역(2001). 《고종황제 50세 경축연향 女伶呈才笏記》. 민속원.
- 임동권 외(1988). 《한국문화사대계 V》(언어·문학사(下)).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임상석(2008).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 임용기·홍윤표 편(2006). 《국어사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임치균·부유섭·강문종 역주(2015). 《기각한필-조선 사대부 여성 기각의 한시집》.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임형택(2002). 《우리 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 임형택(2005).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풍경 : 신발굴 가사자료집》. 소명출판.
- 임형택(2007). 《우리 고전을 찾아서 : 한국의 사상과 문화의 뿌리》. 한길사.
- 장덕순(1996). 《한국수필문학사》. 박이정.
- 장철수(1984). 《한국 전통 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철수(1995). 《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 정규복(1992). 《韓國 古典文學의 原典批評的 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정길남(1994).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정대림(2001). 《한국고전비평사 - 조선후기 편》. 태학사.
- 정약용·박석무 역(199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
- 정양완 역주(1975). 《閨閣叢書(李氏 著)》. 보진재.
- 정양완 譯註(1975). 《閨閣叢書》 / 憑虛閣李氏 著. 寶晉齋.
- 정우영·이정일·정상훈(2008). 《續三綱行實圖의 국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 정재서 엮음(2002).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출판부.
- 정재영 외(2000). 《정조대의 한글문헌》. 문헌과해석사.
- 정주리·시정곤(2011). 《조선언문실록》. 고즈원.
- 정진석 편(1999). 《문자보급운동교재 : 조선일보·동아일보 1929~1935》. LG상남언론재단.
- 정진원(1999). 《중세 국어의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한국문화사.
- 정창권(2002).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 정철 외/김하명 엮음(2005).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보리.
- 정출현·조현설·이형대·박영민(2003).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 조규익(2005). 《조선조 악장의 문예미학》. 민속원.
- 조동일(1989).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 조동일(1992). 《한국문학통사 1(2판)》. 지식산업사.
- 조동일(1992). 《한국문학통사 4(2판)》. 지식산업사.
-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 조수삼/허경진 역(2008). 《추재기이》. 서해문집.
-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지두환(1994). 《朝鮮前期 儀禮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진재교·안대희·이상하·김문식(2009). 《정조어찰첩》. 성균관대출판부.
- 천혜봉(1990). 《韓國典籍印刷史》. 범우사.
- 천혜봉·윤병태(1996).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 최경봉·시정곤·박영준(2008).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책과함께.
- 최기호(1994). 《한국어 변천사》. 토담.
- 최범훈(1985). 《韓國語 發達史》. 경운출판사.
- 최승희(1989).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 최운식(2004). 《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서.
- 최정태(1992). 《한국의 官報》. 아세아문화사.
- 최준(1979). 《한국신문사》. 일조각.
- 최준식(2007). 《세계가 높이 산 한국의 문기》. 소나무.
- 최현배(1942/1982). 《고친 한글갈》. 정음사.

한글서예연구회(2009). 《한글 궁체사》. 도서출판 다운샘.  
 한길연(2009).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한영우(1997).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한영우(2005). 《조선왕조 의례》. 일지사.  
 한형주 외(2009).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함석헌(1974). 《뜻으로 본 한국역사》. 제일출판사.  
 허경진(2003). 《사대부 소대헌·호연재 부부의 한평생》. 푸른역사.  
 허 응(1974). 《한글과 민족 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허 응·이강로(1963). 《주해 월인천강지곡 상》. 신구문화사.  
 허재영(2008). 《국어의 변화와 국어사 탐색》. 소통.  
 현상윤 지음/이형성 교주(2003). 《풀어옴긴 조선유학사》. 현음사.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上·下》. 서울신문편집국.  
 홍운표(1993).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近代編 1》. 태학사.  
 홍운표(2013). 《한글 1, 2》. 태학사.  
 화정고전문학연구회 편(2013). 《고전소설과 권선징악》. 단국대출판부.  
 황패강(1986). 《朝鮮王朝小說研究》. 단대출판부.

志部昭平(1990). 《諺解三綱行實圖の文獻學的研究》. 東京：波古書院.  
 小倉進平(1920). 《朝鮮語學史》. 東京：大阪屋號書店.  
 小倉進平(1940). 《增訂 朝鮮語學史》. 東京：刀江書院.  
 豊田國夫(1964). 《民族と言語の 問題》. 錦正社.  
 河野六郎(1955). 《朝鮮語. 世界言語概說》 下. 東京：研究士.  
 鄭曉霞·林佳鬱(2007). 《列女傳彙編》. 北京圖書館出版社.

Benedict Anderson(1983). Imagined Communities-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앤더슨/윤형숙 옮김(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Cavallo. Guglielmo & Chartier. Roger. eds.(1999). A History of Reading in the We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Carr. Edward Hallett(1961). What is history?. London : Macmillan & Co.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1980). Mille Plateaux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Paris : Les Édition De Minuit. 김재인(옮김)(2001). 천 개의 고원 - 자본주의의 분열증 2. 새물결.  
 Jared Diamond.(1997). GUNS. GERMS. AND STEEL. New York :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New York : W.W. Norton & Co. 제레드 다이아몬드/김유킴(2006). 《총·균·세》. 문학사상.  
 월터 J. 옹/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가리타니 고진/박유하 역(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 ■ 토 론

### “여성이 훈민정음 발달에 끼친 영향에 대한 관점 재론”에 대한 토론문

김정호(건국대)

이 글은 조선시대 훈민정음의 발달에 끼친 여성의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주류 여성이 발달시킨 비주류 훈민정음의 문자 문화를 5개 영역-‘역설의 자연스런 권력화’, ‘역설을 통한 권력에의 도전’, ‘역설의 생활화’, ‘역설 즐기기’, ‘역설을 이용한 지식의 승리’-에서 고찰을 시도한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글이 아니어서 ‘역설의 생활화’와 ‘역설 즐기기’의 모습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설을 이용한 지식의 승리’의 측면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권력화’와 ‘권력에의 도전’의 측면에서는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역설의 자연스런 권력화’에서 인목대비가 승정원에 보낸 한글문서의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비주류 문자인 훈민정음이 남성 위주의 주류 한문 문화에 균열을 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목대비가 승정원에 보낸 한글문서는 그 실체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목대비가 승정원에 보낸 한글 문서가 교지의 형식과 격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서를 교지로 해석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이와 관련하여 왕실의 한글 교지를 받은 관리들은 한글 문서로 답을 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목대비의 한글 문서에 대한 승정원의 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없었다면 교지로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왕실 여성의 한글 교지가 비주류 여성에 의한 비주류 문자의 권력화라는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목대비와 같은 극단적 사례보다는 일반적인 한글 교지에 대한 분석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사례를 볼 수 없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 질문 드립니다.

2. 이 글에서는 김씨 부인의 한글 상언의 사례를 통해 남성 중심의 문자 권력에 균열이 일어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언의 내용은 신임옥사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김씨 부인이 자살로 위장하여 살려 놓은 손자가 잡히자 집안의 대가 끊어짐을 염려하여 그 목숨을 구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씨 부인으로서 매우 절박한 처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올린 상언이므로 이를 통해 남성 중심의 문자 권력에 균열을 일으켰다고까지 하기에는 무리한 논리가 아닐까합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요?

더불어 사대부 여성의 한문 상소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대부 여성의 한문 상소가 가능한 조선의 상황에서 한글 상소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선생님 주장의 또 다른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발표 논문을 늦게 받아 토론문을 작성할 시간이 급했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드는 의문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아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까 걱정입니다. 차후 완성된 논문을 통해 비주류 여성에 의한 비주류 문자 문화의 발달이라는 역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17세기 국어의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최대희(제주대)

## < 차 례 >

1. 머리말
2. 어찌말 매인이름씨 목록
3.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형태·통사적 특성
4. 맺음말

### 1. 머리말

이 연구는 17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찌말 매인이름씨는 통시적으로 두루 매인이름씨나 풀이말 매인이름씨에 비해 변화가 많으며, 이 변화는 주로 형태·통사적 제약, 잉여성, 체계상의 빈칸 등의 이유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형태·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매인이름씨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17세기만을 한정하는 공시적인 연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시적인 변천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근대국어를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로 규정하면, 17세기는 전기 근대국어이다. 근대국어 어찌말 매인이름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를 다루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근대국어 시기가 길고, 시기를 대표하는 매인이름씨를 설정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아 17세기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17세기는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변화가 큰 시기이다. 중세국어시기에는 있었지만, 17세기에 소멸된 경우도 있고, 중세국어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sup>1)</sup> 이처럼 17세기는 18·19세기와 현대국어로 이어지는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우선, ‘어찌말 매인이름씨’인데, 여기에서 ‘어찌말 매인이름씨’라는 술어는 단지 ‘어찌말’로만 기능하는 매인이름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법에서 ‘부사어’의 범주에 있는 ‘위치말’, ‘견중말’, ‘방편말’로 기능하는 매인이름씨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월에서 풀이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논의의 편의상 이후에는 ‘어찌말 매인이름씨’라고 줄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범주 설정을 통해, 이 논의에서 다루는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범위는 주 기능이 ‘어찌말, 위치말, 방편말, 견중말’인

1) 소멸된 어찌말 매인이름씨에는 ‘그장, 그에, 자히, 손디’가 있고, 새롭게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에는 ‘대(로), 둥, 족족, 즉’ 등이 있다.

경우이다. 예를 들어 ‘것’과 같은 매인이름씨는 어찌말로도 기능하지만, 주 기능은 이름씨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17세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대국어시기가 길고, 시기를 대표 하는 매인이름씨를 설정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아 17세기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17세기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 17세기 문헌

문헌 이름	펴낸 연대	줄임
언해두창집요	1608	두창
언해태산집요	1608	태산
연병지남	1612	연병
동의보감	1613	동의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열녀도)	1617	동신열
가례언해	1632	가례
중간두시언해	1632	중두
신전자취염소방언해	1635	염소
시경언해	17세기	시경
여훈언해	17세기 초	여훈
남평조씨부인병자일기	1636-1640	병자
권념요록	1637	권념
신간구황찰요	1639	구황
산성일기	1639	산성
경민편언해(규장각본)	1658	경민중
노걸대언해	1670	노걸
첩해신어초간본	1676	첩해초
박통사언해	1677	박통
마경초집언해	1682	마경
구황보유방	1686	보유방
역어유해	1690	역어
신전자초방언해	1698	자초

## 2. 어찌말 매인이름씨 목록

17세기 어찌말 매인이름씨는 최대희(2017)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사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월에서 매인이름씨를 포함한 구성<sup>2)</sup>이, 주요 기능으로 어찌말, 위치말, 방편말, 견썸말인 매인이름씨를 목록으로 설정할 것이다.<sup>3)</sup>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목록 설정은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설정한 목록을 먼저 살펴본 후, 이들

2) 매인이름씨를 포함한 구성이란 매인이름씨는 홀로 설수 없기 때문에 선·후행 요소와 같이 묶이는데, 이를 포함한 구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늘에 붉은 것이 떠 있다’에서 밑줄 그은 ‘붉은 것이’를 말한다. ‘것’은 선행 요소로 ‘붉은’, 후행 요소로 ‘-이’와 결합하고 있다.

3) 매인이름씨 목록과 관련하여,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기능에 의한 분류, 분포에 의한 분류, 의미에 의한 분류 등이 있다.

목록에서 어찌말, 위치말, 방편말, 견중말로 기능하는 매인이름씨를 모두 선별한 다음, 주 기능이 어찌말, 위치말, 방편말, 견중말로 기능하는 매인이름씨를 선별하여 목록으로 설정하였다.<sup>4)</sup> 이렇게 목록으로 설정한 매인이름씨를 이전 시기, 이후 시기에 나타나는 매인이름씨와 비교하여 소멸된 것, 유지되고 있는 것, 생성된 것으로 나누어 목록을 분류하였다.<sup>5)</sup>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17세기만을 별도로 하여 매인이름씨 목록을 설정한 연구가 없어, 근대국어 전체나, 그 일부 시기만으로 목록을 설정한 이주행(2009), 왕문용(1988)의 목록에서 어찌말 매인이름씨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이주행(2009) - 김, ㄷ시(دت이), ㄷ, 대(로), 동, 등, 만1, 만2, 만큼(만치), 성, 양, 적, 즉, 직, 치, 초, 족족, 테(체)  
 ㄴ. 왕문용(1988) - 김, 대(로), 동, 동안, ㄷ, 만, 마곰, 바람, 번, 양(모양)(적)(의향), 중, 적, 족족, 즘음, 차(시간), 재(치), 체

(1ㄱ)은 근대국어 전체(17~19세기)까지의 목록이고, (1ㄴ)은 근대국어 후기(18세기 말~19세기 말)까지의 목록이다. 이들 목록 중에는 17세기 목록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17세기만의 목록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중세국어시기의 목록과 위의 목록을 비교하였다.

- (2) ㄱ장, 자히, ㄷ(ㄷ시), 그에, 거긔, 게, 손디, 적(제), 양, 만

(2)는 최대희(2017)에서 설정한 중세국어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목록인데, (1)의 목록과 비교를 하니, ‘ㄱ장, 자히, 그에, 거긔, 게, 손디’는 이미 소멸하였고, ‘적(제), 양, 만’만 남았다. 이를 통해 17세기 목록에는 ‘적(제), 양, 만’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1)에서 제시된 목록 중 ‘적(제), 양, 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인이름씨를 17세기 문헌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목록은 17세기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다.

- (3) 김, 마곰, 만큼<sup>6)</sup>, 성<sup>7)</sup>, 직, 치, 차(초), 동안, 바람, 번, 즘음, 재(치)

4) 주 기능이 어찌말과 위치말이 아닌 경우는 부분적으로 어찌말, 위치말 기능을 할지라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양’은 제약된 환경에서는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이지만, 주로 두루 매인이름씨로 기능한다.  
 5) 비교의 방법은 왕문용(1988)을 참고하였다. 왕문용에서는 후기 근대국어 의존명사 설정을 위해 중세국어의 의존명사와 현대국어의 의존명사를 비교, 분석하여 당시의 목록을 비교하였다. 비교의 방법은 첫째, 중세국어에서도 의존명사이며 현대국어에서도 의존명사인 어휘의 검토, 둘째, 중세어에서 의존명사이지만 현대어에서는 의존명사가 아닌 어휘의 검토, 셋째, 중세어의 목록에는 없지만, 현대어에서는 의존명사인 어휘의 검토로 비교는 이루어진다.  
 6) ‘마곰, 만큼’과 관련하여 이주행(2009)에서는 ‘만큼’은 ‘맛감, 만치’의 다른 표기도 있다고 하였고, 왕문용(1988)에서는 ‘마곰’은 ‘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마곰, 만곰, 만큼, 만큼, 만큼, 돈곰’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ㄱ은 이주행의 예이고, ㄴ은 왕문용의 예이다.  
 ㄱ. 東方千國土 디나 훈 點을 느리오디 키 微鹿 맛감함고 (월석)  
 날 갓탄 하방 천첩이야 손톱 만치나 싱각하울잇기(춘향연상:43)  
 ㄴ. 새알마곰, 터력만곰, 이만곰오느라(춘향58), 그네들만큼(독립)  
 7) \* ‘성’은 19세기 말에 보이기 시작한다.  
 말노림 만이 하여 본 성 부르게 천하 쉽지야 (춘향연상:35)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에 대해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싶다’나 ‘부르다’와 함께 쓰여 추측 및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의 목록들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어찌말 매인어름씨로 쓰이는 것들이지만, ‘김, 마곰, 만큼, 성, 치, 차(초), 동안, 바람, 번, 즈음, 재(치)’ 등은 17세기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직’ 같은 경우에는 매인어름씨로 보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을 보면, 대체로 선행 요소에 이름법 ‘-口’이 통합하고, 후행에는 ‘ㅎ다’가 통합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매인어름씨의 환경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모두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는<sup>8)</sup> 점에서 매인어름씨로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들 목록을 제외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목록만 남게 되었다.

(4) ㄷ(ㄷ시), 대(로), 동, 둥, 만1, 만2, 양, 적(제), 족족, 즉, 테(체)

(4)의 목록에서 (2)의 목록과 비교하여 추가된 된 것은 ‘대(로), 동, 둥, 족족, 즉, 테(체)’이다. ‘대(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자마다 이견이 있어 중세국어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는데, 17세기에서는 어찌말 매인어름씨로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목록에 포함하였다. ‘만1’과 ‘만2’로 구분한 것은 환경 자질과 의미가 달라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9)</sup> 그리고 위의 목록에서 ‘동’과 ‘양’은 제외하고자 한다. ‘동’은 현대국어에서는 어찌말 매인어름씨로만 쓰이고 있으나, 17세기 국어에서는 중세국어에서처럼 많은 예가 나타나지 않고, 그 예들 중에서도 어찌말 매인어름씨는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는 ‘부림말’로 기능하기 때문이다.<sup>10)</sup> ‘양’은 중세국어에서는 임자말과 풀이말로 쓰이는 예도 있지만, ‘-으로’와 결합하거나 ‘ㅎ다’와 통합하여 어찌말로 기능하고 있는 예가 다수 있어, 어찌말 매인어름씨 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이 연구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어찌말 매인어름씨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17세기 어찌말 매인어름씨 목록을 다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5) ㄷ(ㄷ시), 대(로), 둥, 만1, 만2, 적(제), 족족(족족), 즉, 테(체)

(5)의 목록을 대상으로 다음 장에서는 형태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8) 봄직하다. 함직하다. 먹음직하다 등..

9)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된 ‘만1’과 ‘만2’이다.

① 만1 ((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1」((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 십 년 만의 귀국/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

「2」((횟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앞말이 가리키는 횟수를 끝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나는 세 번 만에 그 시험에 합격했다./그와 결혼을 결심한 것은 만난 지 다섯 번 만이다./

② 만2

「1」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듣고 보니 좋아할 만은 한 이야기이다.

「2」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 그냥 모르는 척 살 만도 한데 말이야./그가 그러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하다.

10) 17세기 국어에서 ‘동’이 부림말로 쓰인 예(ㄱ)와 어찌말로 쓰인 예(ㄴ)이다.

ㄱ. 올싱이 예게 자겨여 니거늘 주근 동 산 동 몰라 (동신속열:1)

우리 사름이 오늘 죽을 썩 니일 죽을 썩 아디 못흐니 (노걸하:37)

ㄴ. 黃河를 차자갈시 아노니 잇는 동 업슨 동 흐니라 (중두시9:30)

### 3.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형태·통사적 특성

여기에서는 어찌말 매인이름씨 각각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형태적 특성은 후행 요소(토씨 등)와의 결합 양상을 파악할 것이고 통사적 특성은 선·후행 요소와의 통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형태·통사적 특성과 어찌말 매인이름씨 변천이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파악해 볼 것이다. 살펴볼 매인이름씨는 ‘닷(ㄷ시), 대(로), 둥, 만1, 만2, 적(제), 족족, 즉’이다.

#### ① 닷(ㄷ시)

‘닷(ㄷ시)’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거의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매인이름씨이다. 17세기에든 큰 변화는 없다. 주로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기능하였고, 씨끝으로 쓰인 예도 보인다. 매인이름씨 ‘닷’과 씨끝 ‘닷’은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공존하여 왔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 ㄱ. 미훈 믹은 손가락 아리 초즈면 인논 닷 업논 닷 하고 (마경상19)  
 우리의 뵈으로 보텔 바논 이실 닷 아니헝건마논 (첩해초1:7)  
 비록 굿바 고로운 닷 헝나 (경민중:11)  
 三綱이 짜히 쓴 닷 헝고 (여훈상:46)
- ㄴ. 이 굿 가져온 물이 녹논 ㄷ시 재고 (박통중:8)  
 새로 주신 거술 바돈 ㄷ시 헝며 (가례2:3)  
 거죇 조출 ㄷ시 가 기픈 소히 다드라 (동신열6:25)
- ㄷ. 상토에 둘러 망건 스투 헝논 거시라 (가례5:27)  
 金과 구슬을 앓기닷 헝시며 (경민중:28)  
 내 목숨을 보호헝닷 헝시니 (경민중:28)  
 범의 쏘이를 뵈닷 헝며 (여훈하:33)  
 對馬島서 聞及헝ㄷ시 잘 通헝시니 (첩해초1:19)  
 나히 스물헤 지아비 죽거닐 피나ㄷ시 울기룰 삼 년을 헝더니(동신열1:87)

(6ㄱ)은 어찌말 매인이름씨 ‘닷’의 예이고, (6ㄴ)은 어찌말 매인이름씨 ‘ㄷ시’의 예이며, (6ㄷ)은 씨끝의 예이다.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기능하는 ‘닷(ㄷ시)’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면, 형태적으로 ‘닷’은 후행 요소로 영형태소와 결합하고, ‘ㄷ시’는 ‘닷’에 파생가지 ‘-이’가 결합한다.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는 매김법만 통합하고, 매김법으로는 ‘-ㄴ, -ㄹ’ 모두와 통합하고 있으며, 후행 풀이씨로는 ‘헝다’와 주로 통합하지만, ‘아니헝다, 재다, 다드르다’ 등과도 통합하고 있다. 제약적 환경이 일부 있지만, 제약이 크지는 않다. 형태·통사적 특성과 변천과의 상관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닷(ㄷ시)’에 대해 판단하면, ‘닷(ㄷ시)’은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닷’은 매인이름씨와 씨끝이 공존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이다. 대개는 문법화가 진행되면 기존의 덜 문법화 된 형태는 소멸하게 되는데, 매인이름씨와 씨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희(2017)에서는 ‘닷’을 선·후행 요소와의 긴밀성과 ‘닷’구성에 실현된 의미를 통해 문법화 되는 과정을 추론하였다.<sup>11)</sup>

## ② 대(로)

‘대(로)’는 17세기에 어찌말 매인이름씨와 토씨로 쓰이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대희(2017)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에 ‘대(로)’를 어찌말 매인이름씨 목록에서 제외하였는데, 학자들마다 이견도 있었고, 그 예가 많지 않아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2)</sup> 17세기 문헌에서는 ‘대(로)’를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설정할 수 있는 예들이 다수 보인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ㄱ. 바르 제 뜯대로 行호면 (가례2:8)

母씨 비기를 네대로 호고 (가례3:15)

과연 이전 언약대로 소희 싸더 죽다 금 상도애 정문호시니라 (동신열6:75)

그 錢物을 더 노릇호는 놈들의 막음대로 쓰게 호고 (노결하:49)

이 우히는 아므 제라도 심각대로 호시게 알외쇼셔 (첩해초7:17)

ㄴ. 만일 집制되 다르거든 臨時호야 맛당할 대로 조차 호라 (가례2:18)

종이며 쫓이 오직 主人의 命호신 대로 각각 그 일을 조차 (가례2:28)

니르시는 대로 東萊의 옛즈와 催促호여 보내오리 (첩해초2:12)

서울로서 헤아려 오는 대로 호오려니와 (첩해초3:23)

다른 묘리도 업스니 자니네 호실 대로 호옵소 (첩해초4:19)

(7ㄱ)은 토씨로 쓰인 예이고, (7ㄴ)은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이다. 이러한 쓰임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찌말 매인이름씨 ‘대(로)’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면, 형태적으로는 후행 요소와의 결합은 영형태소이고,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는 매김법만 통합하는데, ‘-ㄴ, -ㄹ’이 모두 통합하고 있으며, 후행 요소의 제약은 없다. ‘대(로)’도 ‘뫓(뫓시)처럼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화가 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은 매인이름씨이다.

## ③ 뉘(중)

‘뉘(중)’은 한자 ‘中(중)’에서 기원하였는데, 17세기 문헌에서는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기능하고 있는 예가 보인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그 뉘에 ㄱ래느니 잇느냐 (노결상:6)

사술통 가져다가 혼드러 그 뉘에 호나흘 빼혀 (노결상:4)

우리 벗 뉘에 호나호로 호여 손조 고기 붓게 호자 (노결상:19)

우리 모든 弟兄들 뉘에 아모나 호나히 喜事 | 잇거든 (박통상:24)

그 子弟 뉘의 長者 호나히 저기 나아 셔거든 (가례10:27)

날회여 손을 대당 쉼의 너허 ㄱ마니 더듬어 츠즈라 (마경하:91)

닐은 쉼 뉘의 상세로다 (권념11)

11) 의존명사 ‘뫓’의 어미화 과정을 ‘뫓’의 선·후행 요소와의 긴밀성과 ‘뫓’ 구성에 실현된 의미를 통해 살펴보았다. 긴밀성의 관점으로는 ‘뫓’이 후행하는 요소보다 선행하는 요소와 긴밀성이 높을 때 어미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현된 의미의 관점에서는 [추측]의 의미에서 [비유], [가식]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을 때 어미화가 더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2) 중세국어 시기에 ‘대(로)’를 어찌말로 기능하는 매인이름씨로 언급하고 있는 논의로는 정호완(1987), 이주행(2009)이 있고, 다른 기능을 하는 매인이름씨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로는 허웅(1975), 고영근(1982) 등이 있다. 허웅(1975)에서는 매인이름씨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전체구성을 임자씨처럼 기능하게 하는 매인이름씨로, 앞뒤에 연결되는 말이 극히 제한된다고 하였으며, 고영근(1982)에서도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8)은 ‘뉘’이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인데, 17세기 문헌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형태적으로는 후행 요소로 ‘-에, -의’의 토씨와 결합하고 있고,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 임자씨만 통합하고 있다. ‘여럿 가운데’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선행 요소로 임자씨만 통합하는 제약적인 환경이어서 소멸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사적 제약이 임자씨뿐만 아니라 매김법 ‘-는, -던’이 선행하는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일부 명사 뒤나, ‘-는, -던’ 뒤에 쓰여 무엇을 하는 동안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sup>13)</sup>

#### ④ 만1

‘만1’은 어찌말 매인이름씨로만 쓰이고 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드디어 음식 그쳐 스물나흘 만내 주그니라 (동신열2:26)  
 도적기 누출 삐르고 귀를 버히매 이틀 만 주그니라 (동신열5:11)  
 후에 열두 흰 만에 아비 쏘 병들거늘 손가락 근처 써 드리니라 (동신효6:33)  
 廟見 사흘 만의 主人이 婦로써 祠堂의 뵈오라 (가례4:24)  
 三 年 喪을 스므다섯 日 만의 畢한다 (가례9:29)  
 각각 업고 나와 두어 날 만에 도로 사니라 (동신열3:61)

(9)는 ‘만1’이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인데, 형태적으로는 후행 요소로 ‘-애, -이, -에, -의’의 토씨와 결합하고 있고,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 횟수를 나타내는 임자씨가 통합하고 있다.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17세기와 같은 형태·통사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sup>14)</sup> 제약적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매인이름씨이다.

#### ⑤ 만2

‘만2’는 어찌말 매인이름씨로만 쓰이고 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0) 홀 만 흔 일이오면 엇디 열현이 헝잇가 (첩해초5:22)  
 常常 이를 뉘오출 만 헝는 날을 자네 니르시는 바는 (첩해초9:20)  
 도적을 조츠미 주글 만 곤디 몬하다 헝고 (동신열7:11)  
 제 일을 자븐 後에 行헝는 者는 늦치 뵈 이실 만 홀디니라 (가례9:38)  
니장 츠진 홀 만 헝거든 (두창:4)  
블티기<sup>는</sup> 믈로 다스릴 만 곳디 못하니 (두창:57)

(10)은 ‘만2’가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인데, 형태적으로는 후행 요소로 영형태소가 결합하고 있고,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 매김법 ‘-르’만 통합하고 후행 풀이말은 주로 ‘헝다’와 ‘곤다(곳다)’가 통합하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매인이름씨로 쓰이지만, 선행 매김법 ‘-르’과 후행 풀

13) 근무 중/수업 중/회의 중/식사 중  
 그러던 중/여행하던 중에 만난 사람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4) 15세기의 ‘만1’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열 둘 마내 원넉 피는 男子 | 두외오 (월석1:8)  
 현대국어에서는 ‘만1’에 ‘-에’, ‘-이다’의 후행 요소가 결합하면서 쓰이고 있다.  
 \*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

이씨 ‘하다’와 통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sup>15)</sup> 제약적 환경이라 소멸될 가능성이 컸지만, 제약적 환경에서 서로 통합하면서 특정한 구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⑥ 적(제)

‘적’은 엄밀하게 하면 어찌말 매인이름씨에 포함될 수 없다. 여러 토씨와 결합하여 다양한 월성 분으로 기능하는 두루 매인이름씨의 특성을 포함하고 때문이다. 그런데 ‘적’은 여러 토씨와 결합 하지만, 통사적으로 주로 시간과 관련되어 어찌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어찌말 매인이름씨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ㄱ. 일즉 이에 기피 애드라 아닐 적이 업느니 (경민서:2)  
 子식이 되연는 者ㅣ 흔 念도 그 親을 니줄 적기 업슨 故로 (가례2:11)  
 흔 번 녀름 도티 아닌 적글 만나면 주려 주그리 (경민중:13)  
 그 男女ㅣ 서르 答拜할 적도 쏘흔 그리홀디니라 (가례1:24)  
 고름 되는 사홀른 위기 오를 적이니 (두창상:30)  
 살 쓸 적이어든 檄木으로 하고 (화포:1)  
 小小흔 祭祀 홀 적이어든 (가례1:9)  
 ㄴ. 三代 적의 禮經이 ㄱ즈나 (가례1:서2)  
 고려 적브터 업슨 일이라 하고 (산성:81)  
 묘석던 헝기를 훈글으티 사라실 적 ㄱ티 헝니라 (동신열2:34)  
 말씀의 고티는 바를 그 戒賓홀 적 ㄱ티 헝라 陳設헝라 (가례3:4)  
 少年의 머리 다하신 적브터 夫婦ㅣ 되다 호미니 (가례4:27)  
 ㄱ 주거신 적과 및 七七日과 百日과 (가례5:22)

- (12) ㄱ. 안즈나 누으나 일즉 우디 아닐 제기 업더라 (동신총1:24)  
 네가 屈홀 제는 뉘 조차 네 室을 作헝노 (시경11:13)  
 네의 날호여 行홀 제도 쏘흔 違헝야 (시경12:16)  
 ㄴ. 나히 스물네힌 제 내덩이 죽거늘 (동신열1:28)  
 식어미 미양 된간의 갈 제 몸소 친히 업더라 (동신열1:42)  
 대군이 도라갈 제 호군홀 거술 드리고 (산성:118)  
 父母를 조차실 제 父母의 命이 업거든 (여훈상:40)  
 疇군홀 제 앞피 내드르며 뒤히 떠디거나 (연병:19)

(11)은 ‘적’의 예이고, (12)는 ‘제’의 예이다. (11ㄱ)은 ‘적’이 두루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로, 임자말, 부림말, 부림말, 풀이말 등으로 기능하고 있고, (11ㄴ)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기능하고 있는 예이다. (12ㄱ)은 ‘제’가 임자말로 쓰인 예이며, (12ㄴ)은 ‘제’가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이다.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적’이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경우는 토씨 ‘-의’, ‘-브터’, ‘-과’, 영형태소 등과 결합하고, ‘제’가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경우는 영형태소가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는 ‘저기’의 축약된 말이기 때문에 주로 위치말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후행 요소와

1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만2’의 정의를 보면, (용언 뒤에서 ‘-을 만하다’ 구성으로 쓰여)  
 「1」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 가 볼 만한 장소/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문화재/이 음식은 정말 먹을 만하다.  
 「2」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 그는 차를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내겐 그를 저지할 만한 힘이 없다.

의 결합 제약이 ‘적’보다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면, ‘적’은 선행 요소로는 임자씨, 매김법이 통합하고, 매김법으로는 ‘-ㄴ, -ㄹ’ 모두와 통합하고 있으며, ‘제’는 매김법만 통합하고, 매김법으로는 ‘-ㄴ, -ㄹ’ 모두와 통합하고 있다. ‘적’보다는 ‘제’가 형태·통사적인 제약에 있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결합 제약이 클수록 쓰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적’보다는 ‘제’의 쓰임이 제한적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다.

⑦ 족족

‘족족’은 어찌말 매인어미로만 쓰이고 있다. 17세기부터 어찌말 매인어미로 쓰인 예가 보인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3) 그 머리터롤 버혀 즈란 족족 즉시 버히고 (동신열8:75)
- 일절 승순티 아니호고 니르오신 족족 원슈로이 너기매 (서궁:3)
- 더욱 어엿비 너기오셔 문안 온 족족 스나히게 가흔 거술 (서궁:8)
- 온 족족 주오시니 (서궁:8)
- 날마다 공스든 족족 하 써 보내니 (서궁상:7)
- 침실 상궁 간 족족 인스호고 (서궁상:9)
- 먹을 거스란 든 족족 보내라 흐셔닐 (서궁상:29)

(13)은 ‘족족’이 어찌말 매인어미로 쓰인 예인데, 형태적으로는 후행 요소로 영형태소가 결합하고 있고,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 매김법이 통합하는데, ‘-ㄴ’만 통합하고 있다. 여러 구문에서 쓰이지는 않고, 제약적 환경에서만 쓰이고 있다. 현대국어와 비교해 보면 형태적 특성은 차이가 없으나, 통사적 특성에서는 선행 요소에 매인어미 ‘데’를 선행하는 부분적인 차이는 있다.<sup>16)</sup> 현대국어에서도 제약적 환경에서만 기능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⑧ 족

‘족’은 한자 ‘卽, 則’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찌씨로 처리하는 경향도 있다.<sup>17)</sup> 그러나 이주행(2009)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족’은 매김말의 선행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고, 하위월을 상위월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므로 매인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족’을 매인어미로 처리하면, 17세기에는 어찌말 매인어미로만 기능을 한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4) 기춘 즈 그 뒷짜리롤 들며 (마경하57)
- 만일 혼 디예 혼 수련 즈 (연병3)
- 敬을 起호며 孝를 起호야 것거호신 즈 다시 諫홀디나라 (가례2:9)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족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흔히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일을 하는 하나하나.  
 \* 그는 원서를 넣는 족족 퇴짜를 맞았다.  
 \* 그는 가는 데 족족 따라다닌다.  
 \* 채소를 떼 오는 족족 다 팔렸다.  
 17) <17세기 국어사전>에서도 ‘족’을 어찌씨로 처리하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어찌씨로 처리하고 있다.

무릇 세 번을 혼 즈 효험 나누니라 (마경하109)  
 만일 衣服이 납기에 모흔 즈 (여훈상:34)  
 물 툰 군신 즈 장디 얹피 ㄱㄱ버러 셔라 (연병:13)  
 심하야 게온 즈 긴 버러지 이셔 나고 (마경하:57)

(14)는 ‘즉’이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인데, 형태적으로는 후행 요소로 영형태소가 결합하고 있고,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 매김법 ‘-ㄴ’만 통합하고 있다. 제약적인 환경으로 인해 매인이름씨로의 기능은 소멸하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즉’이 ‘어찌씨’로만 나타나고 있고, 매인이름씨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⑨ 테(체)

‘테(체)’는 중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17세기에 들어 보이기 시작한 매인이름씨이다. 주로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기능한다.

(15) ㄱ. 바다셔 흘 테도 업스니 어므리 커나 나 혼 대로 혼소 (첩해초7:7)  
 ㄴ. 順承 혼 테로 혼나 안흐로 원망하며 (여훈상:15)  
 거긔 패흔 테로 혼고 가거든 (연병:9)  
 귀먹은 테 혼 이 (역어상:29)  
 法度ㅣ 이시니 뒤보라 가는 테 혼가지로 나오면 (박통중:18)  
 거리에 가 보피로운 테 말고 ㄱ장 用心 혼여 (박통중:25)

(15)는 ‘테(체)’의 예인데, (15ㄱ)은 두루 매인이름씨의 예이고, (15ㄴ)은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쓰인 예이다.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면, 형태적으로는 후행 요소는 ‘-로’나 영형태소와 결합한다. ‘-로’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후행 풀이말로 ‘하다’가 주로 통합하고 영형소인 경우에는 ‘하다’나 ‘말다’ 등이 통합한다. 통사적으로는 선행 요소로는 매김법만 통합하는데, ‘-ㄴ’만 통합하고 있으며, 후행 요소의 제약은 없다. ‘만2’처럼 선행 매김법의 제약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컸지만, 제약적 환경에서 서로 통합하면서 특정한 구성 ‘-ㄴ 체하다’의 구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2>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특성

기준 매인 이름씨	문법적 기능	형태적 특성 (후행 요소결합)	통사적 특성 (선, 후행 요소통합)	변천
듯(드시)	어찌말 매인이름씨, 씨끝	* 영형태소 결합 * 가지 ‘-이’	* 매김법(-ㄴ,-ㄹ)과 통합 * 후행풀이씨 주로 ‘하다’ 와 통합	현대국어까지 이어짐
대(로)	토씨, 어찌말 매인 이름씨	* 영형태소 결합	* 매김법(-ㄴ,-ㄹ)과 통합 * 후행 요소 제약 없음	현대국어까지 이어짐

등	어찌말 매인이름씨	* '-의, -에' 결합	* 임자씨만 통합	현대국어까지 이어짐 (제약환경의 확장)
만1	어찌말 매인이름씨,	* '-애, -이, -에, -의' 결합	*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 내는 말, 횡수를 나타 내는 말(임자씨)	현대국어까지 어어짐
만2	어찌말 매인이름씨	* 영형태소 결합	* 매김법(-ㄹ)과만 통합 * 후행 풀이씨는 주로 'ㅎ다', '곧다(긋다)와 통합	현대국어까지 이어짐
적(제)	두루 매인이름씨, 어찌말 매인이름씨	* 영형태소 결합 * '-의, -브터, -과'	* 임자씨 통합 * 매김법 통합 '-ㄴ, -ㄹ'	현대국어까지 이어짐
족족	두루 매인이름씨, 어찌말 매인이름씨	* 영형태소	* 매김법(-ㄴ)과만 통합 * 후행풀이씨 'ㅎ다'와 통 합	현대국어까지 이어짐
즉	어찌말 매인이름씨	* 영형태소	* 매김법(-ㄴ)과만 통합	근대국어에 소멸 현대국어에서는 어찌씨
테(체)	두루 매인이름씨 어찌말 매인이름씨	* 영형태소 * '-로'	* 매김법(-ㄴ)과만 통합 * 'ㅎ다', '말다'	현대국어까지 이어짐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7세기의 어찌말 매인이름씨는 현대국어로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찌말 매인이름씨는 형태·통사적 제약이 많을수록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살펴본 매인이름씨는 대체로 제약이 많지는 않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형태적 제약과 통사적 제약이 다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형태적 제약은 매인이름씨를 분류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듯하고, 통사적 제약은 매인이름씨 변천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듯하였다. 형태적 제약으로 주로 영형태소가 결합하거나, '-의, -에, -이, -브터' 등이 결합하면 대체로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분류되고, 통사적 제약으로 선행 요소의 통합, 즉 임자씨나 매김법이 통합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위의 목록을 검증한 결과, 매김법 제약이 없을수록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고, 매김법 제약이 있거나, 임자씨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정도가 매김법 제약이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6) ㄱ. 매김법 제약이 없는 경우 : ㄷ(드시), 대로, 적(제)  
 ㄴ. 매김법 제약이 있는 경우 : 만2, 족족, 즉, 테(체)  
 ㄷ. 임자씨만 통합하는 경우 : 등, 만1

(16ㄱ)의 경우는 매김법 제약이 없는 매인이름씨인데, 현대국어까지 이어지면서 큰 변화 없이 형태·통사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16ㄴ)의 경우는 현대국어로 이어지면서 제약적으로 쓰이거나('족족'), 특정한 구문을 구성하거나('만2'와 '테(체)')는 후행 요소로 'ㅎ다'와 통합하는 공통점이 있고, '만2'는 매김법 '-ㄹ'과 '테(체)'는 '-ㄴ'과 선행 요소로 통합한다), 기능을 소멸하기도('즉')

한다. (16c)은 17세기에 임자씨만 통합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대국어로 이어지면서 제약 환경이 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뉘’)도 있고, 컷지만, 현 제약 환경의 변화(‘뉘’)과 특정한 임자씨와만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정리하면, 제약적 환경은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변천과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지만,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쓰임의 제약을 가져오거나, 기능의 상실, 문법화 등의 변화를 겪을 확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sup>18)</sup>

#### 4. 맺음말

지금까지 17세기 국어의 어찌말 매인이름씨를 대상으로, 변천과 상관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형태·통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17세기 국어의 어찌말 매인이름씨 목록을 설정하였다. 목록 설정은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설정한 목록을 먼저 살펴본 후, 이들 목록에서 어찌말과 위치말로 기능하는 매인이름씨를 모두 선별한 다음, 주 기능이 어찌말과 위치말로 기능하는 매인이름씨를 선별하여 목록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목록으로 설정한 매인이름씨를 이전 시기, 이후 시기에 나타나는 매인이름씨와 비교하여 소멸된 것, 유지되고 있는 것, 생성된 것으로 나누어 목록을 분류하였다. 설정한 목록은 ‘뉘(뉘시), 대(로), 뉘, 만1, 만2, 적(제), 족족(족족), 즉, 테(체)’이다.

다음으로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변천이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매인이름씨는 대체로 제약이 많지는 않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형태적 제약은 매인이름씨를 분류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듯하고, 통사적 제약은 매인이름씨 변천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듯하였다. 형태적 제약으로 주로 영형태소가 결합하거나, ‘-의, -에, -이, -브터’ 등이 결합하면 대체로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분류되고, 통사적 제약으로 선행 요소의 통합, 즉 임자씨나 매김법이 통합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설정한 목록을 검증한 결과, 매김법 제약이 없을수록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고, 매김법 제약이 있거나, 임자씨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정도가 매김법 제약이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정리하면, 제약적 환경은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변천과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지만,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쓰임의 제약을 가져오거나, 기능의 상실, 문법화 등의 변화를 겪을 확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18) 이와 관련하여 안주호(1997:52)에서는 문법화의 진행과 형태·통사적 제약과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문법화가 진행될수록 형태·통사적인 제약이 많아진다고 논의하고 있다. 형태적으로는 점점 더 의존적, 제한적, 고정적으로 쓰이고, 통사적으로는 제약이 많아지며 새로운 기능이 파생된다고 하였다. 정재영(1996)에서는 의존명사는 원래 의존적인 형태이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이므로 일정한 선행 형태에 후행하여 반복 사용되면서 하나의 문법 형태소화 된다고 하였다.

## ■ 참고 문헌

- 고영근(1982), 「중세국어의 형식명사에 대하여」, 『어학연구』 18-1, 서울대어학연구소.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 권재일(1987), 「의존구문의 역사성 - 통사론에서 형태론으로」, 『말』12, 연세대한국어학당, 5-24쪽.
- 김건희(2010), 「“의존명사+하다”에서 의존명사 자리 찾기」, 『형태론』12-1, 형태론학회.
- 송복승(2002), 「‘دت’과 ‘دت이’의 발달에 대하여」, 『배달말』30, 배달말학회, 69~89쪽.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안효경(2001), 『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왕문용(1988), 『근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도서출판 한샘.
- 왕문용(2003), 「의존명사의 신생과 소멸」, 『국어교육』112, 국어교육학회, 273-295쪽.
-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 출판부.
- 이승욱(2001), 「문법화의 단계와 형태소 형성」, 『국어학』37, 국어학회, 263-283쪽.
- 이주행(1987), 「근대국어의 의존명사에 대한 소고-목록 설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5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16쪽.
- 이주행(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한샘.
- 이주행(2009), 『한국어 의존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 임동훈(1991), 「현대국어의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103.
- 전정례(1995), 『새로운 ‘-오-’ 연구』, 한국문화사.
- 정재영(1996), 『의존명사 ‘دت’의 문법화』, 국어학회.
- 정호완(1987), 『후기 중세어 의존명사 연구』, 학문사.
- 최대희(2016),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 ‘양’, ‘دت’, ‘테(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41, 149~172쪽.
- 최대희(2017), 「의존명사 ‘دت’의 변천과 어미화 과정」, 『영주어문』35, 영주어문학회, 153-175쪽.
- 최대희(2017), 「중세국어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한말연구』45, 한말연구학회, 227-250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17세기 국어사전』, 1995, 태학사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 토 론

### “17세기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정수현(건국대)

이 연구는 17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매인이름씨 가운데 “닷(ㄷ시), 대(로), 동, 둥, 만1, 만2, 양, 적(제), 족족, 즉, 테(체)”를 어찌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찌말 매인이름씨로 규정하고 그들의 후행 요소와 결합 양상과 통합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는 연구로, 17세기의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적인 연구이지만 최대희 선생님의 그간의 연구 업적들을 대비해 봤을 때 크게 중세국어 이후의 통시적 언어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 연구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 맺음말에 있듯이 매김법 제약이 없을수록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고, 매김법 제약이 있거나 입자씨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정도가 매김법 제약이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해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찌말 매인이름씨 목록에 관한 논의의 과정 안에서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1. 어찌말 매인이름씨 목록 중 ‘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의 현대국어 쓰임을 어찌씨라고 하셨지만 본문에서 들고 있는 (14)번의 예시들의 봤을 때는 현대국어에서의 ‘ㄴ즉(조사)’ ‘-ㄴ즉(어미)’의 쓰임과 같으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예시를 빌려 오면 조사로의 쓰임으로는 “이야긴즉 옳다./취진즉 분명하다./땀즉 봄철이다./글썩즉 명필이다.”와 같은 예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어미로의 쓰임으로는 “쉽게 풀어 쓴 책인즉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비가 내린즉 곧 강물이 불을 것이다./날씨가 찬즉 얼음이 얼었다.”의 예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자 ‘卽, 則’의 의미”로의 어찌씨와는 다른 것이 형태 소적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다음은 위의 1에서 조금 확장된 질문입니다. ‘즉’의 경우에는 ‘ㄴ’을 항상 앞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7세기 문헌에서는 다른 분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어미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현대국어에서 풀이하고 있는 ‘ㄴ즉’의 경우에는 중세국어 이후의 쓰임으로 추측해 보건대 어미화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이다’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환경이 굳어진 후에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조건에서 조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는데요.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3. 이 발표는 “어찌말 매인이름씨의 특성”을 주제로 한 것이지만 <표2>를 보고 궁금함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17세기 국어에서의 ‘테’의 두루 매인이름씨로의 통사적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표 2>의 정리에서와 같이 두루 매인이름씨로의 기능도 현대국어에까

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 것이지요? <첩해신어> 초간본을 보면 ‘테’의 선행 요소가 ‘-르’이 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15ㄱ)의 예시 이외에도 “이 公木을 바다 아르려도 흘 테 업스오니(첩신-초 4:18)”, “별로 인스홀 테도 업스니(첩신-초 8:18ㄱ)”와 같은 구문이 있고 (15ㄱ)을 포함한 세 구문은 모두 뒤에 ‘없다’가 따르는 분포를 보입니다. 17세기 문헌을 모두 조사해 보지는 못했으나 현대국어와 비교하자면 이런 분포는 언뜻 잘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표 2>에서 ‘변천’ 열에서는 두루 매인이름씨 ‘테’까지도 현대국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족족”의 예시 구문 중에서는 <표 2>의 내용처럼 두루 매인이름씨로 해석할 수 있는 예문이 없습니다. ‘테’와 ‘족족’에 관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많은 문헌에 대해 탐구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야 마땅하겠으나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얇은 견해로만 질문을 드려 선생님의 연구에 누가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입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부 <제2 분과 음성과 형태>**



# 한국어 /ㄷ/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 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

신우봉(제주대)

## < 차례 >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및 논의: 한국어 /ㄷ/의 음성 실현 양상
4. 결론

## 1. 서론

모음의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설정되는 세대, 성별, 사회 계층, 말의 스타일 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들은 언어적 특질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선/후행 분절음, 음절 유형, 음절 내 위치 등과 같은 언어 내적 변인들도 모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ㄷ/의 음향적 특성을 살핍으로써 세대와 성별이라는 언어외적 요인과 어두와 비어두 및 선행 음소의 종류라는 언어내적 요인이 이들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언어외적 요인으로 세대(10대, 20대, 30대, 40대), 성별(남·여)을 고려하였으며, 언어내적 요인으로 선행 분절음의 조음위치와 어두/비어두 위치를 고려하여 한국어 /ㄷ/의 실현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어 /ㄷ/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실현된다. 김민자(1982)에 따르면 한국어 /ㄷ/는 다른 모음과는 달리 음운론적 환경이나 연령(세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음가가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설정하는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ㄷ/의 변화와 관련하여 방언적인 차이를 관찰한 김현(2007)에서는 「한국방언자료집」을 통해 남한 지역 단모음 /ㄷ/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후·저설화된 /ㄷ/는 상당수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밖에 충청도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ㄷ/는 주변 분절음의 영향에 따라서도 실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복(1972: 47)에서는 선행하는 소리가 반모음 /j/나 치조 및 경구개 자음일 때는 /ㄷ/의 음가가 전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2008)에서도 재확인된다. 김현(2008)에서는 /ㄷ/의 조음영역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 음성 자료를 녹음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화자 5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ㄷ/의

실현 양상을 /ㅡ, ㅓ, ㅜ/ 모음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ㅓ/ 앞뒤에 양순음이나 연구개 음 같은 변자음이 올 때는 /ㅓ/가 상당히 뒤쪽에서 발음되지만, 앞뒤에 치조음과 같은 중자음이 올 때는 /ㅓ/가 매우 앞쪽에서 발음되며 이러한 결과는 /ㅓ/의 실현에 인접 자음의 조음 위치가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ㅓ/의 세대별 변화를 살펴본 연구로는 김민자(1982), 이현복(1993), 권경근(2001), 강지은·공은정(2016), 이향원 외(2017) 등이 있다. 김민자(1982)에 따르면 50-60대의 경우 장단음에 따른 /ㅓ/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하의 세대는 장단음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ㅓ/의 조음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장단은 1980년대에도 50-60대 이상의 세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sup> 이현복(1993)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3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ㅓ/의 장음과 단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모두 [ㅓ]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권경근(2001)에서도 선행연구의 실험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에서의 /ㅓ/가 길이에 따라 음가가 다른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젊은 세대의 발화에서는 길이의 대립이 소멸됨으로써 /ㅓ/가 후설 저모음 /ㅓ/로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강지은·공은정(2016), 이향원 외(2017)에서는 /ㅓ/의 변화 양상을 모음 체계 전반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강지은·공은정(2016)에서는 화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ㅓ/가 후설 쪽으로 이동하여 /ㅓ/와 /ㅜ/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향원 외(2017)에서는 /ㅓ/가 후설 쪽으로 이동하며, 그에 따라 /ㅜ/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세대가 어릴수록 /ㅓ/가 후설 쪽으로 이동하는 공통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이향원 외(2017)에서는 /ㅓ/의 후설 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ㅜ/가 상승하여 두 모음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강지은·공은정(2016)에서는 /ㅓ/와 /ㅜ/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ㅓ/의 변화를 언어 외적 요인과 언어 내적 요인 각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하게 한국어 /ㅓ/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어 외적 요인 및 내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ㅓ/의 변화를 세대와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어두/비어두 위치 및 선행 자음 종류가 /ㅓ/의 실현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자료

본고에서는 /ㅓ/의 실현양상을 세대와 성별이라는 언어외적 요인과 어두와 비어두 및 선행 음소의 종류라는 언어내적 요인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코퍼스(Seoul Corpus)를 활용한다. 서울 코퍼스는 한국인 자연 음성 발화 코퍼스로 총 231,632 어절의 대규모 코퍼스이다. 이 코퍼스는 10대, 20대, 30대, 40대 남녀 각각 5명씩 총 40명의 음성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1) 김현(2008: 10)에서도 장모음 /ㅓ:/와 단모음 /ㅓ/의 F1값과 F2-F1 값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제보다는 다섯 명 중 한 명밖에 없었다.

표본추출률 44,100Hz, 양자화 16Bit로 디지털화되어 있다. 서울 코퍼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Yun et al(2015)에 제시되어 있다.

서울 코퍼스는 음성 파일 240개와 텍스트그리드 파일 240개로 구성되어 있다. 프랏의 텍스트 그리드 파일은 총 7개의 층별로 다양하게 전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스크립트를 통해 추출해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랏의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해당 코퍼스의 단모음과 포먼트 정보를 모두 추출하였으며, 모음의 위치와 선행·후행 분절음의 종류, 모음의 길이 등이 정보를 추출하였다.

## 2.2. 연구 대상 추출 및 분석 방법

모음의 음향적 특성은 모음의 포먼트와 내재적 길이, 강도, 피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울 코퍼스에서 /ɪ/의 음향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ɪ, ɪ, ɪ̄, ɪ̄̄, ɪ̄̄̄/ 5개의 모음의 포먼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포먼트 분석은 Praat 6.0.29의 스크립트를 활용하였다. 포먼트 값 측정을 위해 남성 화자의 경우 최대 포먼트 값을 5,000Hz, 여성 화자의 경우 최대 포먼트 값을 5,500Hz로 설정하였으며, 포먼트 수와 윈도우 길이는 각각 5개, 25ms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344,416개(ɪ: 72,132개, ɪ: 77,594개, ɪ̄: 115,082개, ɪ̄̄: 36,009개, ɪ̄̄̄: 43,599개)의 모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분범위(IQR)의 ±1.5배를 벗어나는 수치를 이상치(outlier)로 판단하여(Tukey, 1977) 5개의 모음과 성별, 세대라는 집단 내에서 이상치에 해당하는 토큰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토큰의 수는 총 23,041개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치 23,041개를 제외한 총 321,375개의 모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음의 음향적 특징은 모음의 포먼트와 내재적 길이(intrinsic duration), 강도, 피치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추출된 모음의 제1포먼트와 제2포먼트 주파수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송창현(2005)에서 제시한 전설도라는 개념을 통하여 /ɪ/의 전·후설의 영역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sup>2)</sup> 모음의 전설도는 극한적인 F2 값을 보이는 모음 /ɪ/와 모음 /ɪ̄̄̄/의 F2에 대한 해당 모음의 F2의 상대적인 크기이다. 다시 말해 전설도는 모음 /ɪ/의 F2를 개인 화자가 생성할 수 있는 F2의 최댓값으로, 모음 /ɪ̄̄̄/의 F2를 그 최솟값으로 가정하고, 이 두 값에 대한 해당 모음의 F2의 상대값을 계산한 것이다. 이 식에 따르면 모음 /ɪ/의 전설도는 1, 모음 /ɪ̄̄̄/의 전설도는 0이 되고, 모든 모음의 전설도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어 해당 모음의 F2가 클수록 전설도는 1에 가깝게, F2가 작을수록 전설도는 0에 가깝게 된다. 이 전설도 값은, 기본 모음의 전설도 값들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 모음의 전후설성 판단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는 데에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를 실시하였다.

2) 모음의 전·후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F2 수치의 변화 혹은 F2-F1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송창현(2005)에서는 평균후설저모음을 제외한 평균후설고모음의 경우 F2-F1 수치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더욱이 이 지표에 따르면 평순전설고모음 /ɪ/가 후설모음으로 파악되는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지표의 사용을 지양하고, (F2'-F2u)/(F2i-F2u)를 사용하고 있다.

### 3. 연구 결과 및 논의: 한국어 /ɪ/의 음성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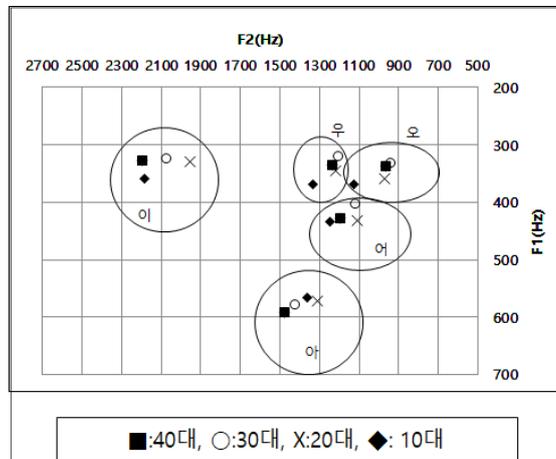
서울 코퍼스에서 실현되는 /ɪ/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3.1.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요소인 성별과 세대에 따른 /ɪ/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3.2.에서는 언어 내적 요소인 선행 분절음의 종류와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ɪ/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 3.1. 세대 및 성별에 따른 각 화자 집단의 /ɪ/ 실현 분석

서울 코퍼스 내 10대, 20대, 30대, 40대 남녀 화자가 발화한 단모음의 F1과 F2의 포먼트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제시한 것이 <표 1>이다.

<표 1> 남성 화자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과 표준편차(단위: Hz)

남성		ɪ	ɪ	ɪ	ɪ	ɪ
10대	F1평균	434.28	359.43	567.00	369.62	368.96
	표준편차	146.24	99.18	206.01	106.55	105.42
	F2평균	1248.30	2186.96	1360.01	1335.07	1124.19
	표준편차	292.92	293.75	300.98	364.44	307.82
20대	F1평균	431.62	329.96	572.39	345.42	359.92
	표준편차	105.28	70.54	182.00	68.03	62.74
	F2평균	1111.45	1956.50	1308.79	1217.77	971.88
	표준편차	223.00	346.74	222.92	335.81	219.93
30대	F1평균	403.79	325.48	580.30	320.52	332.79
	표준편차	99.12	60.27	160.69	56.94	61.04
	F2평균	1117.48	2070.19	1421.40	1203.93	937.55
	표준편차	247.20	335.78	244.61	383.63	243.96
40대	F1평균	427.95	327.99	591.24	334.47	337.69
	표준편차	148.24	81.20	206.83	89.30	93.51
	F2평균	1198.05	2198.28	1477.95	1236.68	967.23
	표준편차	297.25	353.96	301.02	403.05	248.50



<그림 1> /ɪ, ɪ, ɪ, ɪ, ɪ/의 실현 양상

남성 화자의 세대에 따른 단모음의 포먼트 수치는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ɪ/의 포먼트 수치를 살펴보면 F1의 경우 434.28-431.62-403.79-427.95Hz로 나타나며, F2의 경우 1248.30-1111.45-1117.48-1198.05Hz로 나타났다. Scheffé 사후 검정 결과 /ɪ/ 모음의 F1, F2 모두 세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sup>3)</sup> <표 1>의 포먼트 수치와 <그림 1>의 포먼트 도표를 통해서는 /ɪ/의 세대별 변화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ɪ/의 전·후설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ɪ, ɪ, ɯ/의 F2를 통하여 전설도를 살펴보았다. 송창현(2005)에서는 /-/ 전설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F2의 양극단에 있는 /ɪ/와 /ɯ/를 활용하였지만 본고에서는 /ɪ/의 전설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ɪ/와 /ɯ/를 활용하여 상대적인 전·후설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세대에서 /ɯ/가 /ɪ/보다 더 전설 쪽에서 조음되고 있어서 /ɯ, ɪ/보다 후설 쪽에서 조음되고 있는 /ɯ/를 기준으로 해야 상대적인 전설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ɪ/의 전설도: (/ɪ/의 F2 - /ɯ/의 F2) / (/ɪ/의 F2 - /ɯ/의 F2)$$

(1)의 전설도를 활용하여 남성 화자의 세대별 /ɪ/의 전설도 변화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남성 화자 /ɪ/의 세대별 전설도, ΔF: F2-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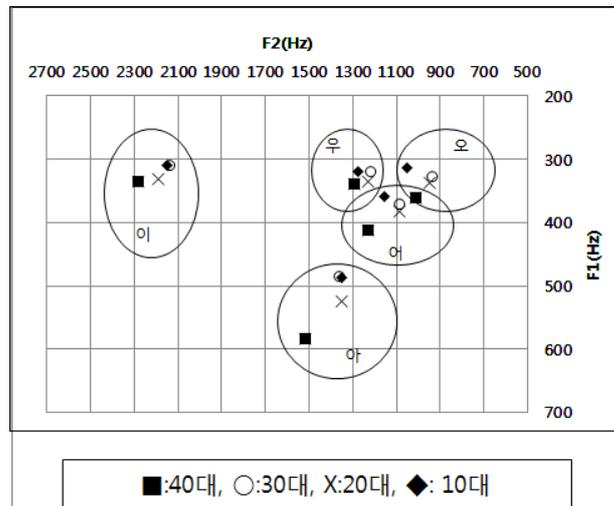
	전설도	ΔF: F2-F1
10대	0.117	814.02
20대	0.142	679.84
30대	0.159	713.69
40대	0.187	770.1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화자 /ɪ/의 전설도는 40대(0.187)에서 10대(0.117)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ΔF: F2-F1의 결과는 세대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즉, /ɪ/의 전·후설성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단순히 F2의 변화 혹은 ΔF: F2-F1수치의 변화보다 F2의 상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전설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세대가 낮아질수록 남성화자의 경우 /ɪ/를 후설 쪽으로 발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세대에 따른 /ɪ/의 전설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F(3, 19)=2.012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 검정 결과 각 세대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화자의 세대별 /ɪ/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김순옥·윤규철(2015)에서 서울코퍼스의 단모음에 대해 연령대별로 F1, F2 포먼트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각 모음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모음 포먼트 모두를 고려하면 모든 연령 집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고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남성 화자의 경우 /ɪ/ 모음은 10대에서는 /ɯ/와 /ɯ/ 사이에 존재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다소 아래로 하강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본고의 결과 모든 세대에서 /ɪ/가 /ɯ/와 /ɯ/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여성 화자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과 표준편차(단위: Hz)

여성		ㅣ	ㅣ	ㅏ	ㅑ	ㅓ
10대	F1평균	358.03	309.83	486.69	319.14	314.43
	표준편차	106.95	79.95	198.18	73.75	65.32
	F2평균	1154.39	2148.54	1353.16	1274.34	1052.50
	표준편차	271.18	320.87	237.36	404.96	277.40
20대	F1평균	383.38	331.74	524.48	336.20	337.57
	표준편차	94.17	72.55	194.95	65.22	68.48
	F2평균	1085.75	2190.33	1348.26	1228.47	950.54
	표준편차	230.74	361.75	265.69	414.27	252.78
30대	F1평균	373.13	311.73	486.59	321.99	329.02
	표준편차	92.36	68.21	169.67	64.14	65.40
	F2평균	1078.10	2131.88	1355.84	1212.90	930.32
	표준편차	208.46	349.13	226.11	407.45	228.20
40대	F1평균	411.96	335.28	583.57	339.67	360.96
	표준편차	100.03	66.37	192.19	65.92	64.81
	F2평균	1232.12	2280.89	1519.62	1293.39	1013.51
	표준편차	297.91	325.83	270.01	418.88	271.98



<그림 2> /ㅣ, ㅏ, ㅑ, ㅓ, ㅕ/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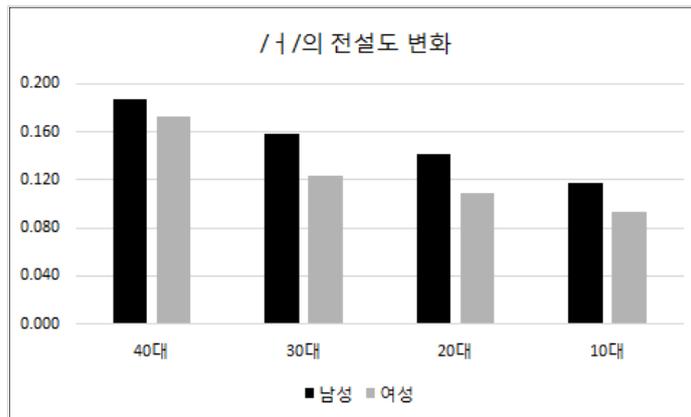
여성 화자의 세대에 따른 단모음의 포먼트 수치는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다. /ㅣ/의 포먼트 수치를 살펴보면 F1의 경우 358.03-383.38-373.13-411.96Hz로 나타내며, F2의 경우 1154.39-1085.75-1078.10-1232.12Hz로 나타났다. Scheffé 사후 검정 결과 /ㅣ/ 모음의 F1, F2 모두 세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남성 화자와 동일하게 여성 화자가 발화한 /ㅣ/의 전설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여성 화자 /ㅈ/의 세대별 전설도,  $\Delta F$ : F2-F1

	전설도	$\Delta F$ : F2-F1
10대	0.093	796.35
20대	0.109	702.38
30대	0.123	704.96
40대	0.172	820.16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화자 /ㅈ/의 전설도 40대(0.172)에서 10대(0.093)로 올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성 화자와 동일하게 여성 화자에서도 /ㅈ/는 세대가 낮아질수록 후설 쪽으로 발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대에 따른 /ㅈ/의 전설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F(3, 19)=3.5834$ ,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 검정 결과 각 세대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표 2>와 <표 4>에 제시한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의 전설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세대에 따른 차이를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 세대별 /ㅈ/의 전설도 변화 양상

<그림 2>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40대에서 10대로 올수록 /ㅈ/의 전설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ㅈ/가 젊은 층으로 올수록 후설 쪽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원 외(2017)에서는 /ㅈ/의 후설 쪽으로의 이동으로 /ㅈ/와 /ㅊ/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ㅊ/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즉, /ㅈ/의 F2 감소가 /ㅊ/의 F1 상승을 일으켜 후설 모음에서의 연쇄적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ㅊ/의 F1 평균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화자의 경우 337.69-332.79-359.92-368.96Hz로 젊은 층으로 올수록 F1 평균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 화자의 경우 360.96-329.02-337.57-314.43Hz로 젊은 층으로 올수록 F1 평균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ㅈ/의 후설 쪽으로의 변화와 /ㅊ/의 상승을 동반하는 변화는 여성 화자에 한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2. 언어 내적 요인에 따른 /ㄱ/의 실현 양상 분석

3.1.에서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ㄱ/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어 /ㄱ/는 언어 외적 요인 외에 언어 내적인 요인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이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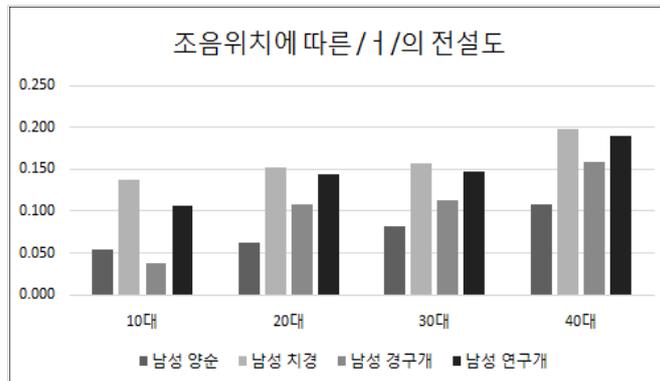
#### 3.2.1.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별 분석

이 절에서는 /ㄱ/에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ㄱ/의 전·후설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분절음이 성문음의 경우 표본 수가 15개 미만인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남성 10대, 여성 30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어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ㄱ/의 전설도는 <표 5>,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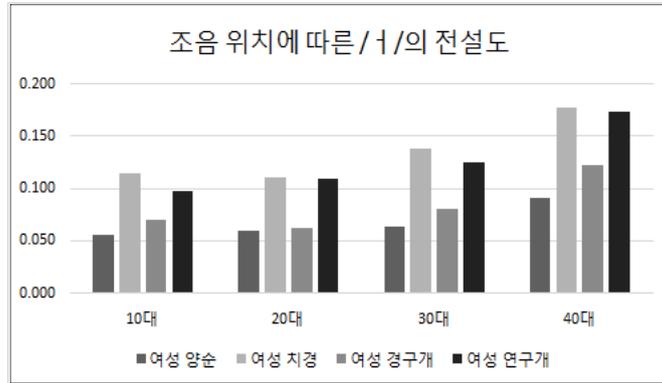
<표 5>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ㄱ/의 전설도 수치

전설도		10대	20대	30대	40대
남성	양순	0.055	0.062	0.082	0.109
	치경	0.137	0.152	0.157	0.199
	경구개	0.038	0.109	0.114	0.159
	연구개	0.107	0.144	0.147	0.190
여성	양순	0.055	0.059	0.064	0.091
	치경	0.115	0.110	0.138	0.177
	경구개	0.070	0.062	0.080	0.122
	연구개	0.098	0.109	0.125	0.173

남성과 여성 모두 모든 세대에서 선행 자음에 따른 전설도는 ‘치경음(남성: 0.137~0.199, 여성: 0.110~0.177) > 연구개음(남성: 0.107~0.190, 여성: 0.098~0.173) > 경구개음(남성: 0.038~0.159, 여성: 0.062~0.122) > 양순음(남성: 0.055~0.109, 여성: 0.055~0.091)’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음 위치에 따른 전설도의 이러한 차이는 20대 남성과 여성의 치경음과 연구개음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조음 위치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5$ ). 즉, /ㄱ/의 경우 선행 분절음에 따라 전·후설성의 차이를 보이며 ‘치경음>연구개음>경구개음>양순음’의 순서대로 전설 쪽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선행 자음에 따른 /ㄱ/의 전설도



<그림 4> 선행 자음에 따른 /ㄱ/의 전설도

<그림 4>를 보면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ㄱ/의 전설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조음 위치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ㄱ/에 선행하는 자음이 치경음, 연구개음이면 상대적으로 양순음, 경구개음에 비해서 전설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치경음, 연구개음일수록 전설 쪽에서 발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살펴본 /ㄱ/의 조음 영역의 변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현복(1971)에서는 치조음, 경구개음 뒤에서 /ㄱ/의 조음 영역이 전설화된다고 보았으나, 본고의 결과 치경음과 연구개음 뒤에서 /ㄱ/의 조음 영역이 전설 쪽으로 실현되고 있었으며, 경구개음과 양순음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설 쪽으로 나타나고 있었다.<sup>4)</sup>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의 경우에 [a<sub>1</sub>]가 자음 ‘k, g’에 인접하면 상승 및 후퇴한 [a<sub>2</sub>]로 실현(Jons 1956: 92)됨을 보였는데(정인호, 2015: 215 재인용), 한국어의 경우에도 /ㄱ/가 연구개음 /ㄱ, ㅋ, ㆁ, ㅇ/ 뒤에서 후설 쪽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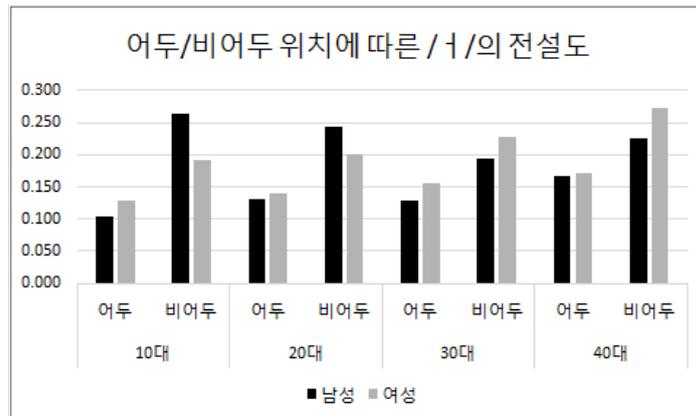
### 3.2.2.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분석

이 절에서는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ㄱ/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절에서 선행 분절음의 종류에 따라 /ㄱ/의 실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두와 비어두 위치에 따른 /ㄱ/의 실현 양상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선행 자음이 없는 환경에서 /ㄱ/의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변화 양상을 비교해야 한다. /ㄱ/의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ㄱ/의 전설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ㄱ, ㄴ, ㄷ/의 F2 평균값을 제시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F2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ㄱ/의 전설도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4) 김현(2008)에서는 F2-F1 수치를 기반으로 선·후행 분절음의 종류에 따른 /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분절음뿐만 아니라 후행 분절음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grave] 자질을 기반으로 변자음과 중자음에 따른 /ㄱ/의 조음 영역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실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

<표 6>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ㄱ, ㄴ, ㄷ/의 F2 및 전설도

성별	세대	위치	ㄱ	ㄴ	ㄷ	전설도
남성	10대	어두	1054.94	2224.77	919.75	0.104
		비어두	1307.68	2122.10	1017.33	0.263
	20대	어두	976.08	1972.74	824.56	0.132
		비어두	1160.75	1916.14	917.81	0.243
	30대	어두	952.53	2095.76	784.92	0.128
		비어두	1169.70	2103.40	944.66	0.194
	40대	어두	1022.18	2261.20	774.56	0.167
		비어두	1188.99	2199.10	896.61	0.224
여성	10대	어두	1028.06	2178.11	858.97	0.128
		비어두	1224.86	2128.80	1008.91	0.193
	20대	어두	970.82	2227.15	768.09	0.139
		비어두	1145.75	2174.77	888.88	0.200
	30대	어두	956.77	2129.93	741.79	0.155
		비어두	1110.20	2076.40	823.88	0.229
	40대	어두	1101.63	2307.65	850.45	0.172
		비어두	1282.11	2271.58	910.77	0.273



<그림 5>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ㄱ/의 전설도

<그림 5>를 살펴보면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전설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서 ‘비어두>어두’ 위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전설도 값에 대한 t-검정 결과, 모든 세대와 연령에서 전설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ㄱ/의 경우 비어두보다 어두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후설 쪽으로 발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인호(2015: 219)에 따르면 비어두의 경우 ‘한국방언자료집’에서 거의 대부분 중설반폐모음 [a]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본고의 결과 비어두 위치에서의 /ㄱ/는 어두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전설 쪽으로 발음되고 있는 것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어 /ㄱ/의 경우 선행하는 분절음에 따른 조음 영역에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라서도 조음 영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어 /ㅜ/의 실현 양상이 성별, 세대라는 언어 외적 요인과 선행 분절음의 종류, 어두/비어두 위치라는 언어 내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 코퍼스를 대상으로 /ㅜ/의 실현 양상을 살핀 결과, 40대에서 10대로 올수록 /ㅜ/가 후설 쪽으로 발음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선행하는 분절음의 종류에 따라서 ‘치경음>연구개음>경구개음>양순음’ 순으로 /ㅜ/는 전설 쪽에서 발음되고 있으며, 어두보다 비어두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전설 쪽에서 발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참고 문헌

- 강지은·공은정(2016),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8-4, 한국음성학회, p39-47.
- 권경근(2001), 「현대국어의 모음 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p29-48.
- 김민자(1982), 「현대 한국어 /ㅜ/ 모음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5, 한국음성학회, p29-38.
- 김순옥·윤규철(2015),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의 연령별 모음 포먼트 비교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7-3, 한국음성학회, p65-72.
- 김현(2007), 「비원순모음화와 ‘ㄱ’의 저설화」, 『진단학보』 103, 진단학회, p143-165.
- 김현(2008), 「/ㅜ/의 음성 실현과 그 실현 조건」, 『국어학』 52, 국어학회, p3-25.
- 이향원 외(2017),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9-2, 한국음성학회, p39-51.
- 이현복(1971), 「현대 서울 말의 모음 음가」, 『어학연구』 7-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37-52.
- 이현복(1993),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장혜진(2006),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호(2015), 「현대국어 모음 ‘어’의 음가 고찰」,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p203-225.
- Jones, D.(1918),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W.Heffer & Sons Ltd.
- Tukey, J. (1977). *Exploratory Data Analysis*. Reading, Mass: Addison-Wesly.
- Yun, w., Yoon, k., Park, s., Lee, J., Cho, s., Kang, d., Byun, K., Han, H. & Kim, J.,(2015), *The Koream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ies* 7-2, 103-109.

## ▣ 토 론

### “한국어 /ㄷ/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 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하영우(카이스트)

이 연구는 대규모 음성 말뭉치를 바탕으로 모음 /ㄷ/의 언어 내외적 특성을 계량화하여 관찰한 연구이다. /ㄷ/는 장단음 변별 이슈와 단모음의 연쇄적 음가 변화와 관련하여 정밀한 음성학적, 음운론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어 단모음의 음가 변화에 맞추어 재조정된 전설도 측정법 역시 차후 단모음 연구 방법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 선생님께서 연구를 완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연구 방법론과 전망적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소소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 1. 대상 자료의 추출 기준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의 음소별 빈도로 미루어 보아,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발음 전사 층위를 대상으로 /ㄷ/를 추출한 후 ‘<LAUGH-거죠>’처럼 기타 소음이 포함된 유형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의 추출 기준과 정합성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고, 대체로 연구 자료의 규모가 커질수록 오차는 줄어들기 마련이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자료 자체에 따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이산값을 제거하였으므로 측정값의 오차 자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구자마다 자료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두 유형의 자료 처리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 (1) ㄱ. 좀 티가 많이 나는 거죠[거저]. 예 그렇죠[그러체]  
ㄴ. 그러면서[그러면서] 피씨방 가는 애도 있고  
ㄷ. 어머니[어머니]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1)은 감쇄된 형식과 원형식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1ㄱ, ㄴ)의 ‘ㅈ > ㄷ’, ‘ㅊ > ㄷ’는 구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음 감쇄(reduction)의 예이다. (1)의 발음형은 모두 [ㄷ]이지만 음 감쇄를 통해 형성된 (1ㄱ, ㄴ)과 원형식이 /ㄷ/인 (1ㄷ)이 동일한 층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편 (2)는 원형식이 모두 /ㄷ/로 동일하지만 문법 범주가 다른 유형이다.

- (2) ㄱ. 어 아빠가 뭐 그러니깐 대학교 이후 생활은 자주 말씀 해 주시는데  
ㄴ. 어히 뭐 그냥 그렇지요 그래요  
ㄷ. 제가 어른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2ㄱ, ㄴ) 같은 간투사, 감탄사의 /ㄱ/를 (2ㄷ)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순수하게 음운론적 관점에서 /ㄱ/를 분석한다면 (2)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문법 범주와 음 변이의 상관관계가 꽤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 처리 방식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현실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 2. 선행 자음에 따른 /ㄱ/의 전설화에 대한 전망적 해석

3.2.1에 따르면 /ㄱ/의 전설화는 선행 자음의 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ㄱ/의 전설화가 ‘치경음 > 연구개음 > 경구개음 > 양순음’의 순서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강하게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준다. 이현복(1971)처럼 상대적으로 전설에 위치한 [+설정성] 자음이 선행할 때 /ㄱ/의 전설화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개음이 경구개음에 비해 더 강한 영향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치경음과 연구개음에는 폐쇄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ㄱ/의 전설화가 조음 방법과 유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폐쇄음이 다수 분포한 양순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 자유 발화 자료의 음소 빈도 분포가 편중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ㄱ/의 전설화와 관련된 ‘치경음 > 연구개음 > 경구개음 > 양순음’의 양상은 조음 위치보다는 특정 분절음 자체 혹은 해당 분절음의 음운론적 속성에 의한 결과는 아닌지 궁금하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전망적 해석을 듣고 싶다.

## 3.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ㄱ/의 전설화에 대한 전망적 해석

3.2.2절에서는 어두 위치 여부에 따른 /ㄱ/의 전설화 양상을 분석하여 어두 위치와 비어두 위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개별 어휘의 구성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 변화나 약화는 단어 인지와 관련한 어두 위치보다는 비어두 위치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토론자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ㄱ/의 전설화가 비어두 위치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음 약화 현상으로 이해되는데, 이 현상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전망적 해석은 어떤지 궁금하다.

한편 <그림 5>에 제시된 어두/비어두 위치에 따른 /ㄱ/의 전설화를 세대와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어두와 비어두의 전설도 편차가 10, 20대는 남녀 차이가 큰 데 비해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정확한 전설도 값이 제시되어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3.1에서 전설도가 세대에 따라 유의미하고 점진적인 편차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는 /ㄱ/의 전설화가 언어 외적 요인보다는 언어 내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인지, 아니면 세대를 가로지르는 여성의 표준 발음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하다.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혼성어 생성 기제에 대한 연구

김병건(건국대)

## < 차례 >

1. 서론
2. 이전 연구
3. 혼성어 생성 기제
4. 논의 및 결론

## 1. 서론

본 논문은 “혼성어 형성 시 관찰되는 음절의 선취(選取)를 규칙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연구이다.

절단(clipping)과 합성(compound)이 동시에 적용되어 만들어지는 혼성어(blend)는 근래에 들어 생산적으로 조어되고 있다. TV나 신문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1)과 같은 혼성어들을 찾을 수 있다.

- (1) 가. 이통시장에 군림하는 ‘애플느님’ (헤럴드경제 2017-11-14)
  - 나. 로시, 추자현과 인증사진 공개…#자현느님 #실물영접 (한국일보 2017-11-21)
  - 다. 두산 떠난 니퍼트, KT와 100만 달러 계약…“니느님 100승 채우자” (동아일보 2018-01-04)

혼성어는 예전엔 ‘불고기 백반→불백’과 같은 극히 일부의 예가 있었으나, ‘사오정’<sup>1)</sup>, ‘오륙도’<sup>2)</sup>, ‘이태백’<sup>3)</sup>과 같은 사회 비판적인 조어와 함께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토토즐’과 같이 긴 프로그램명을 줄여 쓰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혼성어의 유행은 재미·언어의 경제성 등 언어 외적 요인과 ‘smoke+fog→smog’와 같은 외래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혼성어 관련 연구는 혼성어의 범주를 확정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왔고 혼성어 생성 기제, 특히 혼성어 형성 시 음절의 선취 기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성어는 결합하는 음절에 따라 그 형태가 AC형, AD형, BC형, BD형 등 다양하지만<sup>4)</sup> 실제 사용되고 있는

1) ‘45세 정년’

2)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

3) ‘20대 태반이 백수’

4) 본 논문에서는 혼성어가 X(AB)와 Y(CD)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때, X의 앞 음절인 A와 Y의 앞

혼성어는 AC형과 AD형이 다수이다.<sup>5)</sup> AC형과 AD형이라는 혼성어의 형태를 결정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혼성어의 범주와 혼성어 생성 기제에 대한 이전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혼성어 생성 기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제시한 후, 4장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2. 이전 연구

### 2.1. 혼성어의 범주에 대한 이전 연구

혼성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혼성어의 범주를 확정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일에 집중되어 왔다.

노명희(2010)은 ‘혼성어’와 ‘절단된 합성어’, ‘두음절어’를 구별했다. 절단된 합성어는 이미 존재하는 합성어가 있으며 지시대상이 같고 두음절어는 원래의 단어나 구가 갖는 의미와 줄어든 의미가 같으며, 혼성어는 의미를 합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지시대상을 가지고 여기 단어들이 갖는 지시대상과 관련된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혼성어를 유사한 의미장에 속하는 두 단어 사이의 결합인 계열적 혼성어와 두 단어가 같이 출현하여 구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적 혼성어로 구별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과 달리 “통합적 혼성어는 의미상으로는 두음절어에 의한 약어와 유사하며 단지 절단되는 요소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노명희 2010:269)며, 혼성어와 두음절어의 구별을 결합구조로 판단한다. 즉, AC형으로 결합하면 두음절어, AD형으로 결합하면 혼성어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할빠’(AD형)<sup>6)</sup>는 혼성어, ‘아점’(AC형)<sup>7)</sup>은 두음절어가 된다. 하지만 이 둘은 모두 제3의 지시대상을 가진다. 또, ‘엄빠’<sup>8)</sup>는 제3의 지시대상을 가지지 않지만 AD형이기 때문에 혼성어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결합구조만으로 두음절어와 혼성어로 구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의미 구조가 같은 ‘마상’<sup>9)</sup>(AC형), ‘덕력’<sup>10)</sup>(AD형)과 같은 예도 있다.

이호승(2011)은 “원형식과 축소어형의 의미적 동일성 여부가 혼성어의 식별기준이 될 수 없다”, “결합하는 구성 성분의 위치로는 혼성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호승(2014)에서 “원형식의 상정이 가정하고, 축소형이 형태론적 삭감 절차를 거쳐 형성되고, 원형식과 축소형의 의미가 동일한 경우” 두음절어와 절단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약어’로 보고 ‘혼성어’와 구별했다. 이선영(2016-1:272-273)에서도 “각 유형이 결합하는 성분의 위치는 차이가 있으나 형성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결합 성분의 위치만으로 두음절어와 혼성어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말이 존재하고 원 상태로의 복귀가 가능하며 의미가 투명한 것은 ‘약칭어’, 원말이 존재하지 않고 원 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며 의미가 불투명한 것은 ‘혼성어’로 보았다. 이찬영(2016)도 “두음절어는 혼성어와는 달리 예외 없이 축소 이전의 형식이 합성어 또는 구로 존재

---

음절인 C가 결합하는 것을 AC형, X의 앞 음절인 A와 Y의 뒤 음절인 D가 결합하는 것을 AD형으로 표시한다. 이때 A와 B, C, D 등은 1음절뿐만 아니라 2~3음절도 될 수 있다.

5) 김병건(2017-1)에 따르면 수집된 411개 혼성어 중 AC형은 182개, AD형은 49개로 나타났다.

6) 할아버지+아빠. ‘아빠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

7) 아침+점심. ‘아침 겸 점심’

8) 엄마+아빠. ‘엄마와 아빠’

9) 마음+상처. ‘마음의 상처’

10) 덕후+공력. ‘덕후의 공력’

하므로 이들을 ‘절단 후 결합’의 순서가 아니라 ‘결합 후 선택’의 순서를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원말의 존재 유무와 의미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며 힘들고, 이 기준으로 분별할 수 없는 예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일코’<sup>11)</sup>, ‘모배’<sup>12)</sup>, ‘최애’<sup>13)</sup>, ‘관태기’, ‘더부심’ 등이 그러하다. 특히 ‘관태기’는 ‘관계에 대한 권태기’, ‘더부심’은 ‘더위에 대한 자부심’ 정도로 복원 가능하지만 의미가 투명하지 않다(관련 단어들의 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김병건(2017ㄱ, 2017ㄴ)에서와 같이 ‘절단과 합성의 동시 적용’이라는 조어 방법만을 기준으로 혼성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혼성어는 합성·파생·절단이라는 조어 방법이 적용된 합성어·파생어·절단어와는 달리 조어 방법으로 절단과 합성이 동시에 적용되어 만들어진 말들을 가리킨다. 혼성어는 합성어 ‘밤낮’(밤과 낮)처럼 그 밑말(source words)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기도 하지만, 합성어 ‘밤낮’(늘, 항상)처럼 제3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 2.2. 혼성어의 생성 기제에 대한 이전 연구

혼성어의 생성 기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다.

먼저, 채현식(2003)에서는 혼성어는 대치(代置) 조작에 의한 유추에 의해 생성된다고 했다. ‘알레르기-텔레르기’, ‘가계부-차계부’, ‘삼겹살-오겹살’ 등에서와 같이 음성적 유사성이나 의미의 유사성에 기대어 혼성어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용찬(2008), 노명희(2010), 이선영(2016ㄴ)에서 지적했듯 유추로 모든 혼성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노명희(2010), 이찬영(2016)에서는 욕조효과(bathtub effect)·실마리효과(cue effect) 등 인지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사람들은 단어의 중간 부분보다는 첫 음절이나 끝 음절을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에 기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혼성어 중 일부인 AD형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을 제공해 준다.

혼성어의 생성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표 음절의 선취(選取)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은섭(2007), 손세모돌(2015), 김병건(2017ㄴ) 등에서는 특정 음절의 선취는 ‘의미 유지와 표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손세모돌(2015)<sup>14)</sup>는 혼성어를 구성하는 음절의 선택에는 주요 의미 유지와 원래 언어형식의 회복 가능성이 작용한다고 했다. 2~4음절 내에서 원래 언어형식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혼성어로 만들어질 때, ‘\*미성’, ‘\*미년’, ‘\*성년’, ‘\*성자’ 등보다 ‘미자’가 원뜻을 가장 가깝게 전달하기 때문에 ‘미’와 ‘자’가 선택된 것이다.<sup>15)</sup> 김병건(2017ㄴ)에서는 혼성어를 ‘등위적 혼성어<sup>16)</sup>, 통합적 혼성어<sup>17)</sup>, 한정적 혼성어<sup>18)</sup>’로 나누고, 혼성어의 밑말인 X와 Y의 의미적 관계가 대표 음

11) 일반인+코스프레+コスプレ

12) 모바일mobile+배려

13) 최고+애정(하다)

14) 손세모돌(2015)에서는 혼성어 형성과 형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출 빈도와 인지도’, ‘음절 수’, ‘주요 의미의 유지와 원래 언어형식의 회복 가능성’, ‘기존 단어와의 동음 관계 회피 및 활용’을 들었다. 이 중 ‘음절 수’는 경제성 동기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15) 이은섭(2007)에서는 이를 ‘의미의 쏠림’ 현상으로 설명했다.

16) 등위적 혼성어는 혼성어를 형성하는 단어 X와 단어 Y를 아울러 이르며, 등위적 혼성어 중 몇몇은 제3의 지시물을 가지기도 한다. 예, 엄빠(엄마+아빠, 엄마와 아빠), ‘제3의 지시’: 라볶이(라면+떡볶이, 라면과 떡볶이가 합쳐진 새로운 음식)

17) 통합적 혼성어는 혼성어를 형성하는 단어 X가 단어 Y의 문장 성분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예, 취저(취향+저격,

절의 선취(選取)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보았다. 그는 혼성어 중 어떤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거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 또는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Y(CD) 중 D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대프리카’<sup>19)</sup>가 전자의 예이고, ‘칼제비’<sup>20)</sup>가 후자의 예이다.

박용찬(2008)은 ‘혼성어 형성에 수반되는 절단은 지극히 불규칙적이어서 그것을 규칙화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찬영(2016)은 ‘혼성어가 형성되기 위해서 발생하는 절단 여부 및 절단 위치, 그리고 결합되는 요소 등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은섭(2007:109)에서처럼 혼성어 생성 기제를 ‘언어 사용의 경제성이라는 언어 외적인 측면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현상들이 아주 무원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진다.

### 3. 혼성어 생성 기제

#### 3.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혼성어의 생성 기제, 특히 음절의 선취를 확인하고자 경험적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 기제에 대한 가설을 세운 후 이를 확인하는 설문 과제를 설계하였다.

혼성어는 ‘설거지옥’<sup>21)</sup>과 같이 동일 음절을 중심으로 결합되기도 하며, ‘-피아’(관피아 등), ‘-파라치’(쓰파라치 등), ‘-알못’(겜알못 등), ‘-무룩’(냥무룩 등), ‘-느님’(치느님 등) 등과 같은 혼성어 조각들은 접사처럼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도 한다.<sup>22)</sup> 본 논문에서는 이들은 뒤로 미루고 혼성어를 생성할 때 대표 음절 선취와 관련하여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설문은 만 19~24세 남녀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설문 과제로 “제시된 <뜻>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2)와 같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사-명사’ 연쇄의 혼성어 만들기를 요구받았다.

---

취향을 저격하다)

18) 한정적 혼성어는 혼성어를 형성하는 단어 X나 단어 Y가 의미적 핵이 되어 수식을 받는 구조를 가진다. 예, ‘X인 Y’; 마상(마음+상처, 마음의 상처), ‘Y인 X’; 기레기(기자+쓰레기, 쓰레기 같은 기자)

19) 대구+아프리카. 아프리카 같은 대구

20) 칼국수+수제비. 칼국수와 수제비가 합쳐진 새로운 음식

21) 설거지+지옥

22) 혼성어 조각의 ‘접사화’는 노명희(2010), 박동근(2012), 이선영(2016), 이찬영(2016) 등에서 다루어졌다. 박동근(2012:37~38)은 ‘아이돌(idol) [우상] ⇒ 아이돌 [십대 가수] ⇒ 아이 [幼] + ~돌’의 역형성(backformation)의 과정을 거쳐 파생접사로 굳어졌다고 보았고, 이찬영(2016)은 ‘일부 혼성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형 빈도를 확보한 후에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는 계열체를 형성한다. 이들 요소는 의미의 특수화와 단어형성적 독자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했다. ‘접사화’는 오분석·역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손세모돌(2015)의 ‘노출 빈도와 인지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형성된 혼성어가 높은 활용도를 보이면서 의미의 특수화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 (2)
- |                                  |   |  |
|----------------------------------|---|--|
| 1. 샴푸 + 비누<br><뜻 : 샴푸와 비누>       | 2. 사랑 + 상처<br><뜻 : 사랑의 상처>                | 3. 떡볶이 + 돈가스<br><뜻 : 떡볶이와 돈가스를<br>합친 새로운 음식> |
| 4. 핸드폰 + 카메라<br><뜻 : 카메라 같은 핸드폰> | 5. 공동 + 책임<br><뜻 : 공동의 책임>                | 6. 친구 + 비타민<br><뜻 : 비타민 같은 친구>               |
| 7. 연필 + 볼펜<br><뜻 : 연필과 볼펜>       | 8. 카메라 + 핸드폰<br><뜻 : 카메라 같은 핸드폰>          | 9. 건강 + 회복<br><뜻 : 건강을 회복하다>                 |
| 10. 학생 + 교수<br><뜻 : 교수 같은 학생>    | 11. 샴푸 + 린스<br><뜻 : 샴푸와 린스를<br>합친 새로운 제품> | 12. 학교 + 감옥<br><뜻 : 감옥 같은 학교>                |
| 13. 학생 + 교수<br><뜻 : 학생과 교수>      | 14. 세금 + 감면<br><뜻 : 세금을 감면하다>             | 15. 친구 + 배신<br><뜻 : 친구가 배신하다>                |

제시된 뜻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를 질문한 이유는 혼성어 형성에서 밑말이 되는 단어 X와 단어 Y의 의미적 관계가 혼성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은 (3)과 같다.

- (3) 가설1. ‘등위적 혼성어’(예, 검경[검찰+경찰, 검찰과 경찰]), ‘통합적 혼성어’(예, 취저[취향+저격, 취향을 저격하다])와 ‘한정적 혼성어 중 X인 Y’(예, 마상[마음+상처, 마음의 상처])와 같이 기존의 개념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밑말(source words)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혼성어는 AC형이 된다.
- 가설2. ‘한정적 혼성어 중 Y인 X’(예, 기레기[기자+쓰레기, 쓰레기 같은 기자], 할빠[할아버지+아빠, 아빠 같은 할아버지])와 등위적 혼성어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등 ‘제3의 지시물’을 가지게 되었을 때(예, 라볶이[라면+떡볶이], 레캉스[레포츠+바캉스])와 같이 기존의 개념 구조에서 벗어나는 밑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혼성어는 AD형이 된다.

가설1은 (2) 중 등위적 혼성어인 ‘샴푸+비누 <뜻 : 샴푸와 비누>’, ‘연필+볼펜 <뜻 : 연필과 볼펜>’, ‘학생+교수 <뜻 : 학생과 교수>’, 통합적 혼성어인 ‘건강+회복 <뜻 : 건강을 회복하다>’, ‘세금+감면 <뜻 : 세금을 감면하다>’, ‘친구+배신 <뜻 : 친구가 배신하다>’와 한정적 혼성어(X인 Y)인 ‘사랑+상처 <뜻 : 사랑의 상처>’, ‘공동+책임 <뜻 : 공동의 책임>’, ‘카메라+핸드폰 <뜻 : 카메라 같은 핸드폰>’ 등이 AC형인 ‘삼비, 연불, 학교, 건회, 세감, 친배, 사상, 공책, 카핸’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 가설2는 (2) 중 한정적 혼성어(Y인 X)인 ‘핸드폰+카메라 <뜻 : 카메라 같은 핸드폰>’, ‘친구+비타민 <뜻 : 비타민 같은 친구>’, ‘학생+교수 <뜻 : 교수 같은 학생>’, ‘학교+감옥 <뜻 : 감옥 같은 학교>’와 새로운 제품명인 ‘떡볶이+돈가스 <뜻 : 떡볶이와 돈가스를 합친 새로운 음식>’, ‘샴푸+린스 <뜻 : 샴푸와 린스를 합친 새로운 제품>’ 등이 AD형인 ‘핸메라, 친타민, 학수, 학옥, 떡가스, 샴스’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등위적 혼성어인 ‘학생+교수(학생과 교수)’와 한정적 혼성어(Y인 X)인 ‘학생+교수(교수 같은 학생)’, 한정적 혼성어(X인 Y)인 ‘카메라+핸드폰(카메라 같은 핸드폰)’와 한정적 혼성어(Y인 X)인 ‘핸드폰+카메라(카메라 같은 핸드폰)’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음절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교 항목이다.

그리고 설문 과제는 아래와 같이 AC형과 AD형뿐만 아니라 BC형과 BD형도 제시하여, 제시된 가설 외에 다른 관여 요인은 없는지 살폈다.

1. 샴푸 + 비누 <뜻 : 샴푸와 비누>

샴비       샴누       푸비       푸누  
 기타 \_\_\_\_\_

<그림 1> 설문 조사의 예

### 3.2. 조사 결과

한정적 혼성어(X인 Y)와 통합적 혼성어는 <표1>과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AC형 혼성어로 만들어진다. 이는 가설에서 상정한 바와 같다.

<표 1> 한정적 혼성어(X인 Y)

	ac형	ad형	bc형	bd형
사랑 + 상처 (사랑의 상처)	사상 76	사처 50	랑상 6	랑처 65
공동 + 책임 (공동의 책임)	공책 90	공임 76	동책 22	동임 8

<표 2> 통합적 혼성어

	ac형	ad형	bc형	bd형
건강 + 회복 (건강을 회복하다)	건회 100	건복 77	강회 6	강복 11
세금 + 감면 (세금을 감면하다)	세감 122	세면 48	금감 5	금면 17
친구 + 배신 (친구를 배신하다)	친배 160	친신 12	구배 6	구신 8

한정적 혼성어(Y인 X)도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예측과 같이 AD형 혼성어로 만들어진다.

<표 3> 한정적 혼성어(Y인 X)

	ac형	ad형	bc형	bd형
학생 + 교수 (교수 같은 학생)	학교 26	학수 101	생교 38	생수 15
친구 + 비타민 (비타민 같은 친구)	친비 26	친타민 145	구비 1	구타민 11
학교 + 감옥 (감옥 같은 학교)	학감 44	학옥 103	교감 10	교옥 36

이러한 조사 결과는 <표1> 한정적 혼성어(X인 Y)와 <표3> 한정적 혼성어(Y인 X)를 비교한 <표4>에서도 잘 나타난다. 같은 의미를 표현하지만 의미의 핵을 앞에 두는지(Y인 X 한정적 혼성어), 뒤에 두는지(X인 Y 한정적 혼성어)에 따라 혼성어를 만드는 데 차이가 나는 것이다.

<표 4> 한정적 혼성어(X인 Y)와 한정적 혼성어(Y인 X) 비교

	ac형	ad형	bc형	bd형
카메라 + 핸드폰 (카메라 같은 핸드폰)	카핸 17	카폰 99	메라핸 2	메라폰 63
핸드폰 + 카메라 (카메라 같은 핸드폰)	핸카 19	핸메라 5	폰카 154	폰메라 23

사실 ‘카메라+핸드폰’은 한정적 혼성어(X인 Y)로 ‘카핸’이, ‘핸드폰+카메라’는 한정적 혼성어(Y인 X)로 ‘핸메라’가 기대되었지만, ‘카폰’과 ‘폰카’가 선택된 것은 이미 쓰이고 있는 비슷한 외연을 가진 익숙한 형태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즉 ‘핸드폰’의 의미 중심이 ‘핸드’가 아닌 ‘폰’에 있어서 ‘폰’이 우선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카메라+핸드폰’과 ‘핸드폰+카메라’의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혼성어이지만 그 의미적 관계에 따라 즉, X인 Y냐, Y인 X냐에 따라 다른 형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등위적 혼성어 역시 <표5> ‘샴푸+린스’를 보면 가설과 같이 AC형 혼성어로 만들어지는 듯하다. 하지만 ‘연필+볼펜’과 ‘학생+교수’는 기대와는 달리 ad형인 ‘연펜’과 ‘학수’가 우세하다. ‘연필+볼펜 → 연펜’은 ‘볼펜’의 의미 중심이 <표4>의 ‘핸드폰’에서와 같이 ‘볼’이 아닌 ‘펜’에 있기 때문이다.

<표 5> 등위적 혼성어(X와 Y)

	ac형	ad형	bc형	bd형
샴푸 + 비누 (샴푸와 비누)	샴비 147	샴누 36	푸비 10	푸누 7
연필 + 볼펜 (연필과 볼펜)	연볼 42	연펜 96	필볼 2	필펜 60
학생 + 교수 (학생과 교수)	학교 56	학수 90	생교 33	생수 12

<표5> 등위적 혼성어(X와 Y) ‘학생+교수→학수’는, <표6>에서 보듯, 한정적 혼성어(Y인 X) ‘학생+교수→학수’와 형태상 차이가 없다. 이는 (3) 가설 외에 다른 기제가 작용한 때문이다.

<표 6> 등위적 혼성어(X와 Y)와 한정적 혼성어(Y인 X) 비교

	ac형	ad형	bc형	bd형
학생+교수 (학생과 교수)	학교 56	학수 90	생교 33	생수 12
학생+교수 (교수 같은 학생)	학교 26	학수 101	생교 38	생수 15

‘학생+교수’는 ‘교수’의 ‘교’를 선택했을 때 기존의 단어와 동음어가 되기 때문에 ‘수’가 선택된 것(그래서, ‘학교’가 아닌 ‘학수’)으로 보인다. <표1>의 한정적 혼성어(X인 Y)인 ‘공동+책임’의 ‘공책’도 역시 기존 단어와 동음어가 되지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미와 ‘공책(空冊)’의 의미는 동일 의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반면, ‘학생과 교수’의 의미와 ‘학교’는 동일 의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저지 현상(blocking)이다. 손세모들(2015)은 ‘일반적으로 혼성어는 의미의 명료성을 위해 기존 단어와 동음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하지만 혼성어 형성 시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고 동일한 의미 범주 내에서만 그러하다.

밑말과 동일 의미 범주의 동음어 생성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4)의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각각 10여 명에게 했다.

(4) 다음의 말을 두 글자로 줄인다면 ①과 ② 중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ㄱ. 영상(映像)+화질(畫質) [영상의 화질] → ①영화 / ②영질
- ㄴ. 영상(映像)+수준(水準) [영상의 수준] → ①영수 / ②영준
- ㄷ. 건설용 물품(建設用 物品) → ①건물 / ②건품
- ㄹ. 영업용 화물(營業用 貨物) → ①영화 / ②영물

(4ㄱ)과 (4ㄷ)은, <표1>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영화’와 ‘건물’로 혼성어가 만들어질 것이지만, ‘영화’와 ‘건물’은 밑말과 동일한 의미 범주에 있는 어휘와 동음어이기 때문에 회피할 것이라 기대된다. 반면 (4ㄴ)과 (4ㄹ)의 ‘영수’와 ‘영화’는 기존의 단어와 동음어가 되지만 동일한 의미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와 ‘영화’도 선택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표7>과 같다.

<표 7> 동일 의미 범주 동음어 회피 조사 결과

ㄱ. 영상(映像)+화질(畫質) (영상의 화질)	①영화 5	②영질 10
ㄴ. 영상(映像)+수준(水準) (영상의 수준)	①영수 8	②영준 4
ㄷ. 건설용 물품(建設用 物品)	①건물 0	②건품 11
ㄹ. 영업용 화물(營業用 貨物)	①영화 8	②영물 8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혼성어 생성 시 동일 의미 범주의 동음어는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오정’, ‘오륙도’, ‘이태백’ 등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와 형태를 맞추는 경우는 인지

도, 친밀감, 재미 등과 같은 다른 언어적 동기에서 비롯된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다.<sup>23)</sup>

마지막으로 등위적 혼성어 중 제3의 지시물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떡볶이+돈가스’와 ‘샴푸+린스’는 ‘떡가스’, ‘샴스’가 기대되나 <표8>에서처럼 ‘떡돈’, ‘삼린’의 결과를 보여준다. ‘떡돈/떡가스’, ‘삼린/샴스’의 개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과 제3의 지시물을 가지는 등위적 혼성어에서는 ‘아점’<sup>24)</sup>, ‘베이글’<sup>25)</sup>과 같은 AC형, ‘치킹스’<sup>26)</sup>, ‘칼제비’<sup>27)</sup>와 같은 AD형이 두루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제3의 지시물을 가지는 등위적 혼성어는 AC형이 될지 AD형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표 8> 등위적 혼성어(제3의 지시물)

	ac형	ad형	bc형	bd형
떡볶이 + 돈가스 (떡볶이와 돈가스를 합친 새로운 음식)	떡돈 104	떡가스 85	볶이돈 2	볶이가스 2
샴푸 + 린스 (샴푸와 린스를 합친 새로운 제품)	삼린 71	샴스 67	푸린 55	푸스 5

#### 4.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혼성어 형성 시 특정 음절의 선취에 대한 규칙을 경험적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한 실험적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3장의 조사 결과는 “혼성어 형성 시 ‘밑말의 의미 구조가 대표 음절의 선취(選取)에 영향을 준다’는 경험적 관찰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샴푸+비누→샴비’, ‘건강+회복→건회’, ‘사랑+상처→사상’의 조사 결과로 보면, 밑말의 의미 구조가 기존의 개념 구조와 일치하는 ‘등위적 혼성어’, ‘통합적 혼성어’, ‘한정적 혼성어(X인 Y)’는 AC형으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친구+비타민→친타민’의 조사 결과로 보면, 밑말의 의미 구조가 기존의 개념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한정적 혼성어(Y인 X)’는 AD형으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등위적 혼성어(제3의 지시물)’은 AC형이 될지 AD형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이외에 혼성어 생성의 추가적 조건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추가적 조건은 중심적 의

23) ‘사오정’, ‘오륙도’와 같은 혼성어는, 손세모돌(2015:130)의 지적처럼, 세태를 반영하거나 풍자하는 의도를 가진다.

세태 반영·풍자와는 다른 언어적 의도로 동음어를 생성하는 예도 있다. 한 피자 회사 광고에서 ‘완전한 한 판(피자)’를 줄여 ‘완판(피자)’로 광고하고 있다. 여기서 ‘완판’은 ‘해산물과 스테이크를 완벽하게 한 판으로 즐길 수 있는 피자’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완판’은 ‘완판’(완전+판매, 모두 판매하다/되다)이라는 기존의 혼성어를 연상시켜 ‘굉장히 잘 팔려서) 완판 되는 피자’라는 개념도 또한 전달한다. 기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어로 보인다.

24) 아침+점심.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식사’

25) 베이비 페이스baby face+글래머glamour. ‘아이 같은 얼굴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사람’

26) 치마+레깅스. ‘치마와 레깅스를 합친 새로운 의류’

27) 칼국수+수제비. ‘칼국수와 수제비가 합쳐진 새로운 음식’

미를 가지는 음절이 있을 때에는 첫째~셋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음절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는 '연필+볼펜→연펜'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추가적 조건은 첫째~셋째 조건에 따라 혼성어를 생성했을 때 동일 의미 범주의 동음어가 있다면 그 생성이 저지된다는 것이다. '학생+교수→학수'와 추가적 설문 조사의 결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생략\*\***

## ■ 참고 문헌

- 김병건(2017ㄱ), 「신조어의 조어법 연구」, 『한말연구』 44, 한말연구학회, 57-81쪽.
- 김병건(2017ㄴ), 「한국어 혼성어에 대한 재고 -신조어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9, 165-188쪽.
- 노명희(2010), 「혼성어(混成語)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55-281쪽.
- 박동근(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의 새로운 모색』, 소통.
- 박동근(2012), 「[X-남], [X-녀]류 통신언어의 어휘 형성과 사회적 가치 해석」, 『사회언어학』 20(1), 한국사회언어학회, 27~56쪽.
- 박용찬(2008),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 -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형태론』 10권 1호, 111-128쪽.
- 손세모돌(2015), 「줄인말의 형성과 형태 결정의 영향 요인」, 『한말연구』 38, 한말연구학회, 105-135쪽.
- 이선영(2016ㄱ),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69-291쪽.
- 이선영(2016ㄴ), 「混成語의 位相에 대한 一考察」, 『어문연구』 4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7-66쪽.
- 이은섭(2007),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93-113쪽.
- 이찬영(2016), 「혼성어 형성에 대한 인지적 고찰」, 『형태론』 18(1), 1-27쪽.
- 이호승(2011), 「절단어와 혼성에 관련된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79-103쪽.
- 이호승(2014), 「국어 혼성어와 약어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39, 개신어문학회, 49-73쪽.
- 임지룡(1996), 「혼성어의 인지적 의미분석」, 『언어과학연구』 13, 언어과학회, 191-214쪽.
- 채현식(2003), 「대치에 의한 단어형성」, 『형태론』 5(1), 1-21쪽.

## ▣ 토 론

### “혼성어 생성 기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한샘(연세대)

이 논문은 혼성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혼성어의 형태를 결정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혼성어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민의 깊이가 드러나며 그 결과가 연구 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해 준 연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몇 가지 함께 이야기할 거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1. 혼성어 유행의 원인

혼성어 유행의 원인에 대해 재미와 언어 경제성 등 언어 외적 요인과 ‘smog’와 같은 외래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최근의 혼성어 유행을 외래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혼성의 결과로 생겨난 ‘스모그(smog)’와 같은 외래어를 받아들인 지는 오래되었으나 ‘기레기’, ‘고통철(苦痛鐵)’ 등 혼성의 밑말이 되는 어휘 어종의 제약이 없고 영어 등에서 음소 단위로 혼성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한국어의 혼성은 대부분 음절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혼성이라는 조어 방식 자체가 활성화된 것을 외래어의 영향이라 보기는 힘들다. 혼성어가 형성되는 원인과 최근 급격히 유행하게 된 원인을 변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어 중 혼성어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기존의 조어 방식에 의한 합성어와 파생어를 앞서게 된 것은 ‘재미와 언어 경제성’으로 언급한 요인이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웹과 모바일 등의 매체에 의한 실시간 문자언어 소통으로 인한 언어 형식 축소의 보편화는 전세계적인 경향이지만 학생 집단, 직장인 집단 등의 은어 생성 활성화는 다분히 한국적인 상황이며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 2. 혼성어의 개념 및 범위와 의미의 불투명성

기존의 혼성어에 대한 연구들이 혼성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3의 지시대상이나 의미의 불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동의한다. 혼성을 절단과 합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조어 방식이라 할 때 합성의 유형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성에 의미의 차원을 개입시키는 것은 구와 변별되는 합성어의 조건으로 의미의 비합성성을 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의미가 유지되면 구로, 제3의 의미를 나타내면 합성어로 본다는 것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 합성어 중 대부분이 고빈도로 연결하여 공기하는 실질 형태소들이 단어로 굳어진 것이며 의미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혼성어 역시 절단된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의미 변화를 수반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혼성어를 정의

할 때 절단과 합성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형식적인 차원의 조어 방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최근 논의인 이찬영(2016)에서 혼성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음절어와 형성 메커니즘을 변별한 것은 형식과 과정을 모두 고려한 시도이므로 고려할 만하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혼성어의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서는 의미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고 힘들다고 비판하고, 혼성어 생성 기제를 논하는 부분에서는 밑말의 의미적 관계가 혼성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등위적 혼성어는 AC형, 등위적 혼성어 중 제3의 지시물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AD형으로 구성 요소를 선취한다는 것인데 혼성어 경계를 가르는 데에도 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한 의미적 관계가 혼성어 구성 요소 선취의 위치에 따른 세부 유형을 가르는 데에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 원말의 존재 유무와 의미의 투명성에 대한 판단이 힘든 예로 든 ‘일코, 모배, 최애, 관태기, 더부심’의 구성 요소 선취 형태가 일치하지 않으며, 융합적인 혼성어의 예로 든 ‘라볶이’와 ‘레캅스’의 의미적 구조를 동일한 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더불어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논문과 반대되는 입장, 즉 혼성어 형성의 규칙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의 예로 든 박용찬(2008)이나 이찬영(2016)의 혼성어와 이 논문의 혼성어의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 혼성어의 범위에 포함시킨 불백, 사오정, 토토즐과 같은 단어는 박용찬(2008), 이찬영(2016)에서는 혼성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논문의 설문 내용은 박용찬(2008), 이찬영(2016)의 논의를 기준으로 하면 혼성어와 (두)음절어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조어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3. 혼성어 형태 결정 기제 검증을 위한 설문

밑말의 의미적 관계가 혼성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는 접사처럼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형성소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언급한 이은섭(2007)에서 혼성어 형성이 무원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남겨진 형성소가 원 형식의 의미를 표상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인데 절단된 형성소의 생산성과 의미 표상의 강도가 비례하므로 생산성의 정도에 따라 음절의 선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봐도 좋을 것이다. 둘째, 음절 자체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자 형태소와 나머지의 음절 선취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다. 어종에 따른 혼성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 절단과 형태소 탈락, 음절 생략 등으로 광의의 혼성 유형을 분류하거나 (두)음절어와 협의의 혼성어를 변별하려고 한 기존 논의의 검증과도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정적인 혼성어를 X인 Y와 Y인 X로 순서의 개념을 넣어 설문하였는데 이는 실제 언종의 조어 상황과 달라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 부적절한 설정이다. ‘비타민 같은 친구’를 나타내는 한정적 혼성어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제시한 것과 같이 ‘친구’, ‘비타민’의 순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로 제시한 ‘친비, 친타민, 구비, 구타민’이 아니라 ‘비타민’을 절단한 ‘비타’와 ‘실친, 트친’ 등을 형성하는 ‘친’을 합성하여 ‘비타친’이라는 단어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비타민 같은 친구’를 나타내는 단어로 ‘비타친’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내심적 구성을 이루는 종속 합성어가 일반적이라는 점, 혼성어의 음절수가 밑말 중 음절 수가 많은 것의 음절 수를 따르는 경향이 높은 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순서를 바꾸어 적용한다고 해도 ‘비타오백, 비타천’ 등 익숙한 상품명에서 유추하여 ‘친타민’이 아닌 ‘친비타’를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제2부 <특강>



## 기능 중심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새로운 한국어 문법 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

유현경(연세대)

### < 차례 >

1. 서론
2. 형식 문법과 기능 문법, 그리고 말뭉치언어학
3. 기능 중심 통사론 기술의 제문제
4. 새로운 체계 정립의 가능성
5. 결론

### 1. 서론

한국어 통사론 연구는 시작된 지 한 세기를 훌쩍 넘어 양적으로 방대한 업적이 축적되어 있으며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주시경의 문법 연구를 시작으로 최현배(1937)에 이르러 한국어 문법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통일 문법의 틀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21세기 세종 계획이나 대학 연구소에서의 말뭉치 구축 사업을 통해 한국어의 언어 자료가 대규모로 구축되어 이전보다 풍부한 용례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더욱 실증적,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어 통사론은 문법 형태소와 단어, 문장 단위 등 형식 범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실제 의사소통은 언어 형식이 아니라 의미 기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어 통사론 연구의 결과가 한국어의 사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므로 높임법, 피사동법, 부정법, 격, 시제 등 한국어 문법의 근간을 이루는 문법범주들은 ‘기능’의 측면에서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기능 중심의 문법 체계의 재구조화는 문법 기술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이는 형태 단위에서 출발하는 해석론적(semasiological) 접근 방식을 보완하는 기능 중심 접근의 표현론적(onomasiological) 접근으로의 전환, 언어능력 또는 랑그 중심의 언어학과 언어수행 및 파롤 언어학의 균형 있는 기술, 말뭉치언어학, 언어유형론적 분석 등 그간 축적된 한국어 문법 연구 성과의 종합적 해석 등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 문법 연구사에서 기능주의를 표방한 한국어 문법 연구들(서정수 1996, 김제열 2001, 서정수 2002, 한송화 2006 등)이 다수 존재했었으나 이러한 시도들이 규범문법이나 학교

문법 등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이는 기존의 형식 문법에서의 범주 중심의 연구 결과를 수렴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문법 기술의 패러다임을 형태와 범주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한국어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 중심 통사론 기술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형태나 범주가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통사론을 기술할 때 연구 대상, 연구 방법론, 범주 간의 교차 문제 등에서 기존의 통사론 연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기능 중심 통사론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 2. 형식 문법과 기능 문법, 그리고 말뭉치언어학

언어 연구는 경험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철학과 관련한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학문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20세기 전반기까지 주로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언어를 외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기술하는 이론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세기 후반 생성 문법의 출현으로 언어를 내적인 관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Chomsky의 생성 문법<sup>1)</sup>은 20세기 전반기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대체하였고 Chomsky의 형식주의 문법 연구가 20세기 후반기의 언어학을 지배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Chomsky의 언어학 이론은 인간의 언어 수행(performance)이 아니라 언어 능력(competence)을 규명하는 것을 언어학의 목표로 삼았고 생성 문법은 보편 문법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언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Chomsky의 형식주의 언어 이론은 1990년대 말뭉치가 주요 연구 자료로 사용되면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Chomsky는 인간의 언어활동을 언어 수행과 언어 능력으로 나누었지만 언어 능력을 언어 수행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일찍이 Saussure가 랑그와 파롤을 구분하고 언어학 연구에서 파롤보다 랑그의 규명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언어 자료에 기반한 말뭉치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이 언어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서 21세기의 언어학은 자료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말뭉치언어학은 ‘랑그’에서 ‘파롤’로 언어학 연구의 중심을 바꿔 놓았다.

말뭉치라는 거대한 언어 자료는 언어학을 인접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이전의 언어학도 인접 학문과 유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Chomsky의 언어학은 심리학이나 철학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다. 말뭉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언어 자원이다. 지금까지의 문법 연구는 언어를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분절해 나가면서 언어 단위들 간의 규칙을 찾는 데에 많은 힘을 쏟았지만 앞으로는 분절이 아니라 말뭉치 즉 언어 자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남길임(2014)에서는 말뭉치 언어학이 연구 자료나 방법론 차원을 넘어서 언어학 ‘이론’으로서 정립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연구에서 말뭉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론으로서의 말뭉치언어학’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며 대부분의 연구가 방법론으로서의 말뭉치언어학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말뭉치 기반 연구(corpus based approach)와 말뭉치 주도 연구(corpus driven approach)의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이전의 연구가 말뭉치 기반

1) Chomsky의 언어 이론은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소주의까지 이르게 된다. 이 글에서는 Chomsky의 이론적인 변화를 살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Chomsky의 언어 이론을 ‘생성 문법’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에서 출발하였다면 앞으로는 말뭉치 주도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개진하였다.

Sinclair(2004), Teubert(2005), Gries(2010), Barlow(2011) 등에서는 형식 문법과 말뭉치언어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서 구조주의, 형식 문법을 보완하는 실제 자료 연구의 가치를 강조해 왔다.

<표 1> 문법 연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문법 연구의 관점	형식문법	말뭉치언어학
연구 대상	개인의 언어	공동체의 언어
연구 방법	직관	말뭉치
판단 기준	정문과 비문	자연스러움의 정도성
주요 원리	논리(logic)로서의 언어	소통(communication)으로서의 언어
지향 방향	형태, 구조	기능, 맥락 중심
결과물 형태	소수의 정교한 규칙	경향성을 가지는 고빈도의 패턴

말뭉치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은 형식문법을 보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능문법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문법의 ‘형태와 구조’를 지향하는 연구의 방향성은 말뭉치언어학의 전개에 따라 ‘기능과 맥락’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 3. 기능 중심 통사론 기술의 제문제

#### 3.1. 연구 방법론 및 자료의 문제

##### 3.1.1. 범주 중심 통사론과 형태 중심 통사론의 방법론

범주 중심 통사론은 현재 통사론 연구의 주류를 이룬다. 현재 대부분의 문법서들의 체계는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 형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범주라는 체계로 수렴된다. 범주 중심 통사론은 매우 체계적인 반면 한국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체계를 얻는 대신 설명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주 중심 통사론에 한계를 지적하고 형태를 중심으로 통사론을 기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결과물이 국립국어원(2005년)이다. 이밖에도 백봉자(1999), 이희자·이종희(2001), 이희자·이종희(2008), 강현화 외(2016) 등 문법 형태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결과물이 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조사, 어미, 우연적 구성 등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문법 형태들을 사전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체계를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국어가 교착어라는 것을 근거로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가 주로 하나의 문법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형태 중심 통사론의 연구 방법론에서는 문법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 기존의 범주 중심의 통사론에서 놓치고 있었던 문법 형태 간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유현경(2017가)에서는 문법 형태의 기능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하나 이상의 문법 기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혀

났다. 문법 형태가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질 때 그 기능과 연관된 문법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해 낼 수 있다. 문법 형태가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지면 기능에 따라 형태를 동형어로 분리하여 볼 수도 있지만 실제 말뭉치 용례에 나타난 문법 형태의 용법을 분석해 보면 동형어로 분리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조사 ‘가’나 ‘를’의 경우 격조사와 보조사의 용법으로 나누어 각각을 별개의 형태소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격조사나 보조사의 용법 모두가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조사의 용법조차 격 기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가’와 ‘를’이 가지는 다면적인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미의 경우 어말어미가 종결과 연결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때 기본적인 기능은 종결보다는 연결인 것으로 보인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전이되어 쓰이기는 해도 그 반대의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연결어미는 연결과 종결뿐 아니라 내포의 범주와도 관련이 있는 문법 형태이다. 연결, 즉 접속과 내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한국어 문법 연구의 해묵은 논쟁거리이다. 종속접속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사형 어미를 인정할 것인가, 또는 이 둘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가 등 이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 왔다. 형태를 중심으로 볼 때는 종속접속 혹은 접속 전체를 없애고 연결어미 모두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연결이라는 기능 자체는 내포의 일부로 설명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전성어미 중 부사형 어미 이외에도 명사형 어미도 실제로 종결어미로 사용될 수 있고 최근에는 관형사형 어미도 종결어미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전성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내포와 종결 두 범주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 전성어미가 종결어미로 전용되는 것일까? 보통 이러한 문제는 문법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문법화는 통시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공시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법 형태의 용법을 분석해 보면 범주 간의 겹침 현상도 있지만 통사론과 형태론이라는 영역 간의 겹침도 발견된다. 어미 ‘-게’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중간 범주에 속하는 문법 형태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접사 ‘-이’를 들 수 있다. 어미 ‘-게’는 통사론적 요소이면서도 접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접사 ‘-이’는 형태론적 요소이면서 논항을 취하여 부사절을 만드는 기능을 가진다. 형태론에서 소위 통사적 접사라는 형태.통사적인 범주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통사적 접사는 결국 통사론의 영역이 아니라 형태론의 영역에 속하며 통사적인 문법 범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다. 통사적 접사는 주로 결합하는 단위가 단어 이상이라는 것이 여타의 파생접사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접사 ‘-이’의 경우는 결합하는 단위의 문제를 넘어서 부사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부사형 어미에 넣을 것이냐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와 반대로 어미 ‘-게’는 대표적인 부사형 어미이면서 파생접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미 ‘-게’와 접사 ‘-이’는 굴절과 파생에 모두 걸쳐 있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문법 형태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는 굴절과 파생이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시제를 나타내는 범주는 동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양태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양태 범주를 시간의 문제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형태를 중심으로 보면 더욱 잘 알게 된다. 관형사형 어미는 보통 시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지만 시제 의미가 없는 용법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관형사형 어미는 양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제와 양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대부분 시제는 동작상과 같이 논의되고 양태와 별개로 다루지만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보면 시제와 양태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 관련성을 좀

더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어미는 문장종결법, 높임법, 접속, 내포 등 다양한 문법 범주의 기능을 가지는 반면, 조사는 격이라는 문법 범주를 드러낸다. 한국어에서 어미와 조사 등 문법 형태는 문법 범주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면서 의미역이나 양태의 기능도 함께 지닌다. 교착어라는 특성 때문에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기능과 일대일 대응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지만 조사, 어미는 용법 중심으로 보면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마도 문법 형태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1.2. 기능 중심 통사론의 연구 방법론

기능 중심 통사론은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론에서 이전의 연구와 변별된다. 이전의 한국어 연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sup>2)</sup> 연구자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한국어 자료를 논거로 삼았고, 연구자의 주장에 대한 논거, 즉 예문의 비문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말뭉치들이 무료로 공개되면서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말뭉치에 나타난 한국어의 양상이 분석되고 공개되면서 연구 논문 안에 갇혀 있던 한국어의 실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한국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에 대한 논거로서 작위적인 예문을 무수히 양산해 낸다. 그러나 한국어 말뭉치가 구축되면서 연구자는 주장에 맞는 예문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대신 말뭉치 용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생산해 낸 예문이 말뭉치 용례로 교체되면서 언어 이론과 한국어의 자료 사이에 간극을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설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뭉치 예문을 주된 연구 자료로 삼는 한국어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역적인 방법론보다 귀납적인 연구방법론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귀납과 연역은 상호 보완적인 연구방법론이지만 말뭉치가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면서 귀납적인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고 말뭉치에 나타난 언어의 양상을 귀납적으로 기술하는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말뭉치의 등장은 한국어 연구의 자료와 방법론의 대전환을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말뭉치 용례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한국어 연구에서도 말뭉치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지만 특히 한국어교육과 같은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실제 언어 자료에 근거한 연구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서구 학문은 연구 대상, 개념과 용어를 정의한 다음 외연의 범위를 확정한다. 외연의 범위를 다시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대부분 이분법적(二分法的)인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어떤 대상을 기준에 따라 둘로 나누는 것이 학문의 주된 과정이고 결과이다. 예를 들어 단어형성법에 의한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되어 있느냐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눈 다음, 복합어는 다시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눈다. 말단에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는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세

2) 말뭉치가 본격적으로 한국어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기 전에도 수작업을 통하여 소설이나 드라마의 언어를 연구 자료로 삼는 경우가 있었다.

가지 유형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실재하는 단어 중에 이 세 가지로 보기 어려운 많은 예들이 있다. 전통적인 형태론에서 단어의 종류는 세 가지이지만 경계에 있는 단어들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론 문법에서 분류는 이분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자료에서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들이 무수히 많다. 말뭉치 언어학의 연구 결과는 언어를 이분법이 아니라 정도성을 가진 퍼지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 놓았다. 한국어 자료를 귀납적으로 세밀히 분석한 결과를 다시 연역적으로 정리한 이러한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서구 문법 중심의 이론을 수정하게 되었다.

말뭉치 용례를 분석해 보면 절대적으로 옳은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이분법적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한국어가 사용되는 경향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또한 문법적으로 가능한 문장보다 어떤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장르에서 얼마나 더 자주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빈도라는 계량적인 측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빈도를 통하여 우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빈도와 경향성은 앞으로의 통사론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최근 말뭉치가 장르별로 양적인 균형을 유지하여 구축되면서 이전의 한국어 연구가 한국어를 맥락에서 떼어내 분석했던 것과 달리 맥락 안에서 설명하려는 연구가 많아졌다. 한국어는 영어 등 서구의 언어에 비하여 맥락이 매우 중요한 언어인데, 이전의 연구는 문장 중심의 서구 언어를 자료로 하여 기술된 언어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어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문장 중심의 문법이 한국어 자료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말뭉치 등장 이전의 연구는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예문을 만들어 내야 했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말뭉치 자료가 풍성해지면서 실제 한국어 사용에 근접한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담화 분석 연구나 사용역별 언어 사용 분석 연구, 문법 형태들의 화용론적 기능 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한국어 연구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의 한국어 연구는 사용역별로 구축된 말뭉치의 분석을 통하여 특정한 사용역에서의 언어 사용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질의 구어 자료들이 구축되면서 한국어 연구의 중심이 문어 자료 중심에서 구어 자료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담화적 연구, 화용론적 연구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어교육이나 국어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에 걸친 자료 기반 연구의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귀납적인 연구 결과들은 한국어의 사용을 설명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문법 체계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의 한국어 문법 체계는 아직도 남기심·고영근(1985)에 머물러 있다.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귀납적인 연구 결과만 체계와 괴리된 채로 쌓여가는 실정이다. 최근의 말뭉치 기반 연구의 문제점은 용어나 체계는 기존의 학문의 것을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이론과 자료의 괴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의 말뭉치 기반 연구들은 그런대로 기존의 이론의 체계 안에서 한국어 자료를 설명하였다면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론적인 면이 도외시된 채 자료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3.2. 문법 단위의 문제

형태나 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통사론 기술에서는 조사나 어미 등 문법 형태소를 주요한 문법 단위로 본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법 범주 중에서 시제, 상, 양태, 부정 등은 단일 형태소뿐 아니라 보조 용언 등 우언적 구성(迂言的 構成, periphrastic construction)이 문법 범주를 실현시키는 형태로 기술되어 왔다. 도재학(2014)에 의하면 우언적 구성은 ‘단일 형식 대신 사용되는 보다 긴 다단어 표현’으로 정의되고 그 범위는 통사론-굴절-파생의 영역에 두루 걸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어의 우언적 구성들은 격, 시제, 상, 태, 양태, 부정, 절 접속 기능(연결어미) 등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조사, 어미 등의 단일한 문법 형태소뿐 아니라 같은 기능을 갖는 우언적 구성으로 연구의 대상을 넓히는 연구가 크게 늘어났다.<sup>3)</sup> 그러나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서 우언적 구성을 단일 문법 형태소와 같은 지위를 줄 수 있을까? 단일 형태소에 비하여 우언적 구성은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은 도재학(2014)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문법 범주별 우언적 구성의 목록이다.

(1) 격조사에 대당되는 우언적 구성

ㄱ. 주체격: ‘이/가’로 실현: ‘-로 하여금’

ㄴ. 객체격: ‘을/를’로 실현: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을 놓고’, ‘-을 두고’, ‘-을 둘러싸고’, ‘-로 하여금’, ‘-을 가리켜’

ㄷ. 방편격: ‘로’로 실현

1) 방향격: ‘-을 보고’, ‘-을 향해’

2) 자격격: 우언적 구성 없음

3) 도구격/재료격: ‘-을 가지고’, ‘-을 써서’

4) 수단격: ‘-을 통해’

5) 이유격: ‘-로 말미암아’, ‘-로 말미암은’, ‘-로 하여’

ㄹ. 기준격: ‘와, 만큼, 보다, 처럼’ 등으로 실현

1) 비교격: ‘-에 비해’, ‘-에 비하면’

2) 공동격: ‘-와 같이’, ‘-와 더불어’, ‘-와 함께’

ㅁ. 위치격: ‘에(게)(서)’로 실현

1) 원인격: ‘-로 인하여’, ‘-에 의하여’

2) 원천격: ‘-에서 비롯해’

3) 목표격: ‘-을 위해’

4) 시간격: ‘-을 기해’, ‘-을 맞아’, ‘-에 앞서’, ‘-을 전후해’, ‘-에 즈음하여’

5) 공간격: ‘-에 걸쳐’

---

3)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 등 교육 관련 분야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조사, 어미 등의 단일한 문법 형태소뿐 아니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우언적 구성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우언적 구성이라는 용어보다 ‘표현 문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논자에 따라 ‘우언적 구성’이란 용어 대신에 우설적(迂說的) 구성 또는 우설적 표현, 통사적 표현(syntactic expression), 분석적 형식(analytic form) 등이 쓰이기도 한다.

(2) 미래 시제에 해당되는 우연적 구성: '-르 것이-'

(3) 상에 해당되는 우연적 구성 I

- ㄱ. 결과상(resultative): '-어 있-', '-고 있-'①, '-고 계시-'①
- ㄴ. 종결상(completive): '-고 나-', '-고 말-', '-어 내-', '-어 놓-', '-어 두-', '-어 버리-', '-어 치우-'
- ㄷ. 반복상(iterative): '-어 대-', '-어 쌓-'
- ㄹ. 진행상(progressive): '-고 앉았-', '-고 자빠졌-', '-는 중이-'
- ㅁ. 연속상(continuous): '-고 있-'②, '-고 계시-'②
- ㅂ. 습관상(habitual): '-곤 하-'

(4) 상에 해당되는 우연적 구성 II

- ㄱ. 예정상(Prospective): '-르 참이', '-려고 하-', '-게 생겼-'
- ㄴ. 기동상(Inceptive/Inchoative): '-기 시작하-'
- ㄷ. 상성상(Inchoative): '-어 지-', '-어 가', '-어 오-'

(5) 태에 해당되는 우연적 구성

- ㄱ. 피동: '-어 지-'
- ㄴ. 사동: '-게 하-', '-게 시키-', '-게 만들-'

(6) 양태에 해당되는 우연적 구성

- ㄱ. 인식 양태
  - 1) 확실성: '-ㄴ/르 것이-', '-ㄴ 셈이-', '-는 바이-', '-는 법이-', '-르 리 없-', '-르 수 없-', '-르 터이-', '-르 턱이 없-', '-임에 틀림없-'
  - 2) 개연성: '-게 마련이-', '-기 십상이-', '-지 싶-', '-ㄴ/르 것 같-', '-ㄴ/르 듯하-', '-ㄴ/르 듯 싶-', '-ㄴ/르 모양이-', '-르 성 싶-'
  - 3) 가능성: '-르 뻔했-', '-르 수도 있-', '-르지 모르-'
- ㄴ. 당위 양태
  - 1) 의무: '-어야 하', '-어야 되-'
  - 2) 허락/허용: '-르 수 있-', '-어도 되-', '-어도 좋-'
- ㄷ. 동적 양태
  - 1) 능력: '-르 만하-', '-르 수 있-', '-르 줄 알-', '-ㄴ직하-'
  - 2) 의도: '-고자 하-', '-르까 보-', '-르 셈이-', '-르 참이-', '-려 들-', '-려 하-'
  - 3) 바람: '-고 싶-', '-기 바라-', '-면 좋겠-', '-었으면 싶-', '-었으면 하-'
- ㄹ. 감정 양태
  - 1) 부정적: '-기 짝이 없-', '-ㄴ/르 노릇이-', '-르 지경이-', '-르 판이-'
  - 2) 중립적 강조: '-기 그지없-', '-기 일쑤이-', '-르 따름이-', '-르 뿐이-'

(7) 부정에 해당되는 우연적 구성

- ㄱ.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의지 부정: '-지 아니하(않)-'
- ㄴ.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능력 부정: '-지 못하-'
- ㄷ. (청유문, 명령문) 부정: '-지 말-'

(8) 절 접속 기능(연결어미)에 해당되는 우연적 구성

- ㄱ. 계기적: '-기 무섭게', '-ㄴ 끝에', '-ㄴ 다음에', '-ㄴ 뒤에', '-ㄴ 이래로', '-ㄴ (연/이/직)후에',

- ‘-는 대로’, ‘-ㄴ 녀에’ ‘-ㄴ 즘에’, ‘-ㄴ 무렵에’
- ㄴ. 반계기적: ‘-기 전에’
- ㄷ. 원인: ‘-기 때문에’, ‘-ㄴ/는 까닭에’, ‘-ㄴ 관계로-’, ‘-ㄴ 덕분에’, ‘-ㄴ 탓에-’, ‘-는 바람에’, ‘-는 통에’
- ㄹ. 조건: ‘-는 한에는’, ‘-는 한에서’
- ㄹ. 목적: ‘-기 위해’
- ㅂ. 결과: ‘-ㄴ 만큼’, ‘-ㄴ 양으로’
- ㅇ. 나열: ‘-ㄴ 채로’, ‘-ㄴ 뿐더러’, ‘-ㄴ 뿐만 아니라’
- ㅅ. 대조: ‘-ㄴ 반면에’, ‘-ㄴ 데 반하여’, ‘-ㄴ 데 비하여’
- ㅈ. 선택: 우연적 구성 없음
- ㅊ. 배경: ‘-는 동안에’, ‘-ㄴ 마당에’, ‘-는 사이에’, ‘-는 (도/와)중에’, ‘-는 차에’, ‘-는 찰나에’, ‘-는 참에’, ‘-는 판에’

도재학(2014)에서 제시한 우연적 구성 중 (2)미래 시제, (3)상, (5)태, (7)부정은 이미 기존의 문법서 등에서도 기술된 바 있다. (1)격조사에 해당되는 우연적 구성의 경우는 이러한 구성을 용언의 격틀에 기본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최근 양태 범주에 대한 연구에서 (6)과 같은 우연적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8)과 같은 연결어미 해당 구성은 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표현 문형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1)~(8)의 우연적 구성은 논의마다 그 범위가 다르고 경계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에서는 우연적 구성을 단일 문법 형태소와 함께 논의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과 ‘-기’ 그리고 명사절 상당 구성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유현경(2018)에서는 명사절 자리에 오는 여러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명사절 상당 구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한 바 있다.

- (9) 가. 나는 네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나. 나는 밖에 나가기가 싫다.
- 다.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
- 라. 누가 범인인지를 모른다.
- 마. 지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 바. 그가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지나서였다.

(9가)와 (9나)는 각각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과 ‘-기’에 의한 명사절이고 (9다)는 관형사형 어미에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구성이다. (9라)는 ‘-ㄴ지’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 자리에 온 것이며 (9마)와 (9바)는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 위치에 나타난 것이다. (9)의 밑줄 친 부분을 모두 명사절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요 국어 문법서들의 명사절 범위 기술을 살펴보면 명사절의 범위에 대해서 문법서마다 차이가 있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명사절을 ‘-(으)ㄴ’과 ‘-기’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의 문법서에는 이익섭·채완(1999), 교육인적자원부(2002), 이관규(2002), 고영근·구본관(2008) 등이 있다. 명사절의 범위를 ‘-(으)ㄴ’과 ‘-기’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안긴절(내포절)이 전성어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한 때문일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사절, 부사형 어미와 부사절, 그리고 명사형 어미와 명사절의 관계를 고려하면 명사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이다. 서정수(1996)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과 ‘-기’ 이외에 간접 의문 명사화 소 ‘-는/ㄴ지, -ㄴ지, -었는지, -었는는지, -겠는지’ 등 ‘-ㄴ지’로 이루어지는 명사절을 인정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85/2014)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절뿐 아니라, ‘-느냐/-(으)냐, -는지/-(으)ㄴ지/-(으)ㄴ지, -는가/-(으)ㄴ가’ 등의 의문형 종결어미로 끝난 절, 종결형으로 끝난 문장에 ‘-는 것’이 결합된 구성, 관형사형으로 된 문장에 바로 ‘것’이 결합된 구성까지 명사절로 인정하였다. 허 웅(1999)은 명사형 어미 이외에 매인이름씨 ‘것’과 그 앞의 매김법 씨끝과의 어우러진 것을 명사절로 보았다.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에 의한 것,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것이 결합한 구성, 의문형 종결어미 ‘-느냐/-(으)냐, -는지/-(으)ㄴ지/-(으)ㄴ지, -는가/-(으)ㄴ가’ 등을 명사절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 의문형 종결어미로 이루어진 간접 의문절 이외에도 (9마), (9바)와 같이 연결어미 구성이 명사절 자리에 나타나는 것도 명사절로 보았으나 관형사형 어미에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구성은 제외하였다.

기존의 문법서에서 명사절의 범위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문법서마다 그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것’ 구성(이하 ‘것 구성’이라 함)은 우연적 구성으로서 이를 명사절을 이루는 문법적 형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것 구성’을 명사절을 이루는 우연적 구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써 기능 중심 통사론 기술에서 문법 단위를 다룰 때의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10) 가. 사과는 대구에서 나는 것이 제일 좋다.

나. 기황이가 어디서 고장 난 기타를 하나 기타 줄이 없는 것을 주워 왔다.<sup>4)</sup>

다. 철수가 먹은 것은 사과다.

라. 이상한 것을 자꾸 묻지 마라.

마. 김 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바. 이웃집에서 고기 굽는 것이 구수하구나.

사.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다.

(남기심 1991 재인용)

명사절 자리에 온 ‘것 구성’을 모두 명사절과 같은 지위를 줄 수 있을까? (10가), (10나), (10다), (10라)는 ‘것’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지시물이 있어서 이때의 ‘것 구성’을 명사절을 이루는 우연적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10바)도 구체적인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용적 용법으로 볼 수 있어 명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우연적 구성이 아니다. (10사)는 분열문 구성으로 이 역시 명사형 전성어미 대당 구성이 될 수 없다.

(10') 가. \*사과는 대구에서 남이 제일 좋다.

나. \*기황이가 어디서 고장 난 기타를 하나 기타 줄이 없음을 주워 왔다.

다. \*철수가 먹음은 사과다.

라. \*이상함을 자꾸 묻지 마라.

마. 김 씨가 뇌물을 받았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바. \*이웃집에서 고기 구움이 구수하구나.

사. \*해는 동쪽에서 뜬이다.

4) (10나)에 해당하는 남기심(1991)의 원래 예문은 ‘기황이가 어디서 고장 난 기타를 하나 새 것을 주워 왔다’이 나 ‘새 것’은 절이 아니므로 ‘기타 줄이 없는 것을’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10)의 예들을 명사형 전성어미로 교체한 (10')을 보면 명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우연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마)의 예이다. 예 (10)에서 보듯이 명사절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든 '것 구성'을 명사형 전성어미의 우연적 구성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경계도 모호하다. 전성어미는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내포절을 형성하는 문법 형태이다. 즉 전성어미 체계와 내포절 체계는 정합적인 관계이다. 이런 이유로 (10마)의 '것 구성'을 명사절을 구성하는 우연적 구성으로 본다고 해도 이때의 '것 구성'을 명사형 전성어미 '-(으)ㄴ'이나 '-기'와 동등한 지위를 주기는 어렵다.

'것 구성' 같은 우연적 구성을 명사절을 이루는 문법적 장치로 인정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이와 비슷한 구성들의 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것'뿐 아니라 '줄, 바, 리' 등 의존명사 등도 '것'과 같이 다음의 (11), (12), (13)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명사절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11) 가. 영희는 노래를 할 줄을 모른다.

나. 영희가 나를 속일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 그가 달리기를 잘 하는 줄은 알았지만...

(12) 가. 그 사람이 도망갔을 리가 없다.

나. 영희가 나를 도와줄 리가 있겠니?

(13) 가.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나. 이 논문은 한국어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의 '줄'은 '방법, 속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알다, 모른다' 등의 몇 개의 제한적인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다. (12)의 '리'는 '까닭, 이유' 등의 의미로 '있다, 없다' 등의 주어 자리에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존명사 '줄', '리'는 의미도 비교적 선명하고 구체적이며 주어나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명사절 상당 구성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13)의 '바'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것'과 같이 명사절 상당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13') 가. 그는 {\*어찌함을/\*어찌하기를} 모른다.

나. 이 논문은 한국어 연구에 {?기여함이/\*기여하기} 크다.

다. {\*조사함에/\*조사하기에} 따르면...

그러나 (13), (13')를 보면 '관형사형 어미+바' 구성은 명사형 전성어미로 대치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것'에 비하여 의존명사 '바, 줄, 리' 등이 의미가 구체적이고 선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것'의 경우도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할 경우에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대치하기 어렵고 이때의 '것 구성'은 명사절 상당 구성으로 볼 수 없다. (10가), (10나), (10다)의 '것 구성'을 명사형 전성어미로 대치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명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우연적 구성을 살펴본 결과, 단일 문법 형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우연적 구성을 다룰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우연적 구성은 단일 문법 형태에 비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용법을 한정하기 어렵고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어미나 조사 등 단일 문법 형태에 대응되는 문법적 기능과 정합적인 체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셋째, 유사한 기능과 용법을 가지는 구성들이 존재할 때 이들 중 어디까지 기능에 부합하는 우연적 구성으로 인정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최준 외(2010), 남길임(2013), 남길임·최준(2014), 장석배(2015), 최준(2015), 홍혜란(2016) 등에서는 말뭉치 주도적 접근법을 통해 우연적 구성 등 구 단위 목록 추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을 비롯한 이론 문법을 기반으로 한 논의에서 제안된 문법 형태의 목록에 더하여 임근석(2006), 임근석(2009), 임홍빈·임근석(2005) 등과 같이 기존의 문법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공기 분석의 방법론을 도입해 도출된 목록도 있다.

기능 중심 통사론의 문법 단위의 목록을 확정할 때 단일 문법 형태와 우연적 구성의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조사와 어미는 문법화 과정이 완료되어 형태론적인 안정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문법 체계에 가지는 기능적인 역할의 의의는 우연적 구성의 기능과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우연적 구성은 문법화 과정에 있어 형태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기능의 문제도 전형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일 문법 형태와 우연적 구성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3.3. 범주 간의 교차 문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 통사론을 기술할 때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의 범주 중심 통사론에서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형태에 대한 관련성을 중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관형사와 관형어는 각각 형태론의 품사 범주와 통사론의 문장성분에서 다루어진다. 이들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부각하고 이를 구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관형사와 관형어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수사와 수관형사도 다른 품사 범주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접속’의 기능을 가지는 여러 범주의 형태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문법 범주 간의 교차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4) 가. 철수는 춤을 추고 영희는 노래를 불렀다.

나. 철수는 춤을 추었다. 그리고 영희는 노래를 불렀다.

다. 철수와 영희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14가)의 밑줄 친 ‘-고’는 절과 절을 연결(혹은 접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14나)의 ‘그리고’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며 (14다)의 ‘와’는 체언과 체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고’는 접속어미이고 ‘그리고’는 접속부사, ‘와’는 접속조사이다. 이 세 가지 형태를 ‘접속’ 혹은 ‘연결’이라는 기능으로 묶을 수 있을까?

유현경·서상규(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대한 부사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초급 학습자 말뭉치와 고급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사용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표 2> 말뭉치별 일반부사 사용 양상

	초급학습자말뭉치		고급학습자말뭉치		모국어말뭉치
	일반부사	빈도	일반부사	빈도	
1	다시	170	많이	145	다시
2	너무	151	잘	129	더
3	안	112	더	122	다
4	많이	97	같이	106	안
5	그냥	90	다시	88	잘
6	더	89	아주	73	같이
7	잘	88	안	73	없이
8	지금	79	너무	67	못
9	다	78	다	67	왜
10	아주	66	지금	63	좀
11	좀	63	아직	56	모두
12	잘못	54	서로	52	함께
13	또	50	조금	52	바로
14	같이	47	가장	51	가장
15	혹시	38	또	50	이미
16	왜	37	얼마나	48	많이
17	이제	26	그때	47	곧
18	되게	26	특히	45	너무
19	못	25	왜	44	물론
20	얼마나	23	함께	43	더욱
21	아까	22	못	42	역시
22	조금	20	제일	42	먼저
23	빨리	18	바로	41	얼마나
24	아마	16	정말	41	서로
25	먼저	16	이제	37	아직
26	별로	16	계속	33	아주
27	막	15	열심히	33	그대로
28	아직	15	모두	32	특히
29	제일	15	항상	32	거의
30	언제	14	없이	31	꼭
유형	132	2.60/100	394	5.15/100	
누적빈도	1840	36.30/100	3338	43.61/100	

일반부사의 사용을 나타낸 <표 2>를 보면, 초급 학습자들은 고급 학습자들에 비하여 유형의

수도 적고 누적빈도로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접속부사 사용의 경우는 초급 학습자 말뭉치에서 추출된 유형이 고급 학습자 말뭉치에서 추출된 유형의 수보다 적었으나 빈도면에서는 초급 학습자 말뭉치가 고급 학습자 말뭉치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은 <표 2>와 같다.

<표 3> 말뭉치별 접속부사 사용 양상

	초급학습자말뭉치		고급학습자말뭉치		모국어말뭉치
	접속부사	빈도	접속부사	빈도	
1	그래서	167	그리고	153	그러나
2	근데	145	그래서	85	그리고
3	그리고	67	그러나	83	또
4	또	57	또	73	그런데
5	그러니까	28	하지만	60	그래서
6	그런데	28	그런데	48	즉
7	그럼	27	그렇지만	28	또한
8	그러면	26	왜냐하면	26	따라서
9	그래도	25	그러니까	22	또는
10	그러나	14	또는	22	오히려
11	또는	7	그래도	21	그래도
12	하지만	7	즉	21	그러므로
13	그렇지만	6	그러면	15	그러면
14	한편	4	및	15	다만
15	왜냐하면	3	따라서	11	이에
16	그러니	1	그렇다면	8	만일
17	만약	1	한편	8	그러니까
18	아무튼	1	또한	7	비로소
19	혹은	1	오히려	7	그렇지만
20			그러므로	6	마침내
21			그러자	6	과연
22			그럼	5	비록
23			어쩌면	5	혹시
24			혹은	5	그러면서
25			때문에	4	오직
26			소위	4	말하자면
27			그러다가	3	이른바
28			그런데도	3	어쨌든
29			만약	3	적어도
30			만일	3	왜냐하면
유형	19	0.37/100	39	0.51/100	
누적빈도	615	12.13/100	173	2.26/100	

<표 3>에서 초급과 고급의 학습자 말뭉치에서의 접속부사의 유형과 누적빈도를 100문장 당 비

을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는데, 접속부사의 경우도 일반부사와 마찬가지로 초급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유형보다 고급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유형이 훨씬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접속부사의 누적빈도에서는 초급 학습자 말뭉치와 고급 학습자 말뭉치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즉, 유형의 수는 초급보다 고급이 많았으나, 접속부사의 총 사용 횟수인 누적빈도는 고급보다 초급이 훨씬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접속어미의 사용 양상

	초급 학습자 말뭉치	고급 학습자 말뭉치
접속어미의 사용 누적 빈도	2610	8111
100문장 당 사용 빈도	51.49/100	105.96/100

일반부사의 유형과 누적빈도를 나타낸 <표 2>에서는 초급 학습자 말뭉치보다 고급 학습자 말뭉치에서 훨씬 더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뿐 아니라 빈도면에서도 더 많이 쓰이는 것과 비교하면, <표 4>의 접속부사의 누적빈도가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특이한 양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접속부사의 이러한 사용 양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국어에서는 복문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접속과 내포가 바로 그것이다. ‘내포’는 문장 안에 문장이 안기는 것이고, ‘접속’은 문장과 문장이 문법적 장치에 의하여 연결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방법으로는 접속사, 즉 접속부사에 의한 것과 접속어미에 의한 것의 두 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접속부사’는 여타의 많은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범주이지만, ‘접속어미’는 한국어가 가지는 매우 독특한 형태 범주이다.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접속부사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한국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부담하고 있는 범주로 접속부사 이외에도 접속어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급에서는 단문 위주로 문장을 사용하고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문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아래의 <표 5>로 알 수 있다.

<표 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성

	초급 학습자 말뭉치	고급 학습자 말뭉치
총 문장의 수	5,069	7,655
총 어절의 수	26,523	91,142
한 문장 당 어절의 수	5.23	11.91

접속부사와 접속어미의 사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자료가 되는 초급과 고급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의 접속어미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접속어미의 누적빈도는 2,610번이었고, 고급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8,111번이었다. 이를 100문장 당 사용 빈도로 계산하면, 초급 학습자 말뭉치는 100문장 당 약 51.49번의 접속어미가 사용되었고, 고급 학습자 말뭉치의 경우는 접속어미가 100문장 당 105.96번 사용되었다. 이

는 고급 학습자들의 접속어미 사용 빈도가 초급 학습자에 비하여 거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사용 문장 중 약 절반에서 접속어미를 사용하였고, 고급 학습자는 거의 매 문장마다 접속 어미를 사용하여 복문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접속어미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곧 접속부사 사용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한 문장 당 어절의 수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급 학습자 말뭉치는 초급 학습자 말뭉치와 비교할 때, 접속어미의 사용 비율은 초급의 두 배가 되며, 한 문장 당 어절의 수도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범주를 중심으로 한 문법 연구에서는 일반부사와 접속부사를 하나의 범주로 보고 기술해 왔다. 그러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는 일반부사와 접속부사를 나누어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국어 화자에 비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사 사용에 대한 학습은 일반부사와 접속부사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부사의 경우는 어휘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지만, 접속부사의 학습은 문법형태소인 접속어미와의 연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문 위주의 초급 학습자들의 문장 사용이 고급 학습자들의 복문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접속부사와 대응쌍을 이루는 접속어미의 사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접속조사 ‘와’는 어떠할까? 접속의 기능을 갖는 ‘와’를 접속부사, 접속어미와 함께 다룰 수 있을까?

- (15) 가.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 나.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영화를 보았다.
- 다. 철수는 최근 영희와 헤어졌다.
- 라. 우리의 목표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다.

(15가)의 ‘와’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며 (15나)의 ‘와’는 ‘동반’을, (15다)의 ‘와’는 ‘상대로 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접속조사로서의 ‘와’는 (15라)이다. 조사 ‘와’는 접속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기준, 동반, 대상’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15가), (15다)의 경우는 ‘와’ 명사구가 대칭 용언의 논항으로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조사 ‘와’는 격조사로서의 기능과 접속조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5') 가. 늑대와 개는 비슷하게 생겼다.
- 나. 아내와 그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았다.
- 다. 영희와 철수는 최근 헤어졌다.
- 라. 우리의 목표는 평등과 자유의 실현이다.

(15')에서 보듯이 접속조사의 기능을 하지 않는 (15가), (15나), (15다)도 NP1과 NP2의 순서를 바꾸어 (15라)와 같은 접속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조사 ‘와’의 기본적인 기능은 접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접속어미는 30여 개가 넘고 접속부사도 70여 개 내외이다. 이규호 (2006)에 의하면 『연세한국어사전』은 18개, 『표준국어대사전』은 14개의 접속조사를 등재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개인 연구물에서는 10개 안팎을 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허용(1995)에서는 25개나 되는 항목을 접속조사로 인정하고 있다. 권재일(1994: 27~39)에서는 통사론에서 접속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종속’과 ‘대등’의 개념을 단어 접속이나 명사복합어 내부에서 명사 간 결합방식에도 확대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한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접속어미, 접속조사, 복합어와 관련한 접속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함으로써 문법기술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접속어미, 접속부사, 접속조사는 ‘접속’이라는 기능뿐 아니라 두 단위를 연결할 때 두 단위 간에 종속과 대등의 두 가지 의미 관계를 상징할 수 있어 어미, 부사, 조사의 세 범주로 나누어 있는 세 부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각 범주별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태들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sup>5)6)</sup>

다음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기능 중심 통사론의 체계 정립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다.

#### 4. 새로운 체계 정립의 가능성

문법 체계는 목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문법 체계는 남기심·고영근(1985)의 체계이다. 남기심·고영근(1985)는 학교문법의 이론적인 배경이기도 하며 발간 이후 한국어 문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남기심·고영근(1985)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는 문법 체계는 형식 문법이다. 기능 문법에 대한 요구는 한국어교육 쪽의 문법 연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백봉자(2001), 김제열(2001), 서정수(2002), 한송화(2006) 등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교수하면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문법 체계를 상정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한국어교육 문법이나 기능문법을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송화(2006)에 의하면 기능문법이란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하여 문법 구조가 어떤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가에 따라 문법을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문법이다. 기능문법에서 문법은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이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의 구조를 분석해 놓은 것이며 문법 구조보다는 문법 구조의 기능과 맥락 속에서 그 기능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기능문법은 문법을 문법 구조의 형태가 아닌 기능과 기능의 구성 성분, 맥락 속에서의 기능의 의미를 주된 관심사로 한다. 한송화(2006)에서는 이전의 논의를 비판하고 영어 기능 문법의 문법 범주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문법 체계를 제시하였다.

- 
- 5) 조향숙(2010)에서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어미, 접속부사, 접속조사, 특수조사 등 여러 범주의 형태들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 6) 접속어미, 접속부사, 접속조사 이외에도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접속의 기능을 가진 우연적 구성들도 많이 있다. 3.3의 조점은 ‘접속’의 기능을 가진 형태들이 속한 범주 간의 교차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접속의 기능을 가진 구 단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문법 체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나타내기	사물이나 사람 나타내기
	개념 확장하기
	수량 나타내기
메시지 만들기	사물 묘사하기
	행동 서술하기
	묘사와 행동 정교화하기
	시간 나타내기
메시지에 화자의 태도 나타내기	메시지 부정하기
	메시지 다양화하기
	화자의 태도 표현하기
메시지 복합하기	정자 높이기
	메시지 연결하기
	메시지 포함시키기
텍스트 및 담화 구성하기	메시지 전달하기
	이야기 구성하기
	텍스트 구성하기

위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법 체계는 기존의 형식 문법에 의한 문법 체계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위의 체계는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교수요목(syllabus) 설계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어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문법 체계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의 체계는 ‘기능’은 있으나 ‘문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정수(1996, 2002) 등 기능을 앞세운 문법 체계가 외면당한 것은 기존의 문법 기술과 용어나 체계가 확연히 다르다는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말뭉치 분석 결과를 귀납적인 정리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나치게 귀납적이고 세분화된 채 연역적인 체계로 수렴되지 못하여 어지러운 혼란만 가중시키는 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 어미 등 단일 문법 형태뿐 아니라 우연적 구성 등 문법 기능을 가진 단위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범주의 벽을 넘어서 ‘기능’을 중심으로 문법 형태들을 재편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연역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는 기존의 형식 문법의 체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문법 범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범주와 체계를 기반으로 ‘기능 중심 통사론’의 체계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3장에서 ‘접속’을 하나의 기능으로 보고 이에 속하는 여러 형태들에 대한 고찰을 하였고, ‘접속’ 이외에 ‘시간과 관련된 표현, 양태 표현, 피사동 등 태, 부정, 높임, 문장 종결 표현, 내포 등 기존의 형식문법의 체계를 기본적인 틀로 하여 세부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범주와 체계를 고려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한 통사론의 체계를 세울 때 ‘기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기능’만으로 한국어를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기능과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는가? 기능 간의 경계 겹침, 기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빈칸의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기능 간의 관계를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인 기술을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 5. 결론

앞에서 논의한 범주 중심 통사론과 형태 중심 통사론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립국어원(2005가), 국립국어원(2005나)에서 보았듯이 범주는 체계이고 형태는 용법이다.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기능 중심 통사론도 범주 중심 통사론과 형태 중심 통사론의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계를 인정하고 재편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능 중심의 연구들에서 조사와 어미 등 단일 문법 형태와 우연적 구성을 함께 다루면서 이 둘의 기능적인 공통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둘 간의 층위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의 관점은 문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법 단위의 외연을 확장하되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형태들과 다른 층위에 속하는 형태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뭉치언어학이 언어 연구에 가져온 변화는 매우 크다. 말뭉치언어학의 귀납적인 연구 방법론은 연역적인 체계를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물론 최근의 말뭉치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은 체계와 상관없이 빈도나 경향성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규칙이 기반이 되는 통사론에서는 체계를 상정하지 않는 귀납적인 결과는 의미가 없다.

본고에서 제안한 기능 중심 통사론의 방법론과 체계는 문제점에 대한 성찰에 머물러 있고 아직 구체적인 기술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인식되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므로 이러한 면에서 본고의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참고 문헌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 강현화(2011),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과 전망」,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42.
- 강현화(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 기반 문법 연구: 부정 표현의 맥락 문법을 활용하여」, 『외국어교육』 19-3, 한국외국어교육학회, 395-414.
- 강현화(2016), 「의존(성) 명사를 포함하는 한국어교육 문법항목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3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63-86.
- 강현화·이현정·남심혜·장채린·홍연정·김강희(2016), 『한국어교육 문법 : 자료편』, 한글파크.
- 고경태(2007), 「한국어 동사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경태(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체계에 대하여」,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183~206.
- 고영근(1975), 「현대 국어의 어말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비종결어미의 것을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73-99.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집문당.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두산.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5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5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용법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학술자료사.
- 김선혜(2010), 「이른바 어미 ‘-ㄴ지’에 관한 연구: 문법범주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 어미 연구』, 한국문화사.

- 김영진(2007), 「한국어 학습자의 덩이표현 사용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 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5~152.
- 김일환·박종원(2003), 「국어 명사화 어미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 42, 국어학회, 141-175.
- 김재욱(2005), 「문법 교육 방법론」,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 김재욱(2007),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체계 분석」,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43~70.
- 김정숙(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121.
- 김정숙(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 토론문」, 『2002년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은(2015), 「한국어 유의 문법 교육 방안 연구: 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이소영(2001),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표준 문법」, 『이중언어학』 19-1, 이중언어학회, 39~59.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의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121.
- 김지은(1997), 「‘보다’, ‘모르다’의 특수한 쓰임에 대하여」, 『사전편찬학연구』 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49-183.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 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남기심(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박학지』 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23-233.
- 남기심(1991), 「불완전 명사 ‘것’의 쓰임」,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논문집-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남기심(2001),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1985/2014),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 남길임(2005),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의 동향과 지향 방향-최근30 년간의 사전 편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16, 한말연구학회, 75~98.
- 남길임(2013), 「한국어 정형화된 표현의 분석 단위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0-1, 담화인지언어학회, 163-190.
- 남길임(2014), 「‘이론으로서의 말뭉치언어학’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한국어 의미학』 46, 한국어의미학회, 163-187.
- 남길임·최준(2014),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문의 추출: 국어국문학 학술논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60, 한국문학언어학회, 65-92.
- 노지니(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추측’의 통어적 문법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재학(2014), 「우연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259-304.
- 류혜진(2013), 「한국어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 교수 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목지선(2008), 「‘-리지’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경상어문』 14집,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43-65.
- 박동호(2016),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구축 방안-한국어 문법 교사를 위하여-」, 『문법교육』 28, 한국문법교육학회, 59-75.
- 박선희(1999), 「어미 ‘-는가’의 통사·의미적 기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1991), 「국어 의문문의 의문성 정도에 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한국문화사.
- 방성원(2004), 「한국어 문법화 형태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110.
- 배진영·손혜옥·김민국(2013), 『말뭉치 기반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의 탐색』, 박이정.
- 배진영·최정도·손혜옥·김민국(2014), 『말뭉치 기반 구어 문법 통합 문법 기술 2: 명사와 명사구 I, II』, 박이정.
- 백낙천(2006), 「‘-든지’, ‘-은지’, ‘-을지’의 형태론적 구성과 의미」,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273-290.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백봉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15-445.
- 백봉자(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서상규·구현정(2002), 『한국어 구어 연구 1』, 한국문화사.
- 서상규·구현정(2005), 『한국어 구어 연구 2』, 한국문화사.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서정목(1994), 「내포 의문 보문자 ‘-(으)ㄴ+가’의 확립」, 『국어 통사 구조 연구 1』, 서강대학교 출판부.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서정수(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 문법 체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47.
- 서희정(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형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주연·양명희(2012), 「한국어 교육 문법 항목의 제시 형식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일고찰-"표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51~73.
- 성지연·도월영(2014),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법 교육 항목 선정과 제시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7, 한민족문화학회, 127~157.
- 신명선(2010), 「인지 의미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법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어미학』 31, 77-107.
- 안정아(2007), 「현대 국어 의존 명사의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2010),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의 경계」,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어미학회, 123~140.
- 양명희(2013),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2014),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2016),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기초 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제22차 춘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 오경숙(2009), 「‘줄 알다’, ‘줄 모르다’와 사실 인식표현」, 『한국어어미학』 30, 한국어어미학회, 143-161.
- 오승신(1986), 「‘-ㄴ지’의 통사적 기능전이에 따른 의미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숙(1989), 「우리말 간접의문문의 의미와 기능-간접의문 보문소를 중심으로-」, 『백록어문』 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05-124.
- 우형식(1987), 「명사화소 ‘-음’과 ‘-기’의 분포와 기능」, 『말』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19-160.
- 우형식(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 『제18차 학술논문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우형식(2010),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우리말연구』 26, 우리말학회, 235-266.
- 유소영(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표현 연구 -문법표현 선정과 등급화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해준(2011), 「한국어 교육 문법적 언어 항목 선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해준(2015), 「유사 기능의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515~538.
- 유현경(2017가), 『형태 중심 한국어 통사론』, 역락.
- 유현경(2017나), 「한국어 연구의 관점에서 본 『연세한국어사전』」, 『개척의 역정, 도전의 미래-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실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유현경(2018), 「한국어 명사절의 범위에 대한 연구」, 『Letters, Languages, and Literature -Proceedings of the SCRIPTA 2017 in Egypt』, 훈민정음학회.
- 유현경·서상규(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사용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213-234.
- 유혜령(2017), 「문법교육내용으로서 ‘문법’과 ‘활동’에 대한 재고」, 『어문론총』 72, 한국문학언어학회, 81-113.

- 이관규(2002), 『학교문법론』, 월인
- 이규호(2006), 「접속조사의 분류와 목록」,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171-195.
- 이남순(1988), 「명사화소 ‘-ㅁ’과 ‘-기’의 교체」, 『홍익어문』 7, 홍익대학교, 744-754.
- 이미혜(200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표현 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5~225.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섭(1989), 「몽치 언어학으로 본 사전 편찬의 실제 문제: 님의 침묵의 용례 색인을 예로 들어」, 『사전편찬학연구』 3,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회, 162-193.
- 이상섭(1989), 「낱말 빈도를 추정하기 위한 말뭉치 자료 수집의 실제」, 『인문과학』 61,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67-74.
- 이상태(2002),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지시-기능주의적 연구-교육문법의 체계 구성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34, 141-160.
- 이선웅(2000), 「‘의문사+(이)+ㄴ가’ 구성의 부정표현에 대하여」, 『국어학』 36, 국어학회, 191-219.
- 이영민(1995), 「내포문 의문 어미 ‘-ㄴ지’에 대한 고찰」, 『서강어문』 11, 서강어문학회, 61-84.
- 이영민(1998), 『국어 의문문의 통사론』, 보고서.
- 이윤진·노지나(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 ‘추측’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3~209.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준규·유현조(2011), 「한국어교육을 위한 정형표현 찾기: 잦은 명사 결합을 중심으로」, 『응용언어학』 27-2, 한국응용언어학회, 53-72.
- 이준호(2010), 「한국어 유의문법 교육을 위한 TTT모형의 활용 방안」, 『한국문법교육학회학술발표집』, 문법교육학회.
- 이지영(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연구의 방향」, 『한국어문학연구』 49, 115-134.
- 이지영(2008),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3, 국어학회, 113-140.
- 이지용(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해영(1998), 「문법교수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411~438.
- 이해영(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73~94.
- 이홍식(1999), 「명사구 보문」, 『국어학』 33, 국어학회, 367-398.
-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이희자·이종희(2008), 『한국어 학습 초급용 어미 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임근석(2005), 「문법적 언어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형태론』 7-2, 형태론학회, 277~301.
- 임근석(2006), 「한국어 언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근석(2009),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문법적 언어 후보 추출」,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305-333.
- 임근석(2010), 『한국어 언어 연구』, 월인.
-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국어학회, 83-104.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3』, 태학사.
- 임홍빈·임근석(2004),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구축분과 언어사전의 정보구조와 기술내용」, 『한국사전학』 4, 한국사전학회, 99-130.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1』,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장미라(2008), 「문장 구조 중심의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석배(2015), 「한국어 정형표현 연구 -대규모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남석(2013), 「중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사 문법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리(2006), 「‘-음’, ‘-기’의 의미와 제약」,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291-318.
- 조향숙(2010), 「국어 선택 발화의 실현 양상 (1)-연결어미와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67-191.
- 진정란(2005), 「유의표현 ‘느라고, -는 바람에, -거든’의 교육문법 정보」, 『언어와 문화』 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9-200.
- 차현실(1987), 「명사화 어미 범주 체계화 시론-{기}, {-음}, {-지}, {-ㄴ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5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71-90.
- 채 완(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95-107.
- 채숙희(2010), 「현대 한국어 인용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규(2005), 「한국어 문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연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2』의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5-239.
- 최재웅(2014), 「말뭉치와 언어 연구: 외국의 사례와 경향」, 『한국어학』 63, 한국어학회, 71-102.
- 최재희(2011), 「학교문법의 겹문장 체계 기술 방안 연구」, 『한글』 292, 한글학회, 87-130.
- 최재희·윤평현(1983), 「國語 名詞化 接尾形態素{-음}·{-기}의 特性에 대한 研究」, 『인문과학연구』 5,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9-130.
- 최정도·김문기(2013), 「‘-ㄴ지’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말연구』 33, 우리말학회, 5-31.
- 최 준·송현주·남길임(2010),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담화와 인지』 17-2, 담화인지언어학회, 163-190.
- 최 준(2015), 「한국어의 확장된 어휘 단위 연구 -분포와 의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7-379.
- 한희정·한정환(2016), 「언어 사용역에 따른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어미학』 54, 한국어어미학회, 175-202.
-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 웅(1999), 『20세기우리말의통어론』, 샘문화사.
- 호정은(1999),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연구 - 독립신문 전산 자료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3, 경희대학교, 83-101.
- 홍종선(1983),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241-272.
- 홍혜란(2016), 「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 연결 구성 연구 -사용역에 따른 분포 양상과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혜란·박석준(2015), 「한국어 표현문형 범주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N-gram 분석을 활용한 연구 방법 및 방향의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5-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4-139.
- Barlow, M. (2011). Corpus linguistics and theoretical lingu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6-1, 257-311.
- Biber, D.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New York: Longman.
- Biber, D., Conrad, S. & Rappan, R.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al-Based introduction I, II*, Amsterdam ; Philadelphia : Jho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역(2002), 『기능 영문법 I, II』, 박이정.]
- Givón, T. (2001), *Syntax: An introduction II*,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Company.
- Gries, S. Th. (2010), Corpus linguistics and theoretical linguistics: A love-hate relationship? Not necessarily...,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5-3, 327-343.
- Halevy, A., Norvig, P. & Pereira, F. (2009), The 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data, *IEEE Intelligent Systems*, 24-2, 8-12.
- Halliday, M. A. K & James, Z. L. (1993), A quantitative study of polarity and primary tense in the English finite clause, In Sinclair, J., Hoey, M., Fox, G. & Coulthard, M. (eds.), *Techniques of description: Spoken and written discourse*. London: Routledge, 32-66.
-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 I. M. (1999), *Construing Experience Through Meaning: A language-based approach to cognition*, London, New York: Continuum.
- Halliday, M. A. K. and Matthiessen, C. M. I. 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ition), London: Routledge.
- Halliday, M. A. K., McIntosh, A. & Stevens, P. (1971), The linguistic sciences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s. [이충우 · 주경희 역(1993), 『언어 과학과 언어 교수』, 국학자료원.]
- Kim, YouJin(2009), Korean lexical bundles in conversation and academic texts, *Corpora* 4-2, Edinburgh University Press, 135-165.
- Scott, M. & Tribble, C. (2006), *Textual Patterns: Key Words and Corpus Analysis In Language Education*,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cott, T. (1999), *How to teach grammar*, Harlow : Longman. [이관규 · 김나연 · 윤정민 · 서수현 · 김지연 역(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 Sinclair, J. (2004), *Trust the text: Language, Corpus and Dis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inclair, J., Jone, S., Daley, R. & Krishnamurthy, R. (2004), *English Collocation Studies: The OSTI Report*, Bloomsbury Academic.
- Stern, H. H. (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심영택·위호정·김봉순 역(1995),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하우.]
- Stubbs, M. (2004), *On Very Frequent Phrases in English: Distributions, Functions and Structures*, The 25th Anniversary Meeting of ICAME, Verona, Italy, 19-23 May.
- Stubbs, M. (2007), Quantitative data on multi-word sequences in English: The case of the word 'world', In Hoey, M., Malhberg, M., Stubbs, M. & Teubert, W. (eds.), *Text, Discourse and Corpora: Theory and Analysis*, London: Continuum, 163-190.
- Teubert, W. (2005). My version of corpus lingu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0-1, 1-13.

## 제3부 <주제 발표>



##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과 한국어 통사론

### -표찰 알고리즘과 한국어-

김용하(안동대)

#### < 차 례 >

1. 들머리
2. 구 구조 규칙, X'-이론, 그리고 소체 구 구조 이론
3. 표찰 알고리즘
4. 반-표찰 장치로서의 격조사
5. 표찰 결정 자질로서의 격
6. 격 조사는 언제 반-표찰 장치가 되는가?

### 1. 들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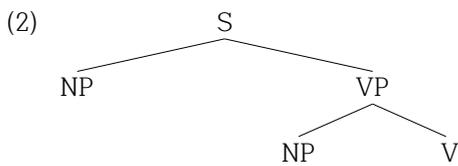
◆ 생성문법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는 이전의 문법이론 혹은 생성문법의 기존 모형에서 당연시되던 개념들이 제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런 일은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등장 이후 더욱 빈번해졌는바, 최근 Chomsky(2013, 2015)는 종래 구 구조 이론에서 규칙 자체의 속성으로 제공되거나 X'-식형에서 설정되었던 표찰(label)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이는 구 구조 혹은 여러 언어의 문법 현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Chomsky(2013, 2015)의 제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생성문법의 구 구조 이론에서 당연시되던 동심성을 포기하는 데 있다. 그는 병합이라는 과정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던 표찰 달기(labeling)를, 독립적인 알고리즘으로 상정하면서 병합으로부터 떼어낸다. 이러한 조치는 소위 '지정어 문제(specifier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Adger 2012), 지정어가 포함된 구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낳게 한다.

◆ 본 발표에서는 Chomsky의 표찰 알고리즘이 제기하는 이론적 문제를, 한국어 통사론의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최근 Saito(2016)의 제안이다.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격조사를 반-표찰 장치(anti-labeling device)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겹주어/겹목적어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찰을 요한다. 이와 더불어 본 발표에서는 격을, 표찰을 결정하는 자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홍용철(2017)의 분석도 또한 비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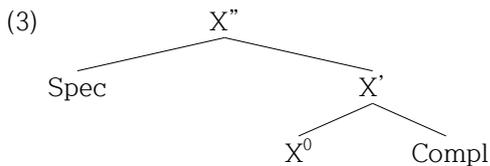
## 2. 구 구조 규칙, X'-이론, 그리고 소체 구 구조 이론

◆ 범주 표찰(category label)은 구 구조를 담고 있는 구 표지의 중요한 정보 중 하나여서 (Chomsky 1965), 구 구조를 생성하는 구 구조 규칙은 당연히 범주 표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래 (1)은 대략적인 한국어의 구 구조 규칙이고 (2)는 이 규칙으로 만들어낸 구 구조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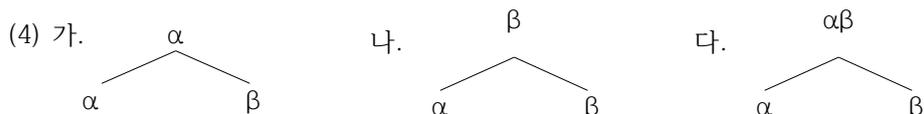
- (1) 가.  $S \rightarrow NP VP$   
 나.  $NP \rightarrow (DetP) N$   
 다.  $VP \rightarrow (NP) (NP) (AdvP)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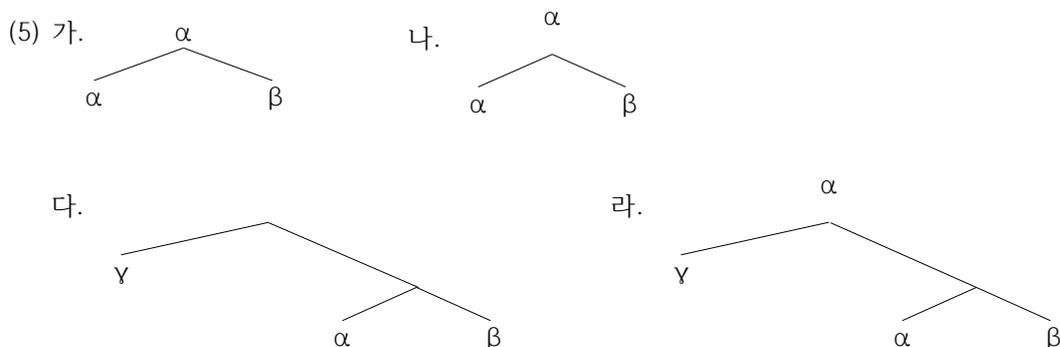
◆ Chomsky(1970)에 의해, 일반화된 통범주적(cross-categorial) 구 구조 이론으로서 X'-이론이 제안된다. 애초에 이는 어휘 범주(N, V, A)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Stowell(1981) 등의 제안에 따라 곧 S, S' 등이 CP와 IP 등의 구 범주로 환원되는 등의 조치로 구 구조 규칙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one'과 같은 대명사가 N'-대명사라는 등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중간 투사(medial projection)의 통사적 실체성도 인정을 받게 된다(cf. Radford 1988). 또한 80년대 중반에 Fukui(1986), Abney(1987) 등이 내놓은 DP-가설로 인해 기존에 NP로 취급되던 통사체들이 사실은 DP라는 사실이 발견된다.



◆ 최소주의 프로그램(minimalist program)의 출현 이후, Chomsky(1994)는 소체 구 구조 이론(bare phrase structure theory)을 내놓고 기존의 구 구조 이론을 정비한다. 소체 구 구조 이론의 핵심은 X'-이론의 중심적 개념들을 없애는 것이다. 구 구조 형성 자체가 병합(Merge)이라는 기본 운용(operation)에 의해서 도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X'-식형(frame) 따위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어떤 요소들  $\alpha, \beta$ 가 병합되어 새로운 투사체가 만들어지면 그 투사체의 표찰로는 N, V, A, C, I, D 따위의 범주 명칭이 붙지 않는다. 오히려  $\alpha, \beta$  중 어느 하나가 표찰이 된다.



- $\alpha$ 와  $\beta$  중 어느 것이 투사되느냐는 병합의 과정 자체에서 이루어진다. 병합은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선택하는 요소가 투사된다고 본다. 따라서 병합은 언제나 (4가,나)와 같은 비대칭적 투사를 야기할 뿐, (4다)와 같은 대칭적 투사를 만들 수 없다.
- 소체 구 구조 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X'-이론에서와 같은 중간 투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밝혔듯 병합이 도출적으로 진행되므로 중간 투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중간 투사가 문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Chomsky 1994).



- 기존의 나무꼴 그림이 이러한 투사의 과정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본 Chomsky(1994)는 그 대안으로 집합 표기를 내놓는다.

- (6) 가.  $\alpha$ 의  $\beta$ 선택에 의한 둘의 병합:  $\{\alpha, \beta\}$   
 나. 표찰  $\alpha$  달기:  $\{\alpha, \{\alpha, \beta\}\}$

### 3. 표찰 알고리즘

#### 3.1. 지정어 문제

- ◆ Collins(2002)가 표찰이라는 것이 이론적 인공물(artifact)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또한 Kayne (1994)으로부터 출발하여 Starke(2004), Jayaseelan(2008) 등이 지정어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소체 구 구조 이론으로도 논란이 일자 Chomsky(2008)는 표찰이 병합 자체의 과정으로 정해진다는 주장을 버리고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표찰 달기가 이루어진다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Chomsky가 표찰이 필요없다는 Collins(200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어떤 통사체의 필요 정보는 단일한 지정 요소에 담겨 있어야

하고 그런 요소가 곧 표찰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표찰은 결코 없어도 되는 요소가 아닌 것이다. 그의 표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7) 가. {H,  $\alpha$ }에서, H가 어휘 항목(LI; lexical item)이면 H가 표찰이다.

나. 만일  $\alpha$ 가  $\beta$ 에 내적 병합되어 { $\alpha, \beta$ }가 형성되면  $\beta$ 의 표찰이 { $\alpha, \beta$ }의 표찰이다.

(내적 병합(IM; internal Merge): 예전의 이동, 외적 병합(EM; external Merge): 예전의 병합)

◆ Adger(2012)의 지정어 문제: Chomsky(2008)의 표찰 알고리즘은 EM으로 인한 지정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8) 외적 병합으로 인한 {XP, YP} 형상에서 표찰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Chomsky(2008)는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는다. 하나는 Moro(2000)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통사 구조가 반대칭성(antisymmetry)만을 허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8)에서처럼 두 최대 투사체가 외적 병합이 되어서 (7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면 XP, YP 둘 중 하나는 이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v^*P$ 에 외부 논항(EA; external argument) DP가 병합되면 해당 DP가 이동하여 [t,  $v^*P$ ]가 남고 흔적이 표찰 알고리즘에 비가시적이라고 가정하면  $v^*$ 만이 유일한 표찰이 된다.

● Adger(2012): 다음과 같은 영어의 절대(absolutive) 구성에서 Moro의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9) With the vase on the table, the room looks perfect.

● Chomsky(2008)는 두 번째 해결책으로서 접합면(interface)을 끌어들인다. 즉 XP, YP 둘 중 어느 것이든 표찰이 될 수 있으나 잘못된 선택이 접합면에서 걸려진다고 보는 것이다.

● 접합면의 어떠한 조건이 잘못된 선택을 걸러내는가? Chomsky(2008)의 ‘일관적 논항 구조(coherent argument structure)’는  $v^*P$  이외의 구성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

### 3.2. 표찰 알고리즘과 지정어의 제거

◆ Chomsky(2013)는 병합의 과정에서 표찰이 정해지는 식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찰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정해져야 한다. 소위 제3인자(third factor)의 하나인 최소 검색(minimal search)이 표찰 알고리즘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가장 기본적인 표찰 알고리즘(LA; labeling algorithm)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SO; 통사체 syntactic object)

(10) SO={H, XP}일 때 H가 핵이고 XP가 핵이 아니라면 LA는 H를 표찰로 선택한다.

◆ SO={XP, YP}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최소 검색은 XP의 핵 X와 YP의 핵 Y의 거리를 똑같이 산출할 것이다. 따라서 (10)으로 이 통사체의 표찰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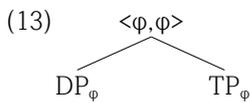
● 하나는 Moro(2000) 방식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EA, v\*P} 구조에서 EA와 IA(내부 논항; internal argument) 중 하나는 이동해야만 한다는 Alexiadou · Anagnostopoulou(2001)의 제자리 주어 일반화(subject-in-situ generalization), EPP를 포착해 준다.

- (11) 가. EA ... [ $\alpha$  tEA [v\* [V IA]]]: (10)에 의해 표찰 = v\*  
 나. IA ... [ $\alpha$  EA [v\* [V tIA]]]: V-v\* 이동 후 (10)에 의해 표찰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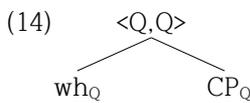
● 다른 하나는 (7나)를 버리는 것이다. (7나)는 IM이 일어날 때 자동적으로 이동한 요소가 표찰에서 배제되는 방식인데, IM이 EM과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7나)는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12)의 표찰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2) {EA=DP, TP}

● (12)의 형상은 전통적으로 소위 ‘지정어-핵 일치’ 구조로서 외부 논항 DP와 TP는  $\phi$ -자질을 공유한다. 즉 여기서 DP와 TP는  $\phi$ -자질로서 확인되며 이 경우 LA는  $\phi$ 를 표찰로 선택한다.



● wh-어구가 CP와 결합할 경우에도 Q-자질이 공유되고 이 경우 표찰은 Q로 결정된다. 즉 wh-어구와 CP의 결합으로 결과된 구의 표찰은 <Q, Q>이다.



#### 4. 반-표찰 장치로서의 격조사

◆ Saito(2016):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논리에 따르면, 병합(Merge)은 통사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용(operation)이고 병합으로 만들어진 통사체는 접합점에서의 해석을 위해 표찰을 요구한다. 그런데 핵과 구의 병합이 아닌 구와 구의 병합에서는 일치가 필요하며, 일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사구가 비해석성 자질인 격(Case)을 가져야 한다((15)에서 ⇒는 ‘요구한다’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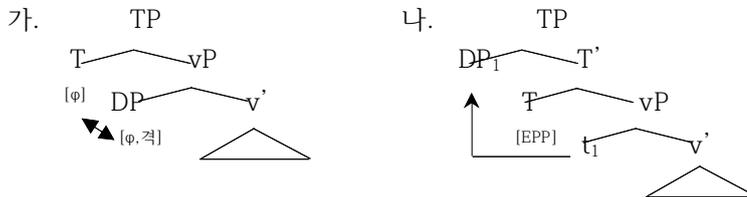
(15) 병합 ⇒ 표찰 ⇒ φ-일치 ⇒ 격

● 그렇다면 일본어처럼 φ-일치가 없는 언어에서 격의 역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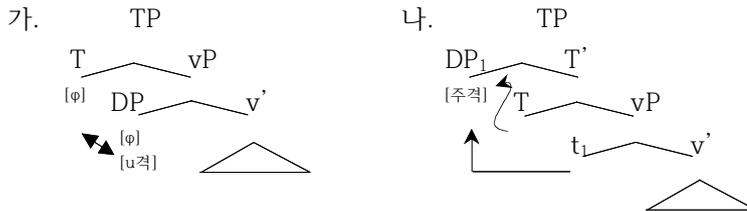
☞ 일본어의 격 표지는 관련 구성체를 표찰에 대해 비가시적이게 만드는 반-표찰 장치 (anti-labeling device)이다.

◆ Saito(2016)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Bošković(2007)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격-점검을 위한 명사구의 이동은 격-부여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사구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다. 즉 격-점검이 φ-일치의 반사물(reflex)이라는 Chomsky(2000)의 일관된 주장과는 달리 격-점검과 φ-일치는 별개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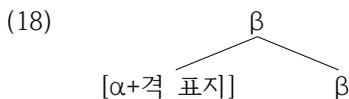
(16) Chomsky(2000)의 격-점검과 명사구 이동



(17) Bošković(2007)의 격-점검과 명사구 이동



● Saito(2016): 격 표지와 결합한 구는 결코 '투사되지' 않는다. 즉 더 큰 구성체에 표찰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격 표지(혹은 접사적 격; suffixal Case)의 역할은 어떤 구를 (표찰을 위한) 검색에 대해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 Saito(2016): 격 표지가 반-표찰 장치 역할을 한다는 가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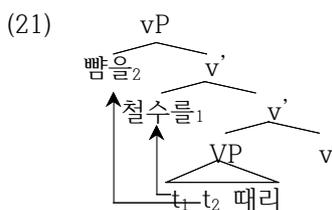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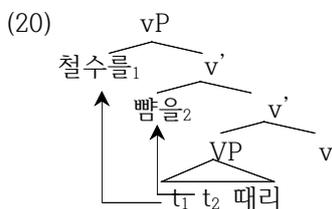
●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같은 격을 가진 요소가 여럿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주격 표지와 결합한 명사구가 TP와 병합되면 그 결과된 통사체는 (해당 명사구가 표찰 알고리즘에 비가시적이므로) 여전히 그 표찰이 TP로 유지된다. 이런 명사구가 중복되어 나타난다 하더라도 표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는 겹주어를 허용하는 것이다. 반면 영어와 같이 φ-일치에 의해 표찰이 결정되는 언어에서는 (일치가 일대일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겹주어가 허용되지 않는다.

- 격 표지가 반-표찰 장치 역할을 한다는 가설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왜 명사구의 뒤섞기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준다. 격 표지와 결합한 명사구가 뒤섞기를 겪어 어떤 구 XP와 내적 병합(internal Merge)을 겪더라도 이 명사구가 표찰 알고리즘에 비가시적이므로 해당 통사체의 표찰은 XP로 유지된다. 즉 이들 언어에서의 뒤섞기는 기존 통사체의 표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격 표지를 가진 명사구만이 뒤섞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도 포착!). 하지만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일치와 관련이 없는 이동인 뒤섞기가 일어날 경우 표찰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뒤섞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 Saito(2016)의 반-표찰 장치 접근법에 문제는 없는가?

- Bošković(2007) 분석의 문제점은 최대 투사체인 명사구가 탐침자(prob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상한 가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핵이 아닌 구가 탐침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명사구의 자질이란 곧 해당 명사구의 핵인 명사/D의 자질이니 Bošković(2017)의 논리라면 명사구가
-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도 일치 현상이 있다는 주장과 분석이 존재한다(김용하 1999, 2007, Boeckx · Niinuma 2004, Nomura 2002). 이러한 주장과 분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인가? 만일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격 점검/부여에 일치가 간여한다면 Saito(2016)의 접근법은 개연성을 잃게 된다.
- Saito(2016)의 반-표찰 장치 접근법은 끼어들기(tucking-in) 현상에 대해서 바람직한 설명을 제공할 수가 없다(cf. Richards 1999, 2000). 끼어들기 이동이 표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김용하 2017, Bošković 2016), 반-표찰 장치 접근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겹주어/겹목적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19) 가. 순희가 철수를 뺨을 때렸다.  
나. \*순희가 뺨을 철수를 때렸다.



## 5. 표찰 결정 자질로서의 격

◆ 홍용철(2017): Bošković(2007)의 분석을 받아들여 격 점검이 일치와 독립되어 있으며, 격 자질이 표찰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22)의 격표지 출현에 대한 일반화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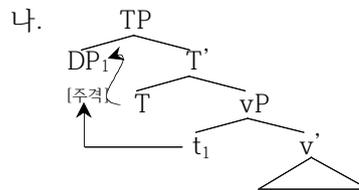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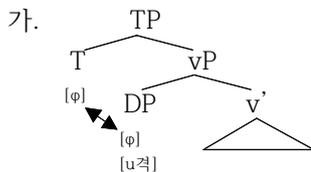
(22) 가. 격 표지는 보충어 위치에서 출현이 수의적이다.  
 나. 격 표지는 지정어 위치에서 출현이 의무적이다.

(23) 가. 철수가 책을/책 샀어.  
 나. 철수가 순희를/순희 좋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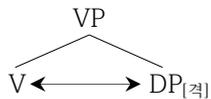
(24) 가. 누가/\*누구 책을 샀니?  
 나. 책 한 권이/\*책 한 권 세상을 바꾼다.  
 다. 어떤 사람이/\*어떤 사람 책을 샀다.

◎ Bošković(2007)에 따르면 주격의 점검/부여와 대격의 점검/부여는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주격은 주어 논항의 이동에 의해서 점검/부여되지만 대격은 목적어 논항과 동사가 제자리에 있어도 점검/부여될 수 있다. 이는 주어 논항의 경우 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격 인허자인 T를 탐침할 수 없는 반면, 목적어 논항은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격 인허자인 V를 탐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주어의 격 점검/부여 (=17)



(26) 목적어의 격 점검/부여



◆ 홍용철(2017): 격 표지 출현에 대한 일반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격 표지-격 점검 상응 가설을 세운다.

(27) 격 표지-격 점검 상응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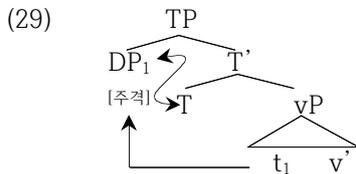
가. 격 표지는 격 점검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나. 격 점검은 반드시 격 표지를 출현시킨다.

◎ 격 표지-격 점검 상응 가설과 함께 제안될 또 다른 가정은 한국어의 경우 격 자질 공유(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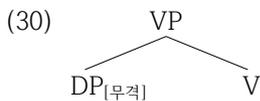
feature sharing)에 의해 표찰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phi$ -자질 공유에 의해 명칭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T가  $\phi$ -자질을 지닌다는 형태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에서는  $\phi$ -자질이 문법 운용에 관계하는 형식 자질이 아니라고 본다.

(28) 한국어는  $\phi$ -자질 공유( $\phi$ -feature sharing)가 아니라 격 자질 공유(Case feature sharing)에 의해 표찰이 결정된다.

- 격 표지가 지정어 위치에서 의무적으로 출현하는 이유는 지정어 위치에서의 병합이 최소 검색으로 핵을 찾을 수 없는 구 병합(phrasal Merge)이기 때문이다. 즉 격 점검에 의한 격 자질 공유가 아니고서는 표찰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격 표지가 보충어 위치에서 수의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보충어 위치에서 격 자질 공유에 의한 표찰 결정도 가능하고 최소 검색으로 핵을 찾는 표찰 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27나)에 의거해서 목적어 논항에 격 자질이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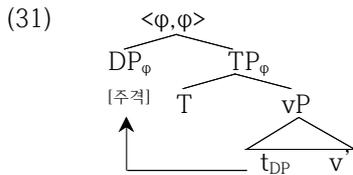


◆ 홍용철(2017) 분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격 자질이 동사와 명사구 사이에 공유된다고 설정될 수 있는 자질인가?  $\phi$ -자질은 명사의 고유한 자질이면서도 그것이 일치를 통해 동사의 형태에 표시된다. 하지만 격 자질은 동사 혹은 T의 고유한 자질도 아니고 동사에 형태적으로 표시되지도 않는다. 즉 동사 혹은 T가 명사구의 격을 매길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명사구와 격 자질을 공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 명사구에 아예 격 자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매우 이상하다. 명사/D의 격 자질은  $\phi$ -자질과 마찬가지로 명사/D의 고유한 자질로서 설정되는 것이다. (30)과 같은 형상에서 명사구에 격 자질이 있고 홍용철 자신의 가정대로 자질 공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소 검색인 표찰 알고리즘은 핵인 V를 표찰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cf. Bošković 2016). 따라서 홍용철 자신의 내적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명사구가 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상한 가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6. 격 조사는 언제 반-표찰 장치가 되는가?

- ◆ 최대 투사체인 명사구/DP가 탐침자가 될 수 있다는 Bošković(2007)의 이상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힘들다. 즉 탐침자는 항상 핵이어야 한다.
- 따라서 우리는 Bošković(2007)의 분석을 기초로 하는 Saito(2016)의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그러나 Saito(2016)의 분석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통찰이 담겨 있다. 그것은 곧 일치/점검에 의해서 격이 결정된 경우가 아닐 때 격 조사가 반-표찰 장치가 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이다.
- ◆ Chomsky(2000) 이래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표준적인 노선을 따라서 격 점검/부여가 언어-보편적으로 일치의 반사물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어에서도 격 점검/부여에 일치가 간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일치가 간여했을 경우 TP와 주어 논항의 구 병합(phrasal Merge) 결과물은 자질 공유로 표찰이 결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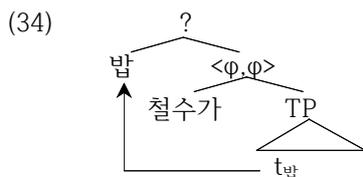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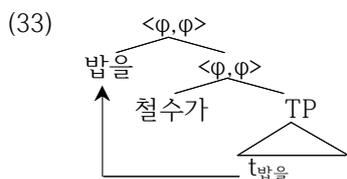


- (31)과 같이 일치에 의해서 격 점검/부여가 일어날 경우에는 격 표지, 즉 격 조사가 반-표찰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일치가 일어나기 전에는 격이 결정될 수 없고 격 표지가 실제로 어휘화되는 것은 일치 이후의 일이므로 이 가정은 부자연스럽지 않다.
- ◆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격 조사는 언제 반-표찰 장치가 되는가? 그것은 격 조사와 결합한 명사구가 일치와 관련 없는 내적/외적 병합을 했을 때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뒤섞기 현상이다.

(32) 가.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 밥을 철수가 먹었다.  
 다. \*밥 철수가 먹었다.

- (32다)에서와 같이 무표격 명사구가 뒤섞기를 겪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치와 관련 없는 내적/외적 병합에서 격 조사가 반-표찰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32나)와 (32다)의 대조를 잘 설명할 수 있다. (32나)에서는 ‘밥을’에 격 조사가 결합해 있으므로 뒤섞기로 내적 병합이 일어나더라도 표찰 결정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32다)에서는 무표격 ‘밥’이 뒤섞기를 겪었으므로 이것이 표찰 결정에 가시적인 요소가 되며, 뒤섞기가 일치와 관련

된 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 병합의 결과물인 통사체의 표찰이 정해질 수가 없다. 즉 (32다)는 표찰이 없는 통사체가 결과되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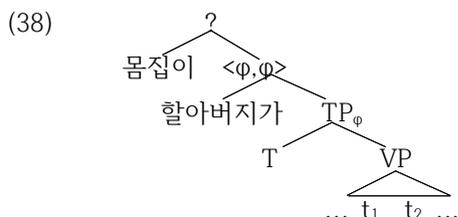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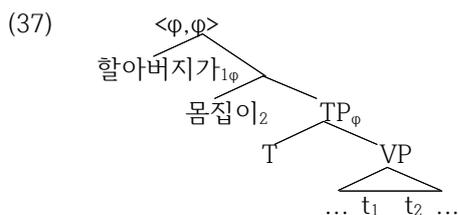


◆ Hiraiwa(2000)를 따라 겹주어/겹목적어가 겹일치(multiple Agree)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가정하자. 겹일치에 의해서 격 점검/부여가 일어나면 이동에 의한 겹주어/겹목적어 형성의 경우 반드시 끼어들기 방식의 도출이 일어나야 한다. 이는 김용하(2017)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조건 때문이다.

(35) 한 번 결정된 표찰이 재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 (36나)의 비문법성은 (35)에 의해 잘 설명된다.

(36) 가. 할아버지가 몸집이 크시다.  
나. \*몸집이 할아버지가 크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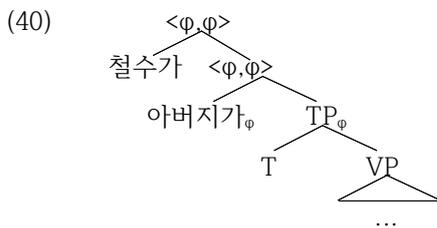


◎ (37)에서처럼 끼어넣기 방식의 이동이 일어나면 제2주어인 '몸집이'의 내적 병합이 표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38)에서처럼 전체 구조가 확장되는 방식의 내적 병합이 이루어지면 이미 '<math>\langle \phi, \phi \rangle</math>'로 결정된 표찰을 재정의해야 하고 이는 (35)의 조건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하지만 겹주어의 경우에도 일치/점검이 간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39) 철수가 아버님이 편찮으시다.

● 논리적으로도 ‘철수’는 서술어 ‘편찮-’의 논항이 될 수가 없고, 일치 관계에도 ‘철수’가 아니라 ‘아버님’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곧 제1주어인 ‘철수’의 격이 일치에 의한 점검/부여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한국어에 (39)의 ‘철수’와 같은 의사 논항의 격 인허를 위해 일치와 무관한 무상격 체계(default case system)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철수’가 반-표찰 장치와 결합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39)의 문장의 표찰은  $\langle\phi, \phi\rangle$ 로 유지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김용하(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한국문화사.
- 김용하(2017), 「표찰 알고리즘과 겹지정어」, 『현대문법연구』 94, p1-16.
- 홍용철(2017), 「명칭 결정 알고리즘과 한국어의 격 표지」, 『언어』 42, p989-1006.
- Adger, D. 2012. *A syntax of substance*. Cambridge, Mass.: MIT Press.
- Alexiadou, A. and E. Anagnostopoulou. 2001. The subject-in-situ generalization and the role of case in driving computations. *Linguistic Inquiry* 32, 193-231.
- Boeckx, C. and F. Niinuma. 2004. Conditions on agreement in Japane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2, 453-480.
- Bošković, Ž. 2007. On the locality and motivation of Move and Agree: An even more minimal theory. *Linguistic Inquiry* 38, 589-644.
- Bošković, Ž. 2016. On the timing of labeling: Deducing Comp-trace effects, the subject condition, the adjunct condition, and tucking in from labeling. *The Linguistic Review* 33, 17-66.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A. Jacobs and P. S.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184-221. Waltham, Mass.: Ginn and Company.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6.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8. On phases. In R. Freidin et al.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133-166.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 Chomsky, N. 2015.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In E. Di Domenico et al. (eds.), *Structures, strategies and beyond: Studies in honour of Adriana Belletti*, 1-16.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ollins, C. 2002. Eliminating labels. In S. D. Epstein and T. D. Seely (eds.), *Derivation, and explanation in the minimalist program*, 42-64. Oxford: Blackwell.
- Fukui, N. 1986. A theory of category projection and its appl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Hiraiwa, K. 2000. Multiple Agree and the 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 in Japanes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0, 67-80.
- Jayaseelan, K. A. 2008. Bare phrase structure and specifier-less syntax. *Biolinguistics* 2, 87-106.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Moro, A. 2000. *Dynamic antisymmetry*. Cambridge, Mass.: MIT Press.
- Nomura, M. 2002. Case and agreement in Icelandic and Japanese: Multiple case marking and multiple  $\phi$ -feature agreement.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 Park, M.-K. Towards a derivational, labeling-based approach to 'floating' numeral classifiers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7, 263-282.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N. 1999. What moves where when in which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MIT.
- Richards, N. 2000. *Movement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ito, M. 2016. (A) Case for labeling: Labeling in languages without  $\phi$ -feature agreement. *The Linguistic Review*: 129-175.
- Starke, M. 2004. On the inexistence of specifiers and the nature of heads. In Adriana Belletti (e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3: Structures and beyond*, 252-26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 ▣ 토 론

###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과 한국어 통사론”에 대한 토론문

박소영(부산대)

먼저 김용하 선생님의 토론자로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여 결례를 범하였음을 김용하 선생님을 비롯한 학회 참가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과장으로서 학교 일정(편입학 면접고사)에 불응할 수 없어 노력해 보았으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여러 우문들에 대한 김용하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하 선생님의 발표는 가장 최근 최소주의 이론 안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표찰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 소개와 더불어, 이러한 논의가 한국어 통사론 연구에 어떠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하 선생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누구보다도 깊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한국어의 격 현상과 관련하여 표찰 알고리즘이 어떠한 설명적 경제성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는 인구어와는 달리 겹주어, 겹목적어, 어순바꾸기(scrambling), 격표지 탈락(case-dropping)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로서 이러한 현상이 표찰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연구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찰 알고리즘은 최소주의 이론 안에서도 최근 제기되기 시작한 논의로서, 이러한 논의를 한국어 통사론 연구와 접목시키신 선생님의 선도적인 수고와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선생님의 연구를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크게 이론 자체에 대한 것과 한국어 통사론과 관련된 것,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 ◎ 이론(표찰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질문

1. 표찰 알고리즘의 이론적 우위성에 대하여: 우리 다수에게 익숙한 핵 계층 이론(X'-theory)에 따르면 통사구조의 표찰은 동심적으로 병합의 순간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표찰 알고리즘은 하나의 독립적인 알고리즘으로 병합 과정과는 따로 존재합니다. 물론 표찰 알고리즘을 통해 그 지위가 불분명했던 지정어의 문제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절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 해결이 아직 의심스럽습니다(소절의 지정어 명사구와 그 술어 사이에 일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전 핵 계층 이론이나 소체 구 구조 이론(bare phrase structure theory)보다도 표찰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다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표찰 알고리즘의 우위성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 표찰 알고리즘 적용의 시점에 대하여: 표찰 알고리즘은 병합 과정과는 따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찰이 결정되고 부여되는 문법 층위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병합이 이루어지는 통사부 내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병합이 이루어진 이후, 아니면 어떤 단위의(가령 국면) 병합이 이루어진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는 기존 이론과 비교해 볼 때 결과적으로 차별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만약 통사부가 아니라면 접합면(interface, 음성접합면이나 개념접합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접합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론적 함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35)의 조건은 표찰 알고리즘이 통사부 과정임을 가정해야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3. 부가어(adjunction, 부사어) 처리에 대하여: 부사어는 기존 이론에서도 지정어로 처리하는 방식, 부가어로 처리하는 방식,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사어는 지정어 명사구와는 달리 이동을 겪을 수도 없고, 어떤 파이-자질 일치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사어, 혹은 부가어가 병합되었을 때 표찰 결정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4. 표찰 결정에 참여하는 일치 자질에 대하여: 선생님의 발표문에는 표찰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주어 명사구의 파이 자질과 의문사구의 의문 자질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동을 경험한 명사구가 병합된 통사체에 대한 표찰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언어의 이동에는 명사구 이동뿐만 아니라 동사구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도(가령 히브리어나 아프리카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에서 보고된 V-fronting 현상) 있습니다. 이들 다양한 이동에 의한 내적 병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파이 자질이나 의문 자질 이외의 다른 자질들이(가령 초점 자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찰 결정에 참여하는 일치 자질로 잠재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핵 이동이 일어날 때의 표찰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이전의 LF-이동에 대하여: 이전 의문사-제자리(wh-in situ) 현상에 대해서는 약(weak) 의문 자질에 의한 LF 이동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또한 LF-이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양화사 인상과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표찰 알고리즘은 가시적인 병합 결과물에 대한 이름 짓기로 이해되는데, 이전의 LF-이동을 요구하는 다양한 현상이 이러한 표찰 알고리즘에 어떻게 수용되고 흡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한국어 통사론(격)에 대한 질문

1. 주격 조사 탈락에 대하여: Saito(2016), 홍용철(2017) 모두 목적격 조사는 탈락되면 안 되지만 주격 조사는 탈락되어서는 안 됨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한국어 주격 표지도 수의적일 수 있음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찰인 것 같습니다. 가령 ‘어제 나 밥 먹었어’, ‘나 너 사랑해’ 등 주격 조사 실현이 의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김용하(2017)의 설명대로 주어에 대해 일치 과정에 의한 표찰 결정과 격조사의 반-표찰 기능을 둘 다 인정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2. 6장의 Boskovic(2007) 가정 기각에 대하여: 명사구가 탐침자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Boskovic를 기각하셨는데, 아마도 그는 Chomsky(1995)보다 이전 Chomsky(1993) 욕구 원리(greed principle)를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가령 이동은 이동하는 요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3. (36)의 설명에 대해: (36)의 현상에 대해 (35)의 제약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35)는 이전 '할 아버지'와 '몸집'이 한 구성성분을 이루었다가 이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방식, 즉 (36나)는 PBC(타당 결속 조건, Proper Binding Condition) 위배로 설명하는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요?

4. 격조사 이외의 다른 조사, 어미 요소의 처리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구조격 조사에 대해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통사체가 확장되는 데에는 구조격 조사를 갖는 논항 명사구와의 병합뿐만 아니라, 보조사가 결합되는 명사구, 접속이나 내포에 가담하는 다양한 어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요소들이 병합되는 경우 명칭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XP와 YP의 결합으로 볼 수 있지만 격도 없고, 선택 관계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성, 가령 '여성 화장품', '화가 김철수'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명칭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길어졌네요. 선생님 시간 관계상 이 중 몇 질문에 대한 답변만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선생님과의 사석에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능적·유형론적 관점에서의 통사론 연구 방법론<sup>1)</sup>

박진호(서울대)

### < 차 례 >

1. 서론
2. 주제 발굴, 문제 착상에 있어서의 특징
3. 자료 수집, 기술(description)에 있어서의 특징
4. 설명(explanation)에 있어서의 특징

## 1. 서론

- ① 통사론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 (functional(ist) approach to syntax)
- ② 통사론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 (typological approach to syntax)

①과 ②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님.

functional, non-typological approach: Hallidayan linguistics

typological, non-functional approach: parametric approach (Ian Roberts 등)

그러나 상당수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취함.

Givón, T. (1984)

Croft, W. (1991), (2004)

Heine, B. (1997)

본 발표에서는, ①과 ②의 교집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연구 방법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주제 발굴, 문제 착상에 있어서의 특징

### 해석론적 접근법(semasiological approach)

---

\* 이 발표는 2012년 6월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사)한국언어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언어 표현(linguistic expression), 형식(form) → 의미, 기능, 개념

언어 표현, 형식에서 출발하여, 이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개념이 무엇인지, 이 형식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식의 접근법

전통문법, 구조주의 문법, 기존 한국어 문법 연구의 주된 접근법

### 표현론적 접근법(onomasiological approach)

개념, 의미, 기능 → 언어 표현, 형식

특정 개념 또는 몇몇 개념들이 이루는 개념 영역에서 출발하여, 이들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 무엇인지, 이 기능을 수행하는 형식적 장치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식의 접근법

여러 언어를 다루는 언어유형론에서는 표현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 측면, 형태·통사적 특성은 언어에 따라 차이/다양성이 크다.

따라서 형식적 측면에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인간이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개념, 언어를 통해 수행하는 기능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따라서 개념·기능의 측면에서 연구의 대상을 identify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예: 비교 구문의 유형론: 어떤 scale상에서 두 대상의 상대적 위치를 언명하는 구문을 비교 구문으로 정의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구문의 형태·통사적 특성이 세계 여러 언어에서 얼마나,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탐구

소유 구문의 유형론: “A가 B를 가지고 있다 (A has B)”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을 (술어적) 소유 구문으로 정의하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의 형태·통사적 특성이 세계 여러 언어에서 얼마나,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탐구

정보 포장(information packaging)의 유형론: 구정보, 신정보 등의 개념을 우선 정의하고, 하나의 문장 내에서 이 두 정보의 구분이 어떤 형식적 장치를 통해 드러나는지를 세계 여러 언어의 데이터를 통해 탐구.

언어유형론에서 해석론적 접근법도 가능하기는 하다.

예: 속격 표지의 유형론: 속격 표지를 우선 형식적(형태·통사적)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이 형태가 나타내는 의미(N1과 N2 사이의 의미 관계), 수행하는 기능이 세계 여러 언어에서 얼마나, 어떻게 다양한지 탐구.

연속동사구성(serial verb construction: V1 V2 구성)의 유형론

조동사 구성(auxiliary verb construction)의 유형론

형식적 측면에서 연구 대상을 한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주제의 경우에는 가능.

표현론적 접근법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한 가지 방법: 의미지도 모형(semantic map model)

서로 밀접히 관련된 몇몇 개념[etic category]들이 이루는 개념 공간(conceptual space)을 출발점으로 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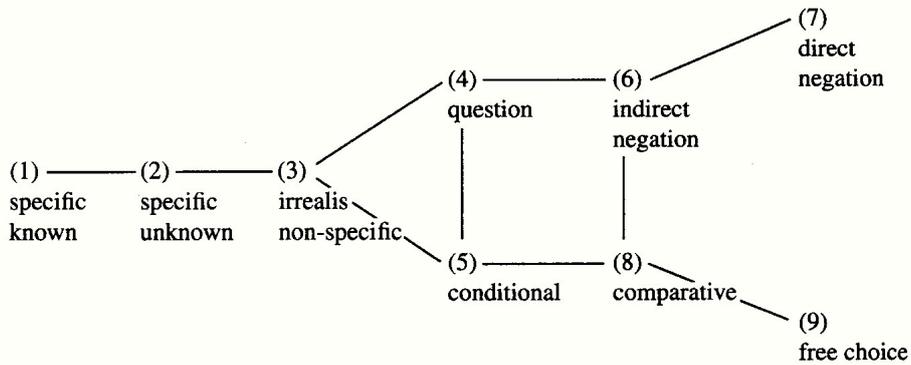
이 개념공간에 속하는 개념들을 몇몇 형식이 나타내는 방식, 개념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여러 언어에서 살펴봄. → 각 언어의 의미지도를 그림.

둘 이상의 개념을 하나의 형식이 뭉뚱그려서 나타내는 현상[semantic syncretism, emic category]에 주목.

이런 syncretism이 여러 언어에서 관찰된다면, 하나의 형식에 의해 빈번히 뭉뚱그려져 표현되는 개념들은 개념공간에서 매우 가까이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측.

이런 관찰을 축적해 가면서, 개념공간의 구조를 꾸준히 수정하고 refine해 감.

<의미 지도 모형의 적용 사례 1: 비한정 대명사(indefinite pronoun)>



<그림 1> 비한정대명사의 개념공간 (Haspelmath 1997: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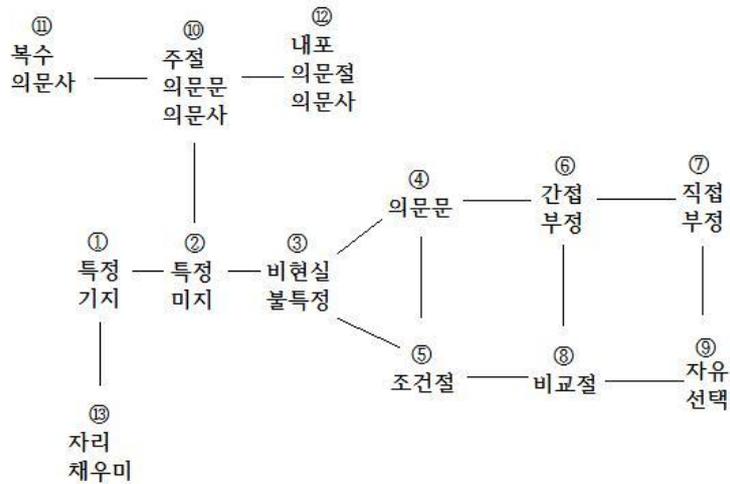
비한정대명사의 9가지 etic 범주들

- ① 특정 기지(specific known): 내가 어제 누굴/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친구 정말 밥맛 없더군.
- ② 특정 미지(specific unknown): 대문 앞에 누가/누군가 있는 모양이던데, 한번 나가 봐라.
- ③ 비현실 불특정(irrealis non-specific): 어쩐지, 거기 가면 꼭 아는 누굴/누군가를 만날 것 같더라.
- ④ 의문문(question): 거기 누구/누군가 있니? (판정 의문문)
- ⑤ 조건절(conditional): 누가/누군가 나 찾거든 나 없다고 해라.
- ⑥ 간접 부정(indirect negation): 나는 누가/누군가 여기 다녀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⑦ 직접 부정(direct negation)/부정극성(negative polarity): 우리 반 누구도/아무도 정답을 모른다.
- ⑧ 비교절(comparative):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린다.
- ⑨ 자유선택(free choice): 이런 문제는 누구나/누구든지/아무나 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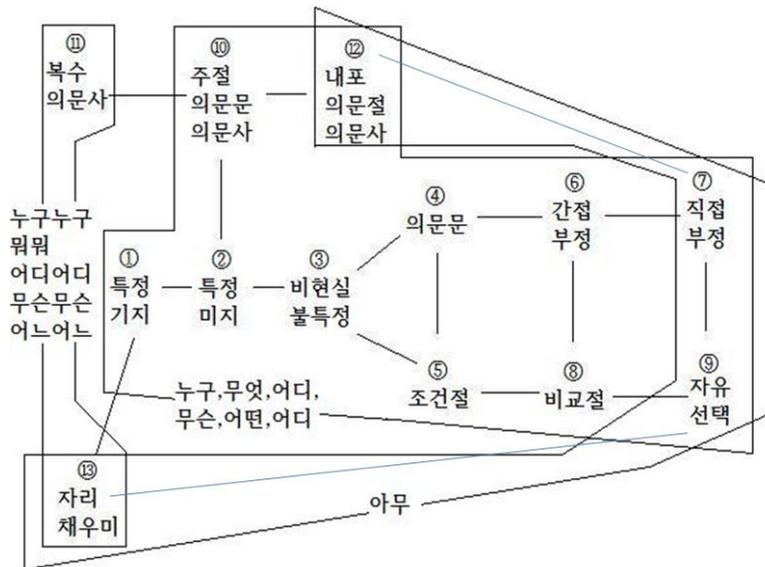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된 etic 범주들

- ⑩ 주절 의문사 의문문(WH in direct question): 너 어제 뭐 했니?
- ⑪ 복수 의문사(plural WH): 너 어제 누구누구 만났니?
- ⑫ 내포 의문절 의문사: [네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나는 모른다.
- ⑬ 자리채우미(placeholder): 보고서에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현대 한국어의 ‘아무’ 계열은 ⑦과 ⑨ 두 용법을 지니므로 ⑦과 ⑨ 사이에도 연결선이 필요하며 ‘아무아무’의 형태로 ⑬자리채우미 용법도 가능하다. 중세 한국어의 ‘아모’ 계열은 이 밖에도 ⑫내포 의문절 의문사 용법을 지녔었다.



<그림 2> 비한정대명사의 확장된 개념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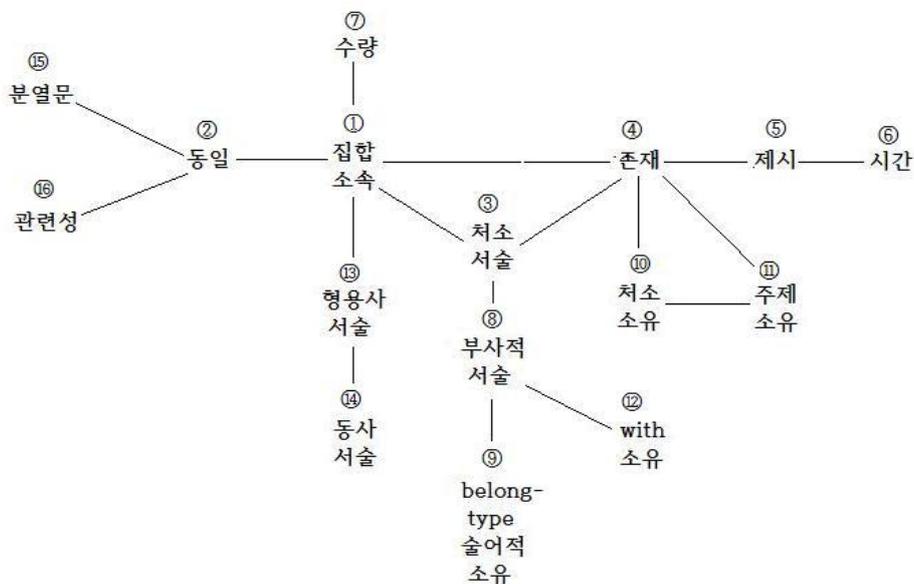
<그림 3> 비한정대명사 의미지도: 한국어

<의미 지도 모형의 적용 사례 2: 계사(copula) 및 관련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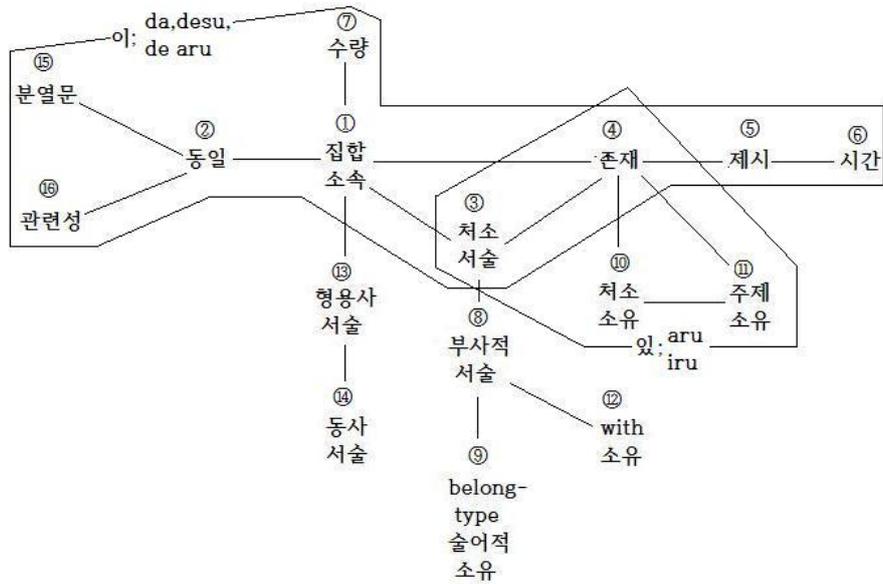
계사 및 관련 요소의 개념공간을 이루는 etic 범주들

- ① 집합소속(class membership, ascriptive): 술어가 나타내는 집합에 주어의 지시대상이 속함을 나타냄.  
예: 철수는 학생이다.
- ② 동일(identity, identificational): 주어의 지시대상과 술어 명사구의 지시대상이 동일함을 나타냄.  
예: 이 사람이 (바로) 철수이다. / 이 사람이 내 동생이다 / 내 동생은 이 사람이다
- ③ 처소서술(locational): 주어가 가리키는 한정적인 대상이 술어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냄.  
예: 너 지금 어디니? / 나 지금 동대문이야. / 나 지금 동대문에 있어.
- ④ 존재(existential): (어떤 위치에) 주어가 가리키는 비한정적인 대상이 존재함을 나타냄.  
예: 산 위엔 온통 눈이다. / 산 위에 눈이 (많이) 있다. / There is a book on the desk.
- ⑤ 제시(presentational): 계사와 결합하는 명사구의 지시대상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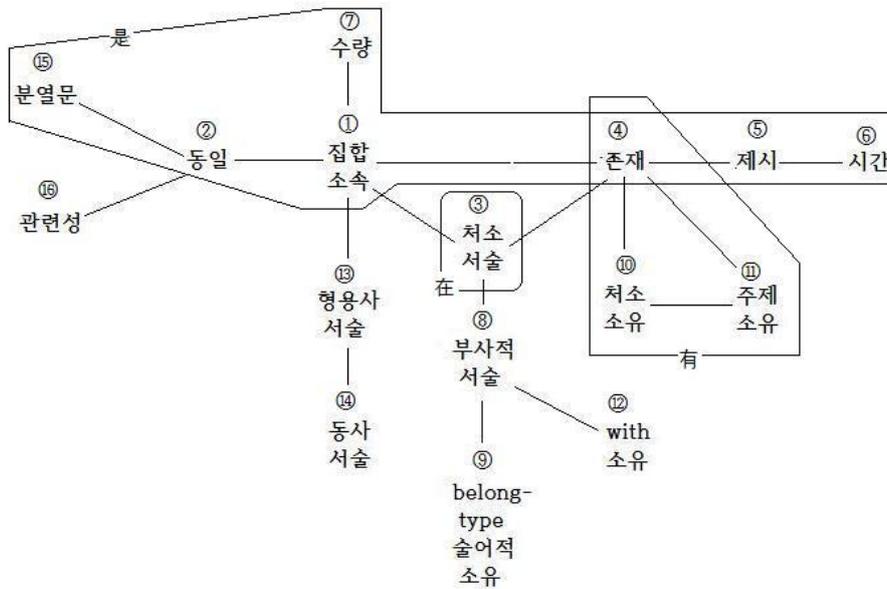
- 예: 앓, 비다. / 앓, 째새다. / 앓, 코피다. / 도둑이야. / 불이야.
- ⑥ 시간(temporal): 계사와 결합하는 시간 명사구가 가리키는 시간임을(시간이 되었음을) 나타냄.  
예: 8시다. / 아침이다. / 와, 점심시간이다. / It is eight o'clock.
- ⑦ 수량(quantificational): 주어의 지시대상의 수량이 술어가 나타내는 정도임을 나타냄.  
예: 우리 일행은 (전부/모두) 셋이다. / There are three. / 헝가리어
- ⑧ 부사적(사격, 부치사구) 서술(adverbial predication): 계사가 (처소 이외의) 부사적 성분, 사격 성분과 결합하여 술부를 형성.  
예: He is from Korea / The gift is for him
- ⑨ belong-type 술어적 소유: 주어의 한정적인 지시대상이 술부에 포함된 명사구의 지시대상의 소유임을 나타냄.  
예: 프랑스어 Ce livre est à Moi.
- ⑩ 처소소유(locational possessive): 처소성분의 지시대상이 Theme 논항의 지시대상을 소유함을 나타냄.  
예: 나에게 차가 있다.
- ⑪ 주제소유(topic possessive): 주제성분의 지시대상이 Theme 논항의 지시대상을 소유함을 나타냄.  
예: 나는 차가 있다.
- ⑫ with 소유: 주어의 지시대상이 부치사 with와 결합하는 결합한 명사구의 지시대상을 소유함을 나타냄.  
예: (Mbay) Ngon i kò kiya 'The child has a knife.'  
child is with knife
- ⑬ 형용사 서술(adjectival predication): 주어와 형용사를 연결.  
예: She is pretty.
- ⑭ 동사 서술(verbial predication): 주어와 동사를 연결.  
예: (Bambara) ne be taa 'I am leaving'  
1SG COP leave
- ⑮ 분열문(cleft sentence): 분열문에서 초점부와 전제부를 연결.  
예: 어제 철수가 만난 것은 영희이다.
- ⑯ 관련성(relatedness, illogical): 주어의 지시대상과 술어 NP의 지시대상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냄.  
예: (식당에서 각각 음식 메뉴를 정하면서) 철수는 뭐지? - 철수는 짬뽕이야.  
우리 각자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얘기해 보자. - 나는 이나영이다.  
우리 반에서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아니? - 철수는 영희고, 영수는 순자일 거야.



<그림 4> 계사 관련 개념 공간



<그림 5> 계사 관련 의미지도: 한국어, 일본어



<그림 6> 계사 관련 의미지도: 중국어

<의미 지도 모형의 적용 사례 3: Stassen (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연구 대상: 한 자리 술어(one-place predicate)의 표현 방식

- 개념 공간을 구성하는 etic 범주들:
- 사건 술어(event predicate)
- 속성 술어(property predicate)
- 부류 소속 술어(class membership predicate)

위치 술어(locational predicate)

이들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 방책(encoding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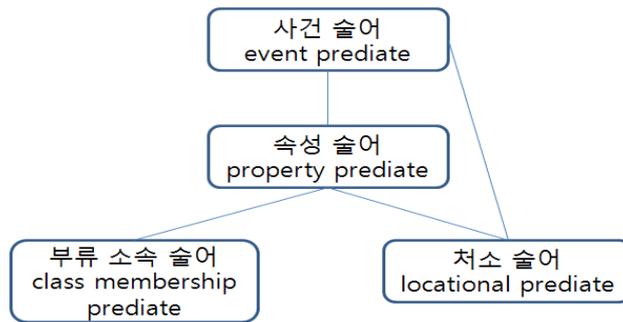
동사적 방책(verbal strategy)

명사적 방책(nominal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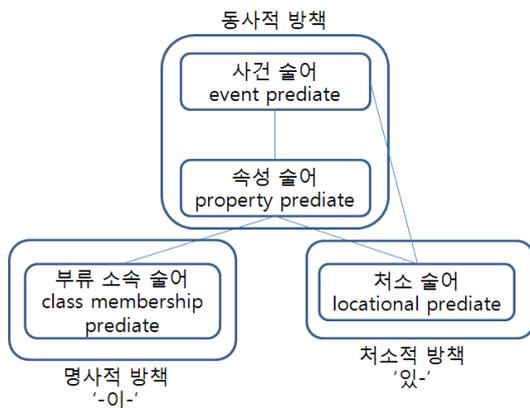
처소적 방책(locational strategy)

동사적 방책은 사건 술어에 가장 적합하고, 명사적 방책은 부류 소속 술어에 가장 적합하고, 처소적 방책은 처소 술어에 가장 적합하다. 속성 술어는 자신만을 위한 표현 방책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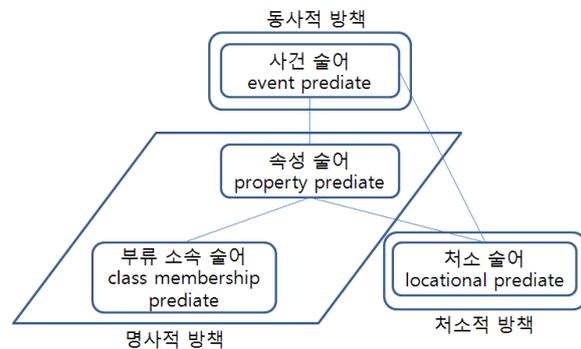
각각의 방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술어를 표현하는 데 그칠 수도 있지만, 다른 술어에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를 **전유(轉有, takeover)**라고 부른다. 즉, 본래는 남의 영역인데 거기에 침입해 들어가서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다. 속성 술어는 자신만을 위한 방책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술어를 위한 방책에 의해 전유될 운명에 처해 있다. 다시 말하면, 속성 술어 영역이라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을 놓고 세 가지 방책이 벌이는 쟁탈전이 이 책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



<그림 7> 네 가지 술어 유형이 이루는 개념 공간



<그림 8> 한 자리 술어 개념 공간에 대한 한국어 의미지도



<그림 9> 한 자리 술어 개념 공간에 대한 만주어 의미지도

범언어적(400개 이상의 언어) 조사 결과

<표 1> 개념 공간 분할 양상 통계: A-패턴

	1	2	3	4	5	6	7	8
사건술어	V	V	V	V	V	V	V	V
속성술어	V	V	V	N	L	V	V	V
부류술어	V	V	N	N	V	N	L	N
처소술어	V	L	V	V	L	N	L	L
단일옵션	10	28	2	0	0	0	4	67
교체옵션	11	25	9	2	0	32	38	122
계	21	53	11	2	0	32	42	189

(V: 동사적 방책, N: 명사적 방책, L: 처소적 방책)

<표 2> 개념 공간 분할 양상 통계: B-패턴, C-패턴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건술어	V	V	V	V	L	L	L	N	N	N
속성술어	N	N	L	L	L	L	N	L	N	N
부류술어	N	N	N	L	L	N	N	N	N	N
처소술어	N	L	L	L	L	L	L	L	L	N
단일옵션	0	12	1	9	0	0	0	0	0	0
교체옵션	99	136	47	132	8	13	0	0	5	4
계	99	148	48	141	8	13	0	0	5	4
	B-패턴				C-패턴					

A-패턴은 동사적 방책이 우세하여, 자신의 본래 영역인 사건 술어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까지 영토를 확장한 경우이다. 전영역을 완전히 석권할 수도 있으나(패턴 1), 영토 확장이 부분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류 술어는 명사적 방책이, 처소 술어는 처소적 방책이 지키고 있고, 동사적 방책이 사건 술어와 속성 술어를 차지한 8번 패턴(그림 8)이 가장 빈도가 높다.

동사적 방책이 부류 술어 영역까지 차지하려면 그에 앞서 우선 속성 술어 영역부터 차지해야 한다. 동사적 방책이 속성 술어를 건너뛰고 부류 술어 영역만 차지한 경우는 없다. 위의 <그림 7>에서 사건 술어와 속성 술어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속성 술어와 부류 술어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데 반해, 사건 술어와 부류 술어를 직접 연결하는 선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이것은 Givón(1984: 51-56)의 **시간 안정성(time stability) 스케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류 술어는 시간 안정성이 가장 높고, 사건 술어는 시간 안정성이 가장 낮고, 속성 술어는 그 중간쯤 된다. 개념 공간에서 속성 술어가 사건 술어와 부류 술어의 가운데 위치에 있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B-패턴은 동사적 방책의 힘이 그리 세지 않아서 본래 자기 영토인 사건 술어 영역만 지키고 있는 경우이고, C패턴은 동사적 방책의 힘이 매우 약하여 본래 자기 영토마저 남에게 빼앗긴 경

우이다. C-패턴은 비교적 드물다. B-패턴, C-패턴의 경우 명사적 방책과 처소적 방책 양자의 싸움으로 요약되는데, 어느 한 쪽이 상대를 압도하는 경우도 있고(9, 12, 13, 18), 양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느 한 가지 술어 유형을 하나의 방책이 온전히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방책이 분점할 수도 있다. 어떤 술어 부류에 속하는 단어들 중 일부는 A 방책으로 표현되고 다른 일부는 B 방책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분리(splitting)**라 하고, 동일한 단어가 어떤 조건에 따라 A 방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B 방책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경우는 **교체(switching)**라 한다. 이 책에서는 교체의 다양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다른 술어도 이러한 교체의 전장이 될 수 있으나, 역시 속성 술어가 가장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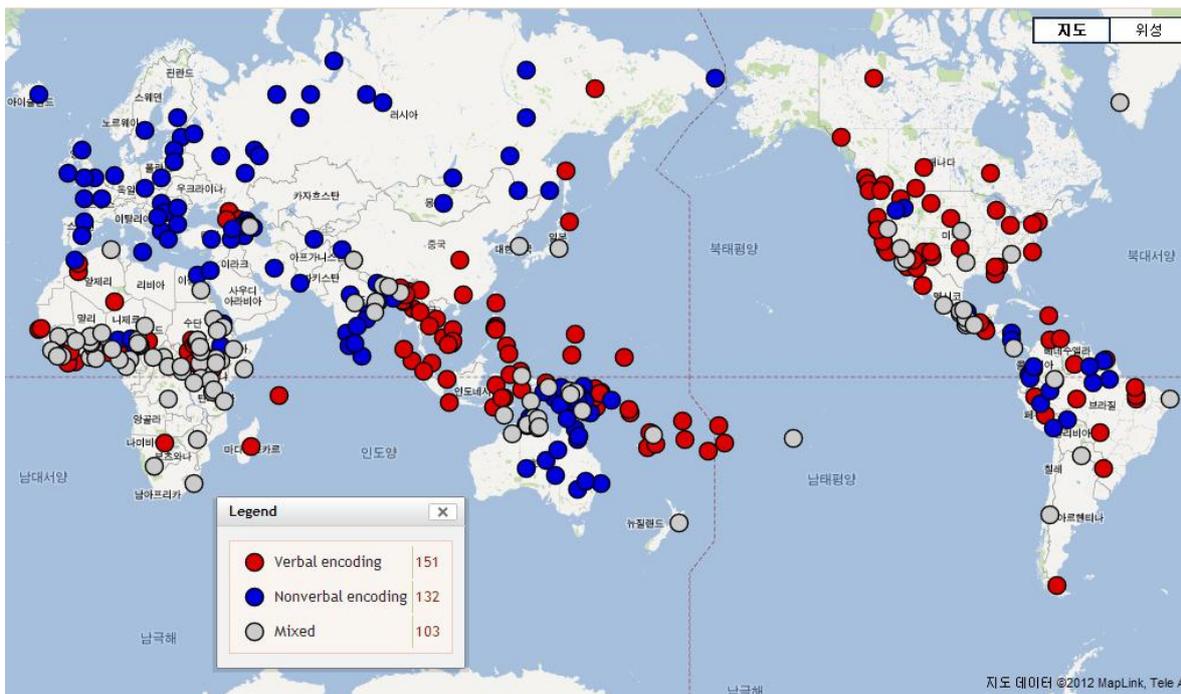
**속성 술어의 표현 방책의 교체 [adjectival switching]:**

속성 술어가 **동사적·처소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일시적인 상태(temporary state)**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명사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항구적인 속성(permanent property)**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부류 소속 술어의 표현 방책의 교체 [nominal switching]:**

속성 술어뿐 아니라 부류 소속 술어도 두 표현 방책의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 **명사적 방책으로 표현되면 항구적 본질(essence)**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처소적·동사적 방책으로 표현되면 일시성, 우연성(contingency), 일시적 직업(occupation, profession)**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속성 술어의 범언어적 표현 방식을 보면, 사건 술어와 더불어 동사적 방책에 의해 표현되는 언어와 부류 술어와 더불어 명사적 방책에 의해 표현되는 언어의 두 부류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두 부류는 흥미로운 지리적·계통적 분포를 보여 준다(그림 10).



<그림 10> 속성 술어의 표현 방식 (<http://wals.info/chapter/118>)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개 속성 술어가 명사적 방책에 의해 표현된다. 즉 **명사성 형용사(nouny adjective)**를 갖는다. 반면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극단, 중국, 동남아시아, 오스트로네시아, 북아메리카에서는 대개 속성 술어가 동사적 방책에 의해 표현된다. 즉 **동사성 형용사(verbly adjective)**를 갖는다.

Stassen은 이러한 분포상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즉 속성 술어의 표현 방식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변인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탐색의 결과 Stassen은 시제성(tensedness)을 그러한 변인으로 제시한다. 즉 시제를 갖는 언어는 명사성 형용사를 갖고, 무시제 언어는 동사성 형용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가 조사한 400여개의 언어에서 소수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상관관계가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형용사는 대개 시간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속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초시간적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실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시제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사건 술어(동사)에는 딱 제격이지만, 속성 술어(형용사)에는 안 어울린다**는 것이다. 무시제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와 같이 취급되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시제가 있는 언어에서 형용사가 동사와 같이 취급되려면 시제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제가 있는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와 결별하고 명사에 가깝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통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무시제 언어가 시제 언어로 발달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제성의 변화에 따라 형용사도 동사성 형용사로부터 명사성 형용사로 변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어는 원래 무시제 언어였고 동사성 형용사만 있었는데, 시제언어로 변화하였고 명사성 형용사 범주를 따로 갖게 되었다. 동사성 형용사는 대개 고유어이고 부류의 확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명사성 형용사는 한자어·외래어를 많이 포함하며 부류의 확장이 상대적으로 쉽다. 일본어의 이러한 통시적 변화는 Stassen의 예측에 대체로 들어맞는다.

### 3. 자료 수집, 기술(description)에 있어서의 특징

#### 3.1. 언어간 비교(cross-linguistic comparison)

##### <일반언어학의 거시적 목표와 관련하여>

언어학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보편적/일반적 특징을 구명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밝혀내고자 함.

**인간 언어의 보편적/일반적 특징은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관찰하여 귀납적 일반화를 해야만 알아낼 수 있다.**

몇몇 유럽어,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언어만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언어의 보편적/일반적 특징을 추측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개별 언어 연구의 측면>

우리가 A라는 대상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A에 대한 깊은 이해는 A만 관찰해서는 얻기 어렵다. A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것들, A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다른 것들과 비교/대조를 할 때 A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가능하면 많은 것들과 비교/대조를 하면 할수록 좋다.

한 언어만 관찰했을 때에는 얻기 어려운 통찰을, 여러 언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사례: Stassen (1985), 비교 구문의 유형론>

차등 비교 구문의 형태·통사적 encoding 방식의 유형

**fixed-case comparative:** 기준 명사구의 격이 고정되어 있음.

**exceed comparative:** [주어 exceed 기준(Obj) Adj]의 도식.

**locational comparative:** 기준 명사구가 항상 처격/향격/탈격으로 나타남.

from-comparative (separative comparative)

to-comparative (allative comparative)

at-comparative (locative comparative)

**derived-case comparative:** 기준 명사구의 격이 주어 명사구의 격을 따름.

**conjoined comparative:**

비교 대상 명사구를 포함하는 하나의 절과 기준 명사구를 포함하는 또 하나의 절이 대등접속된 꼴.

두 절의 술어가 반의관계를 이루는 경우.

두 절의 술어가 긍정-부정 관계를 이루는 경우.

**particle comparative:**

두 절이 대등접속 관계가 아니고, 기준 명사구를 포함한 절에 특수한 particle이 쓰임.

**exceed-comparative의 예**

(1) Duala (Ittmann 1939: 187)

níñ ndábò e koló búkà nine

this house it big exceed that

'This house is bigger than that.'

(2) Thai (Warotamasikkhadit 1972: 71)

kăw sŭŋ kwă kon túk kon

he tall exceed man each man

'He is taller than anyone.'

(3) 중국어 (4) 광동어

X+比+Y+A X+A+guo(过)+Y

他比我高

**from-comparative의 예**

(5) Mundari (Hoffmann 1903: 110)

sadmo-ete hati maranga-e

horse -from elephant big -3SG.PRES  
 'The elephant is bigger than the horse.'  
 (6) Uzbek (Sjoberg 1963: 142)  
 otam u odam-dan yosh  
 father.my that man -from young  
 'My father is younger than that man.'  
 (7) Estonian (Oinas 1966: 140)  
 kevad on sügis-est ilusam  
 spring is fall -from more.beautiful  
 'The spring is more beautiful than the fall.'

#### to-comparative의 예

(8) Siuslaw (Frachtenberg 1922a: 555)  
 sea his na-tc  
 he good me-to  
 'He is better than me'  
 (9) Maasai (Tucker and Mpaayi 1955: 93)  
 sapuk olkondi to lkibulekeny  
 big hartebeest to waterbuck  
 'The hartebeest is bigger than the waterbuck.'

#### at-comparative의 예

(10) Ahaggar Tuareg (Hanoteau 1896: 52)  
 kemmou tehousid foull [oult ma m]  
 you pretty.2SG.F upon sister of you  
 'You are prettier than your sister.'  
 (11) Tubu (Lukas 1953: 45)  
 sa-umma gere do mado  
 eye-his blood on red  
 'His eye is redder than blood.'

#### conjoined comparative의 예

(12) Amele (Roberts 1987: 135)  
 [jo i ben] [jo eu nag ]  
 house this big house that small  
 'This house is bigger than that house.'  
 (13) Menomini (Bloomfield 1962: 506)  
 Tata'hkes-ew nenah teh kan  
 strong -3SG I and not  
 'He is stronger than me.'  
 (lit. 'He is strong and I (am) not (strong).')  
 (14) Malay (Lewis 1968: 157)  
 kayu batu bĕrat batu  
 wood stone heavy stone

‘Stone is heavier than wood.’

kayu와 batu가 대등접속되어 문장 주제를 이루며, 그 중 하나만 서술: ‘나무 돌 (중) 돌(이) 무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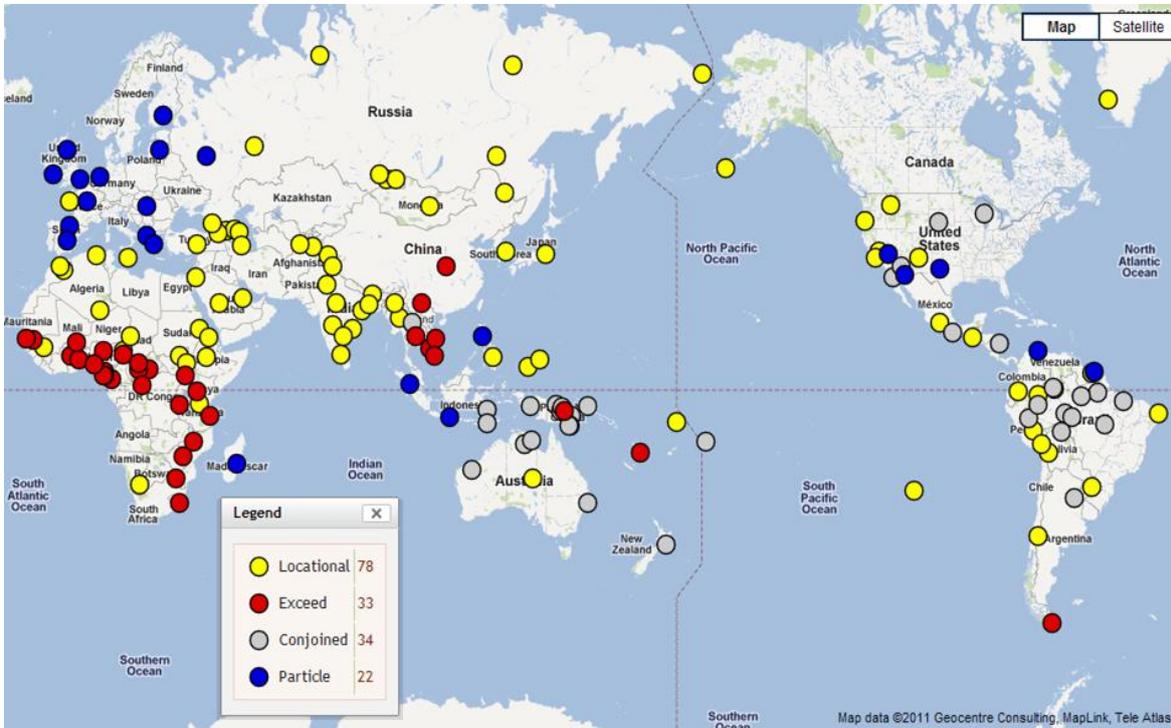
**particle comparative의 예**

(15) French (Bernard Bichakjian, p.c.)

tu es plus jolie que ta soeur  
 you are more pretty than your sister  
 ‘You are prettier than your sister.’

(16) Hungarian (Edith Moravcsik, p.c.)

István magasa-bb mint Peter  
 István.NOM tall -more than Peter.NOM  
 ‘István is taller than Peter.’



<그림 11> 4가지 비교 구문 유형의 분포

<사례 2: Stassen (2009), 서술적 소유 구성>

서술적 소유 구성의 유형

**Have-Possessive:** 소유주(주어) have(타동사) 소유물(목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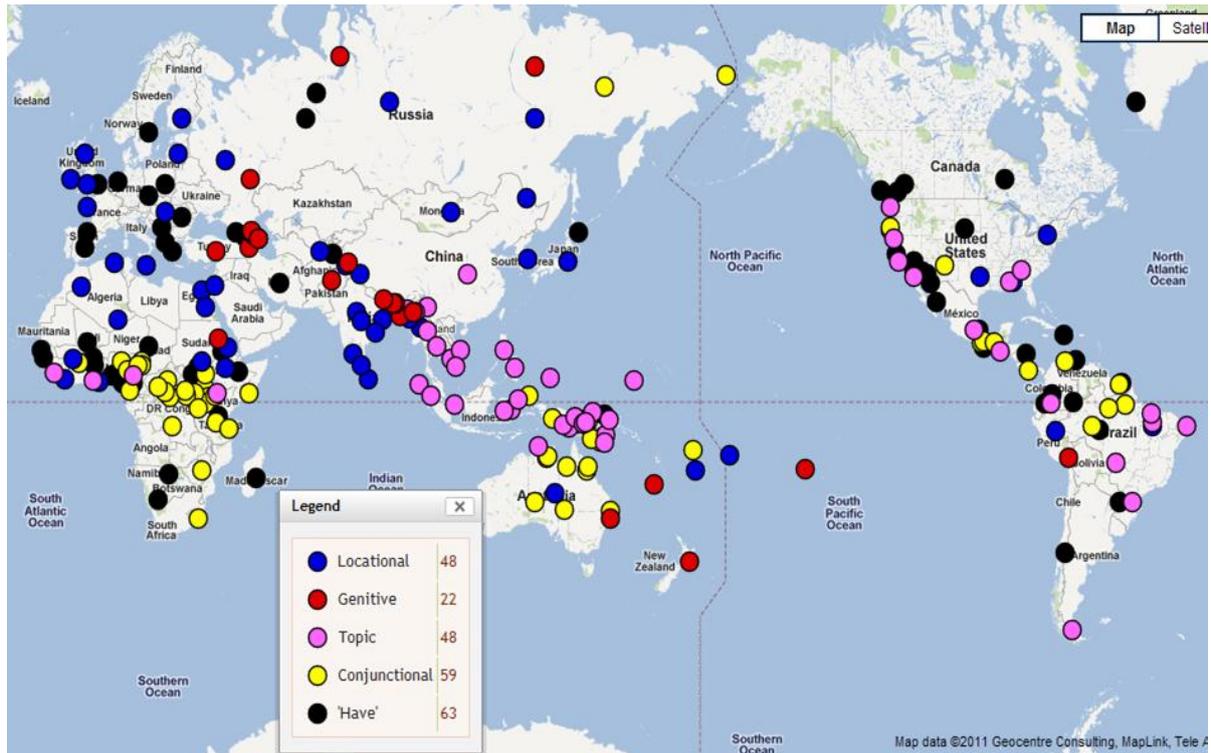
**Oblique Possessive**

**Locational Possessive:** 소유주-에게(여격/처격) 소유물(주어) 있다(존재동사)

**Genitive Possessive:** 소유주-의(속격어) 소유물(주어) 있다(존재동사)

**Topic Possessive:** 소유주-는(주제) 소유물(주어) 있다(존재동사)

**Conjunctive Possessive = with-Possessive:** 소유주(주어) 기사/존재동사 with-소유물



<그림 12> 각 서술적 소유 구성의 지리적 분포

### 3.2. 표본 추출(sampling)

전세계에 존재하는 약 6천개의 언어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의 언어만 뽑아 표본(sample)을 구성.

표본을 구성할 때, 가능한 한 계통적(genetic), 지리적(areal) 편향성(bias)이 적게끔 함.

→ 전세계 모든 언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함.

연구 주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표본의 크기, 표본 추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3.3. 보편성 발견

#### 절대적 보편성(absolute universal)

예외가 전혀 없는 보편성

예: 모든 언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언어학자의 관찰의 범위, 현존하는 언어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어떤 진술에 예외가 정말 없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음.

#### 통계적 보편성(statistical universal) / 경향성(tendency)

예외가 있기는 하나 매우 높은 확률로 참인 진술

예: 대부분의 언어의 기본어순에서, 주어가 목적어를 선행한다.

### 함의적 보편성(implicational universal)

if P, then Q

둘 이상의 속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예: 어떤 언어의 기본어순이 V-initial이면, 그 언어의 부치사는 전치사이다.

### 非함의적 보편성

하나의 속성과 관련하여, 모든/대부분의 언어가 어떠어떠하다는 식의 진술.

예: 모든/대부분의 언어에는 명사와 동사가 존재한다.

위의 2가지 분류를 조합하면 4가지 가능성이 나옴.

### 함의적 절대적 보편성

예: 어떤 언어에 음소 m이 존재한다면 음소 n도 존재한다.

### 함의적 통계적 보편성

예: 어떤 언어의 기본어순이 VO이면, 그 언어의 관계절은 head noun 뒤에 온다.

### 비함의적 절대적 보편성

예: 모든 언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존재한다.

### 비함의적 통계적 보편성

예: 대부분의 언어의 기본어순에서, 주어가 목적어를 선행한다.

### <사례: 비교 구문의 유형과 대등/강등 변수의 상관관계>

**대등(balancing) 방책:** 접속시 주절과 종속절의 술어가 대등하게 encoding됨.

**강등(deranking) 방책:** 접속시 종속절 술어가 주절 술어에 비해 강등되어 encoding됨.

조건적 강등 언어: 두 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강등 구성을, 다를 때는 대등 구성을 사용 (Wolof)

절대적 강등 언어: 두 절의 주어가 같든 다르든 항상 강등 구성을 사용 (Tamil, 한국어)

derived-case comparative를 갖는 언어는 접속에 있어서 대등적 언어이다.

conjoined comparative를 갖는 언어는 시간적 동시 구성에서 대등 구성을 사용한다.

fixed-case comparative를 갖는 언어는 접속에 있어서 강등적 언어이다.

exceed comparative를 갖는 언어는 조건적 강등 언어이다.

adverbial(locational) comparative를 갖는 언어는 절대적 강등 언어이다.

separative comparative를 갖는 언어는 선행 술어를 강등시키는 절대적 강등 언어이다.

allative comparative를 갖는 언어는 후행 술어를 강등시키는 절대적 강등 언어이다.

locative comparative를 갖는 언어는 시간적 동시 구성에서 절대적 강등을 사용한다.

### 통시적 보편성

**drift:** 계통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변화 경향

<사례: 서술적 소유 구성의 통시적 재구조화: Stassen (2009)>

3가지 자동사적 소유 구성은 통시적 재구조화를 겪을 수 있다.

관형화(adnominalization): 소유주 NP가 소유물 NP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됨.

처소 소유 구성과 주제 소유 구성에 적용됨.

소유주-에게/는 > 소유주-의

술어화(predicativization): 소유물 NP(+with)가 술어의 성격을 띠게 됨.

주로 with 소유 구성에 적용됨.

명사성 형용사 언어: 계사 변종. 소유물 NP(+with)가 계사 보어가 됨.

동사성 형용사 언어: 굴절적 변종. 소유물 NP(=with)가 직접 굴절을 하게 됨.

때로 주제 소유 구성에도 적용될 수 있음.

타동화(transitivization, have-drift): 자동사 구성이 타동사 구성이 됨.

with 소유 구성, 주제 소유 구성, 주제-처소 혼성 구성에 적용됨.

be > have

세계 도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남.

**have 소유 구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재구조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have 소유 구성은 일종의 종착점. [have-drift]

나머지 구성들은 존재 등의 다른 개념에 기대어 소유를 표현하는 것인 데 비해

have 소유 구성은 소유를 나타내기 위한 특화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have 소유 구성이 행위 도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Heine의 주장과의 차이

have-drift는 다른 개념에 기대어 표현되던 소유가 나름의 독자적인 표현 수단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3.4. 언어간 변이의 패턴(patterns of cross-linguistic variation) 발견

보편성과 변이는 동전의 양면

보편성은, 인간 언어의 가능한 변이(possible variation)의 한계(limit)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줌.

비함의적 보편성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두 유형의 언어 중 어느 하나만 존재하거나,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진술함으로써, 인간 언어의 특징을 드러냄.

예: 모음이 존재하는 언어 (○),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 (×)

함의적 보편성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네 유형의 언어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인간 언어의 특징을 드러냄.

tetrachoric table    예: 어떤 언어의 기본어순이 V-initial이면, 그 언어의 부치사는 전치사이다.

전·후치사 \ V-initial or not	V-initial (예: VSO, VOS)	non-V-initial (예: SVO, SOV)
전치사	○	○
후치사	×	○

둘 이상의 속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보다 깊은 성찰, 다른 흥미로운 발견을 낳을 수 있음.

### 3.5. 계통적(genetic), 지역적(areal) 경향성의 발견

<그림 10~12> 참조.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WALS, 2005)의 간행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http://wals.info>)

여러 변수에 대해 전지구적 범위에서의 분포와 경향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음.

### 3.6. 수용성(acceptability) 판단에 대한 입장

생성문법은, 한 언어의 all and only grammatical sentences를 생성(명시)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함. 따라서 문법성(grammaticality)/수용성(acceptability)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문법성/수용성 판단이 애매모호하거나 화자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

→ 미묘한 문법성/수용성 판단에 crucial하게 의존하는 이론적 논의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음.

코퍼스언어학, 기능주의, 유형론에서는 수용성 판단을 이분법적인 것이라기보다 정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한 언어의 언어공동체 내의 화자간 변이에도 주목하기도 함.

#### <사례: 결과 함축 강도에 대한 언어간 변이, 언어 내 화자간 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과거시제 또는 완망상(perfective aspect)으로 사용했을 때,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결과 (달성) 함축]의 강도는

언어에 따라, 동사에 따라,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어는 결과 함축이 강한 반면에, 한국어는 약하다. 따라서 목적 지향적 행위를 나타내는 선행절과 결과 취소(result cancellation)를 나타내는 후행절을 결합했을 때,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고, 영어에서는 unacceptable한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하면 한국어는 incompleteness effect를 보여 준다.

- (17) a.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도록 설득했지만, 영희는 집에 가지 않았다.  
b. #John persuaded Mary to go home, but Mary didn't go home.
- (18) a. 영희는 철수를 유혹했지만, 철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b. #Mary seduced John, but John didn't succumb.
- (19) a. 철수는 그 옷을 불 속에 던져 1시간 동안 태웠지만, 그 옷은 (不燃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타지 않았다.  
b. #I burned it, but it didn't burn.
- (20) a. 물을 10분간 끓였으나, (불이 약해서 그런지) 도통 끓지 않았다.  
b. #I boiled the water, but it didn't boil.

- (21) a. 철수는 영희를 속였지만, 영희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b. #I cheated Mary, but didn't succeed (in cheating her).
- (22) a. 나는 물과 기름을 섞었지만, 도통 섞이지를 않았다.  
 b. #I mixed oil and water, but they didn't mix.

이 현상은 perfective aspect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완성(결과의 달성)을 나타낸다는 일반적인 설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현상을 고려할 때 perfective aspect에 대한 이론을 근본부터 재고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Singh 1998).

그런데 한국어에서 결과 취소가 unacceptable한 경우도 있고, 영어에서 결과 취소가 acceptable한 경우도 있다.

- (23) a. #철수는 영희를 죽였지만, 영희는 죽지 않았다.  
 b. #John killed Mary, but Mary didn't die.
- (24) a. 철수는 영희를 초대했지만, 영희는 오지 않았다.  
 b. John invited Mary, but Mary didn't come.
- (25) a. 뜨거운 국을 냉장고에 넣어 1시간 동안 식혔지만, 아직도 식지 않았다.  
 b. John cooled the soup, but it is still not cool.
- (26) a. 젖을 옷을 1시간 동안 말렸지만, 아직도 축축하다.  
 b. I dried the dishes, but they are still wet.

(25), (26)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의 추상적 경로(abstract path)가 telic path나 atelic path냐, 이 상태 변화의 scale이 gradable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어떤 물체가 식는 상태 변화는 atelic path이다. 즉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야만 식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온도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식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gradable atelic path를 바탕으로 하는 상태 변화는 결과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과 취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어에서조차 말이다.

사동 구문 가운데에는 어휘적 사동(lexical causative), 형태적 사동(morphological causative), 우언적 사동(periphrastic causative)이 있는데, 결과 함축의 강도는 어휘적 > 형태적 > 우언적의 순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철수는 영희를 죽였다’는 영희가 죽었다는 함축을 매우 강하게 갖지만, ‘철수는 영희를 죽게 했다’는 그런 함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 함축 문제는 여러 어휘적, 형태통사적 구성 간에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Ikegami(1985), 宮島達雄(1985), 影山太郎(1996), 佐藤琢三(200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어는 한국어와 거의 비슷하다. Talmy (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와 타이어는 한국어, 일본어보다 결과 함축의 강도가 더 약하다. 이 밖에도 결과 취소가 가능한 언어, 즉 incompleteness effect를 보이는 언어들은 상당히 많다(Arunachalam, S. and A. Kothari 2011: 27).

극동 지역: 한국어, 일본어  
 알타이어(튀르크 어군)  
 Karachay-Balkar: Tatevosov (2007)  
 범-한장어군

- Mandarin: Talmy (2000), Teng (1972)  
 Thai: Koenig and Muansuwan (2000)  
 남아시아  
 인도-아리안  
 Hindi: Kothari (2008), Singh (1998), Verma (1993)  
 Punjabi: Raja (2003)  
 드라비다 어족  
 Tamil: Pederson (2007)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Tagalog: Dell (1987)  
 Malagasy: Travis (2000)  
 북아메리카  
 Salish 제어  
 St'at'imcets and Skwxw'u7mesh: Bar-el Davis and Matthewson (2005)

宮島達雄(1985)는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 예문들에 대한 수용성 판단의 통계를 내고 있다.  
 (A, B, C는 random하게 구성된 세 집단. 각 집단은 100인.)

(26) 太郎は次郎を殺したけれど、次郎は死ななかった。

Tarō-wa Jirō-o korosi-ta -keredo, Jirō-wa sin-a na -kat -ta  
 Tarō-TOP Jirō-ACC kill -PAST-but, Jirō-TOP die-CONV not-PAST-DEC  
 'Tarō killed Jirō, but Jirō didn't die.'

	○	△	×	?
A	7	18	75	-
B	7	21	72	-
C	10	19	71	-

(27) 荷物を箱に入れたけれど、はいらなかった。

nimotsu-o hako-ni ire -ta -keredo, hair-a na -kat -ta  
 luggage-ACC box-LOC insert-PAST-but, enter-CONV not-PAST-DEC  
 'I put the luggage into the box, but the box couldn't accomodate it.'

	○	△	×	?
A	26	42	32	-
B	24	49	27	-
C	22	37	41	-

(28) 木の枝を燃やしたけれど、燃えなかった。

ki -no eda -o moyasi -ta -keredo, moe na -kat -ta  
 tree-GEN branch-ACC burn(vt)-PAST-but, burn(vi) not-PAST-DEC  
 'I burned the branch, but it didn't burn.'

	○	△	×	?
A	30	48	22	-
B	30	49	21	-
C	37	32	31	-

이런 조사 결과를 하나의 수치로 집계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일본어 동사	발음	한국어, 영어 번역	점수
ころす	korosu	죽이다, kill	17.0
おとす	otosu	떨어뜨리다, drop	22.0
こわす	kowasu	부수다, break	24.0
のむ	nomu	삼키다, swallow	26.0
ぬく	nuku	뽑다, pull out	26.5
ぬる	nuru	바르다, 칠하다, paint	27.0
あける	akeru	열다, open	31.5
わかす	wakasu	끓이다, boil	34.5
ひろげる	hirogeru	넓히다, 펼치다, extend, unfold	36.0
のぼる	noboru	오르다, climb	37.0
ほる	horu	파다, dig	45.0
いれる	ireru	넣다, enter, put ~ into	45.3
うごかす	ugokasu	움직이다, move	46.0
よわめる	yowameru	약하게 하다, 줄이다, weaken	46.0
もやす	moyasu	태우다, burn	53.0
かわかす	kawakasu	말리다, dry	56.5
ひやす	hiyasu	식히다, 차게 하다, cool	66.0
おぼれる	oboreru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 drown	81.0

‘oboreru’의 경우 영어 ‘drown’이나 한국어 ‘익사하다’의 의미라기보다 “물에 빠지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 취소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kawakasu’와 ‘hiyasu’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앞서 말한 대로, gradable atelic path를 바탕으로 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佐藤琢三(2005)도 10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연스럽다	다소 자연스럽다	보통	다소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점수
korosu-sinu 죽이다-죽다	17	14	7	29	35	37.5
kiru-kireru 끓다-끓어지다	28	18	7	26	23	50.5
moyasu-moeru 태우다-타다	31	25	8	22	16	58.1

이들 연구는, acceptable-unacceptable의 2분법적인 판단 대신 화자간 수용성 판단의 변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동사간의 결과 함축 강도의 차이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언어내 화자간 변이뿐 아니라 언어간 비교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도 차이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많은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4. 설명(explanation)에 있어서의 특징

설명에 앞서, 기술 단계에서부터 형식주의자와 기능주의자는 서로 매우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형식주의자는 언어의 구조, 형식이 어떠한지에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에, 기능주의자는 그런 언어 형식, 구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인체 생물학(human biology)의 하위분야인 해부학(anatomy)과 생리학(physiology)에 비유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해부학은 인체의 구조가 어떠한지, 각 기관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관이 어디에 있고, 하위 구조들이 모여 상위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고 지탱하는지 등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반면에 생리학은 각 기관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각 하위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이 그 상위 기관의 기능 수행에 어떻게 복무하는지 등의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해부학과 생리학 중 어느 하나만 알아서는 인체를 깊이 이해한 의학자가 될 수 없듯이, 언어에 대해 깊이 아는 언어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 양면을 모두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현상이 어떠한지라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러한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 하고 싶은 것이 人之常情이다. 설명이란 이러한 why question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이 제대로 된 설명인가에 대해 언어학자들은 서로 매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 설명은 내적 설명과 외적 설명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형식주의자들은 내적 설명을, 기능주의자들은 외적 설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4.1. 내적(internal) 설명: 해당 현상이 속한 체계 내부의 요인에 입각한 설명

##### 4.1.1. 구조적(structural) 설명

해당 현상을 이루고 있는 내적 요소들 또는 해당 현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요소들이 이루는 구조에 입각해서 하는 설명.

형식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나, 유형론 연구자들도 사용함.

예 1: 물이 가득 담긴 컵에 물을 조금 더 부어도 넘치지 않는 것은, 물의 표면장력(분자들끼리 응축하여 표면적을 가능한 한 적게 하려는 힘) 때문이다.

예 2: 'John can swim'을 미래시제로 쓰고 싶어도 '\*John will can swim'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절 내에서 modal auxiliary를 둘 이상 쓸 수 없다는 구조적 제약이 영어에 있기 때문이다.

예 3: 영어에서 의문사가 문두로 이동하는 것은, 의문사가 CP-spec으로 가서 C가 지닌 자질을 (SPEC-head agreement를 통해) checking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 4: 비교 구문의 유형과 대등/강등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 존재하는 이유

Stassen (1985)는 비교 구문의 원형을 'A big, B small/not big'과 같은 원시적인 형태의 [paratactic] 접속문에서 찾고 있다. 이 접속문의 두 절의 관계가 긴밀해질 때, 대등적 방책을 사용하는 언어는 두 절의 술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derived-case comparative를 갖게 된다.

particle comparative의 경우, 두 절의 시제가 다를 수 있으나, conjoined comparative는 두 절의 시제가 같다. 즉 시간적 동시 구성에서 대등적 방책을 사용하는 언어는 conjoined comparative를 갖게 된다.

반면에 접속문에서 강등적 방책을 사용하는 언어는 뒤 절(B small/not big)에서 술어를 생략하게 되어, 단문 형식의 비교 구문이 만들어진다. 이 때 조건적 강등 언어는 SVO 어순에서 후행 술어를 강등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small/not big'을 삭제하고, 두 절을 연결시키는 장치로서 exceed를 의미하는 요소를 첨가하여 exceed comparative를 갖게 된다. 절대적 강등 언어는 SOV 어순에서 선행 술어를 강등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행 술어를 삭제하여 adverbial(locational) comparative를 갖게 된다.

예 5: 서술적 소유 구문의 유형과 대등/강등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

Stassen (2009)는 서술적 소유 구문의 원형을 'PR(소유주) exist, PE(소유물) exist'와 같은 원시적인 형태의 접속문에서 찾고 있다. 이 접속문의 두 절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질 때, 대등적 방책과 강등적 방책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다시 split 변수(계사와 존재사의 동일 여부)와 anterior 변수(앞절과 뒤절 중 어느 쪽의 술어가 강등되는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4가지 소유 구문이 도출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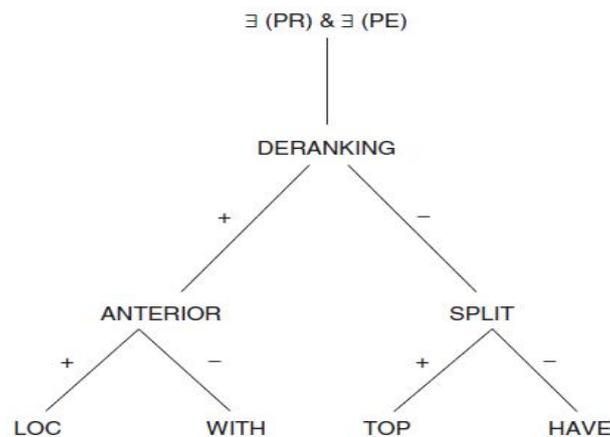


FIGURE 13.3 The flow chart of predicative possession encoding

#### 4.1.2. 언어 체계 내의 상관관계에 입각한 설명

어떤 언어 현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언어 현상을 찾아서 그에 입각하여 설명하려는 시도.

예: Stassen의 명사성-동사성 형용사 변수와 시제성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

## 4.2. 외적(external) 설명: 해당 현상이 속한 체계를 벗어나, 그 밖의 요인을 동원하는 설명

### 4.2.1. 기능적(functional) 설명, 목적론적(teleological) 설명

어떤 구성은 이리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갖는 것보다는 저런 구조를 갖는 것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저런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예 1: 사람의 눈이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눈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monitoring 하는 게 주된 역할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적절히 처리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뽑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 2: 많은 언어에서 의문사가 문두로 이동하는 것은, 의문사는 전형적인 초점 요소이고, 초점 요소를 문두와 같은 특별한 위치에 둬으로써 salient하게 하면 청자가 그 요소를 초점으로 인식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영어와 같은 일부 언어에서는 그런 동기가 문법적으로 고착화 되어 의문사가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하게 되었다.

### 4.2.2. 역사적(historical)/진화적(evolutionary) 설명

어떤 요소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요소가 과거에 겪은 역사적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1: 사람의 눈에서, 시신경 다발이 망막 뒤에 있으면 눈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더 유리할텐데, 시신경 다발이 망막 앞에 있어서 망막에 맺히는 상을 가리게 되어 있다.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먼 옛날 눈이 아직은 매우 원시적인 빛 monitoring 장치였을 시절, 뇌와 연결된 신경이 피부의 작은 구멍으로 나와 갈라져서 그 구멍 주위의 피부 여러 곳에 꽃혔는데, 이 신경이 꽃힌 부위가 안쪽으로 오목하게 말려 들어가서 망막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처럼 시신경이 피부의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피부 밑에서 피부와 연결된 동물들의 경우(예: 오징어), 눈이 발달하면서 피부가 안으로 오목하게 말려들어가 망막이 될 때, 시신경이 망막 뒤에 있게 된다.

예 2: 독일어 주절에서는 SVO 어순인데, 내포절에서는 SOV 어순을 보이는 것은 왜인가? 과거에 독일어는 전반적으로 SOV 어순이었는데, 내포절은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주절에서는 Verb-second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 3: 현대 한국어의 동사 종결형에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는 대개 '-었-'인데, 관형형에서는  $\emptyset$ 가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왜 그런가? 중세 한국어의 동사 활용에서 전반적으로  $\emptyset$ 가 과거시제를 나타냈었는데, 관형형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종결형에서는 '-었-'이라는 선어말어미가 새로 출현하여 시제 활용 체계의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4.2.3. 환원(주의)적 설명 (reductionist explanation)

상위 층위(higher level)의 현상을 하위 층위(lower level)의 요인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

#### 4.2.3.1. 언어의 인지적 기반(cognitive basis/foundation)

언어는 상당 부분 인지(cognition)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지의 속성으로 인해 언어도 그러하다는 식의 설명.

예 1: 기본어순에서 주어는 목적어보다 앞에 오는 어순이 범언어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인과 연쇄(causal chain)에서 원인이 결과보다 앞에 오는 것이 인지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는 원인, 목적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 예 2: inflation (Dahl 2001)

예 2-1: 언어 요소의 의미가 변할 때, 의미의 약화/가치하락(예: ‘너무’ excessively > very)은 매우 흔하고 그 반대의 강화/가치상승은 매우 드문데, 그것은 왜인가? 이것은 경제 현상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비유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 물가의 상승과 하락은 똑같은 확률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디플레이션은 매우 드물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언어 요소의 의미 변화에서의 인플레이션 경향이 생기는 것은,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이해의 차이에서 말미암는다. 화자는 과장해서 말하려는 경향이 있고, 청자는 그것을 예누리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예 2-2: 정도 부사의 의미 약화

화자는 오늘 자신의 힘들었던 정도가 ‘매우’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하나, 청자는 상대방의 피로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아서 ‘너무’를 “very” 정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빈번히 반복되다 보면, 아예 “very”가 ‘너무’의 sense로 정착될 수 있다.

#### 예 2-3: Aoristic Drift (Schaden 2012)

많은 언어에서 완료상(perfect aspect)이 단순 과거 시제(simple past tense; aorist)로 재분석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relevant하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발화의 뉴스 가치가 높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청자는 완료상을 사용한 발화를 듣고도, 그 발화가 나타내는 과거 사건의 현재 relevance에 별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뉴스 가치를 예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완료상 표지의 단순 과거 해석이 sense로 정착되게 되는 것이다.

#### 예 2-4: 고대 일본어의 係り結び(karari-musubi) 구문

上代(나라시대)에는 係り 성분과 그 외 성분이 어순상으로도 분명하게 구분되고, 係り 성분이 정보구조상 초점임이 비교적 분명했다. 그러나 중고기(헤이안시대)에 들어서면 係り結び가 너무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어순도 분명한 경향성을 상실하고 係り 성분이 항상 초점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 너무 흔해 빠지게 된 것은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중고기의 係り結び 구문은 그 의미가 이미 상당히 하락한 것이다(野村 2005)

예 2-5: 현대 일본어의 「ノダ」文

화자는 왜 단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ノダ」文이나 ‘-은 것이다’ 구문을 사용하는가? 자신의 발화가 표면에 드러난 상황 밑에 깔려 있는 배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奥田靖雄 1990). 또는 자신의 발화가 청자 및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높은 관련성(relevance)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名嶋義直 2007). 그러나 청자는 화자가 기대한 만큼 그 발화의 관련성/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나와 별로 관련 없는 얘기이구만, 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ノダ」文이나 ‘-은 것이다’ 구문의 표현가치는 점차 하락하게 된다. 현재 일본어의 「ノダ」文의 용법 가운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예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런 용법에 대해 「調整」(文章の調子を整える)이라고 부르는 일도 생기게 된다(井島 2012).

예 2-6: 중세 한국어의 ‘-(으)니라’ 구문

중세(이전) 한국어의 ‘-(으)니라’ 구문도 “명사화+계사”라는 형식적 측면뿐 아니라 “배후의 진실에 대한 설명”이라는 의미적 측면에서도 일본어의 「ノダ」文, 현대 한국어의 ‘-은 것이다’ 구문과 유사했었다. 그런데 ‘-(으)니라’를 너무 남용하다 보니, ‘-(으)니라’의 의미가 ‘-다’의 의미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으)니라’의 의미 희석화(beaching)에는 ‘-(으)ㄴ’이 명사화소(nominalizer)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변화도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으)니라’가 나타내던 본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나타내기 위하여 ‘-(으)ㄴ디라’ 구문을 사용하게 되었다. ‘-(으)ㄴ디라’도 “명사화+계사”라는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 ‘-(으)ㄴ’에 비해 ‘-(으)ㄴ디’가 명사절임이 더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예 3: routinization: 빈번한 연산의 저장/기억

예 3-1: 구성요소들의 특성으로부터 compositional하게 특성을 예측해 낼 수 있는 합성어(compound) 중에 어휘부에 저장(storage)/기억(memorization)되어 있는 게 많다. 연산(computation)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 많은 정보를 왜 쓸데없이 저장/기억하는가? 어떤 연산이 매우 빈번히 일어날 경우, 그 연산 결과를 아예 저장/기억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예 3-2: 이것은 언어뿐 아니라 인지 전반에서 일어난다.[routinization]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것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지만, 컴퓨터나 2진수에 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한 교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2의 10제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값을 외워

두는 것이 더 편하다.

예 3-3: 이렇게 빈번한 연산을 아예 저장해 버리는 경향은 언어에서도 다방면에서 매우 잘 일어난다. ‘since’는 “~한 이후로”라는 시간적 선후관계의 의미만 있었는데, 두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언명할 때에는 그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화용론적 함축을 지니는 일이 흔히 있었다. 이 인과관계 함축은 대화의 원리로부터 연산에 의해 도출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워낙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아예 관습화되어 ‘since’의 sense가 되었다 (Traugott 1988).

예 3-4: 이렇게 언어요소가 맥락 정보를 흡수하는 일은 흔하다. ‘주책’, ‘짜가지’ 등은 본래 그 자체로서는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부정 표현 ‘없-’과 매우 빈번히 공기하다 보니, 부정적 의미를 흡수하여 ‘없-’과 결합하지 않고도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시치미’도 본래는 “매의 주인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뜻이었으나, 그 의미로는 거의 안 쓰이게 되었고 ‘시치미를 떼-’라는 속어 속에서 주로 쓰이다 보니 그 속어의 의미가 ‘시치미’에 쏠려서 ‘시치미’ 혼자서도 ‘시치미를 떼-’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시치미’가 자신을 포함한 속어 전체의 의미를 흡수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예 3-5: ‘생각하-’류의 동사는 본래 Experiencer와 Content의 두 논항을 필요로 하는 두자리 술어였으나(예: 철수는 영희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Content 논항(내용절) 내의 주어가 주절 목적어로 인상되어 쓰이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예: 철수는 영희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내포절 주어가 특정적(specific), 한정적(definite)일 때는 특히 인상이 잘 일어났다. 이 인상은 통사적 operation이었고 ‘생각하-’의 lexical entry에는 두자리 술어로서의 용법(논항 구조)만 등재되어 있었으나, subject-to-object raising이 워낙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그러한 인상 operation의 결과 구성 자체를 ‘생각하-’의 lexical entry 속에 또 하나의 논항 구조로 저장해 놓는 것이 더 싸게 먹히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하-’는 두자리 술어 용법과 세자리 술어 용법을 관습화된 용법으로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 4: 소유 구문의 인지적 기반 (Heine 1997)

근원 도식	공식	소유주	소유물	예
행위 도식	X가 Y를 취한다	주어	목적어	a
처소 도식	Y가 X에(at) 있다	처소 보어	주어	b
목표점 도식	Y가 X에게(for/to) 있다	여격 부가어	주어	c
속격 도식	X의 Y가 있다	속격 수식어	주어	d
동반 도식	X is with Y	주어	동반 부가어	e
주제 도식	X는 Y가 있다	주제, 주어	주어	f

<그림 14> have-type 술어적 소유 구성의 근원 도식

각 인지적 도식의 발현 사례

(29) Waata (East Cushitic, Afro-Asiatic)	행위(Action) 도식
ani min qaw-a I house seize 'I have a house' (Lit.: 'I seize a house')	
(30) Manding (Mande, Niger-Congo)	처소(Location) 도식
wari bε a fε` money be.at his place 'He has money (i.e. he is rich)' (Lit.: 'There is money at his place')	
(31) Ik (Kuliak, Nilo-Saharan)	목표점(Goal) 도식
ia hoa n' ci-ke exist house me-dat 'I have a house' (Lit.: 'There is a house to/for me')	
(32) Gabu (Ubangi, Niger-Congo)	속격(Genitive) 도식
aduturu dii lo mbi dog my is there 'I have a dog' (Lit.: 'My dog exists')	
(33) Swahili (Bantu, Niger-Congo)	동반(Companion) 도식
Hadija a-ta-kuwa na paka Hadija 3:sg-fut-be com cat 'Hadija will have a cat' (Lit.: 'Hadija will be with a cat')	
(34) Lango (Western Nilotic, Nilo-Saharan)	주제(Topic) 도식
okelo gwok'kε'rε` pe Okelo dog.his 3.neg.exist 'Okelo doesn't have a dog' (Lit.: '(As for) Okelo, his dog doesn't exist')	

소유가 다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표현되는 이유

소유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훔친 사과와 합법적으로 소유된 사과를 지각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에 비하면,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물체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물이 함께 있는지 등은 훨씬 알기 쉽다.

따라서 행위, 처소, 동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소유의 개념을 이해한다.

즉, 내가 손에 쥔 물체, 흔히 내가 있는 곳에 있는 물체는 나의 소유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 점차 소유 표현으로 관습화될 수 있다.

4.2.3.2. 언어의 생리적(physiological), 신경적(neural) 기반(basis/foundation)

인간의 인지는 신경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지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신경 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 1: 세계 많은 언어의 색채어 체계를 조사한 결과, White, Black, Red, Yellow, Blue(,

Green)의 5~6가지 색채가 기본을 이루는 일이 가장 흔하다. 가장 원시적인 W, Bk의 2원 체계로부터 R, Y, Bu, G의 순서로 기본 색채어가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토록 많은 언어에서 이렇게 색채어 체계의 보편성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눈의 망막에 있는 시신경[cone]에 긴 파장에 민감한 것(L), 중간 파장에 민감한 것(M), 짧은 파장에 민감한 것(S)의 세 종류가 있고, 이 셋이 각각 대략 R, G, Bu에 대응되며(trichromatic theory or Young-Helmholtz theory), 시각 정보 처리의 좀 더 뒤 단계에서는 red vs. green, blue vs. yellow, black vs. white의 세 쌍의 대립의 측면에서 색채가 처리되기 때문이다(opponent process theory).

## 예 2: 일시성 대 항구성

앞서 언급했듯이, Stassen (1997)에 따르면 세계 많은 언어에서 일시성 대 항구성의 의미 대립을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성-항구성의 대립은 일찍이 러시아의 Bulygina, 일본의 奥田靖雄(Okuda Yasuo) 등의 주목을 받은 바 있고, 최근 工藤真由美(Kudō Mayumi) (2012)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박진호(2006)도 Stassen의 이 논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속성 술어의 동사적 표현 대 명사적 표현 [adjectival V-N-switching]

- (35) Maori (Austronesian, Pohnesian)
- |   |             |
|---|-------------|
| a. Ka pai te whare nei<br>INCEP good ART house this<br>'This house is good' | 동사적 표현: 일시성 |
| b. He pai te koorero<br>ART.INDEF good ART talk<br>'The talk is good'       | 명사적 표현: 항구성 |
- (36) Luo (Nilo-Saharan, West Nilotic)
- |  |             |
|--|-------------|
| a. À -bê'r<br>1SG-good.NONPERF<br>'I am good'        | 동사적 표현: 일시성 |
| b. Án má -bê'r<br>1SG.EMPH NOMNL-good<br>'I am good' | 명사적 표현: 항구성 |
- (37) Ngiyambaa (Australian, Pama-Nyungan)
- |   |             |
|---|-------------|
| a. Birai -ya -na<br>hungry-PRES-3SG.ABS<br>'He is hungry'                   | 동사적 표현: 일시성 |
| b. Bura:y wara:y ga -ra<br>child.ABS bad.ABS COP-PRES<br>'The child is bad' | 명사적 표현: 항구성 |
- (38) Rama (Chibchan)
- |  |             |
|--|-------------|
| a. Nsut tiiskiba-dut s-angaling-i<br>1PL child -PL 1PL-hungry-PRES | 동사적 표현: 일시성 |
|--|-------------|





- 'The man is (being) good'
- (50) Northern Basque (isolate)
- a. Zakurr-a beltz-a da 명사적 표현: 항구성  
dog -ABS.SG black-ABS.SG 3SG.ABS.PRES.be  
'The dog is black'
- b. Gizon-a da on -ik 처소적 표현: 일시성  
man -ABS.SG 3SG.ABS.PRES.be good-PART.SG  
'The man is good (temporarily)'
- c. Kontent-ik duzu 처소적 표현: 일시성  
glad -PART.SG 3SG.PRES.be  
'He is glad'
- (51) Shoshone (Uto-Aztecan, Numic)
- a. So'oppütü angkapitü satümmü 명사적 표현: 항구성  
many red those  
'A lot of them are red'
- b. Paküünappüh angkapi naa-kka 처소적 표현: 일시성  
cloud red be -STAT  
'The clouds are red (at sunset: not permanently)'
- (52) Luganda (Niger-Kordofanian, North-East Bantu)
- a. Ekitabò kino ki -rungi 명사적 표현: 항구성  
book this CLASS-good  
'This book is good'
- b. Ebitooke bi -ri bu -lungi 처소적 표현: 일시성  
plantains 3PL.PRES-be CONC-good  
'Plantains are in a good condition'

부류 소속 술어의 표현 방식의 교체 [nominal switching]

명사적 표현 대 처소적 표현 [nominal N-L-switching]

- (53) Old Irish (Indo-European, Celtic)
- a. Is llaig é 명사적 표현: 본질  
COP doctor he  
'He is a doctor'
- b. Ta sé 'na llaig 처소적 표현: 일시성  
be.PRES he in-his doctor  
'He is a doctor (He is working as a doctor now)'
- (54) Modern Irish (Indo-European, Celtic)
- a. Is múinteoir é 명사적 표현: 본질  
COP teacher he  
'He is a teacher'
- b. Tá sé ina mmúinteoir anois 처소적 표현: 일시성  
be.PRES he in-his teacher now  
'He is a teacher now'
- (55) Scottish Gaelic (Indo-European, Celtic)

- a. Is duine làidir e 명사적 표현: 본질  
COP man strong he  
'He is a strong man'
- b. Tha e 'na thuathanach 처소적 표현: 일시성  
be.PRES he in-his farmer  
'He is a farmer'
- (56) Spanish (Indo-European, Romance)
- a. Julia es enfermera 명사적 표현: 본질  
Julia COP.3SG.PRES nurse  
'Julia is a nurse'
- b. Julia está de enfermera 처소적 표현: 일시성  
Julia be.3SG.PRES PREP nurse  
'Julia works as a nurse'
- (57) Maltese (Afro-Asiatic, Semitic)
- a. Pietru (hu) l -eżaminatur 명사적 표현: 본질  
Pietru (3SG.MASC) ART-examiner  
'Pietru is the examiner'
- b. Pietru qiegħed l -eżaminatur 처소적 표현: 일시성  
Pietru be.PRES.3SG.MASC ART-examiner  
'Pietru is temporarily the examiner'
- (58) Tamil (Dravidian)
- a. Avaru (oru) ḍakṭar 명사적 표현: 본질  
he (one) doctor  
'He is a doctor'
- b. Ippo oru ḍakṭar-aa taan irukkaraaru 처소적 표현: 일시성  
now one doctor-ADV EMPH be.3SG.HON.PRES  
'Now he is a doctor'
- (59) Finnish (Uralic, Balto-Finnic)
- a. Ystävä-ni on pappi 명사적 표현: 본질  
friend-my be.3SG.PRES vicar.NOM  
'My friend is a vicar'
- b. Hän oli siellä opettaja-na 처소적 표현: 일시성  
he be.3SG.PAST there teacher-ESS  
'He was a teacher there / he worked there as a teacher'
- (60) Lithuanian (Indo-European, Baltic)
- a. Jis yrà mokytojas 명사적 표현: 본질  
he is teacher.NOM.SG  
'He is a teacher'
- b. Jis būvo mokytoju 처소적 표현: 일시성  
he was teacher.INSTR.SG  
'He was (working as) a teacher'

동사적 표현 대 명사적 표현 [nominal V-N-switching]

- (61) Tongan (Austronesian, Polynesian)

- |   |                                      |
|---|--------------------------------------|
| <p>a. Ko ha tu'i ia<br/>FM INDEF.ART king 3SG.EMPH<br/>'He is a king'</p> <p>b. 'Okú ne tu'i<br/>PRES 3SG king<br/>'He is a (possibly temporary) king'</p>                    | <p>명사적 표현: 본질</p> <p>동사적 표현: 일시성</p> |
| (62) Mundari (Austro-Asiatic, Munda)  |                                      |
| <p>a. Neko dasi tan-a -ko<br/>3PL servant COP-INDIC-3PL<br/>'They are servants'</p> <p>b. Dasi -akan-a -ko<br/>servant-PERF-INDIC-3PL<br/>'They are (acting as) servants'</p> | <p>명사적 표현: 본질</p> <p>동사적 표현: 일시성</p> |

일시성 대 항구성의 대립을 문법적으로 구별하여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인 것은, 인간의 기억 체계가 **episodic memory**와 **semantic memory**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Dahl 2012).

**semantic memory:** 초시간적, 일반적 지식

예: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푸틴은 러시아인이다, 트럼프는 미국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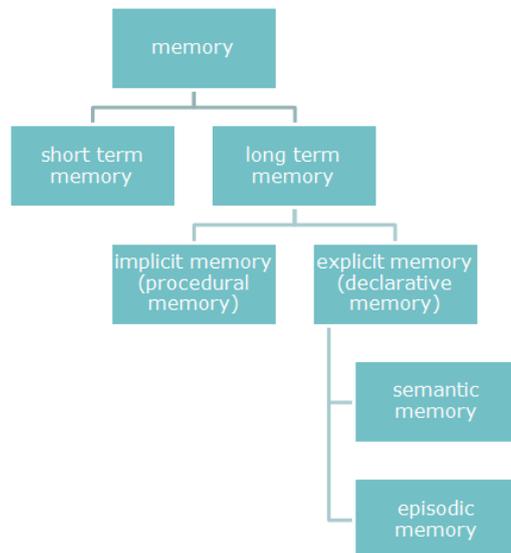
**episodic memory:** 시간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지식

예: 사흘 전에 한국에서 택시 파업이 있었다, 어제 철수가 나를 찾아왔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비교적 나중에 발달한 기억.

뇌에서 해마(hippocampus)가 episodic memory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함.

즉, 일시성 대 항구성의 언어적 대립은 episodic memory와 semantic memory의 구분이라는 신경적, 인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5> 인간 기억의 구조 (Dahl 2012)

예 3: 오늘 과거(hordiernal past) 대 오늘 이전 과거(pre-hordiernal past) (Dahl 2012)

과거시제가 더 세분되어 있는 체계 [remoteness distinction]

주관적 체계: 먼 과거/원격과거(remote past) 대 가까운 과거/근접과거(recent past)

객관적 체계: 논리적으로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 과거(hordiernal past) 대 오늘 이전 과거(pre-hordiernal past)로 양분하는 것이 일반적

예: 프랑스어 avoir+PP가 perfect로부터 past perfective로 변하는 과도기(18세기)에 잠시 오늘 과거 용법을 가졌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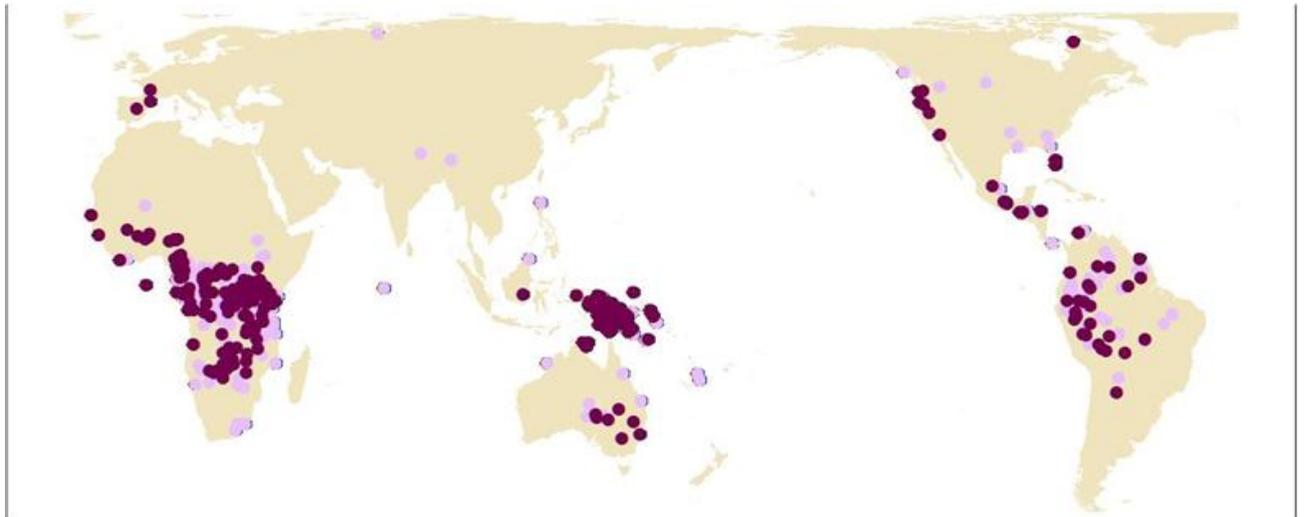
주관적 체계와 객관적 체계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어제 과거(hesternal past)가 따로 존재하는 언어도 있는데

이들 경우에도 hordiernality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ahl의 조사에 따르면 remoteness distinction을 갖는 약 450개 언어 가운데

hordiernality distinction을 갖는 언어가 283개



<그림 16> 진한 보라색: hordiernality distinction을 갖는 언어  
연한 보라색: remoteness distinction을 갖는 기타 언어

hordiernality가 그토록 pervasive한 이유는? 답: consolidation이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

**consolidation**: episodic memory에 들어 있는 정보 중 중요한 일부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게 하는 작용

주로 잠잘 때, 해마와 신피질(neocortex)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남.

consolidate된 정보는 오늘 이전 과거로, 아직 consolidate되지 않은 정보는 오늘 과거로 표시 되는 것.

### 4.3. 설명의 한계

어떤 언어학자들은 모든 언어 현상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인지언어학에서 특히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모든 언어 현상에 대해 동기(motivation)를 찾으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 및 인간 현상 중에는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다. 한국어에서 [namu]라는 음성연쇄가 왜 “나무”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애초에 약속을 그렇게 정해 놓아서 그렇다는 답 외에는 그럴싸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어떤 현상은 애초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차츰 그 동기를 망각하게 되어, 공식적으로는 그 현상을 애초의 동기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혼식 폐백 때 의례적으로 대추나 밤을 던지는데, 애초에는 자손번영, 장수, 부귀, 다산 등을 기원한다는 동기가 있었겠으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동기를 잊은 채 그냥 그 행위를 한다. Naver 지식iN이나 Daum 지식 같은 데에 ‘폐백할 때 대추나 밤을 던지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이 올라 있는 것은,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그 동기를 잊어버렸다는 반증이다. 이런 경우 ‘왜?’라는 질문에 ‘저도 이유/동기는 잘 몰라요. 그냥 관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깐 저도 그러는 거예요.’라고 답하는 도리밖에 없다.

영어의 의문사 이동도 이와 비슷한 듯하다. 애초에는 초점 요소를 문두로 보내 salient하게 함으로써 청자가 초점 요소를 쉽게 identify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동기가 있었겠으나, 현재 영어 화자들이 의문사 이동을 할 때 그런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의문사가 둘 이상 포함된 문장에서 이들 의문사 모두가 초점이나, 그 중 하나만 문두로 갈 수 있다. 초점 요소를 salient하게 한다는 애초의 동기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모든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야 할 것이다.

속담이나 속어 같은 관용표현도 대개 애초에 동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동기를 잊고 있는 것이 많다. ‘시치미를 떼-’가 “어떤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다”를 의미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발표자는 외국인 친구로부터 ‘김치국 마시-’가 “어떤 바라는 일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는데 마치 성사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다”를 의미하는 이유를 묻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답이 금방 생각나지 않아 일단 전화를 끊고서 잠시 생각해 보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에서 유래한 속어임이 생각났다. 이렇게 속담의 일부를 따서 속어로 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다. 이 속담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이유/동기를 이해하자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떡을 먹을 때 목이 메지 않도록 김치국을 함께 마시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떡 먹을 때 물이나 콜라를 함께 마시는 일은 있어도 김치국을 함께 마시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은 이 속담이나 속어가 의미하는 바는 알지만 그 동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왜?’라는 질문에 ‘그냥 관습/관행이니까.’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애초의 동기와 현재 살아 있는 동기를 구분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언어학자는 이 구분에 대해 항상 예민해야 한다. 일부 인지언어학자들은 이 구분에 둔감하여, 과거 한때 작용했으나 이미 죽은 지 오래 된 동기까지도 현재 살아 있는 양 말하는 일이 흔히 있다. 동기를 찾으려는, 설명을 하려는 지나친 집착은 경계해야 한다.

형식주의 언어학자들에게서는 그 반대의 편향을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관점에서 현재 살아 있

는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기능적 설명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애초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이 많다. 언어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자의성(arbitrariness)은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동기를 찾고 외적인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이슈는 진화생물학에서의 adaptationist와 exaptationist 사이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단순 무식한 vulgar Darwinist는 모든 생물 현상을 적응(adaptation)[주어진 환경에서 생명체의 생존 및 번식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지닌 구조의 발달]으로 설명하려는 강박증을 보인다. 이에 대해 Stephen Jay Gould 같은 exaptationist는 그런 시도를 비웃으며, 적응으로 볼 수 없는 생명 현상이 부지기수로 많음을 지적한다. 이상적인 중용의 태도는 이 둘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생명 현상 가운데에는 적응인 것이 물론 많고, 이것이 진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일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동기와 다른 엉뚱한 기능을 나중에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genetic drift도 존재할 것이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후두가 하강한 원인을, 예전에는 적응의 관점에서 언어 능력과 연관지어려는 사고방식이 많이 있었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사할 위험을 증대시키면서까지 후두가 하강한 데에는, 그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득이 바로 다양한 발음 가능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언어능력의 발달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후두 하강이 다른 동물에서도 일어났으며, 후두 하강의 일반적인 기능은 보다 낮은 소리를 냄으로써 실제에 비해 몸집이 큰 것처럼 적에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대두되었다(Fitch). 즉 후두 하강이 애초부터 언어 능력을 위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애초에는 다른 기능을 위해 복무하다가 나중에 언어 능력과도 관련을 맺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형식주의자 radical exaptationist	중도파	radical cognitivist radical adaptationist
동기에 무관심. 또는 동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	일부 현상은 동기를 찾을 수 있고 동기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 일부 현상은 애초에 존재했던 동기가 희석화되었다고 생각.	모든 현상에 대해 동기를 찾으려는 강박관념을 지님.

■ 참고 문헌

박진호(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연구』 17, 223-239.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115-147.  
 박진호(2009), 계사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 한국 언어유형론 연구회 창립 기념 연구발표회 발표 논문, 77-87.  
 박진호(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

- 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 박진호(2012a),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459-519.
- 박진호(2012b), <북리뷰>: 슈타센(Stassen, L.) (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형태론』 14-1, 135-152.
- 박진호(2013), 日本語の「ノダ」文と韓国語の「-은 것이다」構文, 日本 東京大學 KOREA COLLOQUIUM 발표 논문.
- 순효신, 심지영, 백정민, 이의종, 박진호(2012), 동사의 결과 함축에 대한 대조연구, 『관악어문연구』 3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井島正博(Ijima Masahiro) (2012), 文末ノダ文の構造と機能, 東京大学 国語国文学会 『国語と国文学』 89(11), 101-113.
- 奥田靖雄(Okuda Yasuo) (1990), 説明 ( その 1 ), 言語学研究会 編 『ことばの科学 4』, むぎ書房.
- 影山太郎(Kageyama Tarō) (1996), 『動詞意味論』, 東京: くろしお出版.
- 工藤真由美(Kudō Mayumi) (2012), 時間的限定性について, 『일본연구』 51, 7-26,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佐藤琢三(Satō Takuzō) (2005), 『自動詞文と他動詞文の意味論』, 東京: 笠間書院.
- 名嶋義直(Najima Yoshinao) (2007), 『ノダの意味・機能: 関連性理論の観点から』, くろしお出版.
- 野村剛史(Nomura Takashi) (2005), 中古係り結びの変容, 東京大学 国語国文学会 『国語と国文学』 82(11), 36-46.
- 野村剛史(Nomura Takashi) (2012), ノダ文の文法記述, 東京大学 国語国文学会 『国語と国文学』 89-11.
- 宮島達雄(Miyajima Tatsuo) (1985), 「ドアをあけたが、あかなかった」: 動詞の意味における結果性, 『計量国語学』 14-8.
- Arunachalam, S. and A. Kothari (2011), Hindi and English perfectives, *Journal of South Asian Linguistics* 4-1, 27-42.
- Croft, W. (1991),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 (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ahl, Ö. (2001), Inflationary effects in language and elsewhere, In J. Bybee and P. Hopper (eds.),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471-480.
- Dahl, Ö. (2012), The structure of human memory and tense-aspect-mood-evidentiality (TAME), 서울대 언어연구소 워크숍 발표 자료.
- Heine, B. (1997), *Possession: Cognitive sources, forces, and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kegami, Y. (1985), ‘Activity’-‘accomplishment’-‘achievement’: A language that can't say ‘I burned it, but it didn't burn’ and one that can, In A. Makkai and A. K.

- Melby (eds.), *Linguistics and Philosophy: Essays in Honor of Rulon S. Well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65-304.
- Schaden, G. (2012), Modelling the “Aoristic Drift of the Present Perfect” as Inflation: An Essay in Historical Pragmatics, *International Review of Pragmatics* 4-2.
- Stassen, L. (1985), *Comparison and universal grammar: An essay in universal grammar*, Oxford: Basil Blackwell.
- Stassen, L. (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Stassen, L. (2009), *Predicative Posses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C. (1988), Pragmatic Strengthening and Grammaticalization, In Shelley Axmaker, Annie Jaisser and Helen Singmaster (eds.),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4, 406-416.
- Traugott, E. C. and B. Heine (eds.) (1991),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2 vol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Traugott, E. C. and E. König (1991),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Traugott and Heine (eds.), Vol. 1: 189-218.

▣ 토 론

“기능적·유형론적 관점에서의 통사론 연구 방법론”에 대한 토론문

이선웅(경희대)

※ 별 지 ※

## 언어직관과 실험통사론\*

조용준(건국대)

< 차 례 >

1. 머리말
2. 통사 연구의 경험적 증거로서의 언어직관
3. 실험통사론
4. 맺음말

### 1. 머리말

다음 문장을 듣거나 스스로 떠올렸을 때 우리는 (1가)는 한국어 문장으로서 가능하지만 (1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 (1) 가. 요즈음 사람들이 이 옷을 많이 입는다.
- 나. \*요즈음 사람들이 이 옷의 많이 입는다.

이와 같이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것, 혹은 그 능력을 흔히 직관, 특히 언어 직관이 라고 부른다. 모어 화자라면 의식적인 논리적 추론 과정이 없이도 이 문장들이 한국어로서 성립 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언어 직관을 언어학, 특히 통사론의 경험적 증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Gilquin & Gries(2009:2)에서 지적하였듯이 2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비교언어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은 그 당시의 학문적 추세에 따라 데이터, 즉 경험적 자료 중심의 과학적 패러다임이었으므로 감각 경험과 실증적 검증에 기반을 둔 것만이 과학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과학적 증거로서 어디까지를 데이터, 즉 경험적 자료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논리실증주의와 행동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의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언어 연구는 ‘관찰가능한’ 언어 행동의 기술이었으며, 관찰가능하지 않은 연구자의 내성(introspection)이나 모어 화자의 직관은 과학적 증거로서 가능한 데이터, 즉 경험적 자료에서 배제하려 하였다. 특히 Bloomfield(1926:154-155)에게 있어 언어란 ‘한 언어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화의 총체(the totality of utterances that can be

\* 이 발표는 조용준(2015)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made in a speech-community)’로 행동주의적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Newmeyer(1986:4-5)에 따르면, Bloomfield는 “연구 중인 현상의 직접적 관찰이나 일련의 기계적 절차에 의해 관찰 가능한 것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일반화에 기초한 진술만을 허용하는 언어과학의 관점”을 취하였으며 이는 “언어에 관한 유일하게 가능한 일반화는 귀납적 일반화”라는 Bloomfield(1933:20)의 언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원칙적으로 직관의 이용을 배제하고 엄격한 절차적 방법에 따라 실제 발화 자료에 대한 귀납적 일반화만을 ‘과학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후기 구조주의에까지도 연결되어서, Fitzgerald(2009:3)에 따르면 Zellig Harris는 언어학자는 화자의 직관을 고찰해서는 언어 구조를 연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은 Chomsky(1955) 이후였다. 특히 Chomsky(1965)는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을 구분하고 Bloomfield(1926)식의 언어 개념은 언어수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언어 연구의 궁극적인 대상은 언어능력이라고 보았다.<sup>1)</sup> Chomsky는 언어학의 목표를 모아 화자가 지닌 언어능력의 기술과 설명, 특히 초기에는 모아 화자가 지닌 언어 직관(linguistic intuition)의 과학적 규명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당연히 언어학적 주장에 대한 증거로 언어 직관, 곧 수용성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는 촘스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언어직관은 명실상부하게 언어학에서의 데이터가 된 것이다 (Fiengo 2003:253).

그러나 통사론 연구에 있어 경험적 증거로서의 언어 직관 사용에 대한 논쟁은 Hill(1961) 이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 아래 언어 직관을 아예 배제하고 실제 발화 자료나 반응시간 혹은 신경생리학적 증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용량 정보의 저장과 활용이 정보기술의 발달로 용이해지고 고가의 실험장비가 기술의 발달로 대중화 및 일반화되어 연구 수행이 수월해지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Schütze(1996), Bard et al.(1996), Cowart(1997)은 행동 자료나 신경생리학적 증거는 통사론 연구에 있어 장점과 아울러 그 자체의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여전히 언어 직관을 경험적 증거로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1990년대 말부터 실험통사론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Keller(2000)와 Sprouse(2007) 등의 연구와 함께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언어 직관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언어 직관을 이용한 실험통사론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언어 직관에 관련된 용어 문제와 그 본질적 성격 문제 및 비형식적 측정 방법이 가진 한계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실험통사론의 필요성과 일반언어학에서의 실험통사론의 전개 양상과 한국어학에서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4장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어 실험통사론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진행하게 될 것이다.

1) Chomsky(1986)에서는 Bloomfield(1926)식의 언어를 ‘E-언어’라 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언어 연구를 ‘E-언어 접근(Chomsky & McGilvary:2012, 360)’라 보았다.

## 2. 통사 연구의 경험적 증거로서의 언어직관

### 2.1 언어직관, 내성적 판단, 수용성, 문법성, 그리고 지각

언어 직관은 다른 말로 ‘내성적 판단(introspective judgment)’, ‘문법성 판단(grammaticality judgment)’ 혹은 ‘수용성 판단(acceptability judgment)’이라고도 알려져 있다.<sup>2)</sup> 여기서 내성이라 함은 연구자나 피험자가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자기보고(self-report)를 하는 내적 관찰을 말하는 것이다. 일부의 연구자는 이 네 용어를 모두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 상황에 따라 번갈아 사용하고는 한다.

직관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우리가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지만 ‘직관이 뛰어나다’거나 ‘직관이 날카롭다’라고 할 때에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많은 통사론 연구자들은 모어 화자들이 일반적으로 언어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수긍하지만 동시에 일반인의 판단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는다. 우선은 ‘문장이 된다’는 그 개념마저도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통사론 연구자에게는 분명한 개념이겠지만 일반인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연성(naturalness)으로 이해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용성(acceptability)으로 이해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또 문법성(grammaticality)으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장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개념마저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통사론자들은 일반인의 판단이 어디에 기초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의 판단을 선뜻 수용하기가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된 직관’을 가진 모어 화자만이 자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 직관’에 대한 이후의 논의는 이 용어와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Chomsky는 무엇보다도 ‘직관(intuition)’이라는 용어와 ‘판단(judgment)’이라는 용어를 구분한다. Chomsky에게 있어 직관은 언어능력의 일부인 반면, 판단은 언어수행의 산물이다 (Schütze 1996:24). 동질적인 언어공동체 내의 이상적인 모어 화자는 한 언어의 문법, 즉 언어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대한 언어 직관을 가질 수 있다. 언어 직관은 언어능력, 혹은 언어지식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판단’은 언어지식 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언어수행, 혹은 언어 사용이다. 이런 점에서 ‘문법성’과 ‘수용성’의 구분이 생긴다.<sup>3)</sup> 문법성은 언어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문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반면, 수용성은 맥락이나

2) ‘수용성’이란 용어 대신에 ‘용인성(容認性)’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또한 문법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적형성(well-formed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문법성과 적형성을 구분해서 사용하자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이선웅(2012:481-484)에서는 기존의 문법성을 적형성으로 대체하고, ‘문법성’이라는 용어를 수용성과 적형성을 아우르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3) For the purposes of this discussion, let us use the term “acceptable” to refer to utterances that are perfectly natural and immediately comprehensible without paper-and-pencil analysis, and in no way bizarre or outlandish. Obviously, acceptability will be a matter of degree, along various dimensions. One could go on to propose various operational tests to specify the notion more precisely (for example, rapidity, correctness, and uniformity of recall and recognition, normalcy of intonation). ... The more acceptable sentences are those that are more likely to be produced, more easily understood, less clumsy, and in some sense more natural. The unacceptable sentences one would tend to avoid and replace by more acceptable variants, wherever possible, in actual discourse.

The notion “acceptable” is not to be confused with “grammatical.” Acceptability is a concept

빈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언어수행의 결과물인 ‘판단’이다. 문장은 문법 규칙이나 원리에 따르는 정도에 따라 문법적이거나 비문법적이라는 점에서 문법성을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법이라는 개념은 인지적인 ‘구인(構因, construct)’이며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는 관찰이 불가능한 이론적인 구성물이다. 문법이라는 용어가 중의적인 것처럼 문법성이라는 개념도 중의적일 수밖에 없다. 문장이나 구성이 문법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문법성을 논의하는 경우 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문법성’이며 전자의 문법성과 동의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의 문법성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구인에 해당하며 후자의 문법성은 우리가 주어진 문장이나 구성에 귀인(歸因)한 추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 행하는 문법성 판단은 이론적 가설이나 통념 등 판단자의 의식적인 판단 혹은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법성 판단에서의 문법성은 실제 문법성이 아니라 그것이 옳든 그르든 우리가 가공해낸 문법성이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에 의해 좌우된다.

반면 수용성은 중의적이지 않다. 문법성은 문법, 혹은 언어지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라면 수용성은 이와 같은 언어지식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에 의해 결정되는 언어수행 혹은 사용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Chomsky(1965:10)는 ‘수용성’이라는 개념을, 언어 분석의 도움 없이도 즉시 이해가능하며 결코 특이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발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수용성이란 문장이나 구성을 듣거나 떠올릴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용성이라는 개념은 이론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수용성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도 문제이다. 기존에는 이를 내성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성(內省, introspection)’은 자기 인식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영어의 introspection은 라틴어 spicere(보다)와 intro(안으로)에서 유래한 말로서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한다. 한자로 보아도 ‘안으로/안을 살피다’의 뜻으로 안세권(2008)에 따르면 여기서 ‘보이는’ 것, ‘살피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 활동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이러한 심리적 현상들의 주체로 가정되는 비물질적인 ‘자아’(self)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지각이나 경험, 판단, 추리, 감정 등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심리적 대상을 ‘이차적으로 바라보는’(secondary seeing) 의식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르게 표현하면 ‘메타인지적 의식(meta-cognitive awareness)’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안세권, 2008:173). 이런 점에서 언어 직관은 내성적 활동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직접적으로 언어의 적형성(well-formedness)에 대한 내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내성적 판단(introspective judgment)’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chütze & Sprouse(2013:29)은 한 개인이 인간의 인지체계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직관이나 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수용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수용성은 밝기, 소리의 크기, 온도 혹은 고통처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지각(percept)의 일종이라고 본다. 즉 문장이나 구성과 같은 ‘언어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spontaneous response)’이라고

---

that belongs to the study of performance, whereas grammaticalness belongs to the study of competence. ... Like acceptability, grammaticalness is, no doubt, a matter of degree ... but the scales of grammaticalness and acceptability do not coincide. Grammaticalness is only one of many factors that interact to determine acceptability. Correspondingly, although one might propose various operational tests for acceptability, it is unlikely that a necessary and sufficient operational criterion might be invented for the much more abstract and far more important notion of grammaticalness. (Chomsky 1965:10-11)

본다. Chomsky(1965)의 말을 빌리면 한 문장이 좋게 혹은 나쁘게 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고통의 크기와 같은 다른 지각처럼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므로 수용성은 직접 관찰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 즉 특정한 문장이나 구성이 한 언어에서 수용가능한 발화인지 여부를 화자에게 판단하게 함으로써 화자가 그 문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이런 점에서 Schütze & Sprouse(2013:29)는 수용성 판단을 “보고된 수용성 지각(reported perception of acceptability)”이라고 정의하고 보고된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인지적) 설명을 요하는 행동 반응(behavioral response)으로 본다.

## 2.2 수용성 판단의 측정의 전통적 방법

수용성 판단을 수집하는 전통적 방법은 대체로 연구자 자신의 수용성 판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엄밀한 실험 설계와 통계 분석에 기초하지 않기에 비형식적 방법(informal method)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엄밀한 실험 설계에 기초하여 비전문가 혹은 일반 언중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수용성 판단 자료를 수집한 후 이에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형식적 방법(formal method)이라고 한다.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수용성 판단 수집의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 비교

	비형식적 방법	형식적 방법
전반적 특징	통사론 연구의 전통적 방식	실험심리학적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방식
표본 수	20명 이하의 소수	30명 이상의 무선 표본(random sampling)
제보자 특성	연구자 본인	비전문가
실험 설계	단순(외생 변인 고려 없음)	방법론적 엄밀성 추구(예: 외생 변인 제거)
결과 분석	통계기법 이용하지 않음	통계 모형 활용(반복측정 분산분석, 혼합효과모형, 베이스요인분석 등)

Hill(1961)과 Spencer(1973) 이후 비형식적 수용성 판단 수집 방법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에 비형식적 방법을 지양하여 언어 직관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또한 이와 같은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도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수용성 판단의 전통적 수집 방법, 즉 비형식적 방법이 가진 근본적 문제, 즉 주관성의 문제, 즉 그 판단 자료의 경험적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Schütze(1996)에 따르면 이 문제는 이미 Chomsky(1969)도 인식하고 있었다. Chomsky(1969)는 언어학의 영역에서 행동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이나 실험적 접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Chomsky, 1969:56), 내성(introspection)을 대체할 수 있는 조작적, 실험적 절차에 따라 연구할 수도 있으나(Chomsky, 1969:81), 직관(내성)을 이용해서 이론 구성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Chomsky, 1969:56), 그와 같은 객관적이고 실험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Chomsky, 1969:81)일 뿐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언어학, 특히 통사론 분야에서 행동과학에서 행해지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실험적 방법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직관(내성)만으로도 통사이론 구축에 필요한 자료(증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Chomsky(1961:226)에서는 객관적 실험기법(objective experimental techniques)이 수용성 판단 자료에 상보적(complementary) 기능을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험기법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Newmeyer(2013:74)에서도 심리언어학과 언어습득 및 실어증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험 연구를 통해 기존의 통사이론을 확증하거나 반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보적인 기능은 인정하나 오로지 실험 연구에 기초하여 보편문법의 본질을 지배하는 새로운 가설이 제안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Newmeyer(2013:74)에 의하면 생성문법 내에서 언어 직관 즉 내성적 판단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으로 설계 및 수행에 있어 복잡한 실험 절차를 따를 필요도 없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도 없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통계 분석도 필요 없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통사이론에 대한 증거로서 언어 직관, 즉 수용성 판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및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사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통사적 가설에 대한 증거로서 언어 직관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문제점 중 첫 Sprouse et al.(2013)번째는 문법성에 대한 직관이 (2)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뚜렷하지 않고, 그 경계선 상에 놓인 예들이 많다는 점이다.

- (2) 가. Which man did Bill go to Rome to visit? (Haegeman 1991:500, (35a))
  - 나. ? Which man do you wonder when to meet? (Haegeman 1991:502, (44a))
  - 다. ? This is a paper that we need someone who understands. (Haegeman 1991:505, (50a))
  - 라. ? Which car did John announce a plan to steal tonight? (Haegeman 1991:506, (53a))
  - 마. \* Whom do you know the date when Mary invited? (Haegeman 1991:495, (31a))
  - 바. \* Where did Bill go to Rome to work? (Haegeman 1991:500, (35b))
  - 사. \* This is a book which reading would be fun. (Haegeman 1991:500, (38a))
  - 아. \* With which pen do you wonder what to write? (Haegeman 1991:502, (44b))
  - 자. \* This is a paper that we need someone that we can intimidate with. (Haegeman 1991:505, (50b))
  - 차. \*\* This is a pen with which writing would be fun. (Haegeman 1991:500, (38b))
- [Bard et al.(1996:34)에서 재인용]

위의 예는 (√)>?>\*>\*\*의 4단계의 척도(scales)를 이용하여 수용성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4단계의 척도도 모자라는지 (√)>?>??>?\*>\*>\*\*의 6단계의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이론통사론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용성 판단 표시에 대해 표준화된 방식도 없고 또한 그 표시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더 어렵다.<sup>4)</sup>

한국어의 주격중출구문의 예를 통해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볼 수 있다.

- (3) 가. 선생님이 키가 크시다. (임동훈 1997:(3가))
- 나. \* 내일 날씨의 비가 온다. (임동훈 1997: (19다))

4) 수용성 판단 표시는 \*, ?, ok(무표시)와 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 표시도 사용된다. 이 표시는 화자 간 변이가 있을 경우에 사용된다. 어떤 화자에게는 가능하지만 어떤 화자에게는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의미화용론적 부적절성을 표시하기 위해 # 기호를 사용한다.

- (4) 가. (?) 철수가 아버지가 부자시다. (임동훈 1997:(3가'))  
 나. ? 철수가 아내가 집을 나갔다. (임동훈 1997:(5가'))  
 다. ?? 철수가 아들이 (아비를 닮아서인지)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임동훈 1997:(6라'))  
 라. ?\*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 (임동훈 1997: (11다))

(3가)는 수용적이며, (3나)는 비수용적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4)의 자료는 그 경계선 상에 위치한 문장들이다. 수용성 판단은 문법성의 유무(有無)라는 범주적 판단이 아니라, 정도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도성이 개입된 자료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 문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둘째로 수용성 판단 자료의 사용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화자 간 변이(inter-speaker variation)이다. (1)이나 (3)에서의 예와 같이 언어 직관이 분명하고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이론적으로 주요한 문장들을 떠올리거나 들었을 때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쓰이는 맥락에 따라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격중출구문, 특히 일각에서는 대주어구문(major subject construction)으로 부르는 예들이다.

- (5) 가. 이 옷이 요즈음 사람들이 많이 입는다.  
 나. (책방에서 책 한 권을 집어 들며 친구에게) 이 책이 철수가 썼어.  
 다. (사진 속의 남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영희가 좋아해.  
 라. (다른 동네가 아니고) 삼성동이 전지현이 살아.

이들에 대한 언어 직관은 (5가)에서 (5라)로 갈수록 편차가 심해진다. 국어학 및 한국어교육 전공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격중출구문 (5)에 대한 수용성 판단 자료

참여자	전공	(2가)	(2나)	(2다)	(2라)	합
A	국어학(문법사)	○	○	○	○	4
B	국어학(어휘론/형태론)	○	○	○	○	4
C	국어학(문법사)	○	○	○	○	4
D	국어학(어휘론/박사과정)	○	○	○	○	4
E	국어학(석사과정)	○	○	○	○	4
F	응용국어학(작문교육)	○	○	×	○	3
G	한국어교육(박사과정)	○	○	○	×	3
H	국어학(문법사)	×	○	×	○	2
I	한국어교육(석사과정)	○	○	×	×	2
J	국어학(문법사)	○	×	×	×	1
K	국어학/한국어교육	×	×	×	×	0
L	국어학(음운론)	×	×	×	×	0
M	국어학(음운론)	×	×	×	×	0
합		9	9	6	6	

국어학 전공자 11명과 한국어교육 전공자 2명 등 총 13명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비형식적 방법을 통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가)와 (5나)는 각각 9명(69%), (5다)와 (5라)는 각각 6명(36%)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3명은 (2가-라) 중 어느 문장도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5명은 모두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한국어 관련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수용성 판단에 있어 변이가 나타나지만 통사론 논문에서도 수용성 판단에서의 화자 간 변이가 나타난다. 우선 (6)의 자료는 매우 자주 인용되는 예로서 Lasnik & Saito(1984)는 (6a)의 문장이 why의 해석이 중의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6a)는 상위문에서 해석(‘생각의 이유’)될 수도 있고, 내포문에서 해석(‘떠난 이유’)될 수도 있다. 그러나 Aoun et al.(1987)에서는 이와 같은 중의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위문에서의 해석(‘생각의 이유’)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6)의 문장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직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 (6) 가. Why do you think that he left? (Lasnik & Saito, 1984:(99))  
 나. Why did she say that there are men outside? (Aoun et al., 1987:(51a))

다음은 한국어 자료에 대한 직관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7)에서처럼 강명윤(1988)은 내포문의 대명사 ‘그’가 상위문의 주어 ‘누구나’와 동지시(co-reference)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홍성심(1985)은 (8)에서처럼 그와 같은 동지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7) 가. 누구나 [그를 쫓아오는] 사람을 싫어한다. (강명윤, 1988:(36))  
 나. ?? 누구나 [그가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강명윤, 1988:(33))
- (8) 가. \* 누구나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홍성심, 1985:(50b))  
 나. \* 누가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홍성심, 1985:(55c))

또한 다음 예에서의 유동양화사의 장거리 의존성에 대해서도 수용성 판단의 화자 간 변이를 보여준다.

- (9) 가. 책을 학생이 세 권 샀다.  
 나. \* 학생이 책을 세 명 샀다.  
 다. 책을 학생이 세 권을 샀다.  
 라. 학생이 책을 세 명이 샀다.

이 예는 한학성(1989), 강범모(2002), 고희정(2007), 김용하(2008) 등에서처럼 주어와 이에 대응하는 분류사구가 목적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경우만 비수용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적으로 보는 수용성 판단이 표준적이다. 그러나 김종복(2013:206)에서는 (9b)도 중간 목적어가 주어진 정보일 경우, 즉 총칭적이거나 한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초점 해석을 받아 수용성이 있다고 본다.

언어 직관이 가지는 세 번째 문제는 화자 내 변이(intra-speaker variation)이다. 한 화자 내에서도 시간차 및 상황에 따라 수용성 판단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화자의 변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으로 ‘통사적 포화(syntactic satiation)’ 효과라는 것이 있다. 통사적 포화 효

과란 어떤 통사적 자료(문장)에 반복 노출되게 되면 수용성 판단이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Snyder(2000)는 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8개의 문장을 통해 실험한 결과, 반복노출 효과 즉 통사적 포화현상이 실제함을 증명하였다. (10)의 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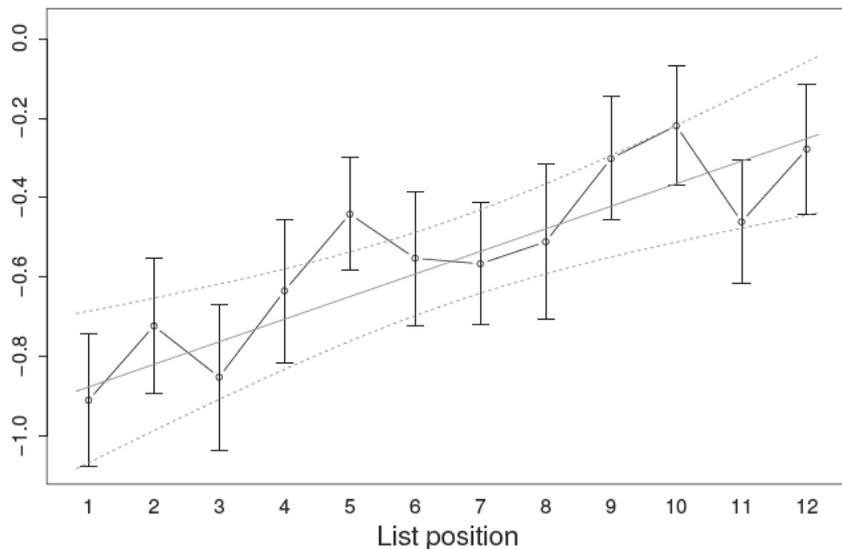
- (10) 가. \* Who does John wonder whether Mary likes \_\_?  
 나. \* Who does Mary believe the claim that John likes \_\_? (Snyder, 2000:(2c), (2e))

(10가)는 whether-island 제약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내포문에 whether가 출현하면 의문사가 내포문에서 상위문으로 이동할 수 없어 비문이 된 예이며, (19b)는 복합명사구 제약(Complex NP constraint)으로서 명사구 보문 내에서 상위문으로 의문사가 이동할 수 없어 비문이 된 예를 보여준다. 이들 구문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결과, (10가)와 같은 whether-island 제약은 22명 중 11명이 비문으로 답하였다가 정문으로 판단한 결과를 보여주고 1명이 정문에서 비문으로 변화한 결과(사인검정으로  $p=.003$ )를 보여주었으며, 복합명사구제약의 경우 총 5명이 비문에서 정문으로 변화한 결과((사인검정으로  $p=.031$ ))를 보여줌으로써 통사적 포화 현상이 실제함을 증명하였다. 이는 곧, 화자 간뿐만 아니라 화자 내에서도 변이가 존재함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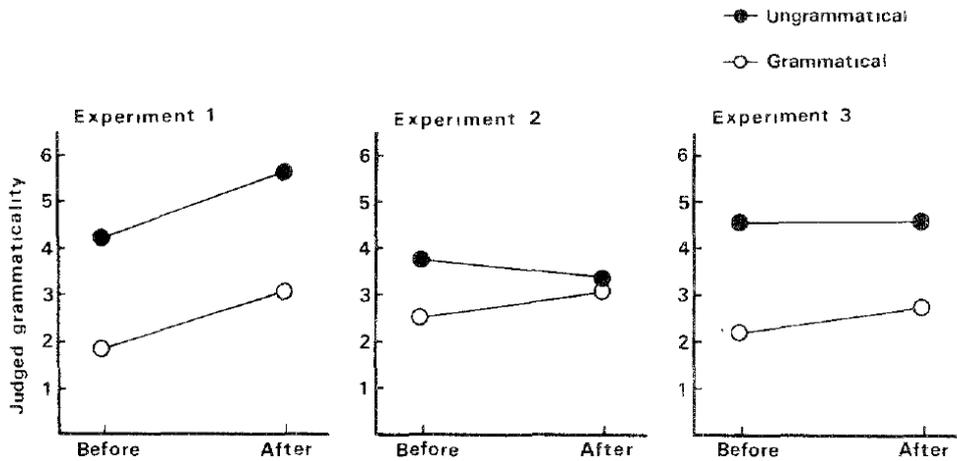
Hofmeister(2012)도 또한 이와 같은 반복노출 효과(repeated exposure effect)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 (11) Iran has gun-control strict laws that bar people from private firearms carrying.

이 문장은 극히 비수용적인 문장이지만 <그림 1>에서 보듯이 반복노출과 함께 수용성 판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Hofmeister(2012)의 반복노출 효과



<그림 2> Nagata(1988:7)에 나타난 반복 전과 반복 후의 수용성 판단의 변화

<그림 2>의 Nagata(1988)의 연구 또한 수용성 판단에서의 반복노출 효과를 보여 주는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 Kuno(1973, 1983)에 제시된 일본어의 문법적 문장과 비문법적 문장의 쌍 13개로 3개의 실험을 설계하여 각 12명씩 총 36명을 대상으로 수용성 판단 실험을 시행하여 수용성 판단에 있어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반복노출 효과가 관여함을 밝혔다. 이 그림에서 1점은 완벽한 문법성(=수용성)을 나타내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비문법성(즉, 비수용성)의 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실험들 간의 차이는 문장에 적합한 맥락을 제공했느냐의 여부인데 실험 1의 경우는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 것이며 실험 2의 경우는 반복시행 후에만 맥락을 제공한 경우이고 실험 3의 경우엔 반복시행 전과 후 모두 맥락을 제공한 경우이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해본 결과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실험 1의 경우에서만 반복노출 전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실험 1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문이든 비문이든 반복노출이 있는 후에는 수용성 판단이 비수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3. 실험통사론

#### 3.1 실험통사론의 필요성과 발전

위에서 보았듯이 언어 직관, 즉 수용성 판단은 정도성의 문제 및 변이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언어학자마다 그 증거가 되는 문장에 대한 직관이 불일치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언어학자 사이에는 수용적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문장에 대해서도 일반 언중은 비수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는 언어 직관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일반 언중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학자 본인에게 수용성 유무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연구로 실증되어 왔는데, 특히 Labov(1975)에서는 언어학자의 논문에 수용적으로 판단된 문장에 대해 일반 언중의 수용성 판단에 상당한 변이가 존재하며, 그와 같은 언중의 판단이

실제 언어 사용 혹은 더 나아가 그 언어 지식과는 무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생성문법의 초창기부터 Hill(1961) 이후 수용성 판단 자료를 수집하는 전통적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들에 대한 Chomsky의 해답은 “문법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let the grammar itself decide)”는 것이었다.<sup>5)</sup> Chomsky(1957:13-14)에 따르면 중간적 수용성(intermediate acceptability)의 경우 연구자의 이론에 따라 수용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어떤 문장에 대한 수용성 판단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그 문장이 이론상 가능한 구성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문법적 문장 혹은 수용적 문장으로 간주하자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경험칙(rule of thumb)으로 작용하여 통사론자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때 준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많은 경우에 통사론자들이 이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Wasow(2009)<sup>6)</sup>에서 지적했듯이 통사론 연구에서 이와 같은 중간적 수용성의 문장들이 통사론에서 이론적 논증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는 이런 성격의 문장들을 연구자에 따라 문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비문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관상의 불일치의 예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언어 직관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언어 화자에 의한 실제 발화 자료, 즉 말뭉치를 이용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대용량 말뭉치의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들 자료를 추출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통계적 분석의 대중화가 이뤄진 데도 이유가 있겠다. 그러나 말뭉치 자료가 아니고 여전히 언어 직관을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Schütze(1996)는 이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요인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말뭉치 자료에서는 언어학자가 실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료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정적 자료의 빈곤’의 문제가 아무리 대용량 자료를 확보하여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재귀사의 연구에 있어서 내포문에서의 재귀사 위치와 그 선행사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말뭉치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는 재귀사에 대한 언어학적 가설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 둘째, 말뭉치 자료에는 부정적 증거, 즉 비수용적인 문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통시적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문, 소설, 논문, 방송에서 발췌한 자료는 ‘발화 실수나 오타가 아니라면’ 문법적 자료로 간주되며, 따라서 부정적 자료는 없는 것이다. 부정적 증거 또한 언어학적 가설을 증명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데, 말뭉치에서는 이를 얻기가 어렵다. 셋째로, 구어 말뭉치나 인터넷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발췌한 자료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말실수인지, 하다가 만 표현인지 등등을 문법적인 문장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겐 결국 취사선택하는 연구자 본인의 직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의사소통적 의미화용적 기능에 의해 토박이 화자가 갖고 있는 언어지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기술의 의사소통적 표상적 기능이 그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어렵게 하는 정도를 최소화한다는 점이

5) “Notice that in order to set the aims of grammar significantly it is sufficient to assume a partial knowledge of sentences and non-sentences. That is, we may assume for this discussion that certain sequences of phonemes are definitely sentences, and that certain other sequences are definitely non-sentences. In many intermediate cases we shall be prepared to let the grammar itself decide, when the grammar is set up in the simplest way so that it includes the clear sentences and excludes the clear non-sentences. This is a familiar feature of explication. A certain number of clear cases, then, will provide us with a criterion of adequacy for any particular grammar.” (Chomsky, 1957:13-14)

6) “In practice, however, examples of intermediate acceptability often play a crucial role in theoretical argumentation, with the authors pretending that they are fully grammatical or ungrammatical, as suits the argument” (Wasow, 2009:257)

다. 언어 자료를 처리할 때 임의로 취사선택을 하는 자의적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꾸준히 언어 직관에 기댄 통사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언어 직관, 좁게는 화자의 수용성 판단을 언어학적 주장의 증거로 불가피하게 이용하려는 입장에서는 언어 직관의 본질적 문제 즉, 그 주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주관성은 화자 간/화자 내 변이(variation)를 의미하며, 이는 과학에 있어서의 재현가능성(replicability)과 연결된다. 간단히 말해서, 재현가능성이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험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사론에서라면, 연구자가 증거로 든 예문(수용적 혹은 비수용적 문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라면 그 연구자와 동일한 언어 직관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13-16)의 예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자 간 변이에 의해 이와 같이 바람직한 상황은 불행하게도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통사론에서 재현가능성을 실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제보자를 모집하여 문법성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의 실험을 시행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이 존재하는바 우선 제보자를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수 있다. 외생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용성 판단은 Valian(1984)이 말했듯이 '와인감정인(wine-taster)'처럼 고도의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언어학자가 갖고 있는 이론에 의해 수용성 판단이 '오염'될 수 있다. 본인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법관념에 의해 '점화 효과(priming effect)'가 나타나서 이론에 편향된 신뢰성 있는 수용성 판단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보자로 언어학자가 아니라 이론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행하게 된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언어학자가 피해왔던 여러 가지 외생 변인(compounding variables)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첫째는 언어규범과 언어 사실을 혼동할 수 있다. 둘째는 의미와 문법성을 혼동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의미는 있지만 비문법적인 문장 (21b)은 수용하지만, 있음직하지 않은 뜻을 가진 문법적인 문장 (12가)은 수용하지 않는 경향으로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2) 가. My guppy admires illness.

나. \* Whose did you admire necklace?

일반인을 상대로 언어 직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할 때 고려할 세 번째는 문장처리 가능성(parsability)이다. 이해되지 않게 되면 비문법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면에서 설문조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언어 직관에만 의존하거나, 말뭉치 자료에 기대려고만 하는 이유는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행할 때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오류들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류들이 엄격하고도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들이 많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엄격하고도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은 문법성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반응척도(response scales), 적절한 양의 표본 수(>30), 적절한 양의 토큰(token) 수, 무작위의 통제된 이중 눈가림 실험(randomized controlled double blind experiment), 그리고 분산분석이나 선형 혼합모형 회귀분석(linear mixed effects regression) 등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엄격하고도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수용성 판단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바로 실험통사론이다. 실험통사론은 수용성 판단에 대한 실험을 통해 문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치로 환산하고 이를 토대로 계량적(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사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 표준(scientific standards)을 잃지 않은 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 혹은 재현가능성을 잃지 않게 된다.

### 3.2 실험통사론의 제 문제

아래에서는 실험통사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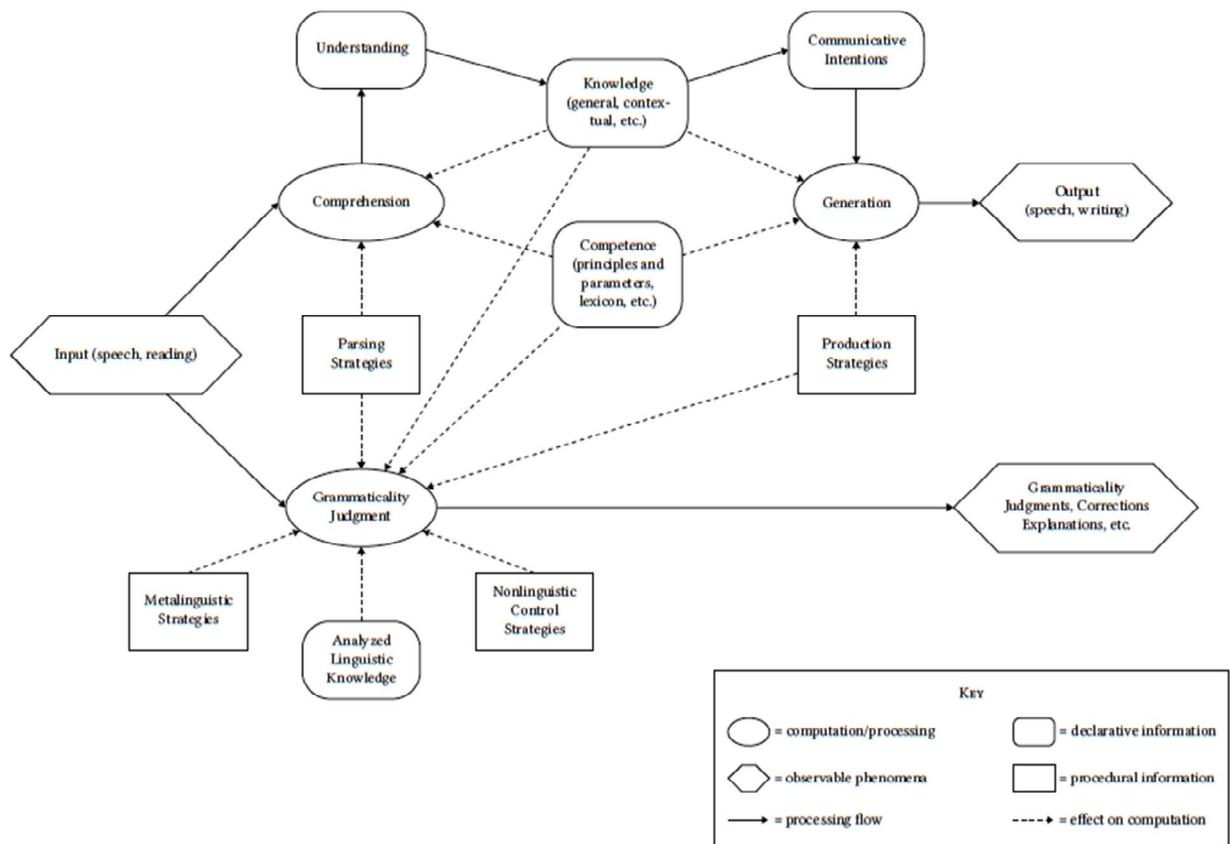
#### 3.2.1 수용성의 결정 요인과 기제

수용성 판단에서 수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용성이 언어수행의 산물이라면 언어수행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용성 판단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기제에 의해 작동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수용성 판단 실험 설계를 보다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며 실험통사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용성 판단에 작용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Schütze(1996)을 들 수 있다. Schütze(1996)은 이를 크게 참여자관련 요인과 과제관련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참여자 요인에는 유기체적 요인(organismic factor)과 경험상 요인(experiential factor)으로 다시 나눈다. 유기체적 요인으로는 장 의존성(field dependence), 손잡이(handedness), 언어 경험의 양(amount of experience with the language) 및 (실제 세계 경험, 사회문화적 경험과 신념 등의) 비언어적 경험 등의 요인이 있으며 경험상 요인은 언어학적 훈련(linguistic training)의 정도, 문식성(literacy)과 학력(education) 등의 경험상의 요인이 있다. 과제관련 요인으로는 다시 절차적 요인(procedural factor)와 자극 요인(stimulus factor)로 구분된다. 절차적 요인은 지시문(instruction), 제시 순서(order of presentation), 반복(repetition), 정신 상태(mental state), 판단 전략(judgment strategy), 양상(modality)과 사용역(register), 판단의 속도로 세분되고, 자극 요인으로는 맥락, 의미, 문장처리 가능성(parsibility), 빈도, 어휘적 내용, 형태와 철자(morphology and spelling), 수사적 구조(rhetorical structure)로 세분된다. 실험 설계에 있어 이와 같은 요인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들 요인에 대한 상세한 경험적인 연구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서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방언, 성, 나이 등의 사회언어학적 요인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수용성 판단의 기제에 대한 모형은 Schütze(1996), Ueyama(2012), Hoji(2015)를 들 수 있다. Schütze(1996)는 <그림 3>에서처럼 수용성 판단을 중심으로 언어처리에 대한 전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수용성 판단은 하나의 연산(computation) 과정이다. 수용성 판단은 언

어 처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언어 처리의 각 연산 기호는 연산 수행을 위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및 정보 자료에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면 언어처리 과정의 흐름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모형의 윗부분은 언어 입력에서 산출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선 이해 과정을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언어 입력으로부터 인지(comprehension)처리 과정을 거쳐 문장의 이해에 도달하고 이는 다시 장기기억에 저장되기도 한다. 여기서의 인지처리 과정은 문장처리 전략(parsing strategy)을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혹은 언어지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인지처리 과정은 애매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지식과 특정 기억을 참조한다. 반면 산출 과정은 의사소통의 목적(communicative intentions)과 함께 시작된다. 산출 전략을 매개로 하여 메시지가 생성 과정 중에 사용되고 최종적으로 언어 출력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도 언어능력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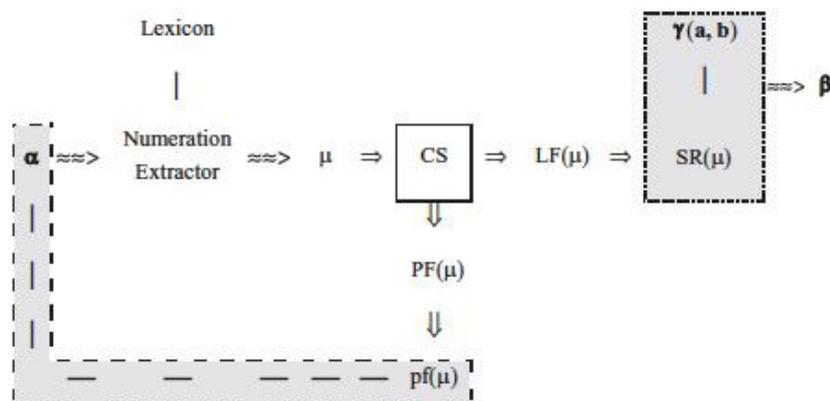
<그림 3> Schütze(1996:172)의 수용성 판단의 처리 모형

모형의 아래 부분은 수용성 판단 과정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 대한 입력은 인지 과정에서의와 같은 반면 출력은 수용성 판단 자료이다. 산출될 필요는 없으므로 대체로 발화 과정은 생략된다. 그러나 발화 과정 중 작용하는 산출 전략이 수용성 판단의 최종 산출물인 판단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주어진 문장이 정문인지 비문인지 범주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경우, 말을 산출하는 시도를 통해 그 수용성을 판단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발화하는 것은 아니기에

Schütze(1996)는 이 경우 훈련받은 통사론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접근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산출 전략은 문법 오류 탐색이나 설명 및 교정, 그리고 오류의 정도 평가 등에 활용되는데 이는 정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이는 산출 전략과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언어처리 과정에서는 이용되지 않지만 수용성 판단 과정 중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모형의 맨 아래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분석적 언어 지식(analyzed linguistic knowledge)은 학교나 매체를 통해 배운 규범 문법이나 잘못 알려져 있을 수도 있는 기존의 통사 지식과 같이 화자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명시적 언어 규칙을 말한다. Bialystok(1979)에 따르면 수용성 판단 초기 결정 단계에서는 암묵적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후의 오류 탐지 과정에서는 명시적 지식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둘째, 비언어적 통제 전략(nonlinguistic control strategies)은 언어 형태에 주의 초점을 기울이게 하는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The horse raced past the barn fell.과 같은 오도문(誤導文, garden path sentence)의 경우 문장처리과정 중 문장처리에 실패할 수가 있다. 이때 오도문이 정문이라고 말해진다면 화자는 문장처리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통제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위언어적 전략(metalinguistic strategies)은 수용성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휴리스틱(추단법, heuristic)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수용성이 의심스러운 문장에 대해 그 문장이 쓰일 법한 적절한 문맥을 찾아보거나 그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모형이 함의하는 바는 수용성 판단은 실제 정상적인 언어 이해나 산출 과정과는 다르며 이들에 작용하는 변인보다 더욱 많은 변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지식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엄밀한 실험 설계와 유의한 통계 분석을 통해 접근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최소주의 모형에 기초한 수용성 판단 과정에 대한 모형은 Ueyama(2012)와 Hoji(2015)에 의해 개발되었다. Hoji(2015)가 Ueyama(2012)를 수정한 모형이기에 여기에서는 Hoji(2015)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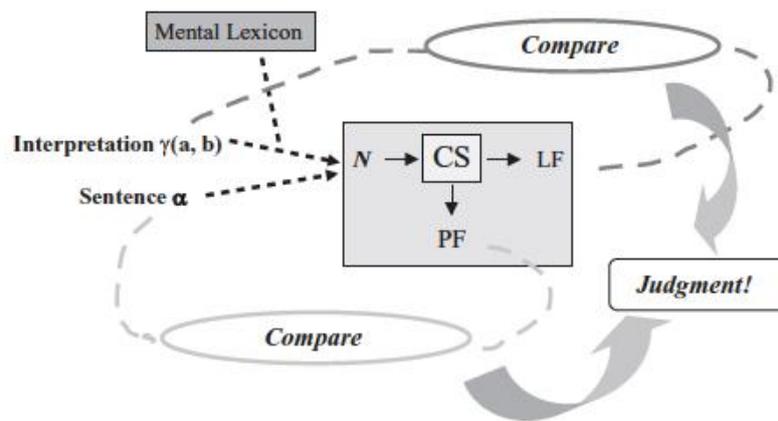


<그림 4> Hoji(2015:40)의 수용성 판단 모형(I)

Ueyama(2012)와 Hoji(2015)가 근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수용성 판단이 언어의 연산체계(Computational System, 이하 CS)에 대한 가설 입증의 주요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수용성 판단이 CS의 근본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관점에 있다. 따라서 CS는 수용성 판단 과정 중에 내포되어 있으며 그 과정 중에서 사용된다. 화자에게 문장  $\alpha$ 가 주어지고 그 문장  $\alpha$ 가 두 언어 표현 a와 b 사이에 적용되는  $\gamma(a, b)$ 라는 특정한 의미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 수용적인지 비수용적인지 판단하라는 과제가 주어지면 화자는 어휘부로부터 배번집합 추출기(Numeration Extractor)에 의해 배번집합  $\mu$ 을 만든 후  $\mu$ 에 기초하여 생성된 논리형태(Logical Form, LF) 표상  $LF(\mu)$ 와 음성형태(Phonetic Form, PF) 표상  $PF(\mu)$ 를 산출한다. 그리고  $LF(\mu)$ 에 기초하여 얻어진 정보인 의미표상(Semantic Representation, SR)인  $SR(\mu)$ 와,  $PF(\mu)$ 에 기초하여 얻어진 표층적인 음성 연쇄(surface phonetic string)인  $pf(\mu)$ 가 도출된다. 최종적으로 화자는  $SR(\mu)$ 에 연관된 수용성 판단  $\beta$ 를 얻게 된다. 이 모형에서  $\Rightarrow$  표시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approx$   $\approx$  > 기호는 그렇지 않다. “ $\alpha \approx \approx$  > 배번집합 추출기(Numeration Extractor)”에서는 ‘기여한다(Contribute)’의 의미를 지니며, “배번집합 추출기  $\approx \approx$  >  $\mu$ ”에서는 ‘형성한다(form)’는 의미를, “ $SR(\mu) \approx \approx$  >  $\beta$ ”에서는 ‘...의 기초로 기능한다(serves as a basis for ...)’는 의미를 지닌다.

이 모형을 좀 더 단순화한 것이 <그림 5>이다.



<그림 5> Hoji(2015:41)의 수용성 판단 모형(II)

“이 문장이 의미해석  $\gamma(a, b)$  아래 수용적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화자는 어휘부에서 어휘 항목의 집합으로 배번집합을 생성한 후 이를 CS에 입력한다. CS는 이들 어휘항목을 병합(merge)하여 출력 LF와 PF 표상을 생성한다. 그 다음 화자는 LF 표상이  $\gamma(a, b)$ 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또 PF 표상이 주어진 문장과 음성적으로 차이가 없는지 살피게 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주어진 문장을  $\gamma(a, b)$ 라는 의미에서 수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실패하게 되면 앞서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어휘부에서 다른 어휘항목을 가져와서 배번집합을 만든 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순환적으로 비교가 이루어진다.

Schütze(1996)와 Hoji(2015)의 결과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문법성과 수용성의 관계에 있다. Schütze(1996)는 수용적이기는 하지만 문법적인 문장의 가능성을 허용하지만 Hoji(2015)의 모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 3.2.2 문법성의 문제

문법성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문법성과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문법성의 정도성의 문제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문법성과 수용성의 가능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3> 문법성과 수용성의 결합 가능성

	문법성	수용성
(가)	○	○
(나)	○	×
(다)	×	○
(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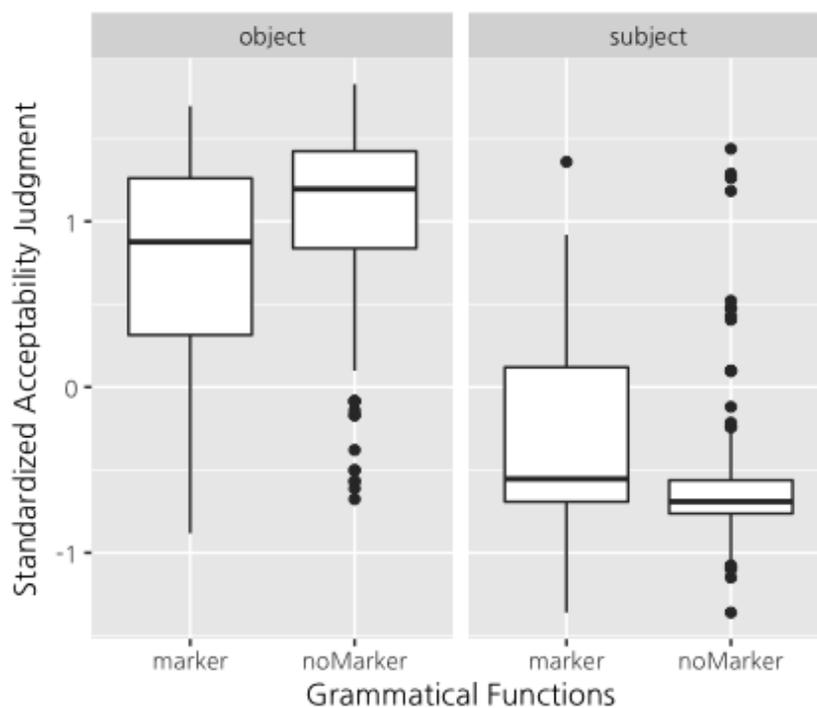
위에서 (가)의 경우는 문법적이면서 수용적인 경우를, (나)의 경우는 문법적이지만 비수용적인 경우를, (다)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비문법적이지만 수용적인 경우를, (라)의 경우는 비문법적이면서 동시에 비수용적인 경우를 말한다. Hoji(2015)의 모형이 가진 특징 중 가장 큰 것은 문법적인 문장은 항상 수용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표 3>에서 (다)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CS에 의해서 생성된 LF 표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용성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CS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다면 비교할 지점 자체가 없으므로 수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문법적인 문장은 맥락 등의 수행 요인에 따라 수용적일 수도 있고 비수용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비문법적인 문장은 “언제나 비수용적이다”라는 전칭적인(universal)인 혹은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면 문법적인 문장은 “수용적일 수 있다”라는 존재적인(existential)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비문법적인 문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수용적으로 판단되는 반면 문법적인 문장은 화자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수용적일 수도 있고 비수용적일 수도 있다. Hoji(2015:17)은 이를 “근본적 비대칭성(fundamental asymmetry)”이라고 한다.

반면 Schütze(1996)의 모형은 <표 3>의 (다)도 허용하여 모든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CS에 해당하는 언어 지식은 수용성 판단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chütze(2010)와 Lewis & Phillips(2015)는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었는데 다음과 같다.

- (13) 가. The patient who the nurse who the clinic had hired admitted met Jack. (Schütze 2010:(11))  
 나. \* The patient who the nurse who the clinic had hired met Jack. (Schütze 2010:(12))
- (14) More people have been to Russia than I have. (Schütze 2010:(13))
- (15) 가. The key to the cabinets are missing. (Lewis & Phillips 2015)  
 나. The bills that no senators voted for will ever become low. (Lewis & Phillips 2015)

(13가)는 전형적인 중앙내포구문으로서 문법적이지만 비수용적인 문장(<표 3>의 (나)의 경우)이지만, 반면 (13나)는 반대의 경우로 대응하는 술어에 비해 주어의 수가 많아서 비문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적인 문장<표 3>의 (다)의 경우)의 예이다. Gibson & Thomas(1999)의 보고에 의하면 영어 화자들에게 있어 (13가)보다 (13나)가 수용성이 더 높다고 한다. (14)는 처음에는 수용적으로 판단하지만 가능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 그 판단이 변화하는 예이다. (15가)의 경우에는 주어가 단수이지만 동사가 복수 활용을 했으므로 비문이며 (15나)의 경우에는 부정극성어 ever가 부정어 no에 의해 성분통어되지 않으므로 비문이다. 하지만 이들 두 문장도 모두 수용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문법적 환상(grammatical illusion)’ 구문으로 불리는 이들 예가 보여주는 것은 비문법적이더라도 수용적일 수 있는 예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두 의견은 공통적으로 실험통사론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어 통사 현상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에서 살펴본 유동양화사의 장거리 의존성에 관련하여 실험을 하여 보면 표준적인 수용성 판단에 의거할 때 (9나)의 경우만 비수용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0월에 K대학교에서 교양과목 수강생 6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9다)의 경우(subject\*noMarker)뿐만 아니라 (9나)의 경우(subject\*marker)도 수용성이 많이 떨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6> 유동양화사의 장거리 의존성에 대한 실험 결과 도표

만약 문법적이라고 가정되는 (9나)의 경우도 수용성이 떨어진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9나)와 (9다)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는 매우 흔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Sprouse et al. (2013)에서 제시되었다. 어떤 유형의 통사현상이 통사이론의

경험적 기초가 되며 어떤 비율로 각 유형이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계속 진화하는 경험적 문제이다. Sprouse et al. (2013)의 초점이 되는 통사현상은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을 구성하는 통사현상이다. ‘최소대립쌍’은 원래 음운론적 개념으로 어떤 언어에 있어서 한 말소리에 음운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 이를 Sprouse et al. (2013)에서 통사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한 언어에 있어 통사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소한의 차이를 갖는(언어학자가 보고자 하는 통사적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두 개의 문장을 일컫는다. 현존하는 통사론 논문에서 이와 같은 최소대립쌍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미래에 통사론 영역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현존하는 연구논문들에서 상당한 빈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실험통사론 영역(Bard et al., 1996; Myers, 2009)에서뿐만 아니라 이론통사론 영역에서도(Bošković and Lasnik, 2003:527)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왔다. 또한 최소대립쌍이라는 통사현상은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특정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사현상의 기저에 있는 원리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소대립쌍을 구성하는 각 문장 유형 간에 측정된 수용성 판단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유동양화사의 장거리 의존성에서 (9나)와 (9다)의 대립쌍에 대해 측정된 수용성 판단 점수의 표준화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3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 간의 직관 차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의 직관 차이에 있어 우선 첫 번째 문제는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 간의 방법론적 비교이다. 수용성 판단 자료 수집의 비형식적 방법은 지난 60여 년간 통사이론의 개발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경험적 지지기반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반면 형식적 방법은 약 15년간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실험통사론’이라는 이름 아래 매년 그 연구가 증가하며 각광을 받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에서의 이분법(dichotomy)은 두 방법론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한 여부를 탐색하는 연구가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e.g., Bard et al., 1996; Keller, 2000; Edelman & Christiansen, 2003; Phillips & Lasnik, 2003; Featherston, 2005a,b, 2007, 2008, 2009; Ferreira, 2005; Sorace & Keller, 2005; Wasow & Arnold, 2005; den Dikken et al., 2007; Alexopoulou & Keller, 2007; Bornkessel-Schlesewsky & Schlesewsky, 2007; Fanselow, 2007; Grewendorf, 2007; Haider, 2007; Newmeyer, 2007; Sprouse, 2007; Culbertson & Gross, 2009; Myers, 2009a,b; Phillips, 2010; Bader & Häussler, 2010; Dąbrowska, 2010; Gibson & Fedorenko, 2010; Culicover & Jackendoff, 2010; Gross & Culbertson, 2011; Sprouse, 2011b; Weskott & Fanselow, 2011; Gibson et al., 2011; Sprouse & Almeida, 2012, 2013; Gibson & Fedorenko, 2013; Sprouse et al., 2013).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수용성 판단 수집방법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국 수집방법에 있어서의 비형식성(informality)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형식성이란 위에서 밝혔듯이 실험심리학에서 일반화된 실험 절차에 의하지 않는 전통적인 수용성 판단 수집방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비형식적 방법에 대한 비판의 시초는 Hill(1961)이 자주 인용되어 왔다(이후 다른 비판적 논의에 관련하여서는 Schütze(1996) 참조). Ferreira(2005)는 인지과학에서의 언어학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수용성 판단이 수집되는 비형식적 방법으로 인해 인지

과학자들이 통사이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Featherston(2007)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에 약간의 수정, 즉 다중 항목과 다중 참여자(multiple items and multiple participants)를 이용하여 수용성 판단을 수집한다면 수용성 판단 자료의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수 있음을 논하였고, Gibson & Fedorenko(2010a,b)는 위 두 논문의 문제 제기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통적인 방법에 있어 전문적인 언어학자를 참여자로 하는 것은 언어학자의 이론적 편향이 자신들의 수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Phillips(2009)는 이들 논문에 대한 반박으로서, 보다 형식적인 방식이 언어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는 하지만 비형식적 방법이 문제라는 위의 문제 제기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주요 통사현상이 방법론적 엄밀성(methodological rigor)을 지닌 형식적 실험에 의해 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사 이론의 주요 논쟁 중 상당수는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이론의 가정에 대한 것이라고 논하였다. 또한 Sprouse & Almeida(2012b)는 전통적 방법의 신뢰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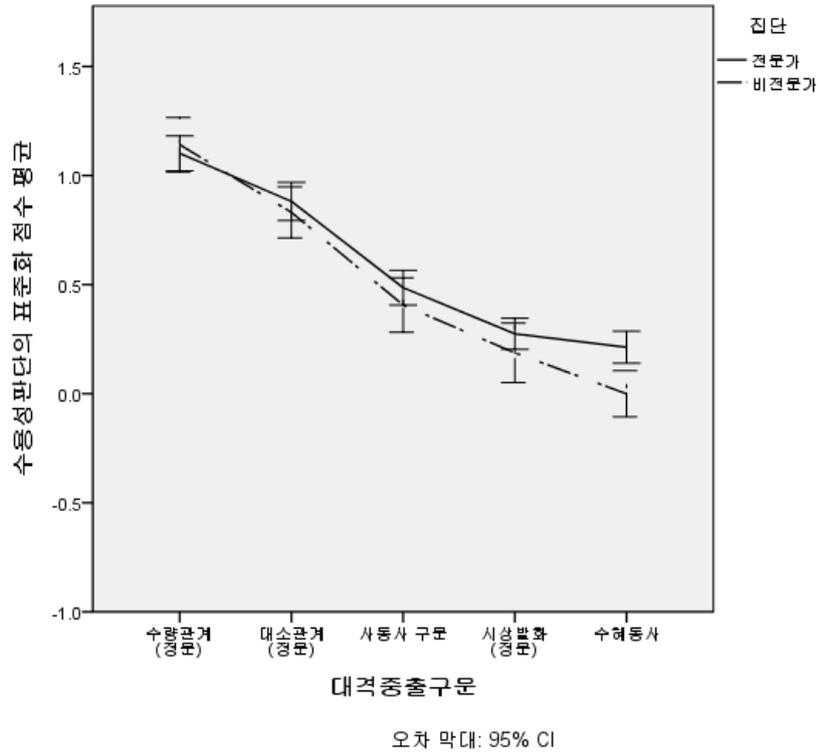
Wasow & Arnold(2005)는 동사-불변화사(verb-participle) 구성에서 목적어 위치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 방법에 의한 수용성 판단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판단의 평균 패턴은 전통적 방법을 활용한 논문들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반응들에서 발견되는 변이는 형식적 실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Clifton et al.(2006)은 세 번째 의문사의 첨가는 우위성(superiority) 효과 위반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킨다는 Kayne(1983)의 주장을 형식적 방법을 이용해 검증해보았는데 Kayne(1983)이 제시한 수용성 판단 결과(비형식적 방식)를 재현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의문사의 첨가가 수용성 판단의 평균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Alexopoulou & Keller(2007)은 영어의 복귀대명사(resumptive pronouns)가 의문사위치(wh-displacement)에 관한 통사적 섬제약(syntactic island constraints) 위반의 수용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형식적 방법을 동원해 검증해 본 결과 이와 같은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Heestand et al.(2011)에 의해 입증되었다. Langendoen et al.(1973)은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첫 번째 목적어는 의문화될 수 없다는 Fillmore(1965)의 일반화를 형식적 방법을 이용해 검증해보았는데, 이와 같은 일반화는 실험참여자의 약 80%에게는 맞지만 나머지 20%에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지었다. Wasow & Arnold(2005)와 Gibson & Fedorenko(2010a,b)는 이것이 전통적 방법의 비신뢰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하였다. Gibson & Fedorenko(2010b)는 또한 두 개의 우위성 위반은 다른 층위의 수용성 판단을 가져온다는 Chomsky(1986)의 주장에 대한 형식적 방법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Chomsky(1986)의 비형식적 방법에 의한 판단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판단 실험 방법의 불일치에 대한 하나로는 그와 같은 불일치가 판단수집방법 사이의 일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흔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Sprouse & Almeida(2012a)는 최근의 통사론 교재(Adger, 2003)에 제시된 총 469개의 문장을 검증한 결과 98%의 자료가 형식적 방법에 의한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prouse et al.(2013)은 Linguistic Inquiry에 실린 10년간의 통사론 논문에서 통사현상 15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험한 결과 95%이상의 수렴성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방법 사이의 불일치는 생각하는 것만큼 적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선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이 수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쪽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를 대상으로 전개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국어통사론에서의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의 비교를 통해 그 우위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혹은 언어학자(좁게는 통사론자)와 비언어학자와의 직관 차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의 이분법적인 차이와 동궤의 것으로서 비형식적 방법은 대체적으로 언어학자의 직관, 다시 말해 수용성 판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형식적 방법은 비언어학자의 직관 즉 그들의 수용성 판단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형식적 방법을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언어학자의 수용성 판단이 자신의 이론적 편향(theoretical bias)에 영향을 더 받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비형식적 방법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Ferreira, 2005; Wasow & Arnold, 2005; Gibson & Fedorenko 2010a; 2010b).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언어학자와 비언어학자의 직관을 비교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초기의 연구로는 Greenbaum(1973)과 Spencer(1973)이 있는데 Greenbaum(1973)은 Elliot et al. (1969)을 재현한 연구로서 Elliot et al.(1969)에서는 참여자가 주로 언어학자였던 반면 비언어학자를 실험참여자로서 이용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바, 두 집단의 수용성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ncer(1973)은 1960년대 후반에 발표된 7편의 언어학 논문에서 200개의 문장을 추출한 후 2개의 비언어학자 집단(언어학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 대학생 집단과 언어학에 어느 정도 노출된 대학원생 집단)을 대상으로 재검정을 하였다. 결과는 비언어학자 집단과 언어학자의 수용성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중 최근의 것으로는 Dąbrowska(2010)가 있는데 38명의 언어학자 집단과 38명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장거리 의문사의문문(long-distance wh-questions)에 대한 수용성 판단을 형식적 방법을 이용해서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도 언어학자와 비언어학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Culbertson & Gross(2009)의 연구는 언어학 박사과정생 집단, 통사론에 약간 노출된 대학생 집단, 통사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인지과학에는 노출된 대학생 집단, 그리고 인지과학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 대학생 집단 등 4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지과학에 노출되었던 집단 간에는 상호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집단과는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 연구는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에 수용성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Snow & Meijer(1977)는 언어학자와 비언어학자 간에 상호관계(correlation)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Spearman's  $\rho = 0.89$ ). 다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안희돈 외(근간)의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수렴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 준다.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 간의 비교는 언어학자와 비언어학자 간의 수용성 판단의 비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언어학자 내 집단 즉, 이론적 패러다임에 따른 언어학자집단 간 수용성 판단의 비교이다. Dąbrowska(2010)는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이 수용성 판단에 있어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생성문법학자 집단과 기능문법 학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이 두 집단 간 수용성 판단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조용준(2015)에서는 대격중출구문 5가지 유형을 7점 리커트 척도법으로 실험한 것으로 실험 결과를 보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7> 전문가 대 비전문가 집단의 수용성 판단의 비교 도표(조용준 2015)

그러나 통사론자 내에서는 이론적 경향에 따라 수용성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형식문법 연구자는 비형식문법 연구자나 비언어학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비형식문법 연구자는 비언어학자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형식문법 연구자들이 다른 집단들과 다른 수용성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3.2.4 측정 방법의 문제

수용성 판단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가부판단법(Yes/No task), 양자택일법(two-alternative forced choice), 리커트척도법(Likert scale), 강도측정법(magnitude estimation), 온도계 측정법(thermometer task) 등 5가지로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4> 수용성 판단 측정 방법의 유형

약어	과제 유형	설명
YN	가부판단법 (Yes-No task)	각각의 문장을 주고 ‘수용적/예(acceptable/yes)’, 혹은 ‘비수용적/아니요 (unacceptable/no)’라는 2개의 범주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양자택일법과 마찬가지로 정성적 과제(qualitative task)이지만 한 문장을 주고 수용적/비수용적이라는 절대적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LS	리커트 척도법 (Likert scale)	가장 널리 쓰이는 조사 방식으로 주어진 문장을 읽고 수용성의 정도에 따라 몇 단계로 나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대체로 5점, 혹은 7점 방식을 택한다. 홀수를 택하는 이유는 가장 수용적인 문장과 가장 비수용적인 문장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문장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

		험참여자에게 좀 더 다양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7점 방식을 채택하였다.
FC	양자택일법 (two-alternative forced choice)	위의 두 가지 방식은 모두 한 문장을 주고 수용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반면 이 과제에서는 한 번에 두 문장씩 쌍으로 제시하고 이 두 개의 문장 중 하나를 수용성의 정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ME	강도 측정법 (magnitude estimation)	실험참여자에게 주어진 참조문장(reference sentence)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기준값으로 정한 뒤에 실험 문장과 비교를 통해 실험 문장의 수용성 강도에 따라 비례적인 수치로 산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참조문장의 값을 100으로 미리 설정한 후 실험참여자는 참조문장에 비례한 실험 문장의 수치를 산출하도록 실험을 설계할 예정이다. Bard et al. (1996)의 연구 이후, 리커트 척도법보다 정확하게 수용성 판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T	온도계 측정법 (thermometer task)	Featherstone(2009)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강도 측정법과 유사하나 기준값을 두 개를 주고 이와 비교하여 실험 문장의 수용성 강도에 따라 비례적인 수치로 수용성 판단을 산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온도계가 어는점과 끓는점을 기준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같다고 해서 ‘온도계 측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실험에서는 비교적으로 좋은 문장은 30점, 비교적으로 나쁜 문장은 20점이라는 임의의 숫자를 주고 이에 기초하여 문장의 수용성 판단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행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한 문장의 수용성이 이들 두 문장의 중간쯤 된다면 25점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중 강도 측정법은 Bard et al.(1996)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그 이후 Cowart(1997)와 Keller(2003) 등의 후속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정신물리학 분야에서 리커트 척도 과제의 문제점 즉 수치 사이의 간격의 (비)동일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Stevens(1957)에 의해 개발된 후, Bard et al.(1996) 및 Cowart(1997)에 의해 통사론에 도입된 것이다. 이 방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리커트 척도 과제의 대안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과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시되어 왔는데, 특히 Sprouse(2011)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강도 측정법 과제도 궁극적으로는 비교되는 두 문장 사이의 비교에 있어 비율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커트 척도 과제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따르면, 강도 측정법이나 리커트 척도 과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강도측정법을 한국어 연구에 적용한 연구는 이용훈(2013; 2014)를 비롯하여 다양한 편이다.

### 3.3 한국어 실험통사론의 전개 양상

한국어통사론 영역에서 수용성 판단에 대한 초기 연구는 임규홍(1998)과 이기갑(1989)를 들 수 있다. 임규홍(1998)은 국어학 논문 45편에 실린 문장 가운데 언어학자는 모두 정문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수용성 판단이 의심스러운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총 75개 문장을 추출하여 중등학교 국어교사 집단(경남 지역, 118명), 고등학교 교사 집단(서울 지역, 45명), 대학생 집단(경상대학교 1학년 학생, 68명)의 수용성 판단을 4점 리커트 척도(4-scale Likert scale)로 수집,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즉 언어학자 집단과 비언어학자 집단 간의 수용성 판단을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언어학자 집단의 직관과 비언어학자 집단의 직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기갑(1989)는 세자리 서술어 ‘알다’ 구문의 어순뒤섞기 현상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 교수 15명과 국어국문학과 전공과목 수강생 20명을 피실험자로 하여 6점 리커트척도법에 기초하여 시행한 것으로 선후와 인접이라는 통합 관계에 의한 예측과 설

문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았다.

임규홍(1998)과 이기갑(1989) 이후 한국어 수용성 판단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 해외에서의 실험통사론의 대두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희정·오은정, 2012; 한정혜, 2013; 박범식·오세랑, 2013; 이용훈, 2013; 송상훈·오은정·최재웅, 2014; 조용준, 2015 등). 이들 연구 중 많은 연구는 통사 연구에 있어 가설이나 이론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 즉 연구 방법론으로 형식적 실험 방법을 도입한 연구이지만 송상훈·오은정·최재웅(2014), 송상훈·이상근·최재웅·오은정(2015), 조용준(2015), 송상훈·오은정(2016), 오은정·송상훈(2016), 송상훈·정덕호·오은정(2017)은 언어학자 집단과 비언어학자 집단 간의 차이등의 실험통사론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 4. 결론

실험통사론은 연구방법론으로서 또 통사론의 한 영역으로서 고유한 연구 주제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수용성 판단 자료의 수집에 있어 다양하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사론의 한 영역으로서는 통사 직관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그 변이가 나타나는 것인지, 통사직관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어 통사론 내에서 실험통사론 연구가 방향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의 한국어 통사론 연구는 비형식적 수용성 판단이나 말뭉치에 기반 연구가 많았지만, 실험통사론이나 언어처리를 위한 심리언어학적 방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통사론 연구는 드물었다. 앞으로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들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적용이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각각의 연구방법론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한계가 뚜렷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통사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험통사론의 다양한 방법들 중 한국어 화자의 직관을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주적 판단 과제, 리커트 척도 과제, 강도 측정법 과제, 온도계 측정 과제 중 한국어 화자의 직관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제2언어 습득론에서와 같이 통사론의 응용 분야와 관련하여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제2언어 통사 습득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비교에 있어 비교 지점으로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인 모어 화자의 수용성 판단을 신뢰성 있게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형편이다.

셋째, 실험통사론 내의 기본 문제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이들 문제는 언어 직관의 본질 문제, 수용성 판단과 문법성의 관계 규명, 문법성의 본질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법 지식과 수용성과의 관계를 다루기는 하지만 문법 지식의 측면에서 과연 문법 지식이 정도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일반화에 있어 화자 간 변이를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실험통사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변이와 실제와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 참고 문헌

(일부임 : 전체 목록은 발표 시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Bard, E.G., Robertson, D., Sorace, A., 1996. Magnitude estimation of linguistic acceptability. *Language* 72, 32-68.
- Chomsky, N., 195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New York: Plenum Press.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Paris: Mouton.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69. Language and philosophy. In S. Hook (ed.), *Language and philosophy: A symposiu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51-94.
- Cowart, W., 1997. *Experimental syntax: Applying objective methods to sentence judgments*. Sage Publications, Inc.
- Dąbrowska, E., 2010. Naïve vs. expert intuitions: an empirical study of acceptability judgments. *Linguistic Review* 27, 1-23.
- Hill, A.A., 1961. Grammaticality. *Word* 17, 1 - 10.
- Hofmeister, P., 2012. *Experimental design for linguistics*. Ms. University of Essex.
- Hoji, H., 2015. *Language faculty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r, F., 2000. *Gradience in grammar: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aspects of degrees of grammatical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 Keller, F., 2003. A psychophysical law for linguistic judgments. In Richard Alterman & David Kirsh (eds.), *The 25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652 - 657. Boston.
- Nagata, H., 1988. The relativity of linguistic intuition: The effect of repetition on grammaticality judgment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7-1, 1-17.
- Newmeyer, F.J., 2013. Goals and methods of generative syntax. M. den Dikke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generative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61-92.
- Phillips, C., 2009. Should we impeach armchair linguists? In Shoishi Iwasaki, Hajime Hoji, Patricia Clancy & Sung-Ock Sohn (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17*.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Schütze, C.T. 1996. *The empirical base of linguistics: Grammatical judgments and linguistic method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ütze, C. T., 2010. Linguistic evidence and grammatical theory.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gnitive Science* 2-2, 206-221.
- Snyder, W., 2000.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syntactic satiation effects. *Linguistic Inquiry* 31. 575-582.
- Spencer, N.J., 1973. Differences between linguists and nonlinguists in intuitions of grammaticality-acceptability.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 83-98.
- Sprouse, J., 2007. *A program for experimental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Sprouse, J., Schütze, C., Almeida, D., 2013. A comparison of informal and formal acceptability judgments using a random sample from *Linguistic Inquiry* 2001-2010. *Lingua* 134, 219-248.
- Valian, V., 1982. *Psycholinguistic Experiment and linguistic intuition*. T. W. Simon and R. J. Scholes (eds.) *Language, mind, and brain*. Lawrence Erlbaum, Hillsdale, New Jersey.

## ▣ 토 론

### “언어직관과 실험통사론”에 대한 토론문

이용훈(충남대)

#### [전체적인 논평]

본 논문 ‘언어직관과 실험통사론’은 최근 발전되고 있는 실험통사론의 언어직관에 관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국어학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실험통사론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들이 언어직관의 측정에 사용되며, 실험통사론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실험통사론에 관심이 있고 또 실험통사론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단, 본 토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몇 가지 이슈들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1] p. 15 전문가 vs. 비전문가

실험통사론의 실험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들 중의 하나가 바로 피실험자 집단을 선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물론, 조준용(2015)을 보면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단사이에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단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구의 목적이나 실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p. 18 표 4

본 논문의 <표 4>에서는 모국어화자의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정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험통사론에 사용하는 이러한 측정방법들은 물론 연구의 목적이나 목표문장(target sentence)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통계이다. 이러한 측정방법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어떠한 통계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3] p. 19 오타

‘송상훈·오은정·최재웅 2014’를 ‘송상헌·오은정·최재웅 2014’로 수정해 주세요.

#### [4] p. 19 참고문헌

외국학자의 참고문헌과 함께 외국학자의 참고문헌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참고문헌의 형식은 어떤 형식인가요? MLA or APA or others?



**제4부 <제3 분과 글쓰기교육>**



# 문법 장치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접속 부사 '그러나'를 중심으로-

김남미(홍익대)

## < 차 례 >

1. 서론
2. 학습자 글 내의 '그러나'에 대한 문법적 고찰
3. 문법 장치 '그러나'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4. 결론

## 1. 서론

우리가 갖는 문법 능력<sup>1)</sup>이 언어 수행 능력 간의 상호 작용에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어과 교육과정 내 문법교육 목표가 문법 교육을 통해 학습자 언어 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려 한다는 점 역시 낮은 것이 아니다. 문법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현재 또는 앞으로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또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를 대상화하고, 언어로 문제를 구성,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역시 문법 교육 목표 중의 하나다.<sup>2)</sup>

모두 학습자의 문법 능력과 언어 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면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문법 교육은 학습자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실제적 언어능력을 신장시켜 스스로의 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문법 교육이 학습자의 언어활동 즉,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법의 역할은 실제적 언어 수행을 위한 언어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주세형(2005), 이관규(2006), 민현식(2010), 이삼형 외(2015) 등에서는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문법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를 문법 교육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sup>3)</sup> 실질적 언어 자원으로서의 문법 능력 향상을 이끌어 언어 수행 능력 신장을 견인하

1) 여기서 문법 능력은 지식 능력, 사용 능력, 태도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최미숙 외(2008:290)에서는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의 본질적 역할을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 ①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 규범적 지식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의 역할
- ② 다양한 소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 자원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의 역할
- ③ 자신의 언어를 대상화할 수 있는 주체적 언어 사용자를 길러 내기 위한 영역으로서의 역할

여야 한다는 교육학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산적 도구로서의 문법 영역을 강조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동향은 초, 중등교육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다각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습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은 문법 교육 영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대학교육 현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더 많다. 먼저 대학 교육 현장에 필요한 언어 수행 능력을 견인할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조차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교육 현장에 필요한 문법 교육은 어떤 것이며, 이를 어떻게 언어수행활동과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학은 학습자이 자신의 전공 영역 내의 언어활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한 현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대개 글쓰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글쓰기를 유용한 학습의 도구로 보는 교육학 영역에서는 글쓰기 자체가 전공 및 교양 교육에 대한 이해의 과정인 동시에 전공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그만큼 대학 교육에서 글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대학 학습자들에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한 문법 교육을 수행하여 학습자가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의 학습자들의 고차원적인 언어활동을 이끌기 위하여 글쓰기 영역과 연계되는 문법 교육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sup>4)</sup> 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유의미한 고차원 사고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법적 자원을 고려하고 이를 글쓰기 영역과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전공 및 교양 과정에 필요한 언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 글쓰기 결과물 분석을 통해 글쓰기의 질적 개선에 관여하는 문법 장치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글쓰기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는 전통적으로 문장 앞에서 후행문장과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접속부사’로 해석한 어휘다(최현배 1971, 남기심, 고영근 1993).<sup>5)</sup> 이 논문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학습자 글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문법 장치로 ‘그러나’를 다루면서 이에 대한 문법 교육 방법론에 주목하려 한다. 문법 장치(grammatical device)란 해당 ‘문법 형태소’ 자체를 지시하는 말로 언어사용자의 언어 형식을 단서로 학습자의 사고를 견인하는 데 기능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 문법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언어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 형식 자체가 학습자의 사고 영역을 제어하는 틀이며, 이를 직접적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3) 이관규(2006:40)은 ‘사용’ 능력으로서의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주세형(2006)은 생산적 도구로서의 문법 영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4) 이삼형(2010), 정희창(2010), 정희모(2013) 등의 논의는 문법이 작문 능력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주세형, 김은성, 남가영 역(2007:5)에서 보였듯 작문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문법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5) 이들이 대용과 접속의 두 기능을 모두 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도수희 1965, 이기갑 1994). 또, ‘그러나’에 대한 연구는 연결어미 ‘-(으)나’의 의미와 연결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연결어미 ‘-(으)나’의 의미 해석은 이익섭, 임흥빈(1983)에서는 ‘반의(反意), 윤희현(1989), 전해영(1989)에서는 대립(對立), 남기심, 고영근(1993)에서는 상반(相反), 이은경(2000)에서는 대조(對照)로 해석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결어미 ‘-(으)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6) 김남미(2017:37)에서는 문법 장치를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학습자의 특정 사고나 선택 행위를 견인하는 단서가 되는 장치로 파악하면서 ‘와/과’의 기능을 다룬 바 있다. 이 논문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문법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글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의의 답화 표지, 결속 표지, 응결장치(Cohesive Device), 텍스트 구조 표지 등의 용어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이 논문에서 문법 장치를 ‘그러나’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는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에 해당한다. 말뭉치 분석을 통해 사용역을 다룬 논문에서는 ‘그러나’가 문어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보고한 바 있다.<sup>7)</sup> 대학 학습자의 글에서 나타나는 빈도 역시 마찬가지다.<sup>8)</sup> 학습자들이 어떤 특정 문법 형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인식 여부를 떠나서 해당 문법 형태의 기능 부담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에서 기능 부담량이 큰 단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문법 장치 ‘그러나’는 학습자 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 중의 하나이다. 글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을 위한 연구의 최종 목표는 글의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들을 찾고 이를 글의 생산 과정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를 위한 출발선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중요 단위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이 축적되면서 문법 교육의 대상이 되는 문법 장치라는 단위들 간의 위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이다. 먼저 학습자가 생산한 글쓰기 과제물에서 문법 장치 ‘그러나’를 기존 논의에 따라 분석하는 절차를 수행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 교육 내에서 문법 장치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원인을 살필 것이다. 이후 학습자가 문법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분석하면서<sup>9)</sup>,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이 모색할 것이다.

## 2. 학습자 글 내의 ‘그러나’에 대한 문법적 분석

언어적 산출물은 문법적 형태로 구현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문법적 형태는 의미나 기능과 긴밀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문법 교육이 작문 교육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하는 말이다. 이러한 함의에 비추어 볼 때 굳이 Halliday(1978)의 논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작문 교육 내에서 문법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문법 교육을 형태 중심으로 하는가 기능 중심으로 하는가의 문제가 전자를 문법 교육 영역으로 후자를 여타 다른 국어과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그리고 형태 중심의 문법 교육은 정오의 문제에만 관여하는 비실제적인 것이라는 편견이 자리하는 현실이다.

글쓰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문법이 관여하는 영역은 교정(proofreading)이나 교열(editing)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생각은 문법을 글을 구성하는 ‘주제, 구조, 단락’ 등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글쓰기 교육 안에서의 문법 교육은 규범 교육으로 한정시켜 주제, 구조, 단락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7) 한희정, 한정환(2016:182, 190)에서는 <세종 - 민연 코퍼스 확장판>의 사용역별 접속 부사의 출현 빈도 보고 결과에서 ‘그러나’는 빈도수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문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음을 보인 바 있다. (2016:188) 최근 논의의 예로 세종 형태 분석 코퍼스 문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김도영(2016:109)도 ‘그러나’의 사용빈도가 높음을 보고 한 바 있다. 이 외에 ‘그러나’의 문어상 빈도에 대해 보고한 논의로는 전영옥(2007), 홍정하(2012), 정성훈(2014)을 참조할 수 있다. 접속 부사의 결속에 대하여 다룬 김미선(2007:164)에서도 ‘사용 빈도면에서 ‘그러나’ 사용 빈도가 다른 접속 부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보고하였다.

8) 김문기(2014:218)에서 보인 대학의 학술적 글쓰기 말뭉치 분석에서는 ‘그러나’의 상위 어절 빈도를 주제가 문화일 때 ‘39위’, 주제가 ‘언어’일 때 38위에 속한다고 한다. 대학의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 이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이는 예라 하겠다.

9) 최근, 유혜령(2014), 조진수, 노유경, 주세형(2015) 등에서는 텍스트 안에서 필자의 의도와 연관되는 주요 문법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문법 교육 내용에 반영하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언어의 형태, 의미, 기능이 분리되지 않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글쓰기 교육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리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은 글쓰기 교육에 유용한 문법 교육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가 된다. 그 원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글쓰기 결과물 내의 접속 부사 ‘그러나’에 접근하는 문법적 방법의 유효성에 대해 점검해보기로 하자.

아래 글 (1)은 사학과 3학년 학습자의 수업과제<sup>10)</sup> 중 일부이다.

- (1) ① 인구변화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출산이다. ② 국가의 가장 중대한 목표가 국가 유지 및 생존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출산을 비롯한 인구 문제는 국가가 관여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③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출산은 개개 부부의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④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출산, 육아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중대한 기능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공재를 충분히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다.

(1)은 총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297자(공백 포함)의 짧은 단락이다. 이 적은 분량 안에 접속어가 세 개나 사용되었으며, 이 논문의 주요 대상인 ‘그러나’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다. 이러한 접속 부사의 빈번한 사용은 대학 학습자의 글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고학년 학습자글의 초고나 저학년 학습자 글에서 이러한 유형의 글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론에서 살폈듯이 접속 부사 ‘그러나’는 문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의 수준에 따라 글의 질적 수준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언어적 산출물을 생산한 학습자의 글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문법 교육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 글쓰기 교육 내에서 문법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접속 부사 ‘그러나’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 논의의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절차를 거쳐보자. 그 분석 방법론의 유효성을 따진 후 이를 교수학습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절차에 따른다면 (1)에 접근할 수 있는 문법 분석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통사, 의미론적인 접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화용론,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방법이다. 각각의 방법론으로 해당 학습자 글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짚어보기로 하자.<sup>11)</sup>

10)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학습자 과제는 서울 소재 S대학교의 ‘현대인문세미나’라는 강의에서 산출된 학생 자료이다. 이 논문의 기초자료로 삼은 자료는 2013년 169명, 2014년 200명, 2015년 168명, 2016년 108명의 누적 인원이 645명의 학습자 글쓰기이다. 이 과목의 특성과 해당 수업의 글쓰기 과제에 대한 일반적 경향 및 주제 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임상우, 김남미(2017)에서 구체화된 바 있다. (1)의 글에 제시된 교수 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논제> 인구의 문제를 '사회 경쟁력과 국방력 약화의 원인' 그리고 '노동 인구 감소의 원인'이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가? 인구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의 차원이나 환경의 차원 외에 어떤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지, 혹은 고려할 수 있는지, 혹은 고려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자.

11) 이 논문에서는 국어교육적 방법이나 한국어교육적 방법을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는다. 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는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한국어 모어화자이기 때문이다. 국어교육학적 방법이나 한국어교육학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2.1. 통사, 의미론적인 접근

먼저, 통사, 의미론적인 접근으로 학습자 글 (1)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국어학에서 ‘그러나’에 대한 통사, 의미론적인 접근은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반의, 대립, 대조, 상반’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관규(1990, 1992)의 접속 부사의 대등 구성의 요건은 (1)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준다. 이들 논문에서 다른 접속 부사의 하위 단위로 ‘그러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관규(1992:73)는 대등 구성의 필수 요건으로서 ‘교호성과 대칭성, 공통 의미 차원, 동일 통사 구조’를 제시하였다. 앞의 두 가지를 필수적 요건으로, 마지막 동일 통사 구조를 문장의 자연성(naturalness)을 확보하도록 해 주는 수의적 요건으로 분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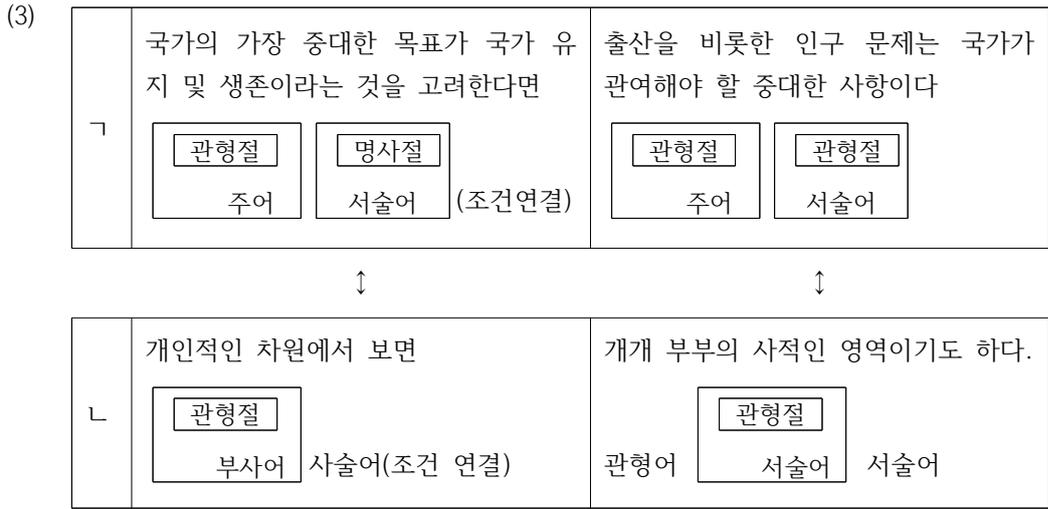
이러한 접근 방법은 문법 장치의 형태적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글에서 발견해야 하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그 형태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언어 요소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형태, 통사, 의미론적 연구의 목적은 대상 언어의 문법적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다. 단문에 나타난 어휘의 형태론적인 규칙이 복문에서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언어학 연구의 기본 전제다. 이러한 기본 전제에 따른다면 분석 대상 자료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로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단위로부터 발견한 규칙이나 원리가 대상 형태소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나 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습자 글쓰기 산출물을 문장 간의 관계로 한정하여 문장 (1㉔)와 (1㉕) 사이의 교호성과 대칭성, 공통 의미, 통사 구조를 확인해 보자.

- (2)   ㄱ. 국가의 가장 중대한 목표가 국가 유지 및 생존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출산을 비롯한 인구 문제는 국가가 관여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출산은 개개 부부의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 ≡   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출산은 개개 부부의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의 가장 중대한 목표가 국가 유지 및 생존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출산을 비롯한 인구 문제는 국가가 관여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2)에서 보듯 (2ㄱ)과 (2ㄴ)의 의미가 같아 보인다. 두 문장은 교호성을 갖는다는 말로 (1㉔)와 (1㉕)만으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 위치를 바꾸어도 이전 의미가 유지되기는 한다는 말이다. 두 문장에서 공통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1)의 ‘그러나’ 사용은 문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단락 (1) 자체가 ‘출산 문제에 대한 관여 주체’ 등의 공통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통사, 의미론적 연구 성과들을 그대로 해당 학습자 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1㉔, ㉕)의 문장에 대한 통사 구조의 접근 자체가 만만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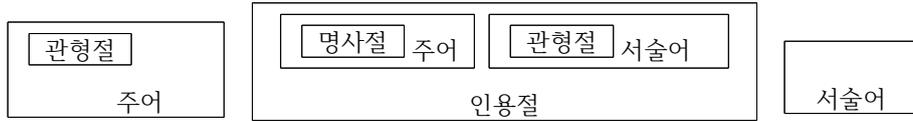
(3ㄱ (=1②))와 (3ㄴ (=1③)) 각각을 직접구성요소로 분할하면 각 문장이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접속된다는 틀에서의 통사 구조상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3ㄱ)의 통사 구조적 복잡성은 (3ㄴ)과 비교할 차원이 아니다. 이관규(1992:72)에서 보였듯이 ‘그러나’ 앞뒤의 문장이 동일 통사 구조를 갖는가는 대등문의 필수적 조건이 아니다. (3)의 예는 이런 수의적 조건에 해당하는 예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단락 (1)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러나’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장들 역시 단락 전체를 아우르는 ‘출산 문제에 대한 관여 주체’를 다루고 있으므로 두 번째 요건인 공통 의미 차원은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남은 대등성과 교호성, 동일 통사 구조의 문제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하자. 먼저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이 갖는 대등성과 교호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래 (4)이다.

- (4)
- ㄱ.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출산, 육아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중대한 기능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공재를 충분히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다.
  - ≠
  - ㄴ. 오늘날 국가의 중대한 기능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공재를 충분히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출산, 육아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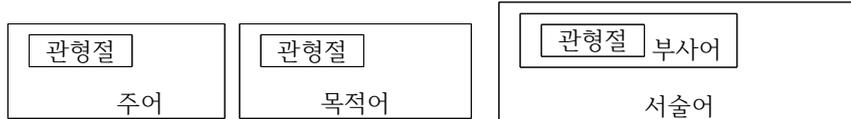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뒤 순서를 바꾸어 의미를 확인하였을 때 (4ㄱ)과 (4ㄴ)은 교호성을 갖지 않으며 대등성을 갖지 않는다. 통사 구조에 대한 동일성 여부 역시 논의할 여지가 없다. 통사 구조를 큰 틀에서만 비교해 보아도 (5ㄱ)과 (5ㄴ)의 통사적 이질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ㄱ.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출산, 육아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

- ㄴ. 오늘날 국가의 중대한 기능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공재를 충분히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다.



(1)에 대한 (2)~(5)는 접속 부사에 대한 분석 방식을 그대로 대학 글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앞서 본 분석 방식, 즉, 문장과 문장에 한정하여 ‘그러나’를 분석하는 것은 구조 내의 하위 언어 구조와 상위 언어 구조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 (4)와 (5)의 분석에서 ‘그러나’를 중심으로 대등성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은 (1) 자체가 갖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1①-⑤)의 문장 관계를 구조적 차원에서 본다면 아래의 관계에 있다.

- (6) ①, ② ↔ ③ → ④ ↔ ⑤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로만의 접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넘어서는 단위가 필요해 보인다. 문장군(Sentence Cluster)<sup>12)</sup>, 단락(Paragraph), 단락군(Paragraph Cluster)이라는 언어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단위의 설정은 (6)에서 보인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문장 ①, ②와 문장 ③, ④를 각각 문장군으로 보아 이들의 관계로 ‘그러나’를 조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 리포트에 나타나는 학습자 글 속의 문장들은 앞서 본 통사론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아래는 같은 수업의 학습자 글에 나타난 문장 중 하나이다.

- (7) 취업이란 ① 다수와의 ② 살벌한 ③ 경쟁, ④ 학력, ⑤ 학점, ⑥ 스펙 ⑦ 쌓기 ⑧ 등 ⑨ 듣기만 ⑩ 해도 ⑪ 조바심 ⑫ 나고 ⑬  
 머리가 어지러운 ⑭ 단어들로 ⑮ 대표될 ⑯ 수도 ⑰ 있지만, ⑱ 하고 ⑲ 싶은 ⑳ 일을 ㉑ 찾는다는 ㉒ 관점으로 ㉓  
접근한다면 ㉔ 보다 ㉕ 여유롭고 ㉖ 나 ㉗ 자신에 ㉘ 집중한 ㉙ 선택을 ㉚ 할 ㉛ 수 ㉜ 있을 ㉝ 것이다. ㉞

보조 용언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도 총 16개의 서술어가 나타나는 문장이다. 대학의 글쓰기에

12) 김미선(2007:157-8)에는 문장군의 결속이나 단락 결속에 사용되는 ‘그러나’의 관계양상을 구체화한 바 있다.

는 이러한 문장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다. 이러한 문장에 연결되는 또 다른 문장에서 교호성과 대등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다. 또 (7)은 통사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사적 분석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러한 개별 문장들의 구조가 한국어 구조의 일반적 원리를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러나’에 대한 통사, 의미론적 접근이 학습자 글 (1)을 분석하는 데 어떤 한계를 자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런 논의가 앞서 보인 연구 성과 자체가 글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에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한계로 인식한 것은 학습자 글에 나타나는 ‘그러나’를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로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며, 복잡하게 나타나는 통사론적 구조를 일일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논의를 시작하면서 제시하였던 형태, 통사, 의미론적 접근법의 유용성에 대한 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법 장치 ‘그러나’의 형태적 요소는 학습자가 자신의 글에서 발견할 명시적 요소에 해당하고 그 형태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사고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은 여전히 문법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남는다는 의미다. 이는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가 갖는 ‘공통 의미 요소’나 통사적 동일성, 대등성 및 교호성 등의 요건이 어떤 관계에서 학습자 글 (1)에 유효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이 말은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문장과 문장 간’이라는 단위에 대한 일부 포기뿐이다.

## 2.2. 화용론적,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문장과 문장 간’이라는 단위보다 더 큰 단위를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보다 단위가 큰 연구 영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용론이나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에서는 글 (1)의 개선에 필요한 문법 교육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 화용론이나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그러나’와 같은 문법 장치를 담화표지(discourse marker)<sup>13)</sup>의 하위 목록으로 본다. 담화표지는 논자의 관점에 따라 결속장치(cohesive device), 텍스트 구조 표지(marker of text structures)로 불리기도 한다.<sup>14)</sup> Halliday & Hasan(1976)가 말한 텍스트 단위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응집성 기제 중(cohesive device) 접속 기제(conjunctive device) 중 하나로 보는 맥락과 닮아 있다.<sup>15)</sup>

화용론적, 텍스트 언어학에서의 보이는 이런 접근법은 언어 구조가 문장, 단락, 전체글로 언어 구조를 확대하여 접속 대상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하위 문법 단위는 그보다 큰 문법 단위의 일부로서 구조에 참여한다. 학습자 글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학습자 글에 나타나는

13)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사는 이은희(2015)에서 체계화되었다. 이은희(2015:168-169)는 담화 표지의 기능에 따라 연구동향을 구분하면서 담화표지를 담화의 통일성 형성에 기여하는 장치로 보는 것, 담화 구조를 나타내는 표지로 보는 것으로 대별하였다. 전자를 다시 ‘언어 구조체의 담화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입장’과 ‘담화 자체가 지닌 언어 구조체로서의 특성에 주목하는 입장’, ‘화자와 청자라는 언어 사용자의 측면에 주목한 입장’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문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번째 입장에서 논의되었다. 언어적 구조체로서의 특성에 주목하는 국내 연구로는 차윤정(2000), 김정남(2008), 유나(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 신현숙(1989)에서는 ‘그러-’류를 ‘담화 대응 표지’로 파악하고 그 의미 관계를 논의한 바 있다. 박영순(2004:55)에서도 ‘그러나’를 문장 차원에서 담화 차원으로 이끌어 주는 담화표지, 또는 결속 장치의 하나로 보았다. 양태영(2010), 염혜영(2012) 등에서처럼 텍스트 구조 표지라는 용어로 담화표지를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용어에 대한 기본 입장은 동일해 보인다.

15) 담화표지가 전후 담화의 연결기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Fraser(2009:87)는 ‘그러나(but)’를 대조 담화 표지(Contrastive Discourse Marker)의 하나로 간주하고 거의 모든 언어에 나타나며, 그 기능이나 쓰임새가 같다고 말한다.

문장 단위는 보다 문장보다 큰 단위로 확장되어 단락이나 단락군을 형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학습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학습자들에게 글쓰기 과제를 내준 담당 교수의 의도 역시 주요 맥락에 참여시키면서 보다 글쓰기 과제 목적에 부합하는 문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를 담화표지나 결속장치로 해석한 논의 결과 역시, 그대로 학습자 글 (1)을 개선을 위한 문법 교육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첫째, 담화표지의 목록의 제시는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에 유용하지 않다.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담화표지의 목록을 발견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런 유형화 작업에는 자연스럽게 화용론적인 복잡성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대조 담화 표지(CDM: Contrastive Discourse Marker)의 하위 요소로 ‘그러나’를 다룬 안정근, 최은정(2014)<sup>16</sup>를 예로 들어 보자. 안정근, 최은정(2014:193-193)에서는 대조 담화 표지가 선후 담화(명제)의 대조, 대체, 정정, 반대, 양보, 전환의 의미의 담화적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해당 역할을 하는 단어나 형태소 목록을 나열된다. ‘그러나’는 그 하위의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1)과 같은 학습자 글의 개선을 위해 이런 유형화의 결과를 그대로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유형화 목록의 결과를 내용 지식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학습 부담 정도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모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하지 않다. 한국어를 모어화자로 하는 경우, 학습자들은 이미 이러한 목록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구어로는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이라는 문어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내재된 언어 능력을 이끌어 내어 언어화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대학 문법 교육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텍스트 구조 표지로 접근하는 연구동향에서는 학생글 (1) 자체가 논의거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글은 텍스트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을 작성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법은 텍스트성(textual)을 갖지 못한 자신의 글을 어떻게 텍스트답게 만드는가이다. 그 개선을 위해 (1)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나’를 텍스트 구조 표지로 보는 일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맥락과 텍스트를 강조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장르가 어떤 전형을 가져야 하는가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어과 교과에서 친교, 설득, 설명, 정보 전달이라는 장르명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장르가 어떤 형식을 갖는가를 다룬다는 것 역시 이런 경향과 닮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에 따른 전형이 (1)을 작성한 화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세형(2007:415-417)이 말한 바와 같이 ‘친교, 설득, 설명, 정보 전달’이라는 준거 자체가 글쓰기 맥락을 구체화하고 해결하는 데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그래서 (1)이 갖는 텍스트답지 못함을 해결하는 데 추상적인 정보만을 제시할 뿐이다.

텍스트 언어학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의 또 다른 연구 동향에서는 하나의 지문을 읽는 데 어떤 독해 전략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텍스트 언어학이 제시하는 이러한 독해 전략을 학습자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개선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텍스트 언어학에서 다루는 독해의 대상 글이 주로 텍스트성을 갖춘 글이라는 점에 있다. 상위구조의 지식을 활용하여

---

16) 최은정(2014)는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 담화 표지의 특성을 다룬 것이다.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은 학습자를 교육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담화 목적을 강조한 항목형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든지, 텍스트 구조 표지를 활용하여 단락 간의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글 (1)을 생산한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방법론이 되기 어렵다.

미시 구조에 주목하여 (1)에 접근하여도 마찬가지다. (1)에 나타난 접속 부사에 담긴 텍스트 구조 표지의 의미를 학습자가 인지한다 하여도 이를 개선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주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혜정(2017:1)에 보인 바와 같은 ‘보조사, 부사어, 기능 어휘, 시간 등의 표현에 담긴 필자의 의도와 함축 파악하기, 유추나 결론을 통해 낯선 개념 추론하기, 담화 화제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여 필자의 논지 전개 파악하기, 밑줄, 동그라미, 화살표 활용하기’ 등과 같은 전략들이 텍스트성을 갖추지 못한 (1)의 학습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담화 표지가 어떤 형식으로 기능해야 하는가에 주목하거나 텍스트성에 주목하는 접근 방법이 학습자 글 (1)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어떤 한계를 지닐 수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우리가 지적한 한계는 학습자 (1)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화용론적,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연구의 기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다. ‘그러나’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문장 이상의 단위로 확장한 것과 텍스트가 텍스트성을 갖추기 위하여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지점은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남아 있다.

결국 텍스트성을 갖추지 못한 (1)의 글을 학습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글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로부터 위의 논의로부터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결론이며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sup>17)</sup>

### 3. 문법 장치 ‘그러나’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2장을 시작하면서 제기하였던 문제를 환기해 보자. 거기서 문법은 어떤 것이 올바르며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에만 관여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편견이 글쓰기 영역에서 글을 구성하는 ‘주제, 구조, 단락’ 등과 문법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문제는 주세형, 김은성, 남가영 역(2007:5)에서 보인 ‘글쓰기의 질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정확한 언어에 대한 공식이나 규칙, 지침에 한정되지 않음은 분명하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글쓰기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만일 정확한 언어에 대한 공식이나, 규칙, 지침이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면, 2장에서 제기한 문법 교육과 글쓰기 교육의 분리 현상은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어떤 공식이나 규칙, 지침이 글쓰기 능력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우리가 앞서 다룬 ‘통사, 의미론적 접근 방식’이나 ‘화용,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은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끌어 낸 지점은 문법

17) 김혜정(2017:1)에서는 ‘독해 전략을 분절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을 ‘독해와 작문의 통합’, ‘언어적 산출물과 저자 의도의 통합’ 등으로 확대한다면 글쓰기 교육에서 구체화하는 절차가 문법 교육의 과제로 해석될 수도 있다. 텍스트 언어학의 독해 전략을 작문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문법 교육의 기능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치와 관련된 단위(관여 영역 등)에 대한 문제와 텍스트성을 갖추지 않은 글에 대한 실질적 접근의 문제였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학습자 글 (1)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그러나’와 관련된 문법 교육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학습자가 ‘그러나’를 자신의 글에 사용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머릿속 사전에 등재된 목록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대학의 학습자는 내재적 언어 능력을 통해 또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 내재화 한 문법 장치 ‘그러나’를 통사, 의미론적 문법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글쓰기 행위는 해당 학습자의 머릿속사전의 목록의 사용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그러나’가 텍스트 내의 언어 실현은 개방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 개방성에 의해 산출된 언어 자료의 가치는 일차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한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생산된 언어가 학습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충실하게 실현되었는가를 사고할 수 있는 개입되어야만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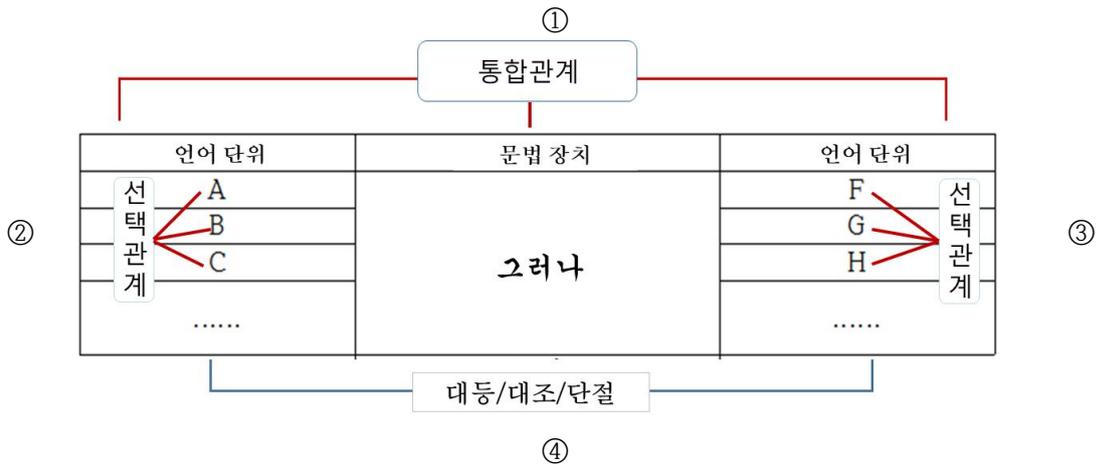
학습자가 이전의 언어적 결과물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돕는 언어적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는 학습자의 사고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의 교수 학습적 도구가 된다.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대상화하는 과정에서 언어 요소인 ‘그러나’를 살핍으로써 언어 생성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문법 장치 ‘그러나’는 이미 표면화된 언어의 의미를 점검하면서 또 다른 실현 가능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된다. 우리의 논의에서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의 명시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의 명시적 형태 자체가 학습자의 사고를 견인하는 촉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글 (1)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습자가 자신의 글에 나타나는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에 대한 명시적 인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글의 개선을 위해 발견해야 하는 문법 요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와 관련된 문법 교육이 어떻게 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글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그러나’에 대한 문법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문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최소의 규칙이나 원리로 다양한 언어 실현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규칙과 원리를 관통하는 틀은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인식이다. 체계와 구조 인식에 기반하여 문법 장치 ‘그러나’와 관련된 사고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래와 같다.

---

18) 이는 화용론이나 텍스트 언어학에서 말하는 ‘맥락’과 긴밀히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 앞선 논의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맥락을 대학 학습자의 글쓰기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하는 지점이다.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에 위계 문제이다. 대학의 학습자의 글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텍스트 생산자의 관계가 다른 맥락에 비해 더 많이 주목되거나 집중되어야 한다. 대학 학습자의 글쓰기 상황 자체는 장르나 독자가 한정되는 일이 많다. 또 대학 수업 자체가 글쓰기를 위한 내용지식의 습득이나 적용의 상황이 되는 일이 많다. 수업 내에서 글을 구성하는 사회적 특성이 분석되거나 전제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학습자가 글을 생산하는 상황 자체에서는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 간의 관계가 보다 중요하며 이 관계 안에서 문법 교육이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림 1> 문법 장치 ‘그러나’의 구조

학습자가 자신의 글에서 ‘그러나’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위의 그림이 함의하는 바를 언어로 산출한다는 의미이다. 먼저 ①은 ‘그러나’가 그 앞뒤의 언어단위들과 갖는 관계이다. 이 앞뒤 요소들 간의 관계는 ④에 보인 바와 같은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관계를 갖는다.<sup>19)</sup> 그리고 이런 통합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문법 장치 앞뒤에 놓일 수 있는 언어단위들 간의 관계는 ②와 ③에 보인 선택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글에서 ①, ④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②, ③의 관계를 조망하여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②, ③을 묶었을 때 의미적으로 공통성을 가진 동시에 ②와 ③이 대등, 대조, 단절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지점을 자신의 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2장에서 분석하였던 통사, 의미론적인 접근은 사실 <그림 1>이 함의하는 바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 <그림 1>의 ‘그러나’ 전후에 놓인 ‘언어 단위’라는 지점은 앞서 화용론적,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이 기여하는 바를 반영한 것이다. 이 언어 단위는 문장, 문장군, 단락, 단락군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언어 단위를 문장, 단락, 전체글로 언어 구조를 확대하여 문법 장치 ‘그러나’가 접촉하는 대상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그림 1>은 앞서 다룬 통사, 의미, 화용, 텍스트 언어학의 유용성만을 이끌어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그림 1>을 활용한 글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이 앞서 말한 것과 차별성을 갖는 지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실현된 언어 표현 속의 ‘그러나’가 어떠한 언어적 관계 자체만이 아니라 그 문법장치가 함의하는 바까지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 1>로 해석한다면 학습자들이 실현된 ‘A 그러나 B’간의 통합관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 관계에 놓여 있는 ‘A, B, C’, ‘F, G, H’들 간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관계를 볼 수 있을 때 학습자 글이 질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법 장치와 통합 관계에 놓인 언어 단위에 대한 개념이다. 문법 단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앞

19) 여기서 ‘단절’은 신지연(2005:36)에서 보인 것으로 ‘그러나’가 선행절 내용으로부터 생긴 기대의 일부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학술 논문이 보여주는 ‘그러나’의 기능 중에는 이전 단위와 이휘 단위의 구획의 기능을 하는 용법을 많다. 문법 장치 ‘그러나’의 이런 역할을 ‘단절’등의 용어로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학 학습자 글 나타나는 문법 장치의 단절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논문의 과제로 삼는다.

뒤에 놓인 바처럼 언어 단위를 문장에서 더 큰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법 장치 ‘그러나’를 인식하면서 그것이 유의미한 언어 단위로 설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그림1]이 함의하는 사고 내용을 견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언어 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까?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직접 구성 요소(Immediate Constituent)’다. 직접 구성 요소가 언어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sup>20)</sup> 실제로 2장에서 논의하였던 통사, 의미론적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들이 문법 장치 ‘그러나’의 앞뒤에 놓이는 언어 범주를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로 취급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언어학자의 전제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를 사용한다. 그 기본 전제를 확인하고 문법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학습자들이 문법 장치 ‘그러나’를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직접 구성 요소를 언어 단위로는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는 앞서 논의한 문법 장치 ‘그러나’의 통사, 의미론적 요건들을 적용하여 사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편의상 앞서 본 학습자 글 (1)을 다시 보이면서 <그림 1>과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자.

- (1) ① 인구변화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출산이다. ② 국가의 가장 중대한 목표가 국가 유지 및 생존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출산을 비롯한 인구 문제는 국가가 관여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③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출산은 개개 부부의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④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출산, 육아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중대한 기능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공재를 충분히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직접 구성 요소의 개념은 하나의 언어 형식(이 글에서는 언어 단위)를 둘로만 나누었을 때의 각각의 언어 단위를 말한다.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하나로 묶이는 단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락 (1)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락 (1) 자체가 하나의 유의미한 언어 단위로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단락 (1)은 학습자가 설정한 언어 단위의 하나다. 그리고 단락 (1)에서 추출하였던 공통 의미 요건에 해당하는 ‘출산 문제에 대한 관여 주체’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의 토대가 되는 기본 단위이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주제(문)이라 불리는 의미를 갖는 언어 단위다.

그렇다면 ‘출산 문제의 관여 주체’를 기본 의미로 갖는 언어 단위를 구성하는 직접 구성요소는 어떤 것이 되는가를 고려해 보자. (1)의 문면은 ‘개인: 국가’라는 두 개의 단위로 의미를 분할하려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단락 (1)은 이런 기준으로 둘로만 나눌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③과 ⑤에서 문법 장치 ‘그러나’라는 분리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 단락을 두 개로만 분할하기 어려워진다. 그만큼 복잡한 의미구조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문어에서

20) 문법 교육에서 ‘직접구성요소’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법 연구의 기본 전제들이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문법의 본질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법 장치 ‘그러나’의 앞뒤에 놓이는 언어 단위를 직접 구성 요소가 되는 일이 많다. 결국 이 글의 문법 장치 ‘그러나’의 사용은 문법 장치 ‘그러나’가 함의하는 ‘공통 의미 요건’이라는 측면과 ‘그러나’가 함의하는 앞뒤의 대조나 단절의 요건의 항목 그리고 전체 글의 소주제(문)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자신의 글에서 하나의 단위와 문법 장치 ‘그러나’에 의해 직접 분할되는 언어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이 자신이 산출한 단락의 질서로 발견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하는 방식에 적절한 문법 장치 ‘그러나’의 활용 방식을 도모하는 일은 자신의 글을 개선할 단서를 발견하는 절차가 된다. 이러한 절차는 ‘문법 장치의 인식 - 언어 단위 상에서의 적절성 분석 - 직접 구성 요소의 언어 단위의 재설정 - 구조의 개선’과 같은 절차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학습자와의 튜터링이나 피드백을 통해, 단위에 대한 인식과 문법 장치 간의 관계를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식이다. 튜터링이나 피드백에서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은 아래와 같다. 글을 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의도를 직접 물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 방식이다.

- (8) ①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 ② 핵심 어구를 세 단어 이상으로 말해보자.
- ③ 이 단락을 둘로만 나눈다면 어디에서 나눌 것인가?
- ④ 그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잘 나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가?
- ⑥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어휘 사용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⑦ 이 단락을 수정하기 위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8①-⑥)의 표면적 발화에는 문법적 용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 앞서 논의한 ‘하나의 언어 단위’, ‘공통 의미 자질’, ‘문법 장치 ‘그러나’의 함의’를 학습자와 논의하기 위한 질문들이다. 튜터링 상황이나 학습자 글의 다른 부분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가에 따라 ①-⑥의 질문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학습자가 <그림 1>과 직접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자신의 글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방법은 해당 학습자 글을 유인물에 반영하고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전체 학습자의 글에 나타나는 일반성을 확인하고 그 일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할 수 있다. (1)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9) ① 학습자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 ② 학습자가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한 바를 핵심 어구를 세 단어 이상으로 말해보자.
- ③ 이 단락을 둘로만 나눈다면 어디에서 나눌 것인가?
- ④ 그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 ⑤ 학습자 글이 잘 나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가?
- ⑥ 이 학습자의 어휘 사용의 특성을 말해 보자.
- ⑦ 이 글을 쓴 학습자에게 조언 한마디만 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8)이나 (9)의 활동을 수렴하기 위한 전체 강평 과정에서는 우리가 앞서 논의하였던 문법적 용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특히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를 수정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림 1>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논의할 수도 있다. 아래 (10)은 (8)의 활동 과정을 거친 학습자가 자신의 글 (1)을 수정해 보인 것이다.

- (10) ① 인구변화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출산이다. ② 출산은 개개 부부의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출산 및 육아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모순되는 것이다. ③ 그러나 국가의 가장 중대한 목표는 국가 유지 및 생존이다. ④ 인구는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 국방, 복지, 자유 등에 모두 관여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⑤ 인구를 구성하는 한 사람은 공공재라고 할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는 다분히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⑥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충분히 공급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기능 중 하나인 것이다.

글쓰기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를 활용하는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전보다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이라는 것이 글쓰기 교육이 관여하는 가치다. 결국 문법 장치를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자신의 글의 수준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글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의 기본 전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이 주는 기본 의미에 충실할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원리나 규칙으로 복잡한 사안을 설명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학습자의 언어적 산출물이 문법적 오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개선 가능한 중간 단위일 뿐만 아니라 이후 언어적 산출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단위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는 학습자에게도 교수자에게도 텍스트답지 않은 산출물의 중요도를 강조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앞서 말했던 문법 교육의 목표에 주목해 보자.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산출물을 대상화하고 자신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단계로 진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교육적 경험이 될 것이다.

셋째,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언어적 결과물을 대상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명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법 장치의 기능과 그 함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첫째 항목에서 말한 원리나 제약은 학습자가 말하거나 글쓰기를 하는 데 자기 수정 원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4. 결론

- 생략

#### ■ 참고 문헌

김남미(2017). 문법장치 ‘와/과’를 활용한 개요 수정 사례, 국어교육연구37, 29-64.

김도영(2016).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접속부사 교육의 방향성 연구 -세종 형태분석 문어 코퍼스의 설명문, 논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37, 103-120.

- 김미선(2001). 접속부사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2007)
- 김문기(2014).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 *우리말연구*39, 203-227
- 김선영(2003). 현대국어의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선영(2004). ‘그리고’류의 문법범주의 판별에 대하여, *형태론*6-2, 355-366.
- 김혜정(2017). 설명적 글 읽기를 위한 독해 전략-수능 국어 시험의 지문 유형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50, 141-170.
- 남기심, 고영근(1985). 표준국어 문법론. 서울: 탑 출판사.
- 민현식(2010).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의와 방향, *문법교육*12, 한국문법교육학회, 1-37.
- 신지연(2005). 접속부사 ‘그러나’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8, 23-48.
- 신현숙(1989). 담화 대용표지의 의미 연구. *국어학*19, 427-450.
- 안주호(2000). ‘그러-’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 *국어학*35, 114-141.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박이정.
- 이관규(1992). 대등 구성의 요건과 유형. *한글*217, 63-82.
- 이관규(2002). 학교 문법론. 서울: 월인.
- 이삼형 외(2015). 작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국립국어원.
- 이익섭(2003). 국어학개설. 서울: 학연사.
- 임유종, 박동호, 홍재성(2001). 접속부사의 구문론적 특성. *언어학*28, 177-209.
- 임호빈 외(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장기열(2003).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19, 175-193.
- 장영희(1994). 접속부사에 대하여. *어문논집*4, 137-152.
- 전영옥(2007). 구어와 문어의 접속부사 실현 양상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 22, 223-247.
- 정성훈(2014). 한국어 부사의빈도와분포 고찰-문어자료와 구어자료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65, 197-244.
- 조진수, 노유경, 주세형(2015). 텍스트 표지 교육 내용에 대한 문법교육적 역할, *국어교육*150, 1-31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주세형. (2007). 텍스트 속 문장 쓰기와 문법. *한국초등국어교육*, 409-443.
- 최미숙 외(2008). 국어 교육의 이해, 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사회평론.
- 홍정하(2012). 신문텍스트 유형의 통시적 변화 -접속부사 사용 주제의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56, 한국어학회, 275-315.
- Knapp, P. & Watkins, M.(2005),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The UNSW Press, AUSTRALIA; 주세형, 김은성, 남가영, 윤희김 (2007), 장르, 텍스트, 문법: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박이정.
- Erman, B.(1987). *Pragmatic Expressions in English: A Study of You Know, You See and I Mean in Face-to-face Conversation*. Stockholm: English Department, Stockholm University.
- Fraser, B.(1975). “Hedged performatives”.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187-200.
- Fraser, B.(1998).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In: Jucker and Ziv. (Eds.), *Discourse markers: Descriptions and theory pragmatics and beyond*. John Benjamins, : 301-326.
- Fraser, B.(2005). “On the Universality of Discourse Markers”. *Pragmatic Markers in Contrast*. Studies in Pragmatics 2. Lavoisier S.A.S.
- Fraser, B.(2009). “The English Contrastive Discourse Marker: On the Contrary”. *Language in Life and Life in Language*. Jacob Me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87-95.

## ■ 토 론

### “문법 장치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에 대한 토론문

한명숙(안양대)

이 연구는 글쓰기 학습자들이 생산한 글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속 부사 ‘그러나’의 사용에 주목하고, 문법장치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언어활동을 보다 고차원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나’라는 문법 장치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글이 실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주목한 것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은 통찰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직접 구성의 단위를 문장을 넘어서 단락, 단락군까지 확대한 점은 매우 신선한 발상이고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의 앞뒤에 놓이는 언어 범주를 직접 구성 요소로 취급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이해하여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직접 구성 요소를 언어 단위로는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 개선 사례를 통해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단락이 IC 구조로 양분될 수 있는가 또는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언어 단위가 IC로 분석되는 것은 사실이나 ‘빨녹파’, ‘월수금’처럼 분석이 무의미하거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 단락에서 하나의 ‘그러나’를 사용하여 꼭 IC로 양분하는 것이 최상인가하는 점입니다. 발표에서 제시한 사례로 (1)보다 (9)가 좀 더 세련된 것은 사실이나 반론의 재반론 구조를 갖고 있는 (1)이 글쓴이의 사고의 과정을 좀더 명쾌하게 드러내는 이점도 있어 보입니다.

둘째, 오늘 발표에서는 접속 부사 가운데 ‘그러나’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가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쓰기 예서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따라서, 그러므로’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접속부사들이 사용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이런 여타 접속 부사에도 확장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도에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학습자와의 튜터링이나 피드백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 (8)
- ①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 ② 핵심 어구를 세 단어 이상으로 말해보자.

- ③ 이 단락을 둘로만 나눈다면 어디에서 나눌 것인가?
- ④ 그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잘 나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가?
- ⑥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어휘 사용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⑦ 이 단락을 수정하기 위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다른 하나는 해당 학습자 글을 유인물에 반영하고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 (9) ① 학습자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 ② 학습자가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한 바를 핵심 어구를 세 단어 이상으로 말해보자.
- ③ 이 단락을 둘로만 나눈다면 어디에서 나눌 것인가?
- ④ 그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 ⑤ 학습자 글이 잘 나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가?
- ⑥ 이 학습자의 어휘 사용의 특성을 말해 보자.
- ⑦ 이 글을 쓴 학습자에게 조언 한마디만 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첫 번째 방식은 일대일로 진행하는 일명 첨삭 지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공개 지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평가적 지도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8)번과 (9)번에서 제시한 내용에서 보면 ①~⑥의 내용은 같고 단지 ⑦번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학 글쓰기 교재의 유형과 개선

안신혜(송담대)

## < 차례 >

1. 서론
2. 대학 글쓰기 교재의 특징
3. 글쓰기 교재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4. 실제 교재 사례
5. 결론

### 1. 서론

최근 10여 년 간의 대학 교양 강좌를 살펴보면 글쓰기 과목이 신설되거나 증설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에서 전공교육에만 주력하던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문학적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눈을 돌리게 만든 사회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층을 주시청자로 하는 방송 등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거나 혹은 아예 인문학 강의를 방송 내용으로 삼는 것들 또한 요즘의 사회 현상을 대변한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적 교양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전의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둔 방식에서 이야기 중심 방식으로 소통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눈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인재상을 사회가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대학에서 글쓰기 강좌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하여 글쓰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는 이를 통해 전공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전공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과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목표로 두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대인관계능력의 향상까지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글쓰기 과목을 기초로 두고 학생들이 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에 대학 내에 글쓰기 전담 센터를 마련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글쓰기에 대한 교육관과 글쓰기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따라 글쓰기 과목의 성격과 커리큘럼이 달라진다.<sup>1)</sup> 이 글에서는 그 교과 과정을 담고 있는 교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한계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1) 최상민,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전남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2집, 한국언어학회, 2007

## 2. 대학 글쓰기 교재의 특징

현재 대학 글쓰기 교재는 다양하게 출간되어 있는데 글쓰기 강좌가 있는 대학의 경우 주로 교내 교수진들이 집필한 원고를 수정하여 출간한 교재를 채택하여 수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글쓰기 강좌가 있는 대학은 대개 자신들만의 교재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글쓰기 교재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글쓰기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높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는다. 또한 학생들의 글쓰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교수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각 대학에서 글쓰기 과목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회의 요구와 대학의 바라는 인재상에 따라 교재를 수정하여 다시 출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은 대학 간의 연계 작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출간한 글쓰기 교재가 학교마다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갖고 수정과 재편집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공과목과 달리 글쓰기의 경우 공통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커리큘럼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sup> 또 일정한 표준 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교수자들의 교수법 역시도 다른 교과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교수자의 재량권이 확보되어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을 충분히 도입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같은 교재로 동일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자에 따라 상이한 글쓰기 강좌를 듣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한다.

대학 글쓰기 과목은 목적에 따라 크게 학문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실용 글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문적 글쓰기 과목에서는 주로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논문을 처음 작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실제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제를 잡고 논리적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과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과 별로 논문을 쓰는 방식이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형식을 따르는 학과의 학생들 별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창의적 글쓰기 과목에서는 문학적 글쓰기를 주로 다루는데 교재에 문학 텍스트를 신는 경우가 많다. 실용 글쓰기 과목은 대학에서도 볼 수 있는 글쓰기 과목이지만 도서관이나 문화 센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강좌이다. 이 과목에서는 학교 과제나 회사의 보고서, 이메일을 쓰는 형식이나 요령 등에 대해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과에 따라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때에 제대로 된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글쓰기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늘어나는 교육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이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글쓰기 교재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이 마련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향후 취업 시험에서 자기소개서가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기대하는 점을 물으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연습하여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글쓰기 센터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2) 김정숙·백윤경, 「대학 글쓰기 교재의 현황과 발전적 방향 -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현재 대학에서 사용하는 글쓰기 교재는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계열별 글쓰기 교재는 같은 계열의 학과 학생들 별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교재이다.<sup>3)</sup> 이러한 유형의 교재는 각 계열마다 학생들의 성향이 다르고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학생들에게 맞춤 글쓰기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

과정중심적 글쓰기 교재는 글쓰기의 과정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단위로 보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유형의 글쓰기에서는 학생들에게 과정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sup>4)</sup>

주제에 따라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교재들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재에서는 고전이나 철학, 문학, 역사,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보편적 주제 선택하여 글쓰기의 주제로 다루어 글쓰기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글쓰기 과정을 사고력 증진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교재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재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논증하는 힘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 3. 글쓰기 교재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수업은 대체로 교재의 챕터마다 전반부에 텍스트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읽게 한 후 그것을 토대로 하여 글쓰기를 이어가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교재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펼쳐 나가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철학이나 역사, 예술 분야의 글을 읽게 하여 기본 지식을 갖추게 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학생들이 글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 중 내용을 채우는 부분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텍스트를 읽는 연습을 하게 되어 좋은 글을 구성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글쓰기 교재가 읽기에 치중하게 되어 텍스트 중심의 교재가 되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교재에 실려 있는 글은 최근의 것이라기보다는 고전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교재에 실려 있는 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 이론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수업 방식이 이론 전달에 치중하는 수업인 만큼 교재의 내용을 텍스트로 채울 때에는 그 비중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글쓰기 과정을 생각을 정리하는 사고 과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고력의 종류에 따라 교재를 달리 편찬하고 글쓰기 과목 역시 과목에 따라 둘로 나누어 개설한다. 보통은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로 나누는데 이에 따라 과목의 이름도 달라지게 된다.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논리적 사고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유형의 교재에서는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신는 경우가 많다.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글쓰기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교재에 신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소설의 한 단락이나 시를 제시하고 이를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쓰게 하는 형식이다. 최근에는 이야기 중심의 스토리텔링 방법도 많이 활용되는데 학습자가 제시된 글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대입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가

3)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호, 작문연구회, 2005

4)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과 사고력 학습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5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글쓰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글쓰기 초보에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글쓰기 교재의 방식들은 쓰기보다 읽기에 중점을 두게 되기 쉬워 읽기와 글쓰기의 연계가 밀접하지 않고, 텍스트에 언급된 부분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글쓰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의 글쓰기에서는 사회 문화적 내용을 담고 공동체 안에서의 담론을 다루기를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의 환경 중심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지면서 통합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sup>5)</sup>

#### 4. 실제 교재 사례

이 장에서는 건국대학교에서 편찬한 글쓰기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책의 구성을 살펴보고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다룬 책은 ‘창조적 사고와 표현’과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다. 이 두 책은 건국대학교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좌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교재이다.

##### 4.1. ‘창조적 사고와 표현’ 교재 분석

‘창조적 사고와 표현’과 ‘비판적 사고와 토론’은 위에서 언급한 교재들 중 사고력 증진을 위한 글쓰기 교재에 속한다. 우선 ‘창조적 사고와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장 창조적 사고와 삶
2장 자기표현의 글쓰기
3장 이야기의 이해와 창조
4장 문학적 상상과 글쓰기
5장 문화 체험과 비평적 글쓰기
6장 디지털 미디어와 프레젠테이션

1장에서는 글쓰기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창조적 사고의 의미, 특성,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창조적 사고를 위한 태도나 창조적 사고를 갖기 위한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전통적인 글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글쓰기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자기표현의 방식임을 설명하였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글을 쓰기 이전에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글을 쓰는 행위가 특별한 행위가 아니며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 중의 하나라는 말로 학습자가 글쓰기에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장과 4장에 이르면 실제 글쓰기에 들어가는데 3장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현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를 변형하여 글로 구성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시와 소설을 텍스트로 제시하는데 전체나 혹은 일부분을 제시하고 등장인물의 서사적인 면을 생각해 보

5) 전지니, 「수용자를 위한 대학 글쓰기 교재 개편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6, 이화어문학회, 2015

고 학습자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비평적 글쓰기를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 체험을 하도록 한 후 자신이 감상한 문화 작품에 대하여 비평글을 쓰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교재는 상당한 분량을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텍스트로 제시하는 데에 할애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글쓰기 교재에서 읽기 텍스트를 제시할 때에 지켜야 할 적당한 비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텍스트의 종류도 여러 글을 실는 것이 아니고 시와 소설에 국한되어 있어 학습자가 다양한 글을 접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5장의 비평 글쓰기는 문화 체험의 주체로서의 글쓰기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와 프레젠테이션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장은 이 교재 전체의 내용과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교재 전반에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 오고 있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이 교재의 이름이 ‘창조적 사고와 표현’인 만큼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인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발표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교과 중 일부로 책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글쓰기 센터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실제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여 피드백을 주는 작업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로 인한 교과외 편성인 것으로 보인다.

#### 4.2. ‘비판적 사고와 토론’ 교재 분석

‘비판적 사고와 토론’ 교재는 사고력 중에서도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글쓰기를 주제로 하는 교재이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비판적 사고
1장 비판적 사고의 의미
2장 비판적 사고와 논리
3장 비판적 사고의 적용
2부 주요 토론 논제
1장 ~ 10장

이 책은 1부에서는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고 2부에서는 각 장에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생각하고 논의를 펼칠 수 있도록 대립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1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과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기초 철학 중 하나인 논리 철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판적 사고와 논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논증의 유형인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예시와 오류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논리 철학 이론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공부하게 되면 사고력이 증진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재를 사용하는 수업은 글쓰기 수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 다소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2장에서 논리 철학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은 열 장 내외로 그

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난이도를 따진다면 강의 중 할애할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글쓰기 수업인 만큼 철학 이론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는 것에 학습자들의 거부 반응도 있을 것이다. 이 교재는 앞에서 보았던 ‘창조적 사고와 표현’ 교재처럼 앞에 이론적인 설명이 나오고 중간에 텍스트가 나온 뒤 마지막에 실제 글쓰기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다만 이 책에서는 글쓰기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으며 글쓰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라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 건국대 학부생들은 글쓰기 과목을 필수 교양으로서 듣는데 ‘창조적 사고와 표현’ 과목과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와 표현’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글쓰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은 반면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그에 비해 기회가 적다. 이것만 보아도 ‘비판적 사고와 토론’ 교재는 글쓰기 강좌 교재이기는 하지만 지향하는 바가 여타 다른 글쓰기 과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제 글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논리력을 키우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글쓰기에서 논리적인 글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필진들의 교육관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 사고와 표현’ 교재의 경우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 집필진으로 있는 반면 ‘비판적 사고와 토론’ 교재의 경우는 철학과 교수들이 집필진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글쓰기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창조적 사고와 표현’ 과목에서 실제 글쓰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적은 횟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학교 내에서 같은 글쓰기 과목이면서도 교재에 따라서 학습자가 겪게 될 수업의 내용과 과정은 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4.3. 강의안 제안

글쓰기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글쓰기 관련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므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쉬운 연습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연습활동은 실제 글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활동 중에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활동이다.

#### 1. 창의적 글쓰기

1.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설명
2.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실제 적용해 보기
3. 주제어 제시 - 커피
4.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이용하여 주제어와 관련 있는 단어 모으기
5. 비싸다, 맥심, 카페, 카누, 여름, 스타벅스, 여친, 공장, 영화, 검은 물, 입냄새, 발냄새, 알바, 카푸치노, 최저시급, 카페인, 불면증, 설탕, 돈,
6. 한 반을 둘로 나눈 후 보건복지부와 커피 회사 마케팅부의 역할을 부여
7. 각 팀에게 유리한 단어 10개씩을 나눠 가진 후 상대팀에게 불리한 단어 2개씩 부여
8. 자신들에게 부여된 단어를 반드시 한 번 이상씩 사용하여 광고 문구를 만들도록 함
9. 결과물 발표

## 2. 비판적 사고

1.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2.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제시
3. 선녀와 나무꾼을 현대의 눈으로 보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4. 불법수렵(사슴 밀렵)
  - 경범죄(목욕하는 선녀를 나무꾼이 몰래 훔쳐본 것)
  - 절도죄(선녀의 옷을 나무꾼이 훔쳐간 것)
  - 공연음란죄(선녀가 산에서 목욕을 한 것)
  - 아동유괴(나무꾼의 허락 없이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것)
  - 주거침입죄(나무꾼이 옥황상제의 허락 없이 가택에 침입한 것)
  - 재물손괴죄(선녀에게 빌려온 말의 등에 죽을 쏘아 다치게 한 것)

## 5. 결론

본고에서는 대학의 글쓰기 강좌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짚어본 후 기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시대에 따라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교육관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교양 강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글쓰기 교재의 개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글쓰기 교재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점들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대학생 학습자가 글쓰기 강좌에 바라는 점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과 과정을 수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보 지식 전달 사회에서 이야기 전달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글쓰기 역시 스토리 텔링의 방식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점을 교재에 반영하여 문학 작품의 변형과 자기 서사를 통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또 글쓰기를 사고력 증진의 한 방법으로 파악하여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글쓰기 교재에 논리 철학 이론을 접합시킨 것도 볼 수 있었다. 글쓰기 교재의 유형에는 과정 중심 교재, 주제별 교재,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 교재, 계열에 따른 교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 목적에 따라 크게 학문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실용 글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참고 문헌

- 건국대학교 글쓰기 연구회(2012), 『창의적 글쓰기의 기법』, 조울.
- 곽경숙(2009), 「대학 글쓰기 교재의 비교 분석」, 『한국언어문학』 68, 한국언어문학회.
- 구자황(2012), 「대학 글쓰기 교재의 구성에 관한 일고찰」, 『어문연구』 74, 어문연구학회.
- 김병길(2008), 「대학 글쓰기 교재 개발 연구」, 『작문연구』 7집, 한국작문학회.

-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사고와 표현1: 글쓰기의 기초」, 고려대학교 출판부
- 도애경(2006), 「대학 작문 교육의 전략적 접근」, 『한국언어문학』 57집, 한국언어문학회.
- 송주현(2015), 「대학별 사례를 통해 본 글쓰기 수업에 관한 연구, 독서, 과정중심, 전공역량 활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글쓰기 특집 학술대회 발표집.
- 신선경(2005),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관악어문연구』, 30집, 관악어문학회.
- 심보경(2006), 「대학생의 글쓰기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39집, 국어교육학회.
- 심영덕(2007), 「대학생을 위한 올바른 글쓰기 전략」, 『한민족어문학』 51집, 한민족어문학회.
- 오정훈(2007), 「논리적인 글쓰기 지도 방안」, 『배달말교육』 28호, 배달말교육학회.
- 윤철민(2015),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 연구-2005년, 2014년 고려대학교 글쓰기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7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이광모(2007),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토론’과 ‘글쓰기’의 의미와 방향」, 『동서철학연구』 44호, 한국동서철학회.
- 이승규(2007), 「열린 글쓰기를 통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전은주(2005), 「대학 작문 교재의 동향과 개선 방향」, 『새국어교육』 7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정상봉 외(2014), 『비판적 사고와 토론』, 쿠북.
- 정영진(2013), 「대학 교양에서의 ‘창의적 글쓰기’ 인식 연구」, 『작문연구』 18집, 한국작문학회.
- 최형용 외(2011), 『발표와 토론』, 박이정.
- 황혜진 외(2015), 『창조적 사고와 표현』, 쿠북.

## ▣ 토 론

### “대학 글쓰기 교재의 유형과 개선”에 대한 토론문

원흥연(경동대)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재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재에서 벗어난 현재 글쓰기 교재의 한계를 지적하고, 4장에서는 실제 교재 2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목차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강의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현대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학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글쓰기 관련 교과목이 신설되고 증설되었으며 글쓰기를 전담하는 글쓰기 센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20여 년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글쓰기 강좌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미흡하며 전반적인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글쓰기 강좌와 글쓰기 교재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 결과는 앞으로 글쓰기 강좌에 대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쓰기 관련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토론자에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준 한말학회와 연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생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연구자에게 질문하면서 토론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2장에서 대학 글쓰기 교재의 특징을 설명하고 정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나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징에 대한 실제적인 예시가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어떤 대상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셨는지 궁금하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글쓰기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본 연구를 보면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강좌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맞는지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3장에서 글쓰기 교재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밝히시면서 텍스트 선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전, 철학, 역사, 예술 그리고 사회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담론을 어떻게 얼마나 제시하는 것이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셋째, 4장에서 ‘창조적 사고와 표현’ 교재와 ‘비판적 사고와 토론’의 교재를 분석하면서 교재 편성 내용이 교과목 지향 목표와 집필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연구자는 글쓰기 관련 교과목이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며, 어떤 집필진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은지 연구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글쓰기 교재의 개선점을 찾는 것에 목표를 두고 4.3.에 연구자의 실제 강의 활동을 참고로 강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흥미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의 방법과 내용을 글쓰기 교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글쓰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연구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제4부 <제4 분과 한국어교육>



#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산출 연구

최영미(경동대)

## < 차 례 >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3. 실험방법
4. 실험 결과 및 논의
5. 맺음말

##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을 분석하여 한국어 파열음 교육의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평음, 격음, 경음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발음이 어려웠습니까?’라는 물음에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자음 발음에서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이 어렵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중에 ‘ㄴ, ㄷ, ㄹ’과 ‘ㅈ, ㅊ, ㅃ’ 계열이 어렵다고 조사되었다(김빅토리아 2004:28). 또한, Mozol Tatiana(2006)은 어두에서 러시아인의 한국어 파열음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어 평음 /ㄴ, ㄷ, ㄹ/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모국어 자음체계에 없는 한국어 격음 /ㅃ, ㅆ, ㅈ/를 발음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무학습 러시아인은 한국어 평음 /ㄴ, ㄷ, ㄹ/을 러시아어 무성음 /p, t, k/로 지각하고, 한국어 경음 /ㅃ, ㅆ, ㅈ/을 러시아어 /b, t, k/로 지각하며, 한국어 격음 /ㅃ, ㅆ, ㅈ/을 각각 /p, t, k/로 지각한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인지실험 결과를 통해서 러시아인 학습자가 한국어 /ㄴ/과 /ㄷ/을 지각할 때 러시아어 음소 /p/로 동일하게 지각한다는 것은 발음할 때 한국어의 기식성의 정도와 음높이의 차이를 구분하여 지각하지 못한 결과로 발음 오류가 예측되고, 러시아어 /p, t, k/을 듣고 어시어 무학습자 한국인은 /ㅃ, ㅆ, ㅈ/으로 지각하므로 격음 /ㅃ, ㅆ, ㅈ/도 마찬가지로 발음의 오류가 예측된다. 반면에 한국어 무학습 러시아인이 한국어 평음 /ㅃ, ㅆ, ㅈ/을 지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고, 다만 러시아어의 /t/는 한국어 /ㄷ/과 조음위치가 달라 처음으로 발음할 것을 예측했다(유재선 2009:22). 이와 같이 설문조사, 산출실험, 인지실험의 선행연구의 결과로 보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파열음

을 습득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발음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법은 교사의 전범적인 발음을 듣고 학습자가 따라하는 ‘듣고 따라하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경희·정명숙(1999)는 어두와 어중의 파열음이 음향적 특징이 다르므로 한국어 파열음을 교육할 때 어두와 어중의 파열음을 분리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기술했다. 반면에 Mozol Tatiana(2006)은 러시아어에 유성-무성의 대립이 존재함으로 러시아 학습자들은 유성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므로 러시아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파열음을 교육할 때 어두와 어중의 파열음을 구분해서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을 분석하여 원어민 한국어 화자의 파열음 발음과 비교하여 어두와 어중의 파열음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파열음 교육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파열음 대조

한국어의 자음은 조음위치, 조음방법, 내는 힘(발성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먼저,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1)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

- ㄱ. 입술소리(양순음): /ㅍ, ㅂ, ㅃ, ㅁ/
- ㄴ. 잇몸소리(치조음): /ㄷ, ㅌ, ㅈ, ㅊ, ㅅ, ㅆ, ㄴ, ㄹ/
- ㄷ.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ㅈ, ㅊ, ㅈ/
- ㄹ.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ㄱ, ㅋ, ㆁ, ㅇ/
- ㄹ. 목구멍소리(후음): /ㅎ/

(1ㄱ)의 입술소리는 두 입술에서 장애가 이루어져 나는 소리로 두 입술을 닫았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이고, (1ㄴ)의 잇몸소리는 윗잇몸에서 장애를 받아 내는 소리를 ‘잇몸소리’라 하고 잇몸 뒤의 딱딱한 입천장에 걸쳐 장애를 받아 내는 소리이며, (1ㄷ)의 센입천장소리는 윗잇몸보다 조금 안쪽 딱딱한 입천장에 걸쳐 장애를 받아 내는 소리이고, (1ㄹ)의 여린입천장소리는 센입천장보다 조금 안쪽의 부드러운 입천장에서 장애를 받아 내는 소리로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에 닿아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주어 내는 소리이며, (1ㄹ)의 성대 사이의 공간에서 공기 흐름의 장애가 일어나는 소리이다.

다음으로 조음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누어진다. 조음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2)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

- ㄱ. 파열음 : /ㅍ, ㅂ, ㅃ, ㄷ, ㅌ, ㅈ, ㅊ, ㄱ, ㅋ, ㆁ/
- ㄴ. 마찰음 : /ㅅ, ㅆ, ㅎ/

- ㄷ. 파찰음 : /ㅈ, ㅊ, ㅉ/
- ㄹ. 비 음 : /ㅁ, ㄴ, ㅇ/
- ㅁ. 유 음 : /ㄹ/

(2ㄱ)의 파열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를 입 안에 가득 채운 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듯이 내 보는 방법으로 발음되는 소리이고, (2ㄴ)의 마찰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를 완전히 막지 않고 작은 틈을 두어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발음되는 소리이며, (2ㄷ)의 파찰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를 혀로 입천장을 완전히 막아 공기를 차단하였다가 뿔 때에는 조금만 떼어 마찰이 일어나도록 하여 소리 나게 하는 방법으로 발음되는 소리이다. 또한, (2ㄹ)의 비음은 공기를 입 안이 아니라 코를 통해 내보내는 소리이고, (2ㅁ)의 유음은 혀의 양 옆으로 공기를 흐르게 하여 내는 소리이다.

마지막으로 내는 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의 자음을 내는 힘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3) 내는 힘에 따른 자음 분류
- ㄱ. 평음 : /ㅂ, ㄷ, ㅈ, ㄱ, ㅅ/
- ㄴ. 격음 : /ㅃ, ㄸ, ㅉ, ㅋ/
- ㄷ. 경음 : /ㅍ, ㅊ, ㅊ, ㅋ, ㅌ/

이상의 본의에서 다룬 한국어 자음체계는 19개의 자음으로 구성된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어의 자음체계

구분	조음위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구멍 소리	
	조음방법	내는 힘						
장애음	파열음	약한 소리	ㅂ	ㄷ		ㄱ		
		거센 소리	ㅃ	ㄸ		ㅋ		
		된소리	ㅍ	ㅊ		ㅌ		
	마찰음	약한 소리			ㅅ			
		거센 소리						ㅎ
		된소리			ㅆ			
	파찰음	약한 소리				ㅈ		
		거센 소리				ㅊ		
		된소리				ㅉ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러시아어의 자음은 조음위치, 조음방법, 장애음과 공명음, 유-무성 자질, 경-연 자음 자질의 대립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이 있다. 조음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4)와 같다.

(4)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

- ㄱ. 양순음 : П/p/, Лj/pj/, б/b/, бj/bj/, м/m/, mj/mj/
- ㄴ. 순치음 : Ф/f/, Фj/fj/, в/v/, вj/vj/
- ㄷ. 치 음 : Т/t/, Тj/tj/, Д/d/, Дj/dj/, с/s/, cj/sj/, З/z/, Зj/zj/, Ц/c/, н/n/, нj/nj/, л/l/, лj/lj/
- ㄹ. 치경음 : ш/s/, ш/sj/, Ж/z/, /zj/, ч/č/, р/r/, pj/rj/
- ㄻ. 경구개음: й/j/
- ㄽ. 연구개음: К/k/, Кj/kj/, Г/g/, Гj/gj/, x/x/, xj/xj/

러시아어 자음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

- ㄱ. 파열음 : П/p/, Лj/pj/, б/b/, бj/bj/, Т/t/, Тj/tj/, Д/d/, Дj/dj/, К/k/, Кj/kj/, Г/g/, Гj/gj/
- ㄴ. 마찰음 : Ф/f/, Фj/fj/, в/v/, вj/vj/, с/s/, cj/sj/, З/z/, Зj/zj/, ш/s/, ш/sj/, Ж/z/, /zj/, й/j/, x/x/, xj/xj/.
- ㄷ. 파찰음 : Ц/c/, ч/č/
- ㄹ. 비 음 : м/m/, mj/mj/, н/n/, нj/nj/,
- ㄻ. 유 음 : л/l/, лj/lj/, р/r/, pj/rj/

러시아어 자음을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6)과 같다.

(6) 장애음-공명음에 따른 자음 분류

- ㄱ. 장애음 : П/p/, Лj/pj/, б/b/, бj/bj/, Т/t/, Тj/tj/, Д/d/, Дj/dj/, К/k/, Кj/kj/, Г/g/, Гj/gj/, Ф/f/, Фj/fj/, в/v/, вj/vj/, с/s/, cj/sj/, З/z/, Зj/zj/, ш/s/, ш/sj/, Ж/z/, /zj/, й/j/, x/x/, xj/xj/, Ц/c/, ч/č/
- ㄴ. 공명음 : м/m/, mj/mj/, н/n/, нj/nj/м л/l/, лj/lj/, р/r/, pj/rj/

러시아어는 유성과 무성이 변별자질로 기능한다. 이는 한국어 자음과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유-무성에 따라 러시아 자음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7) 유성-무성에 따른 자음 분류

- ㄱ. 유성음 : б/b/, бj/bj/, Д/d/, Дj/dj/, Г/g/, Гj/gj/, в/v/, вj/vj/, З/z/, Зj/zj/, Ж/z/, /zj/, м/m/, mj/mj/, н/n/, нj/nj/м л/l/, лj/lj/, р/r/, pj/rj/
- ㄴ. 무성음 : П/p/, Лj/pj/, Т/t/, Тj/tj/, К/k/, Кj/kj/, Ф/f/, Фj/fj/, с/s/, cj/sj/, Ц/c/, ч/č/, ш/s/, ш/sj/, x/x/, xj/xj/,

러시아어 자음은 경자음과 연자음으로 구분되며, 이는 러시아어 자음의 중요한 특징이다. 연자음은 입술이나 잇소리과 같은 기본적 조음 이외에 상보적인 구개음화가 작용하는 음이다. 연자음을 발음할 때는 혀의 가운데 부분이 경구개 부위로 상승하게 된다. 반면에 경자음은 이러한 구개음화가 작용하지 않는 음이다. 러시아어 자음을 경자음과 연자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8) 경자음-연자음에 따른 자음 분류

- ㄱ. 경자음 : П/p/, Ъ/b/, Т/t/, Д/d/, К/k/, Г/g/, Ф/f/, В/v/, С/s/, З/z/, Ш/s/, Ж/z/, Х/x/
- ㄴ. 연자음 : Пj/pj/, Ъj/bj/, Тj/tj/, Дj/dj/, Кj/kj/, Гj/gj/, Фj/fj/, Вj/vj/, Сj/sj/, Зj/zj/, Шj/sj/, Жj/zj/, Хj/xj/

러시아어 자음체계는 자음 37개로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자음이 발달한 언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자음체계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러시아어의 자음체계(김알라, 20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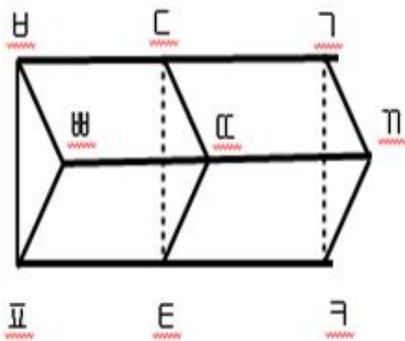
			입술소리				혀끝소리				혓바닥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경	연	경	연	경	연	경	연	경	연	경	연
장 애 음	파열음	무	П	П <sup>j</sup>			Т	Т <sup>j</sup>					К	К <sup>j</sup>
		유	/p/	/p <sup>j</sup> /			/t/	/t <sup>j</sup> /					/k/	/k <sup>j</sup> /
	마찰음	무	б	б <sup>j</sup>			Д	Д <sup>j</sup>					Г	Г <sup>j</sup>
		유	/b/	/b <sup>j</sup> /			/d/	/d <sup>j</sup> /					/g/	/g <sup>j</sup> /
	파찰음	무			Ф	Ф <sup>j</sup>	с	с <sup>j</sup>	ш	ш <sup>j</sup>			х	х <sup>j</sup>
		유			/f/	/f <sup>j</sup> /	/s/	/s <sup>j</sup> /	/ʃ/	/ʃ <sup>j</sup> /			/x/	/x <sup>j</sup> /
공 명 음	비음	무												
		유												
	설측음	무	М	М <sup>j</sup>			Н	Н <sup>j</sup>						
		유	/m/	/m <sup>j</sup> /			/n/	/n <sup>j</sup> /						
진동음	무					Л	Л <sup>j</sup>							
	유					/l/	/l <sup>j</sup> /							
전이음	무							р	р <sup>j</sup>					
	유							/r/	/r <sup>j</sup> /					
												й		
												/j/		

위에서 <표 1>과 <표 2>를 보면, 한국어의 자음체계와 러시아어의 파열음을 대조하여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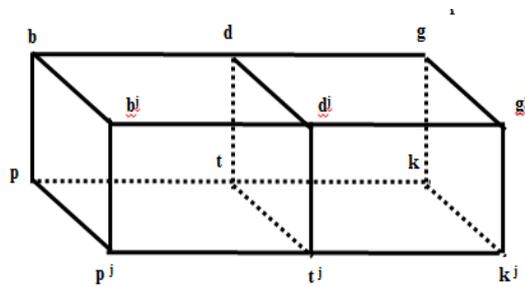
첫째, 조음 위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파열음 /ㅂ, ㄱ/은 조음 위치가 러시아어 /p, k/와 같다. 그러나 한국어 파열음 /ㄷ/은 치조(치경)에서 조음되지만, 러시아어 /t/는 치(이)에서 조음된다.

둘째, 한국어 파열음인 /ㅃ, ㄸ, ㅌ, ㄲ, ㅋ/과 대응되는 러시아어 자음이 없다. 한국어 평음인 /ㅂ, ㄷ, ㄱ/는 러시아어로 음소로 존재하는 П/p/, Т/t/, К/k/와 유사하지만, 음성적으로 러시아어의 [p], [t], [k]와 동질적이지 않다.

셋째, 한국어 파열음의 조직은 [긴장성]과 [유기성]의 두 상관쌍을 이루고, 이 두 상관은 무표계 열(평음)로 묶여서 3지적 상관쌍을 이룬다. 반면에 러시아어의 파열음은 [유무성], [구개성]으로 4지적 상관쌍을 이룬다. 한국어 파열음 조직과 러시아어 파열음 조직을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한국어 파열음 조직



<그림 2> 러시아어 파열음 조직

정리하면, 한국어 파열음과 러시아어 파열음의 차이점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서 목표어인 한국의 파열음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습득하는 일은 어렵고 어려운 만큼 오류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 2.2. 파열음의 음향적 단서에 대한 선행 연구

파열음은 기류가 완전히 막혔다가 터져 나오는 소리로 폐쇄음이라고도 한다. 이에 파열음의 조음과정은 폐쇄-지속-개방의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구강 안에서 혀나 아랫입술에 의해 폐쇄가 형성되고, 2단계의 지속은 파열음을 생성하기 위해 충분한 압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1단계 폐쇄를 유지하며, 3단계의 개방은 폐쇄가 지속되어 막혀 있던 공기가 방출되면서 소음이 있다. 이 소음은 성문상부(supraglottal) 성도에서 생성된 비주기 음원이다. 이 소음은 마찰음의 생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사하다. 하지만 마찰음의 소음은 지속성을 가지나 파열음의 소음은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파열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음향적 단서는 성대진동시작시간(Voice Onset Time, VOT)이다. 성대진동시작시간(VOT)은 음성 신호에서 파열 이후 첫 번째 주기성이 나타나는 시기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파열음은 파열이 생기기 전에 성대가 진동하기도 하고 파열 이후에 성대가 진동하기도 한다. 만일, 파열이 생기기 전에 성대가 진동하게 되면 -VOT 값을 갖는데 이를 lead VOT라고 한다. 반면에 파열 이후 성대가 진동하게 되면 +VOT 값을 갖게 되는데 이를 lag VOT

라고 한다. Keating(1984)는 언어들 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20-30ms 정도의 +VOT 값은 short lag VOT라고 하고 그 이상일 경우는 long lag VOT로 분류한다.

Lisker and Abramson(1964)는 대부분의 언어가 VOT 길이만으로 파열음을 구분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어의 파열음은 VOT 길이의 차이만으로 파열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Kim(1965)은 VOT가 평음과 경음 사이에서, 격음과 평음사이에서 겹쳐진다고 기술하면서 한국어 파열음 체계를 기술하는데 VOT만으로는 부족하고 긴장성 자질을 설정하여 구분하여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평음이 격음·경음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후행모음에서 나타나는 파형의 진폭과 주기, 폐쇄구간 동안 구강내 공기압이 상승하여 지속되는 시간, 파열시 나오는 기류의 세기 등을 들고 있다.

Han and Weitzman(1970)은 파열음을 구별하는 음향적 특성으로 VOT, 후행 모음의 기본주파수, 강도를 측정하여, VOT는 격음이 평음·경음과 구별되는 음향적 특성이 되나 경음과 평음을 구별하는 음향적 단서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기음과 경음 뒤에 나타나는 F0값이 평음 뒤에 나타나는 F0값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했지만 기음과 경음은 F0값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구분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에 강도의 상승 유형의 차이가 경음과 평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설명했다.

언어 보편적으로 고모음은 저모음보다 IF0 값이 크다. 자음에서는 무성음이 유성음보다 SF0값이 크다. 영어의 경우 CV 음절에서 모음의 F0 값은 앞 자음이 무성음일 경우가 유성음일 경우보다 크다(House and Fairbanks 1953, Lehiste and Peterson 1961, Umeda 1981). 그러나 CV 음절에서 자음 뒤 모음에 나타나는 F0의 상승과 하강에 대한 연구들 간에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내보이고 있다. 먼저 F0의 상승과 하강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즉 F0가 무성자음 뒤 모음의 발화 시작점부터 계속 작아지나, 유성자음 위에서는 올라간다고 주장한다(Lehiste and Peterson 1961, Haggard 외 1970, Gandour 1974, Hombert 1978, Lea 1980). 반면에 F0값에서 상승과 하강의 대립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선 자음의 성질과 상관없이 파열음 뒤의 굴곡은 하강하는데 일반적이다(Kohler 1982, Ohde 1984, Silverman 1986, 1987, Jang 2004) 전자처럼 F0의 곡선이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에 따라 굴곡이 생겨나는 것은 실험을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했거나 다른 운율적 요소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Jang 2004).

위의 내용을 토대로 언어 보편적으로 파열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음향적 단서는 VOT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파열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VOT뿐만 아니라 자음의 폐쇄구간(closure duration), F0도 같이 보아야 파열음을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한국어 파열음 조직과 러시아어 파열음 조직을 대조하여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파열음을 습득할 때 어려울 것임을 예측했다. 또한, 파열음을 연구하기 위한 음향적 단서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의 파열음은 VOT만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두에서는 VOT와 후행모음의 F0, 후행하는 모음의 강도(intensity)를 살펴보고, 어중에서는 폐쇄구간, VOT, 후행모음의 F0, 후행하는 모음의 강도를 살펴볼 것이다.

1) F0는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를 말한다. F0는 내재적 F0(intrinsic F0, IF0)와 분절음적 F0(segmental F0, SF0)로 나뉜다. IF0는 모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값으로 모음에 부여되는 값이고, 일반적으로 고모음이 저모음보다 IF0값이 크다. SF0는 분절음이 이웃하는 분절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음에 부여되는 F0값이다. 일반적으로 무성음의 SF0 값이 유성음의 SF0값보다 뒤따르는 모음의 F0를 높여준다. F0 표기는 모음에 관한 F0로 IF0를, 자음에 관한 F0로 SF0를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F0는 CV 음절 내에서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주는 SF0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과 원어민 한국어 화자의 파열음 발음을 비교하고 어두와 어중 환경에서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을 차이를 밝혀 어두와 어중의 파열음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파열음 교육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 3. 실험방법

#### 3.1. 실험 단어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과 원어민 한국어 화자의 파열음 발음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 실험 단어는 CV 음절로 구성했고, 환경을 어두와 어중으로 구분하였다. 어중 환경에서 선행모음과 후행모음은 한국어 모음 중에서 인접 자음에 가장 영향력을 덜 미치는 ‘ㅏ’ 모음을 선택하였다. 실험 단어는 총 18개이다. 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9) ㄱ. 어두 : 바, 파, 빠 ; 다, 타, 따 ; 가, 카, 까 (9개)
- ㄴ. 어중 : 아바, 아파, 아빠 ; 아다, 아타, 아따 ; 아가, 아카, 아까 (9개)

#### 3.2. 피실험자

피실험자는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10명과 원어민 한국어 화자 10명으로 총 20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러시아인 한국어교사는 경동대학교에서 개최한 2017년 러시아 한국어교수 및 교사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수에 참여한 사람으로, KFL 환경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와 대학교수들이다. 원어민 한국어 화자도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서울, 강원, 충북 등으로 대방언권에서 중부방언에 속하는 지역 출신의 화자들이다. 이 실험의 피실험자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러시아인 피실험자

번호	이름	성별	나이	근무처	출생지	학습기간	교육기간
1	RF1	여	39	우수리스크 사범대학교	연해주 우수리스크	21	16
2	RF2	여	44	태평양대 사범대학	사할린	25	5
3	RF3	여	38	극동연방대	블라디보스톡	21	16
4	RF4	여	37	아르쎈 11번 학교	하바로브스크	22	6
5	RF5	여	53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교	블라디보스톡	23	5
6	RF6	여	38	우수리스크 1번 김나지아	우크라이나 기예브	21	16
7	RF7	여	39	우수리스크 사범대학교	프리모르스키크라이	24	18
8	RF8	여	43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교	너워러시이스크	25	11
9	RF9	여	35	블라디보스톡 1번 김나지아	블라디보스톡	18	17
10	RF10	여	33	블라디보스톡 28번 김나지아	지따-46	16	4

<표 4> 한국인 피실험자

번호	이름	성별	나이	근무처	출생지
1	KF1	여	20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고성(강원)
2	KF2	여	20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수원(경기)
3	KF3	여	21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속초(강원)
4	KF4	여	21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충주(충북)
5	KF5	여	21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속초(강원)
6	KF6	여	22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광주(경기)
7	KF7	여	19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속초(강원)
8	KF8	여	20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속초(강원)
9	KF9	여	19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서울
10	KF10	여	21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학생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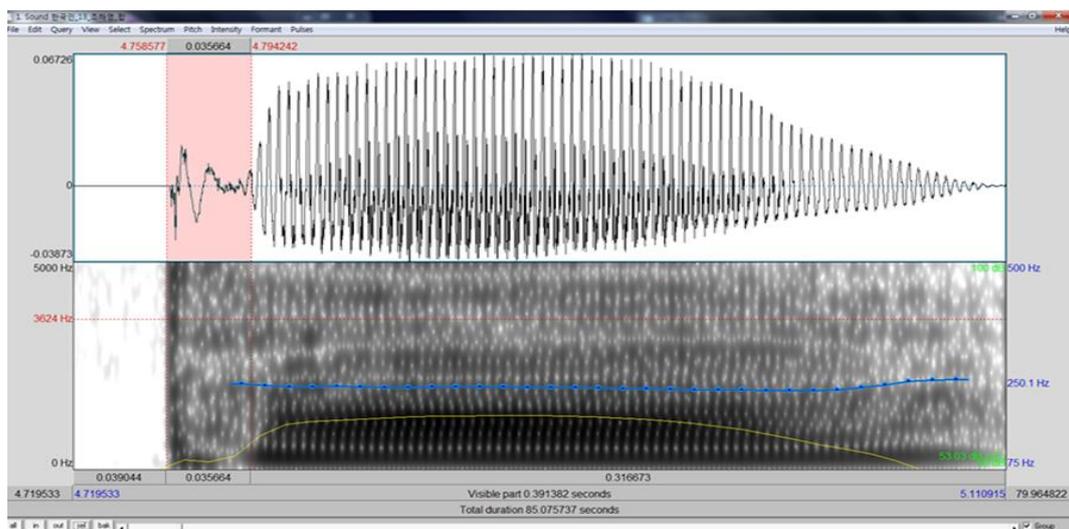
### 3.3. 녹음 방법

실험단어를 녹음할 때 사용한 녹음기는 TASCAM DR-680 DAT이고, 표본추출률은 44.100Hz로 하였다. 또한 마이크는 Shure KSM 44a/SL를 사용했다. 녹음은 조용한 연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녹음 시 피실험자들에게 실험 단어를 순차적으로 읽지 않고 임의의 순서로 읽도록 하였다. 녹음한 실험 자료를 16 bit로 양자화 해서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 3.4.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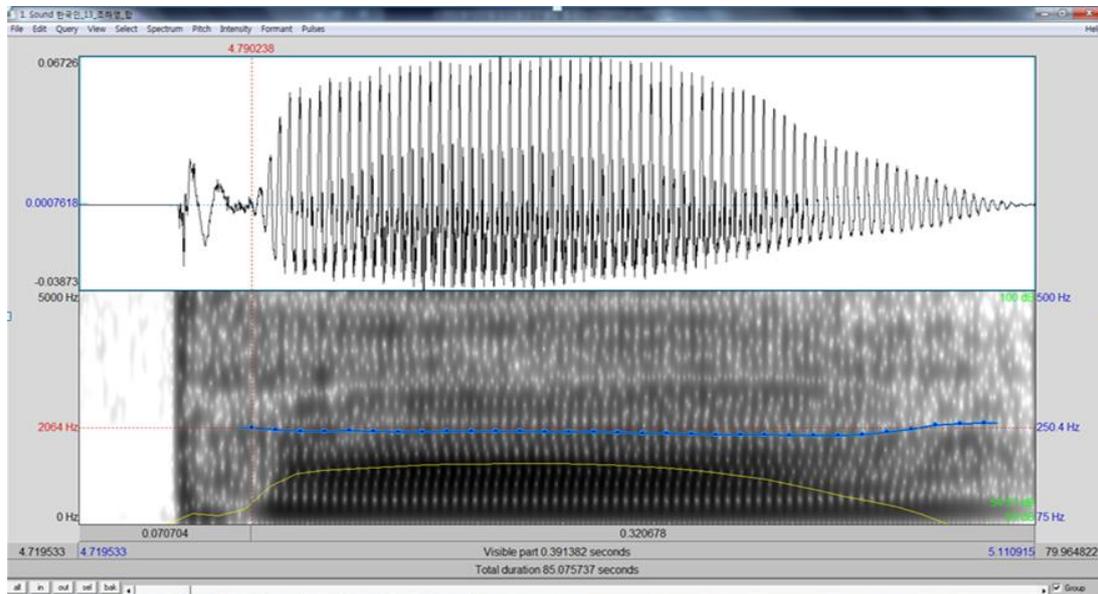
녹음한 실험단어를 분석할 때 사용한 도구는 praat 5.310를 사용하였다. 분석한 음향적 단서는 VOT, 후행모음의 F0, intensity, closure duration 등을 측정했다. 그 측정 방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먼저, VOT는 파열 시작 부분부터 성대진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구간을 측정했다. 파열음의 기식성 때문에 모음의 성대 진동 지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스펙트로그램과 파형을 연결시켜 측정하였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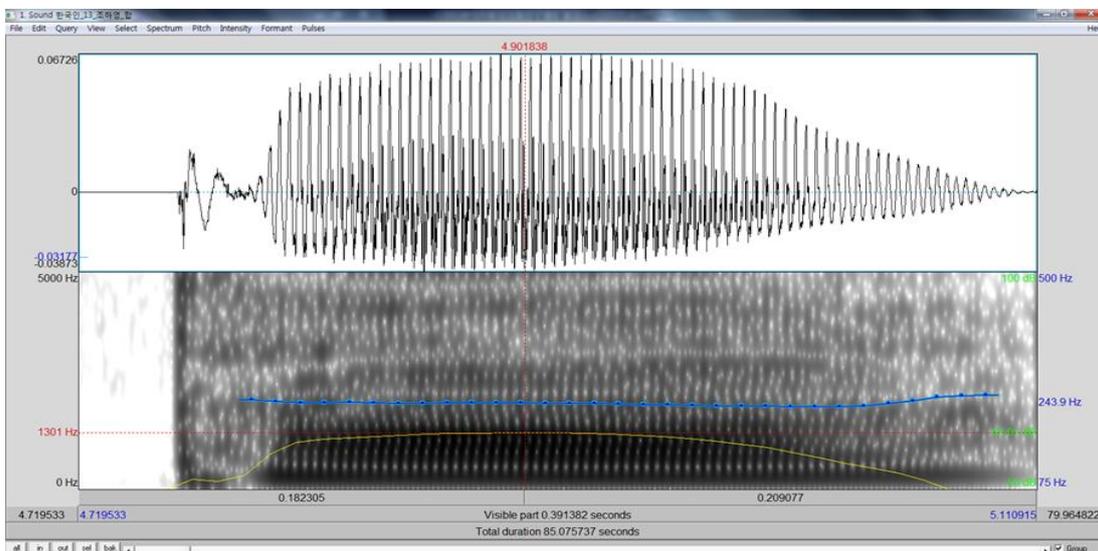
<그림 3> VOT 측정 방법

둘째, 후행모음의 F0은 자음이 끝나고 모음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F0을 측정하였다. 그 예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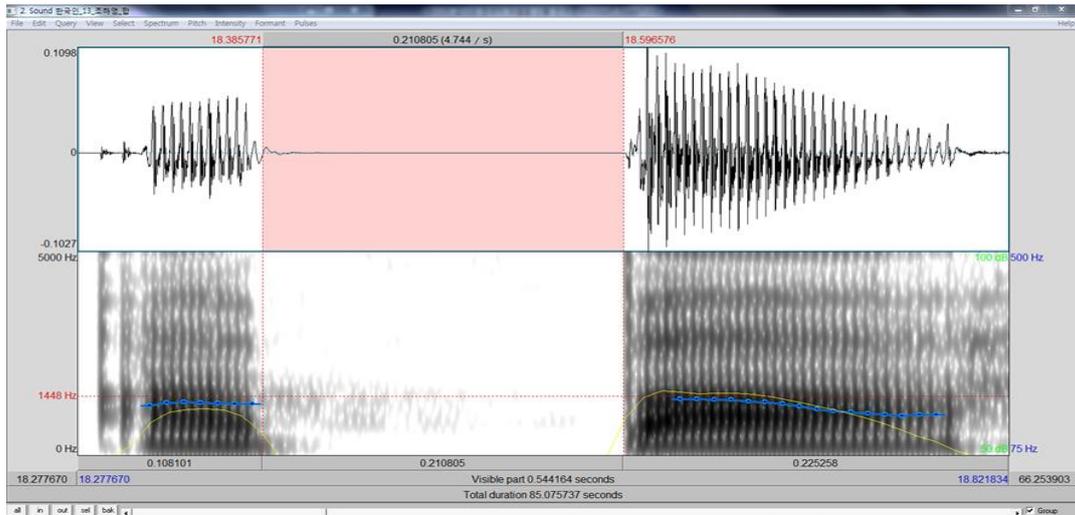
<그림 4> 후행모음의 F0 측정 방법

셋째, 후행모음의 강도(intensity)를 측정했다. 강도는 후행모음의 안정구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측정하였다. 그 예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 후행모음의 강도(intensity) 측정 방법

넷째, 어중의 파열음을 대상으로 폐쇄구간을 측정했다. 폐쇄구간은 선행모음이 끝나는 지점에서 파열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구간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그 예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 폐쇄구간 측정 방법

한편, 실험 단어의 음향적 단서를 측정된 후, 측정 결과는 통계 도구 IBM SPSS 24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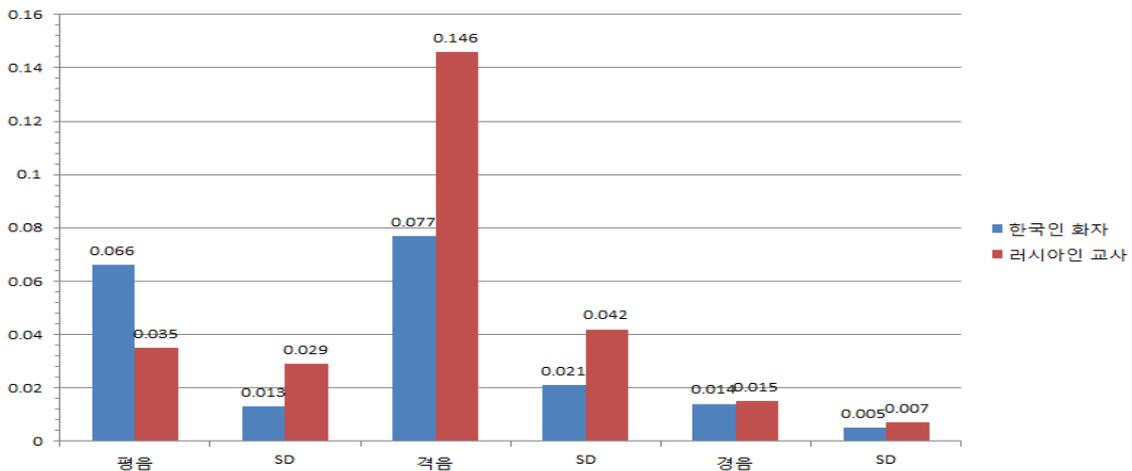
#### 4. 실험 결과 및 논의

##### 4.1. 어두 파열음 실험 결과

##### 4.1.1. 어두 파열음의 VOT

VOT는 파열음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향적 단서이므로, 이 연구에서도 파열 이후 성대가 진동하게 되면 +VOT 값을 갖게 되는 lag VOT를 측정했다.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단위(ms)



<그림 7> 어두 파열음의 VOT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림 7>을 보면, 어두 파열음의 VOT 평균값이 격음 > 평음 > 경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 교사가 다르지 않게 나오고 있다. 또한 배재연 외(1999), 이경희·정명숙(2000), 정운자(2010) 등의 결과와도 다르지 않다.

Kim(1965)은 VOT가 평음과 경음 사이에서, 격음과 평음사이에서 겹쳐진다고 기술하면서 한국어 파열음 체계를 설명할 때, VOT만으로는 부족하고 긴장성 자질을 설정하여 구분하여야 한다고 했다.

<표 5> 어두 파열음의 VOT 평균값과 최소·최대값

단위(ms)

구분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평음	한국인 화자	0.058	0.066	0.075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0.027	0.035	0.043
격음	한국인 화자	0.069	0.077	0.086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0.139	0.146	0.155
경음	한국인 화자	0.006	0.014	0.023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0.007	0.015	0.024

하지만, <표 5>에 제시한 CV 음절 발화에서 한국인 화자의 어두 파열음의 VOT 값을 보면, 평음과 경음 사이에서 VOT 값이 겹침이 나타나지 않으나, 평음과 격음 사이에서는 VOT 값의 겹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어두 파열음의 VOT 값을 보면, 평음과 경음 사이와 평음과 격음 사이에서 겹침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에서 특이한 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격음의 VOT 평균값이 한국인 화자의 그것보다 2배 더 길 뿐만 아니라 격음의 VOT의 범위가 평음과 격음의 그것보다 훨씬 상위하여 [기식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격음 발음은 모국어의 간섭과 격음을 평음과 경음과 구분하려고 하는 과도교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러시아어에서 유성 파열음(/b/, /d/, /g/)은 무성음화 하여 /p/, /t/, /k/ 등으로 실현되고, 한국어에서 파열음은 어말에서 내파음으로 실현되나 러시아어의 파열음은 어말에서 외파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평음 VOT가 한국인 화자의 그것보다 절반이 미칠 정도로 짧다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평음 VOT를 개별적으로 살핀 결과, 무려 10명 중 5명의 평음 VOT가 경음의 VOT처럼 짧았다.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어두 파열음의 VO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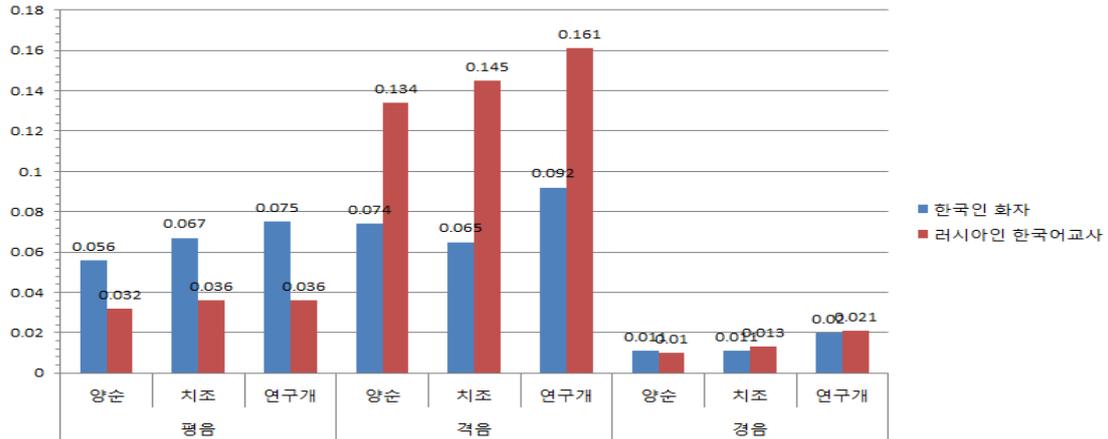
<표 6> 어두 파열음의 VOT 값 t-검정 결과

구분	한국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평음-격음	t(1, 29)=-3.514	p=0.001 (p<0.05)	t(1, 29)=-13.261	p=0.000 (p<0.05)
격음-경음	t(1, 29)=16.266	p=0.000 (p<0.05)	t(1, 29)=16.403	p=0.000 (p<0.05)
평음-경음	t(1, 29)=21.751	p=0.000 (p<0.05)	t(1, 29)=3.784	p=0.001 (p<0.05)

<표 6>의 검정 결과를 보면,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평음-격음, 격음-경음, 평음-경음 등의 상중 대립 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파열음의 VOT 값은 일반적으로 연구개음이 순음보다 길다고 알려져 있다(Hardcastle 1973, Maddieson 1997, Cho and Ladefoged 1999).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조음위치별 VOT를 정리하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단위(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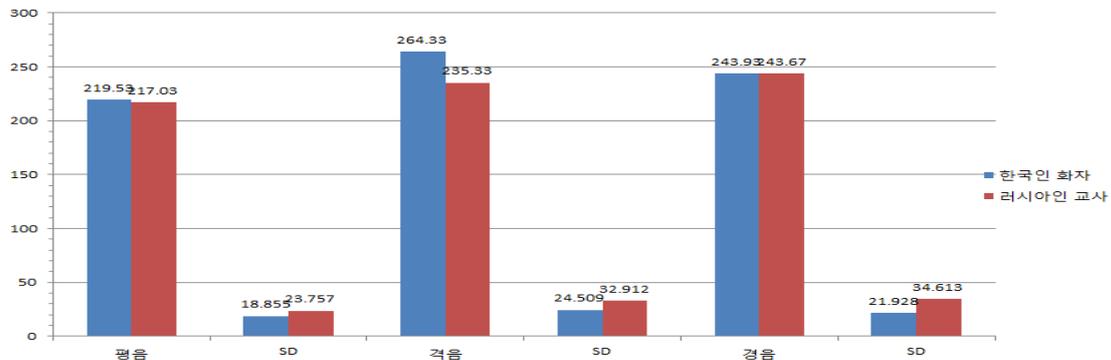
<그림 8> 조음위치별 어두 파열음의 VOT 평균값

<그림 8> 어두 파열음의 조음위치별 VOT의 평균값을 보면,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파열음 발음에서 연구개음의 VOT가 순음의 그것보다 길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 4.1.2. 어두 파열음의 후행모음의 음높이(F0)

F0도 파열음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향적 단서이다. 한국어의 파열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F0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F0는 CV 음절 내에서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주는 SF0를 측정된 것이다. 그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단위(Hz)



<그림 9> 어두 파열음 후행모음의 F0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림 9>의 어두 파열음에 뒤따르는 후행모음의 F0 평균값을 보면, 한국인 화자의 후행모음의 F0 평균값은 격음 > 경음 > 평음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후행모음의 F0 평균값은 경음 > 격음 > 평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어두 파열음의 후행모음의 F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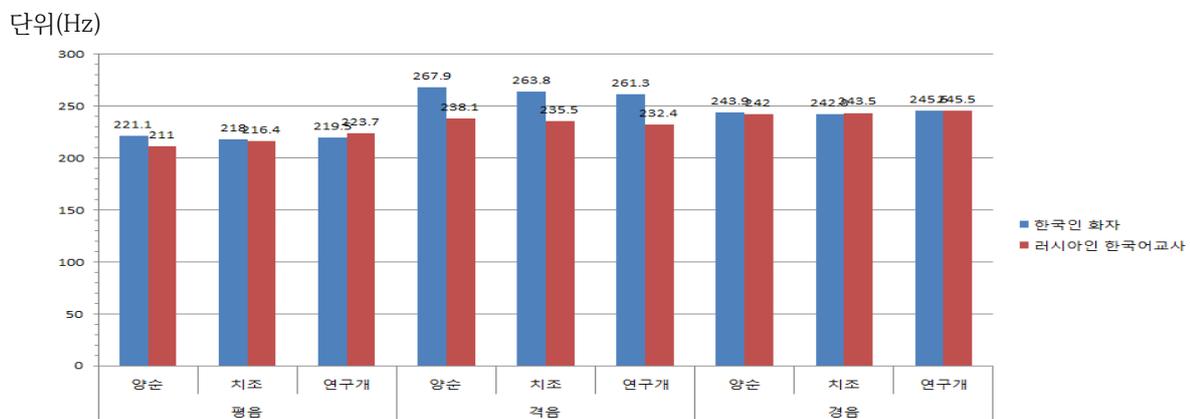
<표 7> 어두 파열음의 F0 값 t-검정 결과

구분	한국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평음-격음	t(1, 29)=-11.705	p=0.000 (p<0.05)	t(1, 29)=-3.881	p=0.001 (p<0.05)
격음-경음	t(1, 29)=6.014	p=0.000 (p<0.05)	t(1, 29)=-1.442	p=0.16 (p>0.05)
평음-경음	t(1, 29)=-7.188	p=0.000 (p<0.05)	t(1, 29)=-4.541	p=0.000 (p<0.05)

<표 7>의 한국인 화자의 후행모음의 F0 평균값은 평음-격음, 격음-경음, 평음-경음 모든 대응쌍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후행모음의 F0 평균값은 평음-격음과 평음-경음의 대응쌍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만 격음-경음의 대응쌍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Han and Weitzman(1970)은 격음과 경음 뒤에 나타나는 F0값이 평음 뒤에 나타나는 F0값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했지만 격음과 경음은 F0값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구분하기 힘들다고 했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실험의 결과는 Han and Weitzman(1970)의 결과와 비교할 때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한국인 화자의 발음에서 평음, 격음, 경음에 후행모음의 F0 평균값은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은 앞선 연구와 다르다. 반면에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에서 선행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교육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러시아어권 학습자에게 한국어 파열음을 지도할 때 격음과 경음 뒤에서 후행모음의 높이를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음위치에 따라 어두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값을 파악하고자 조음위치별 후행모음의 F0 평균값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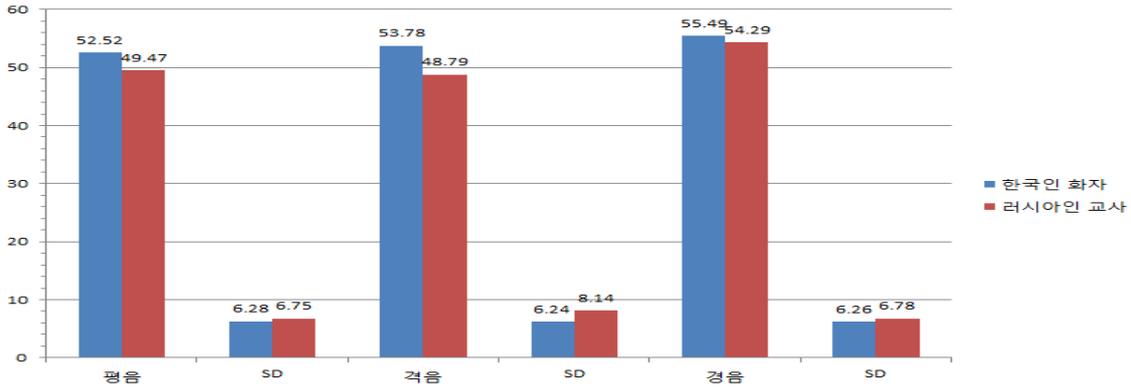


<그림 10> 조음위치별 후행모음의 F0 평균값

### 4.1.3. 어두 파열음의 후행모음 강도(db)

강도는 일반적으로 파열음을 분석하기 위한 음향적 단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도의 상승 유형의 차이가 경음과 평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설명했다(Han and Weitzman 1970). 이에 본 실험에서 파열음에 후행하는 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단위(db)



<그림 11> 어두 파열음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림 11>에서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강도를 보면, 한국인 화자의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경음 > 격음 > 평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경음 > 평음 > 격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어두 파열음의 후행모음의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어두 파열음 후행모음의 강도 값 t-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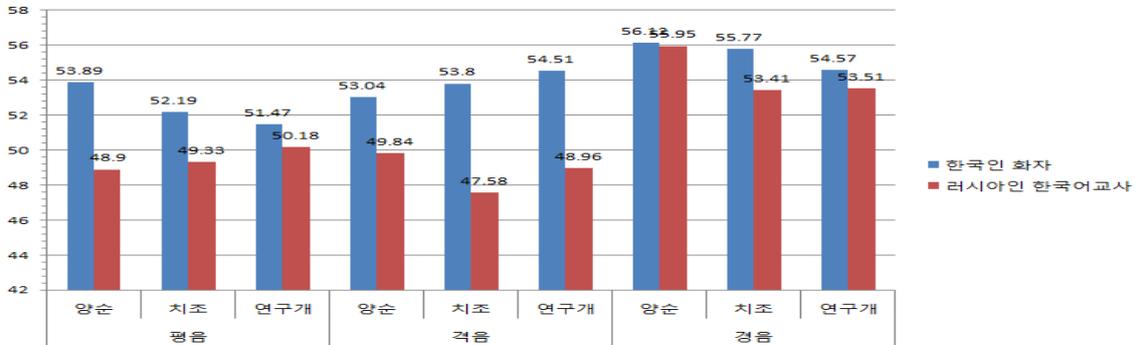
구분	한국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평음-격음	t(1, 29)=1.042	p=0.306 (p>0.05)	t(1, 29)=-1.774	p=0.087 (p>0.05)
격음-경음	t(1, 29)=-7.220	p=0.000 (p<0.05)	t(1, 29)=-2.72	p=0.011 (p<0.05)
평음-경음	t(1, 29)=-6.863	p=0.000 (p<0.05)	t(1, 29)=-3.742	p=0.001 (p<0.05)

<표 8>의 한국인 화자의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격음-경음, 평음-경음의 대응쌍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평음-격음의 대응쌍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Han and Weitzman 197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어두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강도가 평음과 경음을 구별하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권 한국어학습자에게 파열음을 가르칠 때 경음 > 격음 > 평음 순으로 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서 파열음의 구별학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조음위치에 따라 어두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강도 값을 파악하고자 조음위치별 후행 모음의 강도 값을 정리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12>와 같다.

단위(db)



<그림 12> 조음위치별 후행모음 강도의 평균값

<그림 12>를 보면,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파열음 발음에서 조음위치별 후행 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일관된 경향성이 발견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조음위치별 후행모음 강도의 경향성

구분		경향
평음	한국인 화자	양순 > 치조 > 연구개*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연구개 > 치조 > 양순
격음	한국인 화자	연구개 > 치조 > 양순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양순 > 연구개 > 치조**
경음	한국인 화자	양순 > 치조 > 연구개*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양순 > 연구개 > 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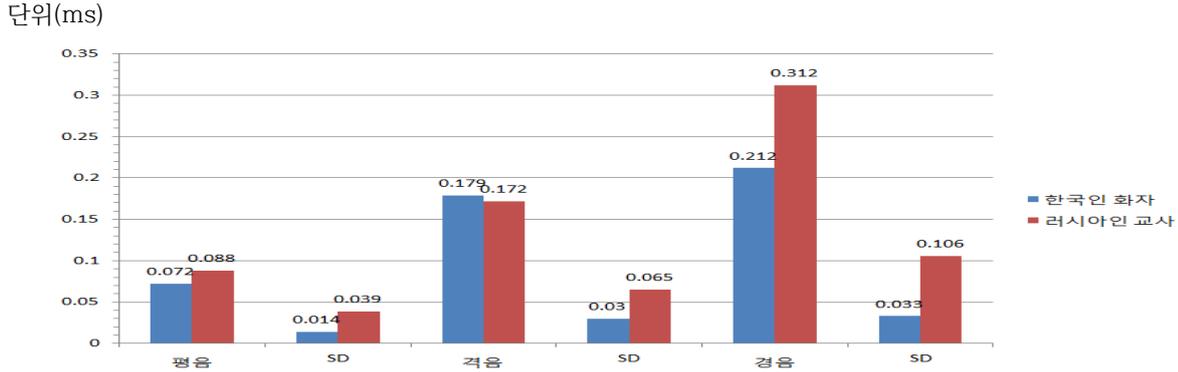
<표 9>를 보면 한국인 화자의 후행모음 강도의 평균값을 보면, 평음과 경음에서는 양순 > 치조 > 연구개 순으로 강도가 세지만, 격음에서는 평음과 경음의 강도 순서에 역순인 연구개 > 치조 > 양순으로 강도가 세다. 또한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후행모음 강도의 평균값을 보면, 격음과 경음에서는 양순 > 연구개 > 치조 순으로 세지만, 평음에서는 연구개 > 치조 > 양순 순으로 강도가 높다.

#### 4.2. 어중 파열음 실험 결과

파열음 /b, d, g/은 어중의 환경(VCV)에서 유성음화하여 무성 파열음 /p, t, k/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 어두에서 무성 파열음으로 실현되는 것과 달리 어중에서는 유성 파열음으로 실현되는바 어두와 어중의 음향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폐쇄구간 (closure duration, CD), VOT, 후행모음의 F0, 후행모음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 4.2.1. 어중 파열음의 폐쇄구간

파열음은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구강 안에 공기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폐쇄를 유지하여 순간적으로 파열시키는 조음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어중에서 파열음이 실현되면 조음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쇄구간(closure duration)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 폐쇄구간은 어중에서 파열음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음향학적 단서로 기능한다. 어중에서 폐쇄구간의 측정된 결과를 그래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3> 어중 파열음의 폐쇄구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림 13>을 보면,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폐쇄구간이 모두 경음 > 격음 > 평음 순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1965), Silva(1992), 배재연 외(1999), 이경희·정명숙(2000), 정윤자(2010)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러시아 한국어교사가 경음을 발음할 때 폐쇄구간의 길이가 0.312ms로 지나치게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 파열음을 교육할 때 학습자에게 적절한 폐쇄구간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폐쇄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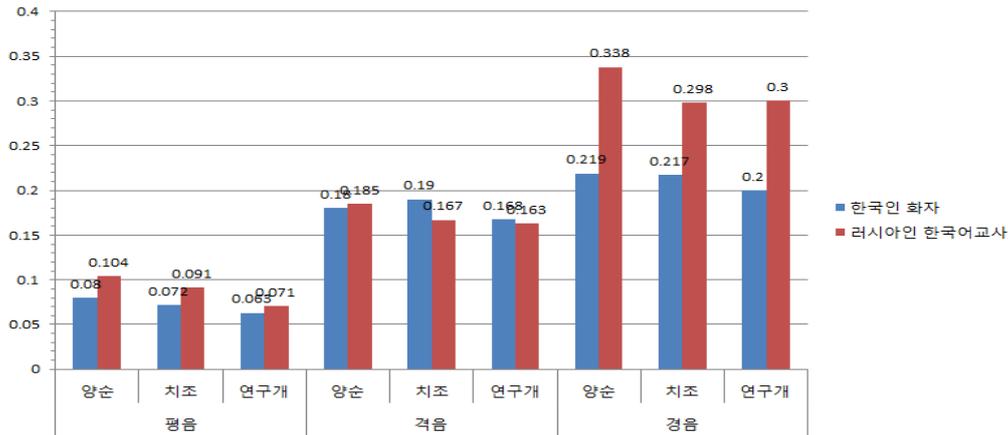
<표 10> 어중 파열음의 폐쇄구간 값 t-검정 결과

구분	한국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평음-격음	t(1, 29)=-22.077	p=0.000 (p<0.05)	t(1, 29)=-7.405	p=0.000 (p<0.05)
격음-경음	t(1, 29)=-7.412	p=0.000 (p<0.05)	t(1, 29)=-10.349	p=0.000 (p<0.05)
평음-경음	t(1, 29)=-24.507	p=0.000 (p<0.05)	t(1, 29)=-11.590	p=0.000 (p<0.05)

<표 10>의 통계 결과를 보면,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폐쇄구간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음위치에 따라 어중 파열음의 폐쇄구간의 값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4>와 같다.

단위(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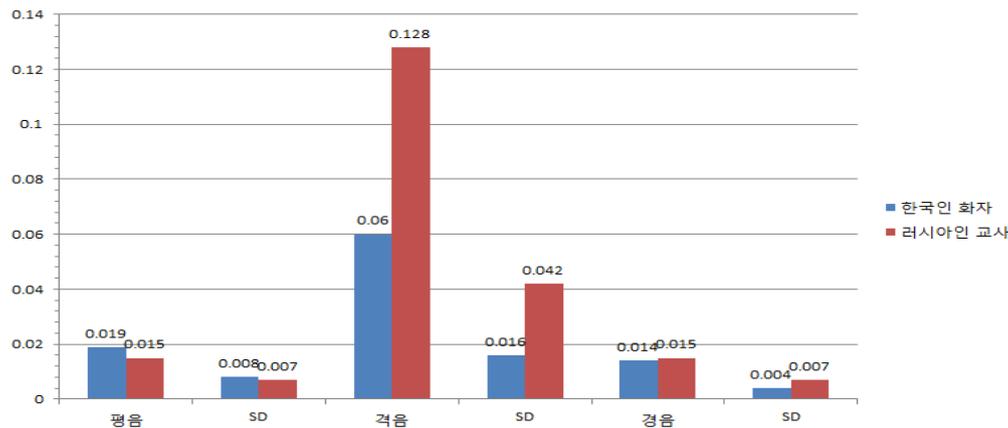
<그림 14> 조음위치별 폐쇄구분의 평균값

<그림 14>을 보면 연구개의 폐쇄구간 값이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의 폐쇄구간이 짧은 것은 다른 양순이나 치조에서 조음을 하기 위한 능동부(혀끝이나 아랫입술)의 움직임이 연구개에서 조음을 하기 위한 능동부(후설)의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재연 외(1999), 강지선(2015)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 4.2.2. 어중 파열음의 VOT

어중 VCV 환경에서 무성 파열음은 유성음화 하여 유성 파열음으로 실현된다. 언어 보편적으로 무성음의 VOT가 유성의 그것보다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Lisker and Abramson 1997). 어중(VCV) 환경에서도 파열 이후 성대가 진동하게 되면 +VOT 값을 갖게 되는 lag VOT를 측정했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15>와 같다.

단위(ms)



<그림 15> 어중 파열음의 VOT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림 15>를 보면, 어중에서 유성파열음의 VOT는 어두의 무성파열음의 그것과 상당히 짧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중 위치에서 평음의 VOT가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두 위치에서 평음은 기식성이 있는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반면에 어중 위치에서 평음은 기식성이 없는 무기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음과 경음은 어두와 어중 위치에서 일관되게 실현된다. 즉, 격음은 유기음으로 실현되고, 경음은 무기음으로 실현된다. 또한 어중 위치에서 파열음의 VOT는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에서 모두 격음 > 평음 > 경음 순으로 길게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한국어교사의 격음 VOT는 매우 길게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파열음을 교육할 때, 지나치게 센 기식성을 갖게 않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Kim(1965)은 VOT가 평음과 경음 사이에서, 격음과 평음사이에서 겹쳐진다고 기술하면서 한국어 파열음 체계를 설명할 때, VOT만으로는 부족하고 긴장성 자질을 설정하여 구분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어중 파열음의 VOT 값의 겹침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VOT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을 아래 <표 11>과 같이 정리했다.

<표 11> 어중 파열음의 VOT 평균값과 최소·최대값

단위(ms)

구분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평음	한국인 화자	0.017	0.019	0.023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0.006	0.015	0.025
격음	한국인 화자	0.057	0.06	0.063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0.119	0.128	0.138
경음	한국인 화자	0.012	0.014	0.018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0.006	0.015	0.024

<표 11>의 어중 파열음의 VOT를 보면, 격음의 VOT 실현 범위는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 모두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음과 경음의 VOT 실현 범위는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 모두 겹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두의 VOT 실현 범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인 화자의 어두 파열음의 VOT의 실현 범위는 평음과 격음 사이에서 겹침이 일어나고,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어두 파열음의 VOT의 실현 범위에서는 겹침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VOT만으로 한국어의 파열음을 분석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어중에서 파열음의 VOT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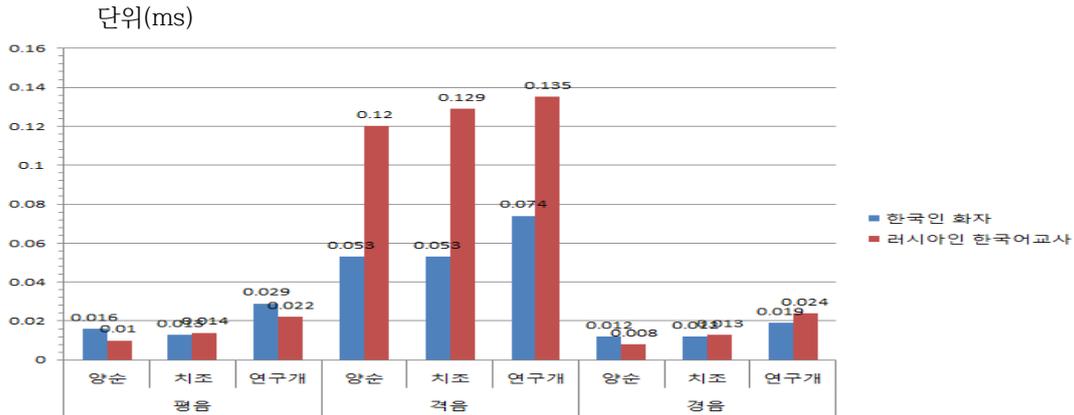
<표 12> 어중 파열음의 VOT 값 t-검정 결과

단위(ms)

구분	한국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평음-격음	t(1, 29)=-15.235	p=0.000 (p<0.05)	t(1, 29)=-15.028	p=0.000 (p<0.05)
격음-경음	t(1, 29)=16.123	p=0.000 (p<0.05)	t(1, 29)=15.062	p=0.000 (p<0.05)
평음-경음	t(1, 29)=5.101	p=0.000 (p<0.05)	t(1, 29)=0.109	p=0.914 (p>0.05)

<표 12>를 보면, 한국인 화자의 VOT는 모든 대응쌍(평음-격음, 격음-경음, 평음-경음)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VOT는 격음-경음과 평음-경음의 대응쌍에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만, 평음과 경음의 대응쌍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어중에서 파열음을 지도할 때, 평음과 경음의 VOT를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조음위치별 VOT를 정리해서 제시하면, 아래 <그림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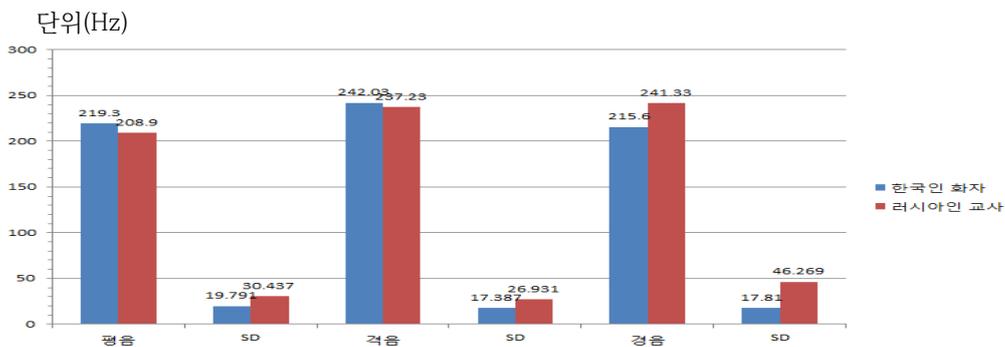


<그림 16> 조음위치별 VOT의 평균값

<그림 16>을 보면, 어중에서도 연구개의 VOT 평균값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파열음의 VOT 값은 일반적으로 연구개음이 순음보다 길다(Hardcastle 1973, Maddieson 1997, Cho and Ladefoged 1999)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다르지 않다.

#### 4.2.3. 어중 파열음 후행모음의 음높이(F0)

주지했다시피 F0는 한국어의 파열음을 분석하는 중요한 음향적 단서이다. Hombert(1978)은 무성음의 F0가 유성음의 F0보다 높다고 하였다. Han and Weitzman(1970)은 격음과 경음 뒤에 나타나는 F0값이 평음 뒤에 나타나는 F0값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했지만 격음과 경음은 F0값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구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어중에서 파열음의 음향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를 측정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어중 파열음의 후행모음 f0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림 17>을 보면, 어중에서 실현되는 파열음은 유성음이므로, 어중에서 실현되는 유성파열음에 뒤따르는 모음의 F0는 어두에 무성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더 높다(<그림-9> 참조). 다만, 어중에서 한국인 화자의 평음은 F0의 값이 비슷하다. 또한 어중에서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파열음 발음에서는 격음과 경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평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보다 더 크다. 반면에 한국인 화자의 발음에서는 격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평음과 경음보다 높게 실현되는 것은 같으나 평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경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 화자의 경우, 어중에서 파열음에 뒤따르는 모음의 F0는 격음 > 평음 > 경음 순으로 높게 실현되었고,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경우는 경음 > 격음 > 평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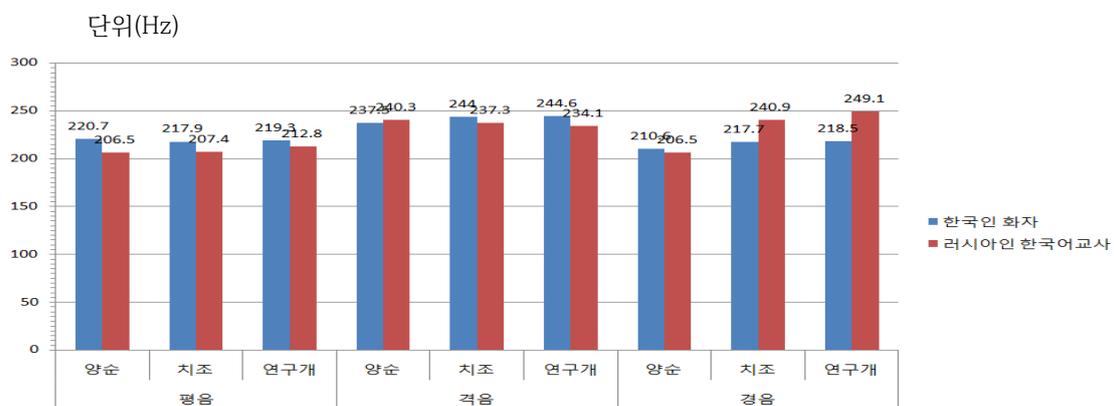
어중에서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어중 파열음의 후행모음 f0 값 t-검정 결과

구분	한국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평음-격음	t(1, 29)=-10.317	p=0.000 (p<0.05)	t(1, 29)=-6.944	p=0.000 (p<0.05)
격음-경음	t(1, 29)=8.874	p=0.000 (p<0.05)	t(1, 29)=-0.628	p=0.535 (p>0.05)
평음-경음	t(1, 29)=0.986	p=0.332 (p>0.05)	t(1, 29)=-6.136	p=0.000 (p<0.05)

<표 13>에서 한국인 화자의 발음에서 평음-격음, 격음-경음의 대응쌍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평음-경음의 대응쌍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반면에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화에서는 평음-격음과 평음-경음의 대응쌍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격음-경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격음과 경음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한 Han and Weitzman(1970)와는 다른 결과이다. 즉, 한국인 화자의 발음에서 평음과 격음의 F0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에서는 Han and Weitzman(1970)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조음위치별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값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아래 <그림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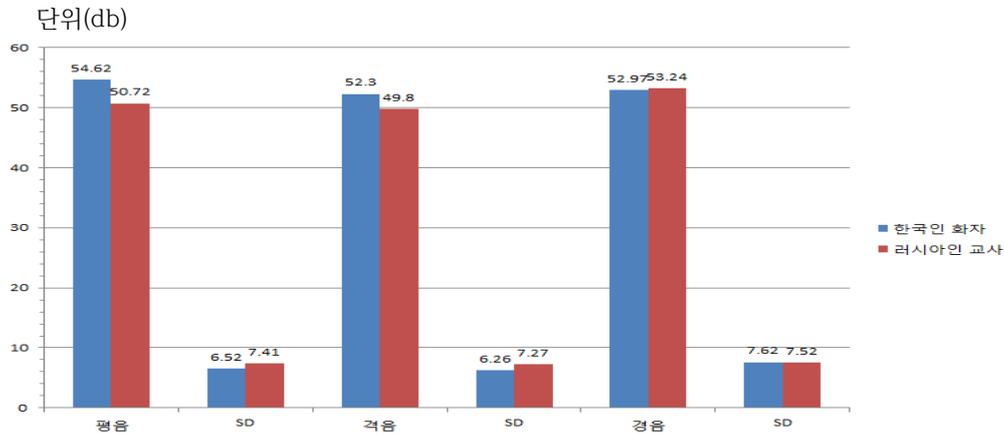


<그림 18> 조음위치별 후행모음 f0의 평균값

<그림 18>를 보면, 경음의 경우는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 모두에서 연구개 > 치조 > 양순 순으로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높게 나왔다. 하지만 격음의 경우에서는 한국인 화자의 발음에서는 연구개 · 치조 > 양순 순으로 후행모음의 F0가 높게 나왔으나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에서는 양순 > 연구개 · 치조 순으로 후행모음의 F0가 높게 나왔다. 또한 평음 경우에는 한국인 화자의 발음에서는 양순 > 연구개 > 치조 순으로 후행하는 모음의 F0가 높게 나왔고,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에서는 연구개 > 치조 > 양순 순으로 후행모음의 F0가 높게 나왔다. 특이점은 한국인 화자의 발음의 경우 평음의 양순 위치에서,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에서는 격음의 양순 위치에서 후행모음의 F0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 4.2.4. 어중 파열음 후행모음의 강도(db)

강도의 상승 유형의 차이가 경음과 평음을 구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파열음에 후행하는 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19>와 같다.



<그림 19> 어중 파열음의 후행모음 강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림 19>에서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강도를 보면, 한국인 화자의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경음 > 격음 > 평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경음 > 평음 > 격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두에서의 후행모음 강도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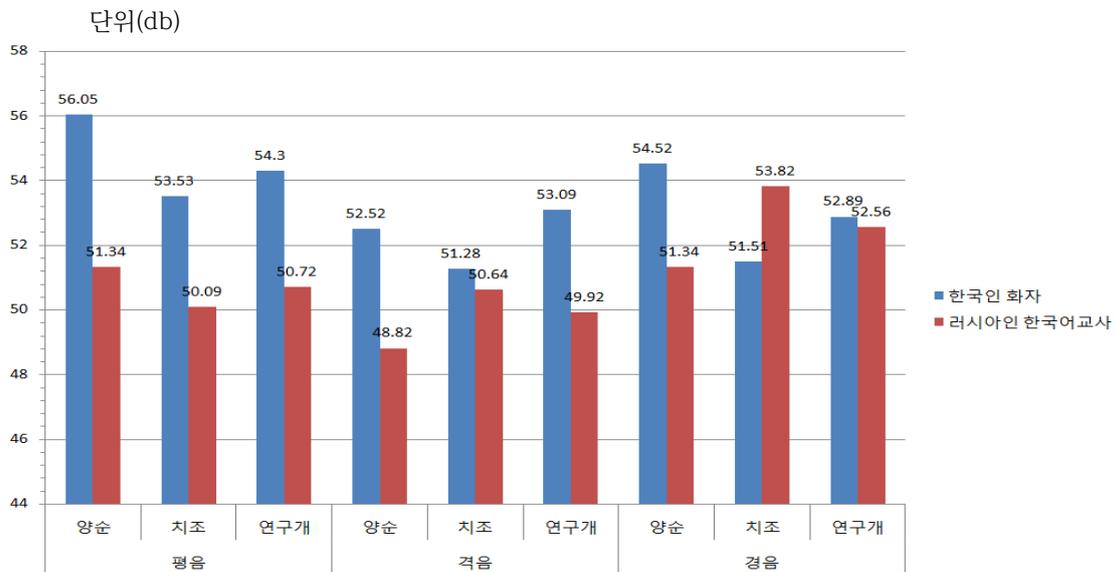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어두 파열음의 후행모음의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 14> 어중 파열음의 후행모음 강도 값 t-검정 결과

구분	한국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평음-격음	t(1, 29)=3.342	p=0.002 (p<0.05)	t(1, 29)=1.531	p=0.137 (p>0.05)
격음-경음	t(1, 29)=-0.817	p=0.421 (p>0.05)	t(1, 29)=-4.709	p=0.000 (p<0.05)
평음-경음	t(1, 29)=2.159	p=0.039 (p<0.05)	t(1, 29)=-4.417	p=0.000 (p<0.05)

<표 8>의 한국인 화자의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평음-격음, 평음-경음의 대응쌍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격음-경음의 대응쌍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반면에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격음-경음, 평음-경음의 대응쌍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평음-격음의 대응쌍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Han and Weitzman(197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어중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강도가 평음과 경음을 구별하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음위치에 따라 어두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강도 값을 파악하고자 조음위치별 후행모음의 강도 값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조음위치별 후행모음 강도의 평균값

<그림 20>을 보면,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파열음 발음에서 조음위치별 후행모음의 강도 평균값은 일관된 경향성이 발견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조음위치별 후행모음 강도의 경향성

구분		경향
평음	한국인 화자	양순 > 연구개 > 치조*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양순 > 연구개 > 치조
격음	한국인 화자	연구개 > 양순 > 치조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치조 > 연구개 > 양순
경음	한국인 화자	양순 > 연구개 > 치조*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연구개 > 치조 > 양순

<표 15>를 보면 한국인 화자의 후행모음 강도의 평균값을 보면, 평음과 경음에서는 양순 > 치조 > 연구개 순으로 강도가 세지만, 격음에서는 연구개 > 양순 > 치조로 후행모음의 강도가 세다. 또한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후행모음 강도의 평균값을 보면 어떤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다. 평음에서는 양순 > 연구개 > 치조 순으로 강도가 세고, 격음에서는 치조 > 연구개 > 양순 순으로 세며, 경음에서는 연구개 > 양순 > 치조 순으로 세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두와 어중 환경에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징<sup>2)</sup>

음향 특성	위치	발성 유형의 차이	
		한국인 화자	러시아인 한국어교사
VOT	어두	격음 > 평음 > 경음	격음 > 평음 > 경음
	어중	격음 > 평음 > 경음	격음 > 평음 > 경음
후행모음의 음높이(F0)	어두	격음 > 경음 > 평음	경음 ≥ 격음 > 평음
	어중	격음 > 평음 ≥ 경음	경음 ≥ 격음 > 평음
후행모음의 강도(db)	어두	경음 ≥ 격음 > 평음	경음 > 평음 ≥ 격음
	어중	경음 ≥ 격음 > 평음	경음 > 평음 ≥ 격음
폐쇄구간(CD)	어중	경음 > 격음 > 평음	경음 > 격음 > 평음

<표 16>을 보면, 어두와 어중에서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첫째, VOT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파열음의 VOT는 어두와 어중, 한국인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에 관계없이 모두 경음 > 격음 > 평음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어두에서는 무성파열음으로 실현되고, 어중에서는 유성파열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무성음의 VOT가 유성음의 VOT보다 길게 실현되므로 어두와 어중에서 파열음의 VOT는 동질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둘째, 후행모음의 음높이(F0) 측면에서 보면, 어중에서 파열음은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보편적으로 F0는 무성음의 F0가 유성음의 F0보다 높게 실현된다. 이에 어두에서 무성파열음의 F0가 어중에서 유성파열음의 F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실현되므로 어두와 어중의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은 음향적으로 동질적이라 하기 어렵다.

2) 이 표에서 사용한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4. 맺음말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을 분석하여 원어민 한국어 화자의 파열음 발음과 비교하여 어두와 어중의 파열음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파열음 교육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두와 어중에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징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파열음을 지도할 때 어두와 어중의 파열음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 화자와 러시아인 한국어 교사의 파열음을 비교·분석한 결과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할 때,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한다.

첫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격음 VOT 평균값이 어두와 어중에서 모두 한국인 화자의 그것보다 지나치게 길게 나타난다. 이는 모국어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러시아어에서는 어말의 유성음이 무성음화 한다. 이때 무성음화 한 파열음은 내파가 아닌 외파로 실현되어 한국어의 격음 /ㅍ, ㅌ, ㅋ/과 유사하다. 한국어 파열음을 지도할 때, 적절한 VOT 길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평음 VOT 평균값이 한국인 화자의 그것과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평음 발음에서 발음 오류가 발생했다. 즉, 경음의 VOT 값을 가지는 경우가 5명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평음 발음은 한국인에게 경음으로 들릴 것이다. 따라서 어두에서 평음을 발음할 때 경음으로 발음하는지를 확인하고 피드백해 주어야 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격음과 경음에 뒤따르는 후행모음의 F0가 평음에 뒤따르는 후행모음의 F0보다 높고, 격음과 경음에 뒤따르는 후행모음의 F0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구분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의 발음에서 격음, 경음, 평음 뒤에서 후행모음의 F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지만,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발음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파열음을 교육할 때 파열음에 따라 뒤따르는 후행모음의 음높이(F0)를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F0 값이 평음과 경음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음향적 단서로 기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실험결과는 한국어 화자의 발음에서 평음, 경음, 격음에 뒤따르는 후행모음의 강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파열음에 뒤따르는 후행모음 강도의 정도성을 구별하여 지도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한국어 화자의 파열음 발음에서 강도는 어두와 어중 모두 경음  $\geq$  격음  $>$  평음 순으로 나타나고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파열음 발음에서 강도는 경음  $>$  평음  $\geq$  격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파열음을 지도할 때 경음, 격음, 평음 순으로 강도가 세다는 것을 숙지시키고 강도의 정도성을 가지고 파열음 구분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빅토리아(2004),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김진원(1992), 노어와 국어 자음음소의 음성 음운적 대조, 『이중언어학』 9, 이중언어학회, pp 85-102.
- 김빅토리아(2004),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2004),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음운체계 및 음운현상의 대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김알라(2008),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창원대 석사학위논문.
- 변균혁(2007), 러시아어 경자음-연자음 대립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장애음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정명숙(1999),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파열음의 발음 및 인지 교육,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경희·정명숙(2000),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 『음성과학』 7-2, 한국음성학회.
- 정윤자(2010), 후행모음의 피치를 고려한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의 인지실험, 『우리말연구』 27, 우리말학회.
- Mozol Tatiana(2006),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한국어 분절 음소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 Lisker. (1971) "Voice Timing in Korean Stops." *Status Report on speech Research* 27.
- Han & Weitzman. (1967) "Acoustic Features in the Manner Differentiation of Korean Stop Consonants" *Studies in the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5.
- Han & Weitzman. (1970) "Acoustic Features of Korean /P, T, K/, /p, t, k/ and /ph, th, kh/" *Phonetica* 22.
- Han, Jeong-Im. (1996),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Tense and Plain Consonants in Korean*.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 Hankook Publisher.
- Jang, Tea-Yeoub. (2000) *Phonetics of segmental F0 and machine recognition of korean speech*, Ph. D. Dissertation, Univ. of Edinburgh.
- Kim, Chin-Woo. (1965) "On the Autonomy of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ord* 21.
- Lisker & Abramson. (1964) "A Cross-Language Study of Voicing Initial Stops : Acoustical Measurements", *Word* 21.

▣ 토 론

“러시아인 한국어교사의 한국어 파열음 산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주연(건국대)

※ 별 지 ※

#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계절 교수 방안

박철웅(한국외대)

## < 차례 >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이론적 배경
2. 본론
  - 2.1. 한국어와 태국어의 유형적 특성과 관계절 형성의 원리
  - 2.2. 관계절 교수법 선행연구
  - 2.3. 관계절 형성의 학습자 전략과 교수방안
3. 결론

## 1. 서론

### 1.1 연구목적

한국어와 태국어는 언어 유형적으로 다른 SOV형식과 SVO형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관계절의 연구는 언어 유형적으로 기본 어순과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로 다양하게 논의 되고있다.<sup>1)</sup>

언어보편적 관점에서 관계절 유형과 습득을 통한 교육은 이러한 어순의 유형에 따라 습득 순서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교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태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인 태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관계절 형성의 간섭 현상은 어떠한 원인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수법의 제시를 본고의 목표로 한다.

관계절의 유형론과 관련하여 Keenan&Comrie(1977)의 명사구 접근 가능 위계(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 NPAH)에 적용하여 태국어 학습자들이 관계화 문장을 형성 할 때 명사구 접근 위계에 부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가장 용이한 형태에서부터 가장 오류가 많은 형태에 따른 관계절 교수의 순서와 올바른 문법 항목의 제시를 함으로써 관계절 회피와 형태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수 방안으로 처리 교수(Processing Instruction:PI)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관계절은 관계관형절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관형절은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로 나뉘

1) 여기서 관계절은 관계관형절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관형절은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계절은 두 유형 중 관계관형절 연구로만 한정한다.

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계절은 두 유형 중 관계관형절 연구로만 한정한다.

## 1.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교수방안은 NPAH가설을 통한 관계절 습득 순서와 처리 교수를 통한 교수방안이다.

NPAH가설은 아래와 같은 일정한 함축적 위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한 언어에서 DO(직접목적어) 구조의 관계화가 가능하다면 그 언어는 위계 왼쪽에 자리하는 SU(주어)관계화가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며 OBL(전치사의 목적어)의 관계화가 가능하다면 SU, DO, IO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한다.

표-1)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NPAH(Keenan&Comrie, 1977,p. 66)

주어(SU) > 직접목적어(DO) > 간접 목적어(IO) > 전치사의 목적어(OBL) > 소유격(GEN) > 비교급의 목적어(OComp)

이에 학습자들의 NPAH에 따른 순서를 태국인 학습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순서를 달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관계절을 가르치는 순서에 부합되므로 NPAH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먼저 조사하였다.<sup>2)</sup>

교수 방안으로는 처리 교수방안(Vanpatten 1996)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처리교수는 입력처리 이론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잘못된 처리 전략을 바꾸는 구조화된 입력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습득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교수법으로 "학습자의 처리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해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형태-의미 연결을 더 잘 하도록 촉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Wong(2004)은 처리교수의 목표는 L2화자로 하여금 체계화 된 입력을 통해 그들이 형태-의미 연결에 사용해 왔던 일반적 전략을 버리게 함으로써, 풍부한 흡입을 이끌어 내도록 돕는 것이라 주장했다. 처리교수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언어적 구조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단계, 둘째, 특정한 입력처리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 셋째, 구조화된 입력을 통해 특정 구조나 형태를 처리하는 단계이다(VanPattern 2005)

본고에서는 이 세 단계를 각각 '명시적 설명', '처리전략', '구조화된 입력' 활동으로 명명하여 기술하겠다. 교수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

### 처리 교수의 단계

명시적설명 ⇒ 처리전략 제시 ⇒ 구조화된 입력 활동

npah를 통한 연구결과의 선행연구로 민명숙(2007)에서는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관계관형절 습득에 관한 연구로 핵의 위치 운용자의 이동 여부 및 시제 표현에 대한 언어간 유사점과

2) 한국어 관계절의 습득 난이도는 NPAH를 따른다는 주장(O'Geady 외 2003: SU>DO, Jeon&Kim, 2007: SU>DO>OBL 등)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에 따르는 다양한 언어권별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차이점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조사결과 문법 판단 정확률과 수정 정확률을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수준에서 주어 관계관형절 보다 직접 목적어 관계관형절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진후(2016)에서는 일본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관계절 이해 양상을 이해 영역 판단 실험의 정답률로 NPAH가설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주어 관계절과 직접 목적어 관계절 사이에는 특별한 선호로 나타나는 결과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전치사의 관계절만 주어관계절과 목적어의 관계절 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여 SU관계절=DO관계절>OBL관계절의 결과를 도출해 일부는 NPAH에 부합하고 일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NPAH가설은 언어의 유형별로 습득 순서가 다름을 나타내고 습득순서에 따른 교수방안 역시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한국어 관계절의 습득 난이도는 NPAH를 따른다는 주장(O'Geady 외 2003: SU>DO, Jeon&Kim, 2007: SU>DO>OBL 등)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에 따르는 다양한 언어권 별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 본론

### 2.1 한국어와 태국어의 유형적 특성과 관계절 형성의 원리

#### 1) 한국어의 유형적 특성과 관계절 형성

한국어는 SOV유형의 언어이고 핵어명사가 관계절의 뒤에서 위치하며 시제와 동사에 따라 관형형이 달라지는 형태를 가진다. 또한 한국어의 관계화 과정은 핵어 명사와 격조사가 함께 삭제되는 과정을 거친다. 관계절과 모문의 동일한 핵어 명사가 삭제된 후 용언에 관형사 형 어미가 결합하는 데 이 관형사형 어미는 한국어의 관계절 관계 표지에 해당하며 자립성이 없는 문법 형태로 아래 <표 1>과 같이 관계절과 핵어명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표 1>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구분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단순과거 완료	회상	추측	의지
동사	-는	(으)ㄴ	-던	-(으)ㄹ	(으)ㄹ
형용사	-(으)ㄴ	--			--

#### 2) 태국어의 유형적 특성과 관계절 형성

태국어는 SOV유형의 언어이고 핵어명사가 관계절의 앞에 위치하며 관계대명사가 존재하는 언어이다. 한국어와 대조적으로 시제와 동사에 따라 관계대명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구어체와 문어체로 존재하는 관계대명사 몇 가지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 꺄 '만을 사용하였다.

태국어의 명사구를 보면 태국어에서 명사구는 문장 안에서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고 핵명사는 선행한다.

- (1) หลัง ใหญ่
- (2) [rang yai]
- (3) 집 크다
- (4) 큰 집

태국어의 문장에서 핵명사는 항상 앞서서 나타나게 된다.

- (1) คน เกาหลี ส่วนมาก
- (2) [kon kaoli suanmak]
- (3) 사람 한국 대부분
- (4) 대부분의 한국사람

위의 한국어의 경우를 다시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태국어 문장이 생성된다.

- 예1) ㄱ. [학교에서 밥을 먹는] 남자 (SU)  
 ㄴ. 남자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 ㄴ'. 학교에서 밥을 먹는 남자가 그이다.  
 ㄴ. คน กิน ข้าว ใน โรงเรียน  
 [kon kin kau nai rongrian]  
 ㄴ' เขา เป็น คน ที่ กิน ข้าว ใน โรงเรียน  
 [kao pen kon thi kin kau nai rongrian]  
 그 이다 남자(양사) 관·대 먹다 밥 전치사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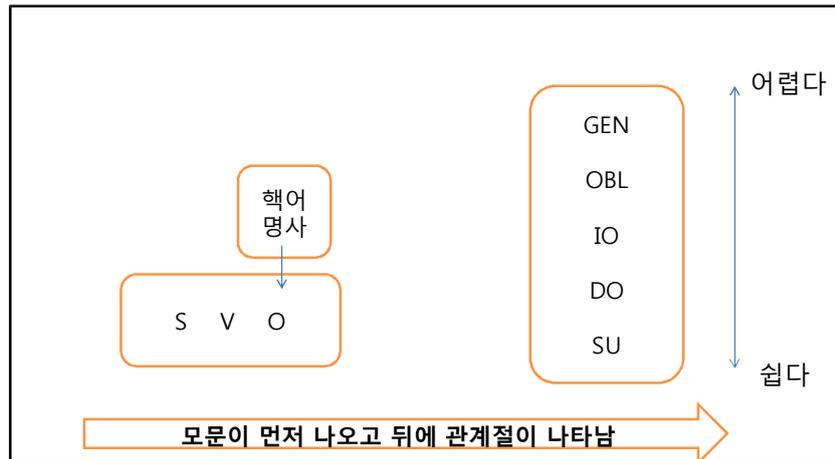
- 예2) ㄱ. [내가 어제 산] 연필 (DO)  
 ㄴ. 내가 어제 연필을 샀다. ⇒ ㄴ'. 내가 어제 산 연필은 비싸다.  
 ㄴ. ผม ได ซื้อ ดินสอ เมื่อวานนี้  
 [phom dai seuu dinsaw mueawanni]  
 ㄴ'. ดินสอ ที่ ผม ได ซื้อ เมื่อวานนี้ ราคาแพง  
 [dinsaw thi phom dai seuu mueawanni rakapang]  
 연필 관·대 나 과거조동사 사다 어제 비싸다

- 예3) ㄱ. [그가 살고 있는] 집 (OBL)  
 ㄴ. 그가 집에 살고 있다. ⇒ ㄴ'.나는 그가 살고 있는 집에 갔다.  
 ㄴ. เขา อาศัยอยู่ ที่ บ้าน  
 [kao aasaiyu thi ban]  
 그 살다 처소부사 집  
 ㄴ'. ฉัน ไป ที่ บ้าน ที่ เขา อาศัยอยู่<sup>3)</sup>  
 [chan pai thi ban thi kao aasaiyu]  
 나 가다 처소부사 집 관·대 그 살다

3) 태국어에서 간접 목적어의 범위는 포괄적이며 장소, 시간, 목표, 기점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일부는 한국어에서 '-에, -에게, -로'에 해당되는 문장성분을 지칭한다. 이러한 태국어의 문장성분은 한국어 문법에서 부사어로 처리하며 Gass(1980)에서 '태국어는 간접목적어 기능 아래에 위치하는 핵어명사의 문법화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이에 태국어 관계절을 나타낼 때 복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한 문장 안에 본문인 주절이 앞서 있고 주절 뒤에 관계대명사<sup>4)</sup>가 오게 되고 소형 속문인 종속절이 와서 이 본문의 일부를 수식하거나 융합, 서술하는 관계문장으로 태국어의 관계문은 앞의 핵명사를 뒤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sup>5)</sup>

### NPAH에 따른 태국어 관계화 순서와 난이도



그러나 위의 예상과 달리 관계절의 습득 순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목적어 관계절이 더 용이하게 나타났는데 박철웅(2017)의 경우 직접 목적어와 주어 관계화 문장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한선경(2016)에서 중급학습자의 경우 목적어 관계화 문장이 주어화 관계문장 보다 더 용이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언어적 유형에 따른 습득의 순서가 조금씩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어와 태국어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다른 언어로 분류가 되는데 한국어는 SOV유형의 언어이며 핵어명사가 뒤에 위치하는 언어로 수식어에 해당하는 관계절이 핵어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태국어는 SVO유형의 언어로 관계절의 핵어명사가 한국어와는 반대로 앞에 위치하며 관계절은 뒤에 위치한다.

태국어 역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관계화에 있어 관계절 내 핵어 명사를 삭제한다. 이처럼 태국어 역시 관계절 내에 핵어 명사를 삭제하고 관계대명사인 'ที่'를 사용하여 관계절 앞에 위치하며 관계절과 핵어명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시제나 상을 표현하지 않는다.<sup>6)</sup>

또한 태국어는 관계화가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목적어까지만 가능하다.<sup>7)</sup>

4) 관계절 표지로 태국어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데 'ที่, ๕๓, ๕๓'의 세 종류로 의미 차이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ที่'를 사용하여 관계절을 형성.

5) SUSAN M. BRAIDI .최숙희, 김양순 옮김(2001) P.P. 153참조, 김성수(2009) P.P. 80참조.

6) 태국어는 고립어로 시제와 상에 변화가 없는 언어로 시간부사와 완료를 나타내는 표지를 가지는 언어이다.

7) Gass(1980)에 따르면 태국어는 핵어명사 관계화 계층에 대해 간접 목적어 기능 아래에 위치하는 문법적 기능의 관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한국어와 태국어 및 타언어의 유형적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언어권 별 관계절의 유형적 특성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어순	SOV	SVO	SVO	SOV	SVO
전치사/후치사	후치사	전치사	전치사	후치사	전치사
관계절 전치/후치	관계절 전치	관계절 후치	관계절 전치	관계절 전치	관계절 후치
관계절 표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계대명사	的	X	관계대명사
외재 구문	O	O	O	O	O
내재 구문	O	X	X	O	X

유형적 차이를 통한 관계절 습득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L1의 차이에 의해 명사구 접근 위계가설에서 벗어난 결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김창구(2013)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어권 화자는 SU가 정확도가 높았지만 중국어권 화자들은 DO의 결과가 SU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DO의 결과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사구 접근성 위계의 결과와 완벽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모국어의 유형적 특성에 의해 관계절 난이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이전의 실험 결과 태국어도 마찬가지로 모국어의 유형적 특성에 의해 관계절 난이도가 SU-DO 순으로 나타나지 않고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DO의 결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sup>8)</sup>

## 2.2 관계절 교수법 선행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관계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오류와 시제 오류에 대한 연구와 제2언어 학습자의 관계절 습득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화 계층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연구로 임선영(2013), 다시 울찌울타스(2014), 전옥기(2014), 한선경(2016) 등에서 관계절 교수법의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다시 울찌울타스는 몽골 한국어 학습자가 나타내는 관계절 오류의 양상을 통해 관형사형 어미 교수 방안을 몽골어에 대응하는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제와 서법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옥기(2014) 초,중급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교육 방안으로 학습자들의 관형사형 혼용 오류를 통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선경(2016)은 태국내 기관에서 학습하는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관계절을 구조적 오류, 형태적 오류로 분류하여 구조주의 중심의 교수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고는 태국인 학습자들의 습득 순서를 명사구 접근성 위계 이론에 비추어 순서의 재조정과 처리 교수를 통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 박철웅(2016)의 실험결과 SU≒DO순, 한선경(2016)DO>SU순의 습득 순서를 나타냄.

## 2.3 관계절 형성의 학습자 전략과 교수방안

한선경(2016), 박철웅(2016)의 설문자료에 의하면 명사구 접근가능 계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중급에서 목적어>주어>부사어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주어-주어> 유형과 <목적어-주어> 형의 오류문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습자들은 이 두 유형을 선호 하였기 때문에 문두 위치 관계절을 선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한선경(2016)에 따르면 모어 전이 현상과 관련한 오류 중 구조적 오류가 형태적 오류 보다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9)</sup>

이에 중급 학습자의 경우 관계절을 학습하면서 이전에 배웠던 동사 형용사의 관계화 형태의 어미 제시 교수에서 목적어 관계절->주어 관계절->부사어 관계절의 순서로 교수를 해야 할 것이다.

### (1 단계)

동사-형용사에 따른 관형절 어미 교수 ⇒ 목적어 관계절 ⇒ 주어 관계절 ⇒ 부사어 관계절

중급에서는 관계절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발단 단계에 있는 항목을 처리하거나 습득하기 위해 이전의 발달 과정상에 있는 항목이 완전히 습득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조건이기 때문에 목적어 관계절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습득을 돕고 다음 단계인 주어 관계절을 제시하여 점진적으로 부사어 관계절을 모두 습득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처리 교수(Processing Instruction:PI)는 VanPatten&Cadierno(1993)에서 학습자의 잘못된 주의력과 처리 전략을 바꾸는 입력활동을 통해 목표 언어의 습득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처리 교수는 언어 구조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받는 명시적 '설명 단계'와 특정한 입력 처리 전략에 대한 정보를 받는 '처리 전략 제시' 단계, 특정 구조나 형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입력 활동'의 단계로 이루어진다.<sup>10)</sup>

### (2 단계)

#### 입력 처리 교수의 단계

명시적 설명=>처리 전략 제시=>구조화된 입력 활동

먼저 명시적 설명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설명을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9)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관계절을 가지고 다시 2개의 단문으로 나누게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음.

10) 여기서 '처리'는 형태와 의미, 기능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VansPatten 2003 참고).

<관계절 교수를 위한 명시적 설명>

**명시적 설명:** 관형사는 명사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어 관계절은 뒤에 있는 핵어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태국어와 다르게 겹치는 핵어명사가 '은/는/을/던'의 뒤에 있습니다.

**처리 전략 제시:** 다음 그림을 보고 두 문장에서 겹치는 명사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목적어 관계화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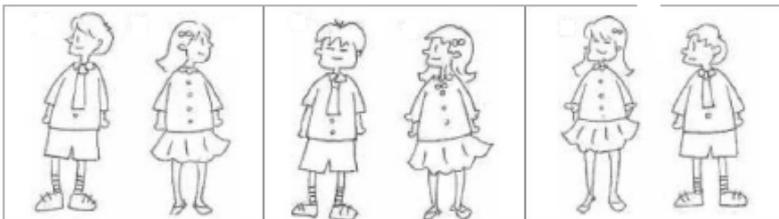
1. (1) 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 (2) 그 엄마는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은 엄마는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2. (1) 남자가 여자를 봐요.
- (2) 그 남자는 키가 작아요.

여자를 보는 남자가 키가 작아요. (주어 관계화)



남자를 보는 여자가 키가 큼니다.

**구조화된 입력 활동:** 관계절의 범위와 위치, 관계절이 핵어명사와 관계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활동- (1) 핵어명사 찾기, (2) 제시된 문장으로 올바른 관계문 선택하기 (3) 반대로 삭제된 동일 핵어명사 찾기

(1) 다음 문장에서 관형사가 사용된 부분에 밑줄을 긋고 핵어명사에 O하세요.

보기) 우리 하숙집에는 태국에서 온 유학생이 많아요.

연습활동) 1, 2, 3

(2) 위에서 배운 표현에 맞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꾼 것을 고르세요.

마이클이 책을 빌렸습니다. + 나는 그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 ① 나는 잃어버린 책을 마이클이 빌렸습니다.(모국어 동치형) 11)
- ② 나는 마이클이 빌린 책을 잃어버렸습니다.(정문)
- ③ 그 책은 마이클이 잃어버린 나는 빌렸습니다.(오류문)

연습활동) 1, 2, 3

(3) 하나로 연결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보세요.

<보기> 나는 (한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 ) 한국에서 왔어요.	나는 그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 한국에서 왔어요.	나는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연습) 1, 2, 3 관계절 형태를 부사어, 주어, 목적어 순으로 배열 12)

### 3. 결론

한국어 교육에서 관계절 교육은 영어와 달리 별도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절(Clause)이라는 의미에서의 접근이 아닌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형태 활용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서울대 교재와 서강대 등 범용 교재에서 제시되는 관계절 형태는 "V-는 N", "A-ㄴ/은 N", "V-(으)ㄴ N"의 형태로 시제와 함께 초급에서 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태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모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간섭으로 인해 학습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태국어 학습자는 핵어명사의 의미를 꾸며주는 절을 형성하는 것 보다 동사나 형용사, 시제에 관련해 정확하게 관형형 어미를 사용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게 됨으로써 모국어 동치형 오류나 형태적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

태국어의 관계 대명사는 관계절 표지인 관계대명사가 존재하는 언어이고 핵어 선행구조 이기 때문에 한국어 관계절 문장구조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관계절 표지인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문장 성분과 시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적 한국어 교육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과거, 미래가 함께 제시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관형

11) 모국어 동치형의 오류를 나타낼 경우 의미에 대한 오류 가능성으로 그림을 통한 반복 연습을 통해 의미의 이해가 이루어지게 한다.  
 12) 부사어 관계절을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나타냄으로써 앞서 연습한 목적어, 주어 관계절도 마찬가지로 관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장 안에서 핵어 명사의 기능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유도 할 수 있다.

사형 전성어미를 제시할 때 학습자들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수방안으로 위계화에 따른 유형별 제시와 처리 교수법을 통한 이해 중심 교수를 접목시키고자 했다.

이에 태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한국어 관계절의 올바른 개념의 형성과 이해가 향상될 것이다.

본고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에 대한 명사구 접근 위계화에 따른 위계와 처리 교수에 의한 실제 교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관계절은 복잡성 때문에 여전히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항목으로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제외된 관계절의 시제에 따라 나타나는 관계절 오류도 많이 양상이 되지만 태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계절의 형성 원리 이해와 습득 과정에 따른 교수 방안의 제시로 타 언어권과 분리될 수 있는 태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차후 연구로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시 하여 기존의 방식에서 나타난 결과와 본고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한 수업의 결과를 나누어 조사할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 ■ 참고 문헌

- 강현화(2006),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연구. 18. 국어교육학회
- 김부자(2006), 핵 후행언어 학습자의 영어 관계절 구문 습득에 대한 연구. 영어 영문학연구
- 김성수(2009), 유형적 보편성을 통해 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사용 양상연구, 계명대학교
- 김진후(2016), 일본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관계절 습득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구(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계절 습득연구. 부경대학교
-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다짜 울타스(2014) 오류 분석을 통한 몽골어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교수방안 연구. 경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명숙(2010),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관계관형절 습득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철웅(2016),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사용연구, 이중언어학회, 34차 추계 발표문집
- 이진경(2006),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동희(2010), 처리교수가 한국어 과거시제 습득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전육기(2014),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교육방안: 초중급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환승(1998), 태국어 명사구 위치에 관한 연구, 제6회 한국태국학회 연례 학술발표회
- 한선경(2016),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계절 습득 연구", 부산외국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raidi, S. M.(1999), The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Syntax, Arnold Publisher.(최숙희, 김양순역(2001), 제 2언어 통사론 습득, 동인)
- Gass, S. M(1980) An investigation of syntactic transfer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ers. In Scarella R. C. and Krashen S. d. (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Keenan&Comrie(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 Prajuap Yinsen(2000), 한국어와 태국어의 문장구조 대조분석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논문
- Vanpatten.B.(1996) Input Processing and Grammar Instruction: Theory and Research,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Vanpatten.B.(2003) Input Process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B. Vanpatten (Ed.), Processing Instruction Theory and Research Commentary, Routledge.
- Wong, w. (2004a) The nature of processing instruction. In B. VanPatten(Ed.), Processing instruction: Theory, research and Commentary

## ▣ 토 론

###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계절 교수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철재(국방어학원)

한국어와 태국어는 성조의 유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위치, 용언의 활용 여부뿐만 아니라 음운, 형태, 통사적인 면에서도 매우 상이하고 어족의 갈래에서도 상이한 언어이다. 박철웅 선생님은 한국어와 상이한 모국어를 가진 태국인이 한국어 관계절(관형절)을 만들 때 생기는 오류로 관계절의 난이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수 순서를 제시해 주셔서 태국인을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박철웅 선생님은 태국인의 관계절 습득에서 만드는 오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모국어의 영향을 들면서 관계절 표지가 단어가 아닌 활용 어미인 점과 관형사형 학습에 관계절까지 확장시키는 점 등이 태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오류의 원인을 더 다양하게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관계절 표지의 유무나 관형형 어미의 시제에 따른 형태 변화, 용언의 종류에 따른 어미 선택, 단순한 어순의 차이, 문장에서 주어와 같은 요소의 생략, 정확한 발음에 쏟는 신경이 너무 과한 점, 모국어보다 전체적인 문장의 길이가 긴 점 등의 원인을 함께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태국어와 동일한 어순 즉 SVO 어순에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후치하는 언어가 모국어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도 조사해 보면 좋을 듯싶다. 이러한 언어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이다. 이러한 모국어를 가진 학습자들을 함께 연구하면 오류의 패턴과 오류의 원인 분석에서도 하나의 수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인이 영어 관계절을 학습할 때 많이 나오는 오류가 명사구 접근 가능 위계에 의한 난이도도 있지만 주어와 동사의 성, 수 일치 문제, 전치사 분리 관계절 문제인 걸 보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항목일 것이고 결국 낯선 것이라는 것은 모국어와 다르다는 것이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삽입되는 관계절이 길수록 발생하는 오류도 많아지는 것은 다르다의 문제만으로 국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